

가족형성의 지역적 조건과 초저출산에 대한 함의

최선영
유현미·김이선·주하나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들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 연구진

연구책임자	최선영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공동연구진	유현미 김이선 주하나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강사 강원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원

연구보고서 2025-34

가족형성의 지역적 조건과 초저출산에 대한 함의

발행일 2025년 12월
발행인 신영석
발행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주소 [30147]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1~5층)
전화 대표전화: 044)287-8000
홈페이지 <http://www.kihasa.re.kr>
등록 1999년 4월 27일(제2015-000007호)
인쇄처 고려씨엔피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5
ISBN 979-11-7252-109-7 [93330]
<https://doi.org/10.23060/kihasa.a.2025.34>

발|간|사

이 연구는 전국 및 지역 수준에서 결혼과 출산의 감소가 지속되고 비수도권 청년의 지역이탈이 심화되는 가운데 기획되었다. 그동안 지역의 인구문제를 다룬 연구들은 많았지만, 지역 정주 청년의 가족형성을 당사자들의 경험과 인식, 가치와 태도를 통해 연구한 경우는 많지 않았다. 최근 세대 청년들의 인식과 가치관이 가족형성은 물론 생애과정 전반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보고를 고려할 때, 지역 청년의 이야기를 담은 연구보고서는 매우 가치가 있다. 특히 이 연구는 그동안 저출산대응을 위한 정책 연구에서 강조되어 온 고용, 소득, 주거 등 직접적인 요인을 넘어, 지역사회라는 구조적 제약조건과 젠더 격차 등의 중범위적 제약요인을 드러냈으며, 제약된 기회구조에서 안정성과 친밀성을 얻고자 하는 청년들의 욕구가 가족형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보여주었다.

이 연구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최선영 부연구위원의 책임하에 수행되었으며,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유현미 박사, 강원대학교 김이선 교수가 공동연구진으로 참여했고, 본원의 주하나 연구원이 연구를 도왔다. 한국학중앙연구원 김철식 교수와 본원의 김희성 연구위원은 보고서의 구성과 연구내용에 아낌없는 조언으로 큰 도움을 주었다.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익명의 검독위원들을 비롯하여 보고서 발간과정에 애써주신 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이 연구는 기꺼이 자신들의 경험과 생각을 연구진들과 공유해준 심층면접 참여자들이 없었다면 이루어질 수 없었다. 면접참여자들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린다. 끝으로, 이 연구에 수록된 모든 내용

은 연구자 개인의 의견이며,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
님을 밝힌다.

2025년 12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신 영 석



목 차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요 약	1
제1장 서론	5
제1절 연구배경과 목적	7
제2절 문헌검토 및 분석틀	10
제3절 연구 방법	25
제2장 울산의 지역 기회구조와 가족형성 사례 연구	33
제1절 울산의 인구·고용 현황과 청년	35
제2절 지역 기회구조 인식과 대응 형태	44
제3절 성별화 기제로서 울산 노동시장 경험	60
제4절 가족형성 전망과 실천	70
제5절 소결	88
제3장 대전의 지역 기회구조와 가족형성 사례 연구	91
제1절 대전의 인구·고용 현황과 청년	93
제2절 지역 정주 환경 인식	101
제3절 지역 노동시장 인식과 대응	108
제4절 가족형성 전망과 실천	121
제5절 소결	137



제4장 광주의 지역 기회구조와 가족형성 사례연구	141
제1절 광주의 인구·고용 현황과 청년	143
제2절 지역 기회구조 인식과 대응 형태	157
제3절 지역 노동시장에 대한 대처 방법들	170
제4절 가족형성 전망과 실천	181
제5절 소결	196
제5장 결론	199
제1절 연구의 요약	201
제2절 연구의 함의와 한계	203
참고문헌	211
부록	221
Abstract	231

표 목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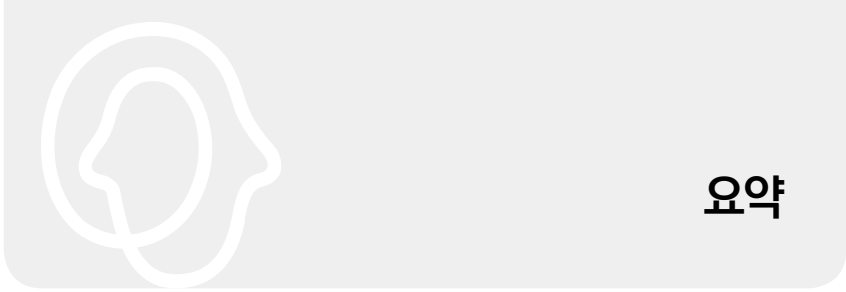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표 1-1〉 지역별 심층면접 참여자의 특성(종합)	29
〈표 2-1〉 울산 행정구역별 내국인, 외국인, 청년인구 현황(2024)	36
〈표 2-2〉 울산의 성별 연령별 고용률(2024년 상반기)	42
〈표 2-3〉 울산과 전국의 20~39세 취업자 직종 분포(2024년 상반기)	43
〈표 3-1〉 세부 연령집단별 순이동률(2010, 2015, 2020, 2024)	95
〈표 3-2〉 청년 세부 연령 범주별 성비(2024)	95
〈표 3-3〉 기업규모 및 성별 임금 격차: 서울-대전 비교(39세 이하 청년)	99
〈표 3-4〉 교육수준 및 성별 임금 격차: 서울-대전 비교(39세 이하 청년)	100
〈표 3-5〉 아파트 주택매매가격 지수(2019~2024)	104
〈표 3-6〉 지역별 취업자 기업규모별 남성비율	115
〈표 4-1〉 광주 지역의 산업구조: 지역총부가가치의 요소별 구성(2022)	149
〈표 4-2〉 지역별 취업자의 업종 분포(2023)	150
〈표 4-3〉 전국 및 특별·광역시 사업체의 규모별 종사자 분포, 전체 산업과 제조업(2023)	151
〈표 4-4〉 성별 연령별 고용률: 광주와 전국, 서울 비교	152
〈표 4-5〉 20~39세 취업자 직종 분포(2024년 상반기)	153
〈표 4-6〉 남성의 시도별 20~39세 취업자 직종 분포(2024년 상반기)	153
〈표 4-7〉 여성의 시도별 20~39세 취업자 직종 분포(2024년 상반기)	153
〈표 4-8〉 남성(39세 이하)의 교육수준에 따른 지역별 기업규모별 임금 격차	154
〈표 4-9〉 여성(39세 이하)의 교육수준에 따른 지역별 기업규모별 임금 격차	155

그림 목차

[그림 2-1] 울산의 지리적 위치와 행정구역	36
[그림 2-2] 울산 청년층의 지역간 전입-전출 격차 추이	37
[그림 2-3] 지역별 연령별 성별 임금격차	44
[그림 2-4] 지역별 25~34세 미혼청년의 부모동거비율	54
[그림 2-5] 지역별 25~34세 미혼청년의 1인가구 비율	54
[그림 2-6] 울산 여성의 연령별 자녀연령별 고용률(2024년 상반기)	80
[그림 3-1] 대전 총인구수와 19~34세 인구 비율(2015~2024)	94
[그림 4-1] 광주광역시 5개 구와 주변지역	144
[그림 4-2] 광주 인구수 추이(2000~2024)	146
[그림 4-3] 광주 지역 인구변동에서 자연증감과 사회증감	146
[그림 4-4] 청년(19~34세)의 순이동 추이: 서울, 광주(2005~2024)	147
[그림 4-5] 지역별 연령별 성별 임금격차	156
[그림 4-6] 광주 미혼청년(25~34세)의 부모동거율과 1인가구율 추세	162



요약

이 연구는 비수도권 지역에 정주하는 청년들이 제한된 기회구조 내에서 경제적 자립과 가족형성에 대한 전망을 어떻게 구성하는지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비수도권 대도시라는 공통점을 지니면서도 산업구조 및 노동시장 구조, 수도권과의 관계 등에서는 차이를 보이는 울산, 대전, 광주를 사례 지역으로 선정하였다. 각 지역의 인구 및 산업, 고용 통계자료를 통해 각 도시의 사회경제적 구조와 청년의 고용구조를 파악하고, 20~30대 청년 남녀에 대한 심층면접 자료를 바탕으로 이들의 가족 경험과 인식, 전망을 분석하였다.

저출산과 비수도권 청년의 지역이탈 확대 경향에서 추론할 수 있듯이, 비수도권 지역 노동시장의 규모, 일자리 유형, 보상수준 등에서의 제약은 청년의 안정적인 성인이행과 경제적 자립을 제한하고, 가족형성에 대한 전망을 어렵게 만드는 주요한 원인이다. 그러나 분석에 따르면 이러한 지역노동시장의 제약이 청년들의 결혼과 출산에 대한 전망에 직접적으로 작용하기보다는, 지역사회가 지닌 결혼과 가족에 대한 문화적 가치, 유사한 연령·경험 집단의 행위로부터의 영향, 그리고 무엇보다 지역노동시장이 남성과 여성에게 상이한 기회를 제공하는 방식에 따라 결혼과 출산에 대한 전망이 구성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사례연구를 통해 경험적으로 일반화된 주장을 도출하기보다는 각 지역의 사례에서 관찰되는 가족형성의 유형(방식)이 해당 지역의 맥락 속에서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분석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2장의 울산 사례에서는 대기업 정규직 남성 중심의 노동시장구조에서 주변화된 여성들의 가족형성 전망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노동시장구조는 여성의 지역 이탈을 촉진하거나, 지역에 잔류 또는 복귀한 여성들이 부모

2 가족형성의 지역적 조건과 초저출산에 대한 함의

의 계층지위를 재생산하는 수단으로 결혼을 선택하게 만드는 조건이 되었다. 한국에서 평균임금이 가장 높은 지역 가운데 하나라는 조건에서, 경제적 동기가 주도하는 가족형성은 울산형 산업 가부장제가 성별 격차 뿐만 아니라, 세대 관계를 통해서도 재생산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이러한 경향은 비단 울산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노동시장에서 경제적 자립 수단을 얻기 어렵지만, 부모세대의 보호와 지원에는 의존할 수 있을 때, 주로 여성의 결혼태도에서 경제적 동기가 강화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3장의 대전 사례에서는, 가족주의적 의식이 강하고 정주 만족도가 높은 한편, 결혼을 통한 계층 상승이나 중산층 지위 재생산 압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조건에서의 가족형성을 살펴보았다. 대전은 수도권과 가깝고 고소득 전문직이 상대적으로 많은 도시이다. 그러나 지역소재 대학을 졸업하고 지역에 정주하는 청년들은 고소득 전문관리직이 아닌, 자영업, 임금노동자, 공무원 등 중간층이거나 그 이하 계층의 부모의 자녀일 개연성이 높다. 이 지역 청년들은 사회경제적 불안정과 건강 위기를 경험하는 과정에서 관계의 신뢰를 축적하고 가족형성으로 나아가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청년기의 불안정성이 가족형성과 충돌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안정에 대한 요구'를 강화함으로써 가족형성에 대한 낙관적 전망을 형성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가족이 연대의 한 방식임을 상기시키는 이러한 사례는 경쟁압력이 낮은 사회적 환경과 가족 내 유연한 협력관계를 만들 수 있는 역량에 달려 있었다.

4장의 광주 사례에서는, 수도권과의 경제적 격차에 대응하는 청년들의 상이한 전략을 분석하였다. 일부 청년들은 경쟁압력이 낮은 생활환경을 선호하면서, 정규직 고용이나 주택 소유와 같은 결혼 조건을 충족하기 위한 추가적 노력을 기울이기보다 주어진 경제적 조건에 맞춰 결혼하는 것

을 합리적인 선택으로 인식하였다. 특히 노동시장에서 경제적 자립 수단을 얻기 어려운 여성들에게 이러한 태도가 두드러졌다. 이와 달리 중산층 지위 획득을 기대하고 정주를 선택한 청년들은 ‘준비된 결혼’을 추구하며, 그 과정에서 결혼과 출산의 시기를 미루는 모습을 보였다. 지역 불균형 개발과 비수도권 청년들의 소외감이 가족 형성을 경제적 투쟁의 장으로 만들거나, 반대로 상승이동에 대한 포부로부터 쉽게 이탈하도록 만든다고 해석하였다.

세 지역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된 쟁점은 고학력 여성들의 일에 대한 포부와 전망이 지역의 노동시장 기회와 심각하게 괴리되어 있는 현실이었다. 이러한 조건이 청년여성들의 결혼과 출산 전망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은 이중적이다. 한편으로는 노동시장 안착과 경제적 자립이 늦어짐에 따라 결혼과 출산에 대해서도 소극적 태도로 일관하거나 적어도 나중의 일로 미루는 방식으로 대응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노동시장에서 얻을 수 없는 안정이나 소속 등의 가치를 결혼을 통해 얻으려는 경향도 발견되었다.

비수도권 지역은 결혼의 전제조건으로서 고용과 자산 등의 기준을 상대화하는 지역적 맥락을 갖고 있다. 상대적으로 주거 문턱이 높지 않은 점, 개인 단위의 삶보다는 가족 단위의 삶을 선호하는 지역 문화 등의 영향이 확인되었다. 남성과 여성 모두 맞벌이를 지향하는 문화는 보편화되어 있었으나, 지역 및 소속 직장에 따라 이를 실천하는 구체적인 방식은 큰 차이가 있었다.

주요 용어: 가족형성, 지역 청년, 저출산, 지역과 젠더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들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제 1 장

서론

제1절 연구배경과 목적
제2절 문헌검토 및 분석들
제3절 연구 방법

제 1 장 서론

제1절 연구배경과 목적

이 연구는 비수도권 지역에 정주하는 청년들이 제한된 기회구조 내에서 경제적 자립과 가족형성에 대한 전망을 어떻게 구성하는지를 분석한다. 이를 위해 비수도권 대도시라는 공통점을 지니면서도 산업·고용 구조, 수도권과의 관계 등에서는 차이를 보이는 울산, 대전, 광주를 사례 지역으로 선정하였다. 각 지역의 인구 및 산업, 고용 통계자료를 통해 각 도시의 사회경제적 구조와 청년의 고용구조를 파악하고, 20~30대 청년 남녀에 대한 심층면접 자료를 바탕으로 이들의 가족형성에 대한 전망과 실천을 분석한다.

2010년대 중반 이후 전국적인 합계출산율 하락과 비수도권 청년들의 지역 유출이 동시에 진행되면서, 비수도권 도시의 인구재생산 문제의 심각성이 널리 인식되기 시작했다.¹⁾ 출생과 사망의 격차에 따른 인구의 자연적 감소에 더해, 인구 순유출 증가라는 사회적 감소가 비수도권 도시의 인구 재생산 문제로 대두된 것이다. 특히 이 시기동안 청년인구의 수도권 집중도가 한층 높아졌을 뿐만 아니라, 각 권역의 거점도시 역할을 했던 광역도시에서도 청년인구의 순유출이 늘어났다(정민수 외, 2023; 김영수, 2025).

1) 2024년 외국인포함 총인구 기준, 청년(19~34세) 인구의 수도권 거주 비율은 54.6%로 전체인구의 수도권 집중도(50.8%)보다 3.8%p가 더 높다(국가데이터처, 2024a).

2010년대 중반 이후 비수도권 지역의 인구 재생산 위기는 같은 시기 동안 이루어진 청년기 생애과정의 변화와 중첩되어 있다. 성인여성의 사회경제적 역할은 기존의 가족과 모성 중심에서 일과 가족의 양립 지향으로 재편되기 시작했다(김은지 외, 2019; 박종서 외, 2020; 신나라, 2021). 이에 따라 새로운 지향과 사회경제적 기회구조와의 관계가 다양한 인구현상을 설명하는 한 차원으로 부상하게 되었다(김영미, 권현지, 2024). 교육, 취업준비, 구직과 취업 등 일련의 청년기 과업이 남녀 청년들 모두의 과업이 된 것과 결혼 및 출산의 지연은 밀접한 관련이 있다(최선영 외, 2022). 나아가 이주라는 수단의 활용도 여성 청년들이 지역이 제공하거나 제약하는 생애전망을 적극적으로 변형하려는 시도의 일환으로도 해석될 수 있는 것이다(양승훈, 2021; 이희정, 추주희, 2025; 김이선, 2025; 김하영, 2025).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지역 인구재생산 연구들은 청년세대의 새로운 지향과 의식, 그리고 젠더 정체성의 변화를 연구에 적절하게 통합하지 못하였다. 기존의 연구들은 거시적인 시각에서, 지역간 경제개발과 인프라의 격차와 불균형에 집중해왔으며, 미시적인 시각에서는 지역 또는 개인 단위의 특성과 지역 인구유출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비수도권 지역이 청년들에게 적절한 경제적 기회를 제공하고 있지 못할 개연성과, 이러한 경제적 기회의 지역간 격차가 청년의 인구이동을 초래할 개연성이 확인되었다. 이 연구는 여기에서 더 나아가 지역의 경제적 기회구조를 젠더 시각에서 분석하고, 이에 대한 남녀 청년들의 대응에 주목하여, 지역 수준의 인구현상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동남권 제조업 도시를 분석하기 위해 제기된 ‘산업 가부장제’ 개념을 활용하여 지역의 경제, 사회, 문화적 기회구조를 분석한다.

경제적 기회는 비수도권 정주 환경을 구성하는 핵심 요소이지만, 이러

한 기회가 이동·정주를 넘어 가족형성에 대한 전망에까지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는 충분히 규명되지 않았다. 이를 위해서는 청년세대가 정주 환경을 어떻게 경험하고 인식하며 이에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즉 행위자와 환경 간 상호작용의 관점에서 분석할 필요가 있다. 가족형성과 지역 이동이 모두 개인의 인식과 선택의 결과라는 점에서, 구체적 경험과 인식에 대한 분석의 중요성은 더욱 크다.

이에 본 연구는 ‘떠난 사람’이 아니라 ‘남은 사람’(또는 이주해 온 사람)을 중심으로 지역 정주 환경에 대한 인식과 경험을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기존의 변수 중심 접근을 넘어, 지역 기반의 사례연구를 통해 비수도권 지역의 가족형성 조건을 규명하고자 한다. 이때 지역의 가족형성 조건은 제한된 기회구조와 이에 대응하는 다양한 전략의 조합으로 개념화되며, 이러한 조건이 이주·정주, 결혼, 출산, 양육에 대한 구체적 전망과 실천에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분석한다.

본 연구는 사례연구 방법을 통해 지역 정주, 정주 지역 내 자립 기반 구축, 그리고 가족형성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을 통합적으로 조망한다. 이러한 접근은 가족형성의 지역적 조건이라는 복합적 현상을 총체적으로 이해하는 데 유용한 분석 틀을 제공한다.

이 연구의 본문은 총 3개 장으로 구성되며, 각 장은 각 사례지역에 대한 연구결과를 다룬다. 세 지역은 모두 느슨한 하나의 분석틀을 공유하는데, 지역의 기회구조에 대한 인식과 그에 대응한 경험이 하나의 내용을 이루고, 그러한 복합적 기회구조와 가족형성 실천과 전망의 관계가 또 다른 내용을 이룬다. 그러나 각 장은 귀납적인 연구 진행과정에서 각 사례지역에서 도출된 연구질문을 다루며, 마지막 결혼에서 연구결과를 종합적으로 논의한다.

제2절 문헌검토 및 분석들

1. 선행연구 검토

2000년부터 2020년까지 시군구 단위 지역간 인구불균등 확대는 유배우 여성비율, 유배우 출산율, 사망률 등 자연요인이 아닌, 인구이동에 따른 사회적 요인에 따른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20~39세 인구 이동률의 시군구간 차이가 지자체 간 인구불균형 확대의 주된 요인이었다(이철희, 황영지, 2022).

청년인구의 수도권 집중은 지역 불균형 발전과 지역간 노동시장 격차에 따른 것으로 일반적으로 평가되고 있다(김영수, 2025; 장인수 외, 2023; 정민수 외, 2023; 허문구 외, 2022). 특히 산업의 기술적 기반이 변화함에 따라, 제조업 생산의 중심이 수도권 중심으로 변화한 것, 지식경제의 집적 강화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된다(김영수, 2024). 이른바 지방의 경쟁력 약화가 청년인구들로 하여금 떠나도록 만든다는 것이다(양승훈, 2024).

일련의 미시적 연구들은 누가 떠나고 누가 남는지, 개인의 특성을 밝히고 있다. 먼저 학업성적 등 개인의 인적자본이 이주에 유리한 자원이 된다는 연구가 있다(김민석, 강민규, 2023; 김현우, 양준석, 2024; 상명성, 문영만, 2024). 이와 관련하여 부모의 계층과 자산 등도 수도권 이주에 대해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 구체적으로 가구의 소득분위에 따른 이주확률을 분석한 결과, 대졸자이동조사(Goms) 분석에서, 계층적으로 소득 1분위와 5분위의 이탈률이 높게 나타났는데(허원창 외, 2024), 이는 지역 정주 기반을 갖추지 못한 하위 계층이 밀려나는 측면과 이주 자원을 가진 상위계층이 수도권으로 '상향'이동하는 측면이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처럼 이주는 계층과 점점 체계적으로 연결되는 경향이다. 그러나 다수의 연구에서 남성에 비해 여성의 이탈율이 체계적으로 높게 나타난 결과도 동일한 방식으로 설명할 수 있는지는 쟁점이다(이상림, 최인선, 2023; 허원창 외, 2024). 일반적으로 젠더가 이동성에 미치는 영향은 남성의 이동성이 높고 여성의 이동성이 낮은 패턴이었다. 특히 가족이주가 아닌 교육과 취업 이주에서 여성의 이동성은 남성에 비해 높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20대 여성을 중심으로 수도권 집중이 강화된 현상은 설명될 필요가 있다.

여성의 이주를 비롯한 최근 세대의 이주에 대한 설명에서 강조되는 것은 가치관과 태도 등 주관적 특성이 이주에 미치는 영향이다(김이선, 2025; 이희정, 추주희, 2025). 이희정, 추주희(2025)는 2020년 대졸자 직업이동경로조사를 분석하여, 여성청년의 이동에 사회자본과 일자리 가치관(개인의 발전을 중요하게 생각함)이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했다. 김이선(2024)은 이주가 단지 일자리에 대한 반응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생애 전략의 하나라는 점을 상기시킨다. 청년삶실태조사에 대한 분석을 통해 객관적인 이주 자원뿐만 아니라 현재의 상태와 미래에 대한 인식에서 나타난 불만이 이주 의향이라는 형태로 나타난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그렇다면 이러한 연구들이 주장한 이주자의 특성은, 이주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설명으로도 설득력이 있을까. 스냅샷으로서 사회조사 결과는 지역에 남아 살면서 일하고 가족을 형성하는 일이 동적인 변화를 수반하며 여기에는 타협과 적응, 대안의 모색 등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잘 드러내지 못한다. 노동시장에서 불안정한 미혼·비혼 여성청년들은 지역 간 이동보다는 현재 지역에 머물면서 더 나은 자원과 기회를 모색하는 경향이 있다는 연구도 존재한다(여수연, 2022, 백미록, 2023).

12 가족형성의 지역적 조건과 초저출산에 대한 함의

기존 연구들에서도 지역은 결혼과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검토되었다(김동현, 전희정, 2021; 이은빈, 강인성, 이병호, 2024; 고우림, 조영태, 차영재 외, 2020; 서정훈, 마강래, 2024; 박관태, 전희정, 2020; 원숙연, 최윤희, 2018; 도난영, 최막중, 2018; 이다은, 서원석, 2021).

지역이 가족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은 지역 노동시장의 특성을 통해서이다. 기존 연구들은 지역 수준의 실업률, 남녀 취업률, 남성 제조업 고용비용 등이 결혼 또는 출산에 영향을 미친 것을 확인하였다(서정훈, 마강래, 2024; 이철희, 이소영, 2025; 이철희, 2023). 특히 이철희, 이소영(2023)에 따르면, 남성 고용률과 여성 고용률은 지역의 가족형성에 상이한 방식으로 영향을 미친다. 높은 남성 고용률은 해당 지역의 혼인과 출산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지만, 높은 여성 고용률은 그렇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이철희, 이소영, 2024). 김영아 외(2022)는 지역별고용조사(2016~2020) 자료를 활용하여, 남성의 임금 불평등도가 큰 지역에 거주하는 남성일수록 동일 연령대에서 미혼 남성으로 남을 가능성이 높은 것을 확인했다. 특히, 남성 개인의 소득 수준과 이 소득의 상대적 위치를 통제하여도 임금 불평등도가 높은 지역에 사는 남성들은 혼인 가능성이 낮아졌다.

노동시장과 더불어, 지역에 따라 큰 차이가 나는 주택가격 또는 임대료 역시 지역에서의 가족형성에 영향을 미친다(도난영, 최막중, 2018; 조성철 외, 2024; 김지현, 최숙희, 2023; 이석희, 2025). 지역수준의 주택시장 조건은 자가보유율, 주택매매가격(주택전세가격), 주택구입부담지수(PIR, LIR) 등의 척도로 다각화되어 분석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주택시장의 결혼과 출산에 대한 영향 여부와 효과의 방향도 상이하게 나타난다.

최근 연도까지 분석에 포함한 이석희(2025)의 연구는 지역별 출산건수

와 혼인건수, 혼인연령을 패널모형으로 추정하였다. GRDP, 경제활동참가율, 비정규직비율, 사교육비, 연령별인구수, 주택매매가격과 주택구입 부담지수 등의 독립변수 영향을 통계적으로 검증한 결과, 주택가격보다는 주택구입부담이 출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첫 출산보다는 둘째 이상 출산에 더 큰 음(-)의 효과를 낳는 것으로 확인된다. 이와 달리 혼인율과 혼인연령에 대해서는 주택구입부담이 아니라 지역 주택가격이 혼인율을 낮추고 혼인연령을 높이는 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혼인과 출산에 대한 주택시장의 영향이 상이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결혼과 출산에 대한 동일한 영향요인을 갖는지 검토한 연구들도 존재한다(김동현, 전희정, 2021; 조성철 외, 2024). 이 연구들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가족형성이 서로 다른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가설을 검증하였으나, 영향요인의 내용은 분석모형에 따라 차이가 나타난다. 김동현, 전희정(2021)에서, 수도권의 출산은 주택가격, 여성 취업률 등의 경제적 요인과 교육, 의료, 문화수준 등 사회문화적 환경요인의 영향력이 높았고, 비수도권 지역의 출산율에는 보육수준과 출산지원금 등 정책적 환경요인의 영향이 컸다. 조성철 외(2024, 3장)의 연구에서는, 수도권의 경우 주택매매가격이나 주택전세가격의 증가율과 같은 요인이 합계출산율·조출생률 하락에 영향을 준 반면, 비수도권에서는 주거안정과 관련된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거나 효과의 강도가 낮은 대신, 고용증가율과 같은 고용안정 관련 변수가 지역별 저출생 현상의 격차를 설명하는 데 높은 설명력을 나타냈다.

이 연구는 교육, 노동시장, 가족 등 지역 청년 삶의 조건을 포괄적으로 다루는 동시에, 지역 산업구조 및 노동시장, 젠더 문화 등의 거시적 요인들이 개별 청년들의 가족형성에 어떤 방식으로 영향을 미치는가를 연구하고자 한다.

2. 이론적 자원

가. 산업 가부장제: 노동시장과 가족형성의 성별화 기제

1) 산업화 과정의 성별성과 지역 공간 형성

최근 산업도시의 위기와 인구 위기가 함께 주목받게 되면서, 한국의 산업 발전과 도시 공간의 형성, 인구재생산 방식에 대한 학술적 성찰이 늘어나고 있다. 특히 인구 위기는 연령과 성에 따라 편향적인 인구이동이나 결혼과 출산 등 가족형성의 제약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산업과 인구의 동시적 위기는 일자리의 양적 증가만으로 해소할 수 없다는 점에서 산업적 발전의 형태에 대한 여성주의 시각의 비판적 분석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얻고 있다.

한국의 국가 주도 경제개발 정책은 동남권과 경상권역의 산업단지 개발을 수반하였고, 산업단지 형성 전반기부터 40여 년에 걸친 남성 노동자 인구의 유입과 노동자 가족의 형성은 산업도시를 유지시켜 온 핵심 기제였다(유형근, 2022; 이정은, 2022). 그런데 2010년대 중후반부터 학령 인구가 급속하게 감소하고 수도권으로 인구집중이 가속화되면서, 청년 여성의 수도권으로의 이동과 산업도시 이탈 현상이 주목받고 있다. 더불어 제조업 중심의 산업 구조가 디지털 전환과 글로벌 경제의 변동 속에 놓여 있는데, 숙련 노동력의 고령화와 은퇴가 이루어지면서 청년 인구를 유입할 동인이 없으면 산업도시의 재생산 기반이 한계에 직면할 것이라는 예측이 점차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때 청년 인구 중에서도 여성 청년의 이동(김이선, 2025)과 산업도시 이탈이 더욱 증가한 것(김하영, 2025)으로 주목받으면서 왜 청년 여성들이 산업도시를 떠나는가라는 문제의식 속에 그 원인을 설명하고자 산업 가부장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산업 가부장제는 동남권 산업도시 청년들의 경험을 분석하면서 제안된 개념으로, 기존의 노동, 산업 담론·연구에 젠더 관점과 개입의 중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처음 이 개념을 제안한 양승훈(2024, p. 208)은 산업 가부장제를 특정 산업이 지배하고 있는 지역에서의 불균등한 성별 분업 구조가 만들어내는 남성 지배의 형태로 정의한다. 이는 산업과 젠더 논의에 공간 분석을 도입한 것으로서, 공간 분업과 국가의 공간 계획으로 조성된 산업지구·도시에 특정한 성별 관계가 역사적으로 누적되어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일찍이 지리학자 Massey(1984)는 산업의 공간적 분업 (spatial divisions of labor)이 성별 고용 위계를 강화한다고 주장한 바 있으며, 이러한 성별 기반 노동 분업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지역사회 내 고착 효과(lock-in effect)를 낳는다고도 지적한다. Yang & Kim(2025)은 이 같은 경제지리학 논의를 참고하여, 한국의 산업화와 동남권의 도시화가 철저히 성별화된 교육과 고용 관행을 통해 가능했음을 논했다.

2) 성차별적 노동시장과 가족형성 모델

산업도시는 국가와 재벌의 투자로 물질화된 도시로 특정 산업(주로 제조업과 중화학공업)이 도시 경제를 지배하는 경향이 강하다. 특정 산업군에 남성 노동자를 고용하고 배치하기 때문에 물질적 이해관계에 있어 국가-(대)기업- 남성 노동자는 경합, 갈등하면서도 호혜적 관계를 이루며 이 체제를 작동시킨다. 산업 가부장제는 주된 생계부양자로 여성을 가정하지 않고, 다양한 여성상과 여성 노동의 문제를 고려하고 상상할 수 없는 공간 구성과 조직 분위기를 만들어 왔다(김하영, 2022; 조주은, 2004). 그 결과 고용 안정성과 고임금이라는 물적 토대를 기반으로 한 대기업 남성 노동자와 여성 전업주부의 결합이 산업도시의 '정상 가족 모델'로 자리 잡고, 이러한 가족 모델이 산업도시의 체계적 성차별을 강화

하고 있다.

허은(2018, 2020)은 울산과 창원이라는 대표적 동남권 산업도시에서 여성 일자리의 실태와 여성들의 적응 기제를 분석하면서 산업가부장제의 문제가 여성 일자리의 문제임을 보여주었다. 오랜 역사의 중공업 도시인 울산과 제조업 중심의 창원이 남성 노동자들에게는 유리한 경제적 기회를 제공하지만, 장기적으로 일을 하고자 하는 여성들에게는 전망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음을 실증했다.

산업도시에서는 뿌리 깊은 남성 생계부양자 이데올로기로 양질의 일자리가 있더라도 거의 남성 노동자들의 몫으로 돌아가고, 여성의 일자리는 서비스직에 한정되며 상대적 저임금 상태에 놓여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여성들은 모성 중심적 생애 전망과 남성 파트너와의 협력을 통한 우애적 가족 만들기 실천을 통해 지역 노동시장의 구조화된 성차별에 적응하는 측면이 있다고 허은(2018)은 지적했다. 산업 가부장제가 여성들의 전략적 대응 속에 유지·재생산되는 면모는 그것의 헤게모니(동의에 기반한 지배)적 지위를 보여준다. 젠더 보상이라는 개념을 통해서도 설명할 수 있다. 산업 가부장제를 산업구조와 노동시장, 가족을 통해 남성과 여성을 상이한 방식으로 보상하는 제도로 이해한다면(배은경, 2009), 산업 가부장제 하에서 남성은 생산노동 참여 기회와 가족 부양능력의 획득을 통해 보상받고, 여성은 생산노동 참여 기회로부터 '봉쇄'되거나 주변화되는 대신, 남성의 경제적 능력을 정당하게 공유할 수 있는 결혼과 모성을 통해 보상받는다고 이해할 수 있다.

양승훈(2024)은 산업 가부장제가 구현되는 산업도시에서 여성 일자리의 문제를 '경력(career) 봉쇄'의 관점에서 설명한다. 수도권 가부장제에 대한 논의가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직업적 목표를 놓고 경쟁하고, 이후 동등한 가사 분담 등의 분배 문제를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다면, 산업

가부장제는 애초 노동시장 ‘진입’부터 여성을 막는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산업도시의 주력 산업인 조선, 자동차, 석유화학, 비철금속 등 중화학 공업 업체들에서 여성은 채용 단계에서부터 배제된다. 산업도시에서는 전문성을 축적하고 승진과 고용 안정성을 보장받을 수 있는 장기적 전망을 가진 커리어 설계가 여성에게, 특히 해당 지역 출신 여성에게 거의 허락되지 않는다. 산업도시에서 여성의 궤직은 일자리는 드물고, 남성의 궤직은 일자리는 남성이 90% 이상으로 여성의 진입을 봉쇄한다. 산업도시에는 궤직은 전문직 일자리도 적고, 준전문직의 임금도 다른 지역에 비해 낮고, 고용 형태가 불안정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산업 가부장제는 ‘그 돈 벌려고 뭐하러 고생스럽게 일하냐’는 남편-가장의 언설이 힘을 가질 수 있는, 남성 외벌이로 살기에 최적화된 공간으로 구조화된다.

산업 가부장제는 1970년대부터 형성된 한국의 동남권 산업도시의 현실을 이해하고, 지역 노동시장 양극화를 이해하는 핵심 개념이다. 산업 가부장제는 일터와 생활공간 양측에서 성별 규범과 기대를 강화하는 제도적·개인적 실천이 결합해 작동하며, 여성의 교육과 고용 경로가 남성 중심의 지역 생산체제와 공간분업 속에 지속적으로 단절되어 왔음을 강조한다(Yang & Kim, 2025).

3) 산업 가부장제 개념과 변화의 요소들

산업 가부장제 개념은 특정 산업이 특정 지역 노동시장을 지배하면서 남성과 여성의 위계가 만들어지고 고착화되는 현상을 설명하기 위한 개념이다. 산업 가부장제 개념은 산업의 질서만큼이나, 노동시장과 가족에서 남녀가 분리되고 위계화되며, 각각 상이한 보상을 제공받거나 제공을 기대하도록 만드는 젠더 질서 측면을 중요한 요소로 포함할 수 있다. 무엇보다 산업 가부장제 개념은 산업과 노동시장 지배력이 영향을 미치는

지리적 범위를 특정화한 분석을 가능하게 한다는 장점이 있다.

산업 가부장제 개념이 시사하듯이, 특정한 지역의 젠더 질서가 산업, 노동시장의 질서를 기반으로 형성될 때, 개인의 지향이나 가치관부터 전국적 수준에서의 정치적, 문화적 변화에 이르는 외부적 요소의 영향으로부터 거리를 두고 변화에 저항하는 완고함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산업적 질서뿐만 아니라 노동시장, 가족, 젠더 등 다양한 사회, 정치, 문화적 요소들은 변화하고 있고 특히 최근 20년 사이의 변화는 매우 가파르고 극적이다. 지역 수준의 산업 가부장제가 선행연구들에서 강조해온 다음과 같은 요소들과 어떻게 상호작용하면서 변형되고 있는가에 대한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첫째, 남성 생계부양자 의식과 실천의 약화다. 한국 사회는 1990년대 후반부터 본격화된 신자유주의적 사회질서의 재편과 함께 남성 생계부양자 모델의 물질적 기반이 와해되어 왔다.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심화된 고용불안으로 남성 외벌이 가족 규범에 근본적 변화가 도래한 것이다. 물론 외환위기 이전에도 실제 가족 내에서 평생의 생계부양자 역할은 노동시장 내에서 안정적 지위를 가진 일부 남성에게 한정된 것이었고, 주변부 직업을 가진 다수 남성들은 불안정한 노동이력으로 인해 아내의 취업에 기대왔다(최선영, 장경섭, 2012). 하지만 외환위기 이후 안정적 정규직 일자리는 더욱 희소해지고, 평생고용·직장 모델이 해체되면서 기혼 여성의 취업이 불가피하며 생계부양 책임을 공유해야 한다는 인식이 세대와 지역에 상관없이 보편화되었다. 이러한 의식변화와 함께 실제 맞벌이 가구 비율도 증가했다(마경희, 김원정 외, 2020).

둘째, 신전통적 성별분업의 부상이다. 신전통적 성별분업은 부부 모두 직업을 가지지만 가사와 돌봄은 주로 여성이 수행이 수행하는 가족모델을 뜻한다. 이를 개념화한 강이수(2011)는 1990년대 이후 남성들이 맞벌

이를 적극 수용하고 공동 생계부양자로 아내의 기여를 어느 정도 인정하면서도 가사노동 참여에는 여전히 소극적인 양상을 신전통적 성별 분업 시기로 명명했다. 사회 전반적으로 여전히 가사와 양육, 돌봄의 일차적 책임이 아내에게 있다는 인식이 있는 가운데 기혼 여성들은 친정 부모 등 주변인의 도움에 의지하거나 가사노동을 줄이는 방식으로 대처해 나가고 있다. 여성의 임금노동 참여가 남성의 가사노동 참여로 호환되지 않는 현실 속에, 여성들은 이중부담으로 가족을 경험하고, 가족구성을 일종의 생애 '위험'으로 인지하는 경향도 나타날 수밖에 없다.

셋째, 가족 형성에 관한 인식과 실천의 다변화다. 특히 청년층에서 만혼과 비혼 경향이 증가하면서, 결혼을 원하지 않거나 망설이는 이들이 늘어났다. 이는 남성 생계부양자 모델의 물질적 기반이 약해진 것과 함께 그것의 상징적, 문화적 토대 역시 변화하고 약해지는 양상을 지시한다. 청년층 내부에서도 개인의 자아실현 증시와 같이, 결혼과 출산을 하지 않는 선택을 정당화하는 문화적 흐름이 확산되고 있다(마경희, 추지현 외, 2020). 넷째, 청년층의 젠더 규범과 젠더 관계 변화다. 남성 생계부양자 의식으로 대표되는 근대사회의 성별 분업 규범과 남성성, 여성성 모델이 청년 세대에게서 흔들리고 약화되고 있다. 청년세대는 기성세대에 비해 여성적 역할과 규범, 남성적 역할과 규범 모두 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마경희 외, 2017; 신경아, 2014). 마경희 외(2018)는 20-30대 청년 남성들에게 전통적 남성성이 균열을 일으키고 있지만, 대안적 남성성과 이성에 관계성도 자리잡지 않은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또한 마경희, 김원정 외(2020)는 청년세대가 성역할 규범을 따라야 한다는 압력과 이로 인한 차별 문제의 심각성을 기성세대보다 더 크게 느끼고 있다고 지적했다. 가부장적 사회의 압력에서 벗어나 개인의 성향과 기질에 부합하는 삶의 방식을 추구하고자 하지만 완전히 가부장적 질

서의 영향력에서 벗어난 것은 아니며, 제약으로 참여하게 감각하고 있다.

다섯째, 디지털 매체와 소통의 보편화 경향이다. 한국의 빠른 디지털 기술 발달과 전국적 연결은 청년들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면서 이들이 그리는 생애 전망과 태도를 표준화하고 소속 지역의 경계를 넘나들게 하기도 한다.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인 청년층에게서 구직부터 만남, 부동산 정보와 자녀 교육 정보 등 가족 형성과 노동 관련 정보 교환과 사회적 교류는 전국 단위에서 일어나고 있다. 산업 가부장제 논의는 주로 오프라인 공간을 중심으로 개념화되어 있기에, 디지털 세계의 영향력과 온/오프라인 연계에 대해서도 섬세한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청년 여성들의 변화하는 인식과 대응전략의 문제가 있다. 과거와 달리 대학 교육이 보편화되고 여성들의 커리어 개발과 욕구가 성장하면서, 청년 여성들은 모성 중심적 생애 전망보다는 일과 노동 중심 생애 전망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난다(김은지 외, 2019). 또한 2010년대 중후반 페미니즘 대중화 흐름과 함께 청년 여성들은 페미니즘을 삶의 언어로 참조하기 때문에(오혜진, 2019) 산업도시의 성차별적 성별 분업과 여성의 경력 봉쇄 현상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요약하자면 현재 산업 가부장제는 청년 여성의 일자리와 이동 문제를 만나 전환이 필요한 것으로 논의되고 있으며 지역 수준의 젠더화된 기회 구조와 불균등한 노동시장 배치를 살펴볼 수 있는 이론적 틀이 된다. 또한 지역 청년의 가족구성 문제를 개인의 사적 선호나 성향, 재생산 영역으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배태하는 생산 영역의 문제 및 산업 구조의 문제로 사고할 기회를 제공한다.

나. 지역 기회구조와 개인의 행위성

이 연구에서는 지역 기회구조(regional opportunity structures) 개념과 분석틀을 활용한다(Bernard et.al., 2023). 지역 기회구조 개념은 개인이 거주하는 장소에 따라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달라진다는 점에 주목하고, 기회에 대한 접근이 공간적으로 불평등하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이 연구에서는 개인의 성취가 기회의 존재여부에 의존한다는 시각을 활용하며, 기회구조와 개인의 상호작용에 초점을 맞춘다. 이러한 접근을 통해 개인의 가족형성 전망과 실천을 비수도권 지역의 제한된 기회구조라는 맥락에서 분석하고, 기회구조와 청년들의 상호작용을 파악하고 대응 실천의 특징을 개념화하고자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산업 가부장제를 지역과 젠더의 교차성의 관점에서 재구성할 필요가 있으며, 행위자의 대응적 실천을 고려하여 좀 더 역동적인 논의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스웨덴 사회학자 Forsberg(1998)가 제안한 지역적 젠더계약 개념의 문제의식은 산업 가부장제의 개념적 한계를 보완할 수 있다. 지역 젠더 계약(regional gender contract)은 남성과 여성 간의 비공식적인 합의가 지역적 편차를 보이는 방식을 의미하며, 이는 특정 지역에서 여성과 남성의 일상생활 및 활동 영역에 영향을 미치고, 남성과 여성이 무엇인지에 대한 주관적이고 경험적으로 살아 있는 이해를 형성하여 지역적으로 차별화된 젠더 정체성을 만든다.

이러한 젠더 계약은 지역적 범위에서 만들어지고 재생산되기 때문에, 지역적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특히 저자는 지역별 산업 기반의 차이를 강조하며, 보다 정확하게는 지역별 성별 직종 분리(occupational sex segregation), 무급돌봄노동 수준, 지방정치 참여율 등의 차이를 강조한다. 광범위한 젠더 구조를 포함하는 ‘일반적 차원’과 직장, 지방 정

치, 가구 내 일상적 관계를 통해 짜인 '특정 지역적 변이'가 결합하여 지역적으로 경계를 갖는 젠더 계약 모델이 작동한다.

분석 결과, 스웨덴 지역은 크게 세 가지 젠더 계약으로 나뉘는데, 전통적인 젠더 계약은 임업 및 제조업 지역에서 우세하며, 노동 시장 직종 분리가 강하고, 여성이 정치 생활에서 작은 역할을 하며, 사회 기반 시설(돌봄)이 주로 가족 내에서 사적으로 제공되는 특징을 보인다. 반면, 수도권 지역에서 나타나는 현대적 젠더 계약은 서비스 부문이 지배적이며, 노동 시장 분리가 덜하고, 여성이 공적 생활에 상대적으로 잘 통합되어 있으며, 공적인 사회서비스가 더 많이 제공된다. 이러한 지역은 여성의 사회경제적 상승을 도모할 수 있는 '에스컬레이터 지역'(escalator regions)으로 불리기도 한다. 마지막으로, 주변부 및 농촌 지역에서 발견되는 비전통적인 젠더 계약은 경제 기반은 전통적일 수 있으나, 젠더 관계(정치, 노동 시장, 일상생활)가 다른 전통적 지역보다 더 평등하며, 경제적 및 사회적 변혁을 겪고 있는 지역으로 분류된다.

Forsberg(1998)는 이 연구를 통해 산업 유형은 젠더 계약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만, 일방적으로 지역 젠더 계약의 유형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다. 지역 젠더 계약의 최종적인 형태와 구조(resistant structure)는 산업 구조 내에서의 젠더 분리 수준과 더불어 오랜 기간 지속된 문화적 규범, 지역 정치 등에 의해 매개되고 결정된다는 것이다.

Forsberg(1998)는 지역의 젠더계약에 대한 개인의 대응방식으로서 이주에 주목했다. 연구결과, 여성들은 강한 노동 시장 분리와 높은 무급 돌봄 노동 수준, 그리고 지방 정치 참여율이 낮은 지역(전통적인 젠더 계약 지역)을 떠나는 경향이 있다. 여성의 경우, 에스컬레이터 지역(escalator regions)으로 이동하는 것이 평등 전략(equality strategy)

이자 경력 전략(career strategy)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Forsberg, 1998, p. 201).

사실 이동은 현재 생활하는 지역의 한계를 넘어서는 주요한 방식이다. 특히 청년기의 지역간 이동은 삶의 기회를 확대하는 주요한 수단으로 활용되어 왔다. 청년기는 교육, 취업, 독립 등의 생애사건을 경유해가는 데, 이 과정은 삶의 기회에 대한 판단에 의존하고, 그 과정에서 지역간 이동/비이동을 전략적으로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러나 이동과 비이동 중 어떤 것이 삶의 기회를 확대하고 더 나은 결과를 얻는 데 유리한가를 단정하기는 어렵다. 뿐만 아니라 현재 거주 지역 바깥에 더 나은 기회가 있다고 인식하고 이주를 계획하는 것 자체가 외부의 상황에 대한 정보와 자원을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모두에게 균등하게 열려져 있지 않다. 또한 더 나은 기회가 타 지역에 있다고 하더라도 이주에 수반된 비용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 요컨대, 지역간 불균형 발전은 불리한 지역의 청년들로 하여금 유리한 지역으로의 이동을 촉진한다. 그러나 불리한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개인이 그 지역에서 접하고 있는 위치와 자원에 따라 이주가 유리할 수도 있고 유리하지 못할 수도 있다. 또한 이주에 필요한 비용이 크다면 이주 자체가 경제적 기회를 넓히는 데 유리하지 않을 수 있다.

최근 일련의 연구들은 장소가 어떻게 개인들의 이동능력(이동 가능성)과 이동에 대한 포부를 형성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가를 보여주었다. Allen & Hollingworth(2013)는 영국의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세 지역을 비교한 연구에서, 사회경제적 중심지인 수도권과의 거리와 지역 노동시장이 제공하는 고용기회가 청년들의 포부를 형성하여 이동성과 가능성의 감각을 만들어내는 것을 보여주었다. 저자들은 사회계급과 장소가 결합해 사람들의 포부와 이동능력을 형성하는 과정을 포착하기 위해 ‘장

소 아비투스'(place-specific habitus) 개념을 제시한다(p. 513).

Forsberg(2019)는 지역 내 개인의 보유 자본 역시 장소적 아비투스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한다. 가족(계층)과 젠더가 그러한 장소 아비투스에 차이를 만드는 중요한 기제라고 주장한다. 개인과 가족의 자산 구성(교육, 사회적 접촉, 돈, 직위 등)에 따라 해당지역에 대한 '장소감'(sense of place)이 달라진다는 것이다. 이러한 장소감이 이동과 비이동을 선택하는 데 영향을 미친다.

Forsberg(2019)는 같은 연구에서 '비이동'(immobility)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덧붙였다. 일정 연령에 출생지를 떠나는 것을 자기계발적·해방적 과정으로 보는 지배적 시각과 달리, 스웨덴 북부 칼릭스 지역 청년들은 '지역 이동'이 성인기 이행과정의 일부라는 시각을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특히 직업계열 남녀 학생들은 오히려 지역에 머물 권리—자신들이 그렇게 인식하는 선택—를 주장하고 있었다. 광업 및 기타 산업의 일자리 기회는 칼릭스에 머무르는 것을 꽤 수월하게 만들며, 자연환경도 거주자의 삶의 질을 높이고 긍정적 지역 정체성을 제공하여, '비이동의 권리'를 주장하는 근거를 제공했다. 청년의 미래 지평과 이주의향에 있어, 지역 그 자체가 중요한 요인임을 보여준다.

3. 분석틀

이상의 선행연구검토와 이론적 자원('산업가부장제')을 확장하여, 다음과 같이 가족형성 조건과 전망에 대한 분석틀로 활용하고자 한다.

첫째, 각 지역의 경제적 기회구조를 다루기 위해, 지역의 산업, 인구구조, 노동시장(직업, 업종, 임금 등) 구조를 다루고, 특히 청년인구의 성별 기회구조를 파악한다.

둘째, 청년들의 이주/정주 경험과 의향, 지역 기회구조에 대한 인식과 대응경험으로 통해, 지역의 제약구조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고 개인적 행위를 발휘하는가를 분석한다.

셋째, 결혼과 출산에 대한 가치부여 및 의향을 파악하고, 그것과 지역의 제한된 기회구조에 대한 인식/대응의 관련성을 파악한다.

마지막으로, 이 세 가지 차원 사이의 관계가 지역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는가를 파악한다.

각 지역의 청년들이 지역의 제약구조를 어떻게 인식하고, 그에 따라 가족형성에 대한 전망과 실천을 구성하는 방식을 파악한다. 이 연구는 그 방식이 하나의 일반적인 양상이라고 전제하기보다, 다양한 방식으로 전망하고 실천할 가능성을 열어 놓고 문제에 접근하고자 한다.

제3절 연구 방법

1. 사례연구 지역 선정

이 연구는 전국의 평균적 현황에 기초한 진단에서 나아가 ‘지역 수준’에서의 가족형성 조건을 파악하고자 한다. 인구현상은 본질적으로 지역, 즉 커뮤니티 수준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분석의 스케일을 좁혀 지역 수준에서 삶의 조건을 관찰할 필요성은 자명하다. 그러나 수도권 이외의 비수도권 역시, 도시의 규모와 인구구성, 산업과 노동시장 등에서 매우 이질적이기 때문에, 비수도권을 뭉뚱그린 연구 역시 평균적 접근의 한계를 공유할 수 있다. 따라서 구체적인 지역을 선정한 사례 연구가 적합하다.

이 연구에서는 사례들 간의 공통성과 차이를 간명하게 이해하기 위해,

모든 사례 지역을 광역도시로 한정하였다. 하나의 연구에서 농촌, 중소도시, 광역도시를 모두 포함하기보다는, 지역 규모 차원의 공통성을 기반으로 지역간 차이를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다. 더욱이 최근 지역 불균형 발전의 중요한 현상 중 하나가 지역 광역도시의 인구유출과 출산율 하락 등 그동안 각 권역에서 인구 댐 기능을 하고 있던 도시의 기능이 위기를 맞고 있는 점이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비교 상의 이점과 최근 지역간 격차의 중요한 특성을 모두 다루기 위해 광역도시를 사례지역으로 선정하였다.

최종적으로 선정한 지역은 대전, 울산, 광주이다. 선정이유는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의 6개 광역도시 중 수도권에 포함되는 인천을 제외하고 각 권역을 대표할 수 있는 도시로 3개 도시를 선정하기로 하였다.

중부권의 대전은 인구 이동과 출산율 면에서 나머지 광역도시와 달리 청년 인구유출 정도가 심하지 않고 출산율도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서울과 지리적 거리가 가까운 광역도시로서의 특성을 살펴볼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호남권의 광주는 호남지역을 대표하는 도시일 뿐만 아니라, 최근 청년인구의 유출과 결혼/출산의 감소가 두드러지는 지역이다. 수도권 중심의 산업 발전에서 빚겨나 있는 지역의 전형으로서 다루어 볼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울산은 남성 대기업 노동자 중심의 산업도시이자, 경상권역을 대표할 수 있는 도시로 선정하였다. 울산은 제조업 도시 중 중화학공업과 대기업 공장의 지배력이 높아 산업적 구성과 노동시장 면에서 타지역과 비교할 수 없는 예외적 성격을 갖고 있다. 그러나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을 제외하면, 제조업 중심의 노동시장은 규모의 차이가 있을 뿐 우리나라 도시 지역의 공통적 특성이다. 그런 점에서 경상권의 대구와 부산보다 연구목적에 부합한다고 보았다.

2. 자료 수집 및 분석

가. 인구, 경제, 노동, 가족 통계자료 기술 분석

이 연구는 일차적으로 해당 지역에 대한 기초 경제, 인구, 노동 통계를 분석하여 지역의 특성과 지역간 차이를 파악한다. 시도 항목을 제공하며, 인구, 산업, 고용 등을 파악할 수 있는 통계청 자료 또는 국가승인통계 자료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사업체조사(고용노동부), 지역별 고용조사(통계청), 인구동향조사(통계청), 인구총조사(통계청), 가족실태조사(여성가족부) 등의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국가통계포털 제공 통계표 또는 마이크로 데이터를 연구진이 가공하여 활용하였다.

나. 지역 전문가 자문 및 지역 정책보고서, 문헌 검토

대상지역의 정책연구소 전문가와의 면담을 통해 지역의 경제, 인구, 고용, 가족 현황에 대한 자문을 받았다. 특히 청년층에 집중하여 고용과 지역이주, 결혼/출산 동향에 관한 정보와 지역 수준에서 주목하는 현상에 대한 의견을 수집하였다. 전국 차원의 통계자료를 보완하기 위해, 지자체 산하 연구원 발간 현황자료, 실태조사 자료 등을 광범위하게 활용하였다.

다. 심층면접

본 연구에서는 대상지역에 거주하는 20~40세 남성 또는 여성을 대상으로 일대일 심층면접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표 1-1 참고). 남성과 여성, 기혼자와 미혼자를 모두 포함하여 지역의 전반적인 상황을 파악하고

자 하였다. 해당지역 소재 대학 또는 대학교를 졸업한 자를 우선적으로 모집하였으며, 지역에 따라서는 취업을 위해 해당지역으로 이주한 사람도 포함하였다.

연구참여자는 연구자의 지인을 통한 소개를 받기도 했지만, 대부분의 경우 위탁 조사업체를 통해 모집하였다. 대부분의 심층면접은 현지에서 일대일로 이루어졌으며, 광주 지역의 3건은 온라인으로 진행하였다.

면접은 2025년 6월 말부터 2025년 8월 중순까지 이루어졌다. 면접은 반구조화된 면접 가이드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지역과 면접참여자에 따라, 연구자가 유연하게 질문을 바꾸어 면접을 진행하였다.

본 연구는 이론적 질문과 분석틀을 토대로 이루어졌다. 구체적으로 심층면접의 질문에 분석틀을 반영하여, 질문과 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그러나 이론적 질문과 분석틀은 심층면접과 자료분석의 가이드역할을 할 뿐, 연구결과는 귀납적으로 도출하는 질적 분석의 일반적 방법을 따랐다.

- 거주 지역에 대한 인식
- 거주 지역 정주 의향과 이유, 타지역 이주 의향과 이유
- 취업준비 경험, 진로선택, 직업선택
- 지역 내·외 경제적 기회에 대한 인식과 대응 서사
- 결혼 및 출산 의향과 전망
- 현재 또는 미래의 일-돌봄 계획, 기대, 전망

〈표 1-1〉 지역별 심층면접 참여자의 특성

지역 구분	연번	성별	연령	해당지역출신	학력	직업	결혼·자녀 사항	비고
울산	U1	여	43세	○	석사졸	공공기관 연구원	미혼	
	U2	여	40세	○	4년제 대졸	(전)사무직 (현)경활중단	기혼/1자녀	
	U3	여	30세	○	4년제 대졸	(전) 중소기업 마케팅 (현)경활중단	기혼	남편 울산주력 사업
	U4	여	31세	○	석사수료	중소기업 사무직	미혼	
	U5	여	32세	○	4년제 대졸	공기업 계약직	미혼	
	U6	여	38세	○	4년제 대졸	(전)대기업 파견 사무직 (현)취업 준비중	기혼	
	U7	남	35세	광주	4년제 대졸	대기업 안전관리	미혼	울산 주력사업
	U8	남	36세	대구	4년제 대졸	대기업 생산관리	미혼	울산 주력사업
	U9	남	33세	○	전문대졸	중소기업 생산직	기혼	울산 주력사업 근무경험
	U10	남	37세	○	4년제 석사졸	사회복지사	기혼	울산 주력사업 근무경험
대전	D1	남	40세	경기	박사졸	대학교수	기혼	전문직
	D2	여	28세	○	특성화고졸	(전)사무직 (현)구직중	미혼	
	D3	남	34세	○	고졸	제조업 생산직	기혼/1자녀	대덕지구 종사
	D4	여	37세	○	4년제 대졸	(전)사무직 (현)경활중단	기혼/출산예정	대덕지구 종사
	D5	여	31세	충북	4년제 대졸	중등교사	미혼	

30 가족형성의 지역적 조건과 초저출산에 대한 함의

지역 구분	연번	성별	연령	해당지역출신	학력	직업	결혼·자녀 사항	비고
	D6	여	26세	O	전문대졸	(전)제빵사 (현)웹개발자	미혼	대덕지구 종사
	D7	여	22세	경북	대학 재학	대학생	미혼	대학 재학중
	D8	남	29세	경북	석사재학	대학 조교	미혼	교육분야 종사
	D9	여	37세	O	박사수료	공공기관 연구원	미혼	대덕지구 종사
광주	G1	여	26세	경남	4년제 대졸	(전)웹디자이너 (현)구직중	미혼	
	G2	여	38세	O	석사졸	공공기관 전문직	기혼/1자녀	
	G3	여	37세	O	4년제 대졸	초교 교사	미혼	
	G4	여	39세	O	4년제 대졸	(전)공공기관 계약직 (현)전업주부	기혼/1자녀	
	G5	남	32세	O	4년제 중퇴	중소기업 생산직	기혼/출산예정	
	G6	여	30세	대전	4년제 대졸	공공기관 기간제 연구원	미혼	
	G7	여	27세	O	4년제 대졸	취업준비	미혼	
	G8	남	30세	O	전문대졸	공공기관 체육지도사	미혼	온라인
	G9	남	33세	전북	4년제 대졸	중소기업 사무직	미혼	
	G10	남	27세	O	4년제 대졸	중소기업 개발자	미혼	
	G11	여	33세	O	전문대졸	(전)간호사 (현)파트타임 교사/리서치회 사 조사원	미혼	온라인
	G12	남	26세	O	전문대졸	중소기업 생산직	미혼	온라인 (광주형 일자리)

라. 면접 자료 분석 절차

본 연구에서는 Weber(1990)를 참조하여 질적 내용 분석(qualitative content analysis)을 적용하였다. 분석의 목적은 연구참여자들이 자신의 경험을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하는지, 그리고 사회·경제적 맥락 속에서 어떤 적응 전략을 구성해 나가는지를 탐색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전사(transcribing)와 부호화(coding)를 중심으로 한 반복적이고 체계적인 자료 분석 과정을 수행하였다.

우선 면접 내용은 참여자의 동의를 얻어 모두 녹음하였으며, 이후 발화 내용을 가능한 한 그대로 재현하는 방식으로 전사 작업을 진행하였다. 전사본의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면접을 수행한 연구자가 녹취록을 다시 검토하였다. 또한 녹취록뿐 아니라 면접 시 연구자가 작성한 현장 메모와 인터뷰가 끝난 뒤 참여자들로부터 전달된 피드백을 보조 자료로 활용하여 자료의 해석에 실마리를 제공하고 의미 누락을 최소화하고자 하였다.

자료 분석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이루어졌다. 연구진은 녹취록을 반복적으로 읽으면서 거주 지역에 대한 태도, 노동 경험, 이주의향, 결혼 및 가족형성에 대한 태도, 그리고 이에 수반되는 적응 방식이 어떠한 패턴을 보이는지에 주목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의미 단위들을 초기 부호(initial code)로 분류하였으며, 이후 부호 간 유사성과 차이, 맥락적 연관성을 기준으로 범주(category)를 구성하였다. 범주화 과정은 지속적인 비교와 논의를 바탕으로 점진적으로 발전되었으며, 부호와 범주는 단순한 묶음을 넘어서 연구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개념적 구조로 통합되었다.

자료 관리와 부호화 작업에는 질적 분석 소프트웨어 ATLAS.ti를 사용하였다. 특히 여러 연구자의 동시 작업을 지원하는 웹 기반 버전(ATLAS.ti Web)을 활용하여 부호화 과정을 실시간으로 동기화하였다. 분석적 타당

성을 높이기 위해 코드 항목을 수정하거나 삭제·통합하는 정선(cleaning) 과정을 반복하였다. 또한 문서 그룹(document grouping)과 코드 그룹(code grouping) 기능을 활용하여 범주 구조를 잠정적으로 설정하고, 범주 간 관계를 비교·조정하였다. 인터뷰를 수행한 연구자와 나머지 공동 연구자가 함께 부호화 작업에 참여하여 신뢰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최종적으로 확정된 범주들은 연구자의 판단에 따라 논문의 장 구성과 연결되었다. 일부 범주는 개별 절 단위로 분리하여 서술하였으며, 서로 긴밀하게 연관된 범주들은 하나의 절로 통합하여 재구성하였다. 이러한 단계적이고 반복적인 분석 절차를 통해 본 연구는 참여자들의 경험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그리고 그 의미가 어떤 방식으로 적응 전략으로 구축되는지를 심층적으로 규명할 수 있었다.



제2장

울산의 지역 기회구조와 가족형성 사례 연구

제1절 울산의 인구·고용 현황과 청년

제2절 지역 기회구조 인식과 대응 형태

제3절 성별화 기제로서 울산 노동시장 경험

제4절 가족형성 전망과 실천

제5절 소결

제 2 장

울산의 지역 기회구조와 가족형성 사례 연구

제1절 울산의 인구·고용 현황과 청년

1. 지역의 공간적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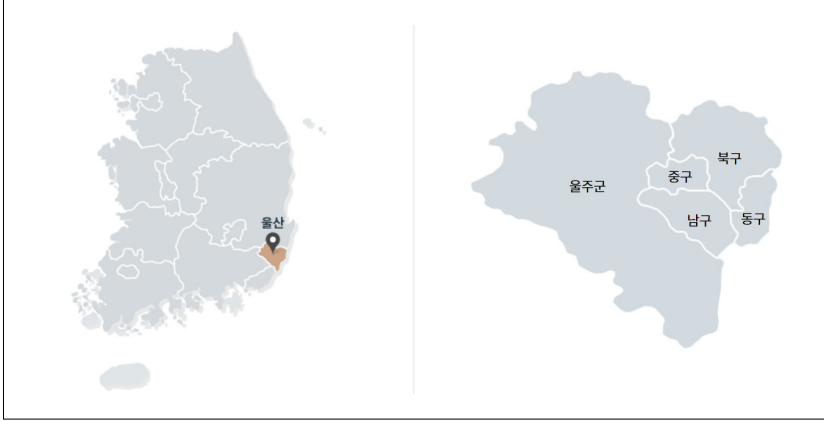
울산은 한반도의 동남쪽 해역에 위치한 도시로 부산광역시, 경상북도, 경상남도과 경계를 이루고 있다. 총인구는 1백 십만 여명으로 전국기준 7번째 규모이며, 부산, 대구와 함께 경상권역의 대표적 대도시를 이루고 있다 (울산광역시, 2025a; 국가데이터처, 2024a).

울산은 4개의 구(중구, 남구, 동구, 북구)와 1개의 군(울주군)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핵심 제조업은 북구의 자동차 산업, 동구의 조선산업, 남구의 석유화학산업 등 공간적으로 구분되어 있다. 울산 상주인구의 규모는 남구, 울주군, 북구, 중구, 동구 순으로 크고, 외국인인 63.5%가 동구와 울주군에 거주하고 있다.

울산의 청년인구(19~34세)는 약 20만명이며(총인구 대비 18.2%), 최근 들어 인구수와 비율 모두 감소해왔다. 울산지역 청년인구의 중요한 특징은 남성인구와 여성인구의 격차가 매우 큰 점이다. 청년층은 여성 100명당 남성인구가 142명으로, 행정구에서는 동구와 울주군은 164, 155에 달할 정도로 남성인구에 편중되어 있다. 이러한 인구구성은 각 행정구역에 입지한 산업단지 및 사업체 현황과 연관된 것으로 중구 외 공간에 국가가 지정한 산업단지와 발전소, 대기업의 대규모 공장, 하청업체들이 밀집되어 있다.

36 가족형성의 지역적 조건과 초저출산에 대한 함의

[그림 2-1] 울산의 지리적 위치와 행정구역



출처: “울산광역시 홈페이지-구군별 행정구역 현황,” 울산광역시, 2025. 2025. 6. 10. 검색, <https://www.ulsan.go.kr/u/rep/contents.ulsan?mId=001005002002001000>

<표 2-1> 울산 행정구역별 내국인, 외국인, 청년인구 현황(2024년)

(단위: 명, 비)

		계	중구	남구	동구	북구	울주군
총인구		1,106,895	203,766	305,176	158,268	215,421	224,264
내국인	계	1,071,702	201,057	298,830	147,557	211,659	212,599
	남	551,851	101,786	152,853	77,051	109,968	110,193
	여	519,851	99,271	145,977	70,506	101,691	102,406
외국인		35,193	2,709	6,346	10,711	3,762	11,665
청년인구 (19~34세)	계	201,220	33,249	61,372	28,295	38,255	40,049
	남	118,150	18,826	34,918	17,564	22,507	24,335
	여	83,070	14,423	26,454	10,731	15,748	15,714
	성비	142	131	132	164	143	155

주: 성비는 여자 100명당 남자의 수를 의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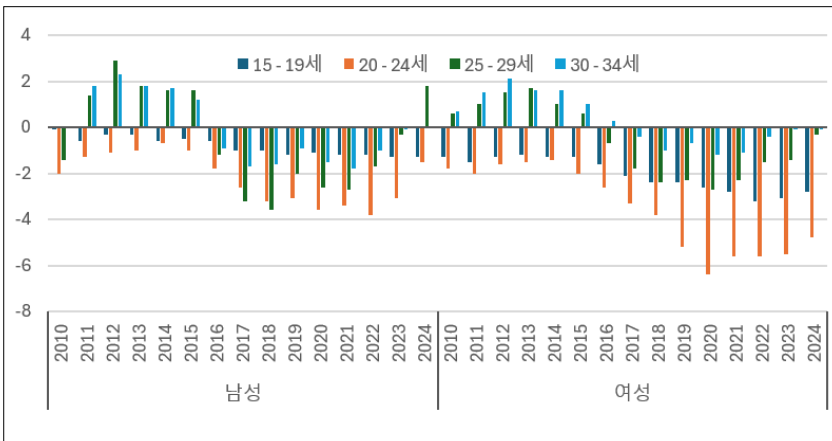
출처: “인구총조사”, 국가데이터처, 2024a, 2025. 10.22 검색, 연령 및 성별 인구-읍면동,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IN1503&conn_path=12

잘 알려져 있듯이, 울산은 청년인구가 계속해서 유출되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2015년 이후 최근 10년의 현상이다. 2015년 이전에는 전입이 더 많았던 25~34세도 2015년 이후에는 전출이 전입을 능가하는 추세로 변화했다. 또한 15~24세는 과거에도 전출이 더 많았지만 2015년 이후에는 전입과 전출의 격차가 더 커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20대 초반 여성의 전입률과 전출률의 격차가 최근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나는데, 2020년에 -6.4%p로 정점을 찍은 후 완화되고 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²⁾

[그림 2-2] 울산 청년층의 지역간 전입-전출 격차 추이

(단위: %p)



주: 지역간 전입-전출 격차는 시도간 전입률과 시도간 전출률의 격차로 계산하였음. 양수는 전입이 더 많고, 음수는 전출이 더 많음을 의미함.

출처: “국내인구이동통계”, 국가데이터처, 2025a, 전출지/전입지(시군구)/성별 이동자수, 2025. 1 1.30 검색.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26003_A02&conn_path=I2

2) 20~24세 여성의 시도간 전출률은 2014년 이후 계속 증가하여 2024년에는 17.1%까지 상승했다(국가데이터처, 2025a).

울산은 전국 광역도시 중 초혼연령이 남녀 모두 가장 낮고 합계출산율은 가장 높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초혼연령이 상승하고 합계출산율이 감소하는 동안 울산도 초혼연령 상승과 합계출산율 하락을 겪고 있다.

2. 산업과 노동시장

울산은 정부가 지정한 최초의 계획 공업도시이자 현재까지 최대의 중화학 공업단지가 있는 대표적 제조업 도시다. 수출액 기준 전국에서 세 번째 광역시이며,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 규모는 전국 1위, 1인당 개인소득은 서울에 이은 전국 2위다(2023년 기준)(국가데이터처, 2024b). 지역의 경제적 기반과 거주민의 전반적 경제 상황이 다른 지역에 비해 준수한 편임을 뜻한다. 다음 두 가지 측면이 영향을 미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첫째, 울산은 중화학공업의 대표 3대 산업인 조선·자동차·석유화학을 모두 갖춘 종합 산업도시다. 울산 외에도 전국에 여러 산업도시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한국의 산업도시는 하나의 대표 품목·산업에 집중되어 있다. 포항(철강), 거제(조선), 여수(정유-석유화학), 사천(항공) 등 각자 특화된 산업을 영위하는 편으로, 주력 산업이 침체나 위기를 맞으면 지역의 경제 상황이 급속히 악화된다. 그러나 울산은 3대 중화학산업이 모두 입지해 한 산업에 부침이 있더라도 다른 산업이 선전해서 도시 전체의 경기를 유지해 왔다. 상대적으로 안정적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여 IMF 경제위기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2015년의 조선업 구조조정에도 1인당 GRDP 전국 1위를 유지해 왔다(양승훈, 2024, p. 9). 이러한 제조업은 울산에서 생산하는 경제적 부(총부가가치)의 60.6%를 차지한다. 우리나라 전체 총부가가치에 대한 제조업의 비중이 28.3%인 것과 비교하면, 울산 경제에

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압도적인 위상을 파악할 수 있다(국가데이터처, 2024c).

둘째, 대기업이 다수의 지역 고용을 창출하고, 지역 공간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친 기업도시(company town)이다. 특히 1970년대 현대그룹의 투자가 본격화되면서, 대공장뿐 아니라 주거지, 문화공간, 학교 등을 건설하여 지역 생활세계 전반에 강력한 영향을 미쳤다. ‘현대공화국’이라는 별칭을 갖고 있을 정도로, 기업이 지역 공간과 지역민의 일상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조주은, 2004). 현대뿐 아니라 SK, 롯데, S-OIL의 사업장이 모두 울산에 소재하여, 3대 중화학산업의 대기업 공장에서 약 18만 명에 가까운 고용을 창출하고 있다(양승훈, 2024, pp. 37-41).

울산의 지역적 특성에 대기업이 미치는 영향은 전체 산업 기준 대기업(300인 이상) 고용 비율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울산은 전 산업 기준 21.8%가 300인 이상 대기업에 고용되어, 전국 평균 15.4%와 큰 차이를 보이며, 특히 다른 광역시인 대전(17.9%), 인천(14.2%), 광주(13.6%)를 훨씬 상회한다. 특히 울산의 주력산업인 제조업으로 한정하면, 울산은 제조업 종사자의 45.2%가 대기업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나 여타 광역시, 지역들과 큰 차이를 보인다(부표 3 참고).

울산은 지역 경제를 좌우하는 핵심 대기업에 종사하는 정규직과 생산직 노동자의 임금 수준이 높다. 한국은 기업규모가 클수록 종사자 월급여액도 높는데, 2024년 1인 이상 전체 기업 종사자 월평균급여액에서 울산(월 378만원)은 서울(월 417만원) 다음이다. 제조업으로 한정하면 상용직 월급여액은 약 453만원으로, 전국평균 약 406만원을 상회하는 수준이다(고용노동부, 2024; 부그림 1 참고).

산업도시 울산의 경제적 기반은 아직 다른 지역에 비해 튼튼하나 과거에 비해서는 약해지고 있다. 2010년대 중반 이후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경제적 격차가 더욱 커지면서 울산의 지역 총부가가치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98년 약 4.5%에서 2015년 4%로 하락한 뒤, 2020년대에는 3% 초반대로 더 하락했다(국가데이터처, 2024c).

울산의 중화학 제조업 중심 산업구조는 1970년대 이래로 변함없지만, 그것이 다른 부문 및 공간과 가지는 위상은 변화했다. 울산의 대공장은 초기에는 생산 라인의 기획과 설계를 담당하는 연구소와 엔지니어링 센터가 함께 입지해 있는 편이었다. 하지만 현재 대부분 수도권으로 이전했고, 나머지 부분도 이전될 예정이다. 새로운 생산공장도 소위 '남방한계선'이라 불리는 충청권과 수도권 남부 중심으로 설치가 계획되면서, 울산은 단순 생산만을 담당하는 말단 생산기지로 그 위상이 쇠퇴하고 있는 것이다(양승훈, 2024). 문화산업이나 IT산업 같은 지식기반 산업의 수도권 집중과 더불어 제조업의 기획·연구·개발 기능 역시 수도권으로 이동하고 있는 것이다. 이로 인해 산업구조의 혁신을 자체적으로 추진할 동력이 약해지고, 커리어 계발을 중시하는 고학력 인재나 청년의 이탈이 늘어나기 쉬운 노동시장이 되고 있다. 2020년 울산의 25~34세 청년 중 4년제 대졸 이상 비율은 47.1%로 전국 평균 51.4%보다 낮으며, 대학원 이상 비율은 3.9%로 전국 평균 6.6%와 큰 차이를 보인다(통계청, 2020; 부표 8 참조).

3. 울산 지역 경제와 젠더

2015년 울산 인구가 최초로 감소하기 시작하고, 순유출 지역으로 전환되고, 지역 간 이동에 의한 사회적 인구 감소를 견인한 집단이 20대와 여성이다(이영란, 2024, pp. 90-93). 이전에도 울산은 다른 지역에 비해 성비 불균형이 심하고, 특히 청년 세대 성비 불균형이 심했었지만 최근

청년층에서 여성의 이탈이 남성을 훨씬 능가하여 성비 불균형은 더 심해지고 있다.

제조업 중심의 고용구조는 청년과 여성의 이탈을 가속화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우선 최근 울산의 대기업 공장에서 정규직 채용이 더욱 희소해졌다는 점을 살필 필요가 있다. 2015년은 조선업을 필두로 한 제조업 구조조정의 시기다. 이때 대기업들이 인적 구조조정을 단행하며 대졸 신입사원 공채와 경력직 채용을 거의 중단했다. 이로 인해 대졸 정규직 채용을 통한 20대의 유입 역시 줄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양승훈, 2024, pp. 202-203).

애초에 울산은 지역 경제를 지배하는 핵심 대기업이 중소기업들을 수직적으로 통합하여 공존해 온 도시다(조형제 외, 2001). 이러한 위계적 기업 간 관계는 고용관계의 계층화를 낳으며 지역 노동시장의 분절을 심화시켰다. 기업 간 분업구조(원하청 관계)와 고용형태(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분절)에 따른 노동자 내 지위의 복잡한 성층화가 1990년대 이후 고착된 것이다(유형근, 2022). N차 벤더로 불리는 하청업체와 대기업과의 위계적 분업구조가 확고한 상황에서 대기업이 정규직 채용을 줄이고, 퇴직자 재고용 방식으로 청년 인력을 새로 고용하지 않으려는 경향까지 추가되었다. 따라서 울산의 청년에게는 하청업체나 소규모 제조업체에서 일할 기회는 있으나 고임금의 대기업 정규직에 진입할 기회는 이전 세대에 비해 무척 좁아졌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여성들을 고임금 정규직 일자리로부터 배제하는 강한 경력 봉쇄가 이루어지고 있다. 울산의 여성 고용률은 51%(24년 상반기 기준)로 전국 최하위다. 울산 남성과의 고용률 격차도 22.9%p에 이른다. 특히 25세부터 44세까지의 여성 고용률은 전국 평균과 10~20%p의 격차가 있다(표 2-2 참고).

42 가족형성의 지역적 조건과 초저출산에 대한 함의

〈표 2-2〉 울산의 성별 연령별 고용률(2024년 상반기)

	전국		서울		울산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20~24	40.1	50.2	41.8	50.9	41.3	56.1
25~29	70.9	74.6	71.0	78.3	64.5	60.2
30~34	86.8	74.3	85.5	83.4	87.5	62.7
35~39	89.8	67.8	90.8	77.2	85.8	45.5
40~44	90.8	65.7	89.5	67.6	91.9	57.9
45~49	90.4	68.5	89.7	68.4	92.3	61.7
50~54	88.9	69.5	86.0	69.1	88.3	62.7
55~59	84.6	65.8	80.8	59.6	89.7	60.6
60~64	74.3	54.7	74.7	54.2	67.4	41.7
65세 이상	47.7	32.6	37.2	22.6	41.3	31.1
전체	74.7	57.5	71.9	57.7	73.9	51.0

주: 전국평균보다 낮은 항목에 음영표시함.
출처: “지역별 고용조사” 통계청, 2024년 상반기. [데이터 세트, C형, MDIS 원자료]

낮은 고용률에 더해 울산 여성은 주로 대표적 여성업종인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기준 울산의 산업별 취업자 분포를 보면,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에 취업한 여성 비율은 84.5%이며, 교육서비스업은 70.7%, 숙박 및 음식점업은 69.8%로 나타났고, 직업별 취업자 현황으로 살펴보면 서비스종사자의 여성 비율이 69.9%로 가장 높고, 판매종사자 63%,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52.5%로 나타났다. 반면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는 7.6%로 낮았다(문은미, 2024, pp. 31-33). 이러한 지표는 여성직업으로 분류되는 직종에 여성비율이 높은 것을 뜻하며,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강한 성별직업 분리를 보여준다.

제조업 대기업의 지배력이 강한 울산에서 강한 성별직업 분리는 다른 지역보다 더욱 강고한 성별화된 기회구조를 만들고 있다. 예를 들어

2021년 기준 조선업체인 현대중공업의 성비는 97대 3, 현대자동차의 성비는 94대 6, 석유화학단지의 롯데케미칼은 85대 14, 정유업체 SK에너지의 성비는 93대 7이다(양승훈, 2024, pp. 249-250). 고임금을 제공하는 대기업 주력산업에 여성이 거의 없다. 이는 고용노동부의 <사업체노동실태현황>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울산의 300인 이상 대기업에서 남성 비율은 84.8%, 1000인 이상 대기업의 남성 비율은 90.3%로 나타났다(부표 7 참고). 여타 지역과 비교해서도 압도적인 남성 점유율이다.

정리하자면 기업 규모와 고용 형태에 따른 분절에 더해 울산의 산업구조와 노동시장은 성별에 따라 매우 편중된 기회구조를 제공하고 있다. 여성은 아예 고용되지 않거나 저임금 일자리 중심의 여성직종에 고용된다. 이로 인해 울산은 [그림 2-3]에서 드러나듯 전국 평균이나 다른 광역시와 비교했을 때 전 연령대에서 성별 임금격차가 큰 편이다. 다른 지역에 비해 견고한 물적 토대를 갖추고 풍부한 경제적 기회를 제공한다는 공간의 조건이 성별에 따라 매우 상이하게 경험될 수밖에 없음을 시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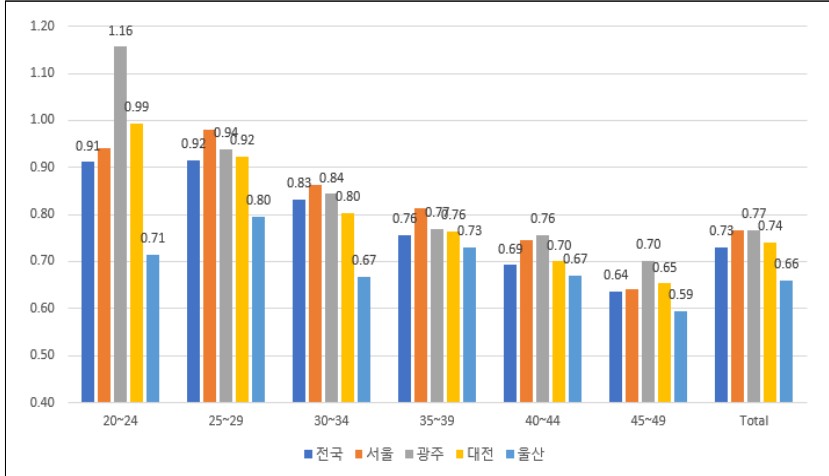
〈표 2-3〉 울산과 전국의 20~39세 취업자 직종 분포(2024년 상반기)

	전문직			사무직	서비스직	영업판매	농림어업	기능직	기계조작	단순노무	합계
	과학정보	보건사회	법률금융								
울산 남성	9.4	5.7	0.6	12.7	7.3	5.0	0.1	18.4	33.5	7.3	100.0
울산 여성	4.2	30.5	0.8	27.0	16.9	11.0	0.0	1.5	2.0	6.0	100.0
전국 남성	13.9	10.8	2.8	18.4	11.8	7.9	1.0	10.9	13.4	9.2	100.0
전국 여성	5.8	29.4	1.9	31.0	14.5	9.3	0.3	1.2	2.0	4.6	100.0

출처: “지역별 고용조사,” 통계청, 2024년 상반기 [데이터 세트, C형, MDIS 원자료].

44 가족형성의 지역적 조건과 초저출산에 대한 함의

[그림 2-3] 지역별 연령별 성별 임금격차



출처: “지역별 고용조사,” 통계청, 2024년 상반기 [데이터 세트, C형, MDIS 원자료].

제2절 지역 기회구조 인식과 대응 형태

1. 기업도시의 독특성

울산은 1990년대 이후 산업 다변화, 광역시 승격, 기존 주거단지 재개발, 신흥 주거지역 개발, 인구 및 면적 확대 등으로 내부의 이질성이 큰 거대도시의 면모를 갖추고 있다. 그럼에도 1970년대 현대 기업의 자본 투자가 형성시킨 공간 특성과 도시의 기본 구조(사업장과 주거단지 근접성과 밀집, 4개의 핵심 산업단지)는 대체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편이다.

울산은 크게 시가지와 공단 지역으로 구분되며, 시가지는 다시 태화강 북쪽의 구시가지와 태화강 남쪽의 신시가지로 나누어진다. 울산 토박이들은 주로 중구 일원의 구시가지에 거주했었고 1990년대 이후 태화강 남

쪽의 신시가지에 상업 및 서비스업이 발달하면서 구시가지는 상대적으로 쇠락했다. 이에 반해 울산 동구 및 북구 일부의 ‘현대시’는 기존 신·구시가지와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고, 양편의 생활상의 이동과 교류도 적은 편이다. 특히 현대중공업이 입지한 동구는 지역노동시장의 측면에서도 단일한 자족적 시장으로 평가받고 있다(유형근, 2022, pp. 55-59, 227). 기업도시적 성격을 뚜렷하게 갖고 있는 것이다.

이는 면접한 청년들의 지역 인식에도 드러나 있다. 울산 출신이든 이주해 온 청년이든 모두 북구와 동구는 현대 계열사의 상황에 따라 지역의 산업생태계와 상권, 일상이 조직되어 있음을 이야기했다. 남편이 현대 계열 하청업체에 다니는 U6은 다음과 같이 묘사한다.

남구에 살 때는, 이 화학공단에서는 그런 느낌을 못 받았는데 제가 이번에 면접 보러 다니면서 저희 집 부근[북구]에 있는 공단을, 공장 가보니까 **그냥 현대가 먹여 살리는구나** 이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들더라고요. 어떤 업체는 현대에 들어가는 시트지를 만드는 곳이고, 어떤 데는 현대에 들어가는 비닐을 만드는 곳이고 그러니까 다 현대가 뭔가 진짜 먹여 살리는 듯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물론 동네만의 특색일 수도 있지만 **현대자동차 휴가철일 때는 동네가 조용한 것 같아요.** 약간 도로도 진짜 조용하고 근데 휴가가 꽤 길거든요? 2주 가는데 그때 되면 진짜 뭔가 **상권도 다 죽는 듯한 느낌** 들고 현대의 영향력이 큰 것 같기는 해요. (U6)

현대뿐 아니라 대기업 생산직에 종사하는 남성 노동자가 많기에 어린이집, 백화점 같은 공간에서도 이들의 업무 사이클에 맞춘 행태가 지역사회 의 주된 분위기다.

[공장]큰 데도 많기 때문에 다 이제 그런 교대근무니까 낮에도 아빠들도 많

이 보이고. (문: 아, 낮에도.) 네, 네. 애기 픽업, 하원 뭐 그런 거 아빠들 진짜 많이 나오고, 놀이터에도 아빠들 많이 보이고. 묻지 않아도 그냥 다 거기 다니나 보다. **백화점에서도 뭐 “임직원 할인이요.” 하면 다 이제 언제 보너스, 보너스 그런 거 다 알고 직원들이.** 이번에 보너스 나오셨다. (U2)

이처럼 기업도시적 면모는 생산뿐 아니라 소비와 재생산 영역, 가족의 일상에도 전방위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아버지가 현대중공업 생산직 노동자였던 U6는 울산에서 다녔던 중고등학교에서 다음과 같은 경험을 한다.

이제 살았던 데가 동구였는데 거기 되게 **문화를 되게 특이하게 생각하더라고요.** 타지에서는 **현대공화국** 이리던데, **사실 그게 맞아요.** 진짜 어렸을 때 집에 아버지 현대중공업 손 들어봐 하면 거의 절반 이상. 현대자동차 손 들어봐 하면 그 절반 이상. 약간 미포조선. 약간 이렇게. 제가 살았던 동네는 다 그런 분위기여서 사실 좀 다 거의 웬만하면 좀 소득이나 이런 게 **거의 평준화 이상** 이죠. (U5)

울산 동구와 북구 일대는 수 만명의 노동자가 공간적으로 밀집해 살아가는 독특한 지역사회 구조로 인해, 비슷한 생활수준을 누리는 노동자 가족들로 구성되는 동질적 정주 환경을 이루고 있다. 그렇기에 여러 측면에서 강한 동질화 압력이 작용하고, 자녀의 직업 선택이나 학교 분위기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U10은 회상한다. 그는 부모가 생산직 노동자는 아니었지만 노동자 자녀가 많이 다니는 고등학교를 나왔다.

고등학교 친구들을 보면 대부분 거의 다 공장에서 일을 하거나, 자연스럽게 자동차에 취직하면 제일 좋고 뭐 1차 하청에서 취직하면 또 친구들이 되게 박수갈채를 하고 그런 분위기거든요. **그게 자연스럽게 그냥 대물림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U10)

이같은 지역사회 분위기는 누군가에는 편안하고 소속감을 주는 긍정적인 것으로, 누군가에는 다양성과 발전을 막는 고루한 것으로 부정적으로 평가되고 있었다. 또한 과거에 비해 동질적 노동자 커뮤니티로 이루어진 지역사회 분위기가 악화, 분화되고 있는 것으로 바라봤다. 그러나 여전히 다른 지역에 비해 생활세계에서 대기업과 제조업 생태계가 갖는 규정력은 강하고, 이것이 울산의 독특성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2. 준수한 만족도와 내부의 차이

면접 참여자들은 대부분 울산에서의 삶에 만족하는 편이었고 정주 환경을 괜찮다고 보고 있었다. 그 이유는 서울이나 다른 대도시에 비교했을 때 낮은 인구 밀도와 물가, 집값, 여유로운 사람들의 분위기, 적당한 수준으로 갖춰진 공원이나 숲 등 자연시설, 병원이나 백화점 등 의료·소비 공간, 덜 붐비는 교통 때문이다. 광주와 대구에서 이주해 온 U7(35세, 남), U8(36세, 남)은 예상보다 정주 환경이 만족스러워서 완전 정착도 고려하고 있었다.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해 본 U3(30세, 여)은 서울에서의 생활을 재미있던 것으로 회고하지만, 울산의 한적함이 정주하기에 더 괜찮은 조건이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울산 같은 경우에는 좀 한적한 느낌이 있잖아요. 근데 서울은 너무 치열하게 살아야 되고 또 물가 같은 것도 울산에 비해서는 좀 세고 이러니까, 아무래도 제가 익숙한 곳이 더 편하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U3, 30세, 여)

이러한 한적함은 물리적 공간 체험일뿐 아니라 가족/지인 관계나 자원이 축적되어 있는 사회적 공간에서의 심리적 여유이자 일정 정도의 “소

득”을 전제하는 것이다.

아무래도 서울에서 살면 복잡하고, 비싸고, 되게 파편적이고, 그런 삶에서 여기는 좀 가까이 네트워크들도 있고, 소득도 적당하다면, 소득이 적당하다는 게 기본 전제겠죠(U1, 43세, 여).

대도시부터 중소도시에서의 직장 생활을 두루 경험해 본 U1은 인구 100~200만의 규모 도시가 적당한 시설 인프라가 있어 도시의 편리함을 누리면서도 “몸과 마음의 여유”도 줄 수 있다고 했다. 이러한 여유를 선호하는 것은 연령 효과(“나이가 들어서”)이기도 하고 “성향”의 문제로 설명되기도 했는데 서울과 경기권에서 구직 면접 경험이 있는 U6(38세, 여)은 사람이 너무 많아 물리적으로도 심리적으로도 치이는 곳에서 “아예 맨 바닥부터 다 쌓아 나가야 되는” 것에 대한 어려움을 이야기했다. 이처럼 거주 만족도에는 객관적 조건과 주관적 맥락이 결합하는데 이주자나 출신자 모두 울산이 적당한 경제력이나 사회적 자원이 있으면 살기 괜찮은 곳으로 인식하고 있다.

더불어 울산에서의 삶은 내부의 지역적 격차를 전제하고 있다. 울산 내 학원가와 학교가 밀집해 있는 학군지, 혁신 신도시의 신축 아파트는 평범한 지역민들도 선망하는 곳이다. 그러나 이 지역의 집값은 서울에 뒤처지지 않을 정도로 비싸고, 이를 감당할 수 있는 전문직과 고소득자들 차지라고 한다. 이곳 역시 부동산과 사교육에 집중된 서울 강남의 생활양식(박배균 외, 2017)과 다르지 않았다.

그래도 자녀가 좋은 환경에 가야 된다 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저도 이제 옥동에 가까운, 옥동, 신정동이 제일 좋거든요? 옥동 바로 옆에 이제 신정2동인데, 그쪽으로 이사를 이제 곧, 지금 계획 중입니다. (중략) 그 도로 이름이 도

로명이 문수로거든요. 거기에 학원가가 약, 거의 한 250개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가 거의 학군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 옥동초 보내는 아이들 엄마들은 학교 보내고 집에 와서 그, 저기 뭐야? 라이딩이라고 하죠. 하루 종일 카페에 있다가, 엄마들끼리 교육 정보 이렇게 나누고, 또 애 하원하고 학원 보내고. 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라이딩 거리가 짧을수록 집값이 비싸더라고요. 라이딩 거리가 10분 내면은 뭐 10억. 뭐 그게 5분 더 걸리면 9억, 8억 이런 식으로 거리가 점점. 그래서 결국 학군지만이 답이다. (U10)

3. 생산 중심 도시의 부족한 재생산 기반

가. 높은 교육열과 부족한 고등교육 기관

울산은 교육열이 높은 지역으로 알려져 있으며, 2022년 기준 대학 진학률은 75%다(울산광역시, 2023, p. 63). 울산 출신 고등학생들의 대학 진학률은 경북과 전남을 제외하고 전국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졸업하고 재수나 취업하지 않고 바로 대학에 진학한 비율이 높다는 뜻이다. 이는 울산의 대기업 문화와도 연계된 특성으로, 울산의 3대 산업 원청과 사내 하청 상용직의 경우 보통 2자녀의 대학 등록금을 지원하는 것을 기업 복지로 제공하고 있다(양승훈, 2024, pp. 223-225).

또한 울산은 고등학교의 과밀학급 비율도 2023년 기준 24.2%로 전국 최고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박영훈, 2024). 신도심 개발 등과 연동하여 젊은 부부와 자녀들이 거주하는 특정 구역에는 학생이 많고, 공교육/사교육 기관이 밀집해 입시 경쟁을 경주하고 있다.

그러나 울산에는 고등교육기관이 매우 부족한 실정으로, 4년제 종합대학은 울산대학교(사립)가 유일하다. 그 외에는 과학기술 인재 양성을 특화한 전문으로 한 특별법인인 울산과학기술원(UNIST)이 있고, 울산과학

대학, 춘해보건대학, 한국폴리텍Ⅶ의 3개 전문대학이 있다(울산광역시, 2025b). 15개의 4년제 종합대학이 입지한 부산, 7개의 4년제 종합대학이 입지한 대구와 비교해 보면 광역시 수준에서 현격히 고등교육 기관이 적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교육 이주로 인한 다수의 청년 인구 유출을 낳고, 지역 자체의 고도화된 지식기반 산업과 인재 양성에 제약으로 작용할 수 있는 지점이다.

나. 여가와 소비 기능의 부족

지역에서의 일상적 삶은 일 경험(생산활동)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울산이 생산 기능에 특화되어 있고 소비와 여가 활용 등 재생산을 위한 시설과 투자는 부족하다고 지적한다. 기본적인 소매와 서비스를 제외한 이른바 문화적 소비를 위한 시설이나 서비스가 울산 내에서는 충분히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인근 대도시인 대구나 부산에서 충족하는 경향이 뚜렷하다는 것이다. “돈은 울산에서 벌고 부산/대구에서 쓰고” 있다든지, “울산에서는 일하고 부산에서 놀고”라는 식의 표현을 흔하게 접할 수 있었다.

이들은 전시나 미술관, 예술 행사, 복합 놀이시설이나 쇼핑센터 등이 울산에는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었다. 변화가에 백화점이나 쇼핑센터가 있지만 품목이 다양하지 않고 운동시설이나 공원 등은 꽤 있지만, 다양성 있는 문화프로그램이나 기획, 예술적이고 ‘힙한’ 감성의 장소나 콘텐츠가 부족하다고 느낀다.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를 데리고 오래 머물만한 쾌적하고 재미있는 실내 시설도 부족하다고 인지하고 있었다.

이처럼 문화적 인프라 부족을 느낄 때 이들은 자차나 KTX, 버스를 타고 부산, 경주, 대구에 간다. 부산에 이케아나 롯데월드 등 복합 쇼핑·놀이시설 등이 입주하고 해안선을 따라 관광지들이 더욱 개발되면서 이들

은 여가와 휴식, 놀이와 소비를 여기에서 한다. 신세계 백화점 등 소비 시설이 즐비한 대구도 놀거리와 살 것이 다양하다고 느낀다. 경주 같은 관광지도 금방 다녀올 수 있다. 연고나 의지가 있으면 때때로 서울이나 다른 지역에 가서 놀다 온다.

주중에는 울산에서 일하고 주말에는 부산에 가서 놀거나 쇼핑한다는 이들의 이야기는 경남의 산업도시가 소비와 여가 기능을 근방 광역시와 분업하고 있는 양상을 드러내고 있다. 도로와 철도 인프라가 더 갖춰질수록 이러한 양상은 뚜렷해질 수밖에 없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상권 대도시 간의 분업이 작동하기 때문에, 울산의 생산편향적 도시역할과 문화인프라 부족의 상황이 지속되는 것일 수 있다. 서비스 일자리가 부족한 울산 노동시장의 특성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생산직 공장노동에 접근하기 어려운 젊은 여성들은 인근 대도시에서 일을 구하기도 하는데, 많은 경우 이주보다는 통근을 통해 노동시장의 범위를 넓히는 것이 가능하다고 했다.

4. 지역 정주 또는 복귀의 핵심 자원으로서 가족

울산에 남아 있거나 복귀한 사람들의 정주자원은 무엇인가. 특히 대학을 나왔거나 여성이라면 지역 내에서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매우 제한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구조적 조건 속에서 울산에 정주하고 삶을 꾸려가도록 뒷받침하는 동력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가. 부모 동거와 지원

일 경험이 있는 여성 면접 참여자들은 대부분 임금 수준이나 업무 환경

에 만족하지 못했다. 성과 압박이나 노동 강도가 센 조건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직장 내 인간관계의 어려움이나 갈등도 겪는다. 이때 가족의 지원과 화목함은 여성들이 그러한 일을 중단하고 휴식과 구직 준비, 임신 준비, 이직을 하는 데 기여하고 있었다.

첫 일자리가 은행 텔러였던 U6(38세, 여)은 실적 압박이 힘들어 정규직이고 임금 수준이 괜찮았음에도 퇴사했다. 부모도 반대하지 않았고, 이후에는 업무 강도가 세지 않고 일-생활 균형을 찾을 수 있는 일자리를 원하게 됐다고 말한다. 결혼 전까지 부모와 동거했기에 임금이 높지 않아도 안정적 생활을 할 수 있었다. U5(32세, 여)도 '쉬었음' 상태에 반복적으로 놓이며 여러 단기 일자리를 전전했지만, 부모가 맞벌이고 동거했기에 구직 압박이 그렇게까지 심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한다. U4(31세, 여)도 타지에서 직장 생활을 하다 울산 복귀 이후 공무원 준비를 하는 몇 년간 부모와 동거하며 마음이 편안할 수 있었다고 말하며, 부모와의 사이좋음을 강조했다.

부모님이랑 사이좋아요. 저는 어제 월요일에도 아빠랑 둘이서 데이트 갔다 왔고, 오늘도 엄마랑 이거 인터뷰 끝나면 데이트 하기로 했고 그렇게 지냅니다. 어머니랑 아버지랑. (U4, 31세, 여)

울산에서 쪽 살아온 U2(40세, 여)도 중소기업 경리, 방과후 교사 등 불안정한 일자리 경로를 거쳤지만, 부모와 동거하고 형제자매와도 사이가 좋았기에 경제적으로도 정서적으로도 만족하며 지냈다. 이들의 부모들은 학력은 높지 않아도 안정적 경제 기반을 닦아놓은 '평범한 노동자-중산층'으로 결혼 전까지 자녀에게 주거와 학비, 생활비를 지원하고 있었다.

울산 출신 남성 면접자들도 부모의 영향이나 지원을 받으며 결혼 전까지 생활하는 편이었다. 그래서 이직 준비를 위한 자격증 공부 등에 집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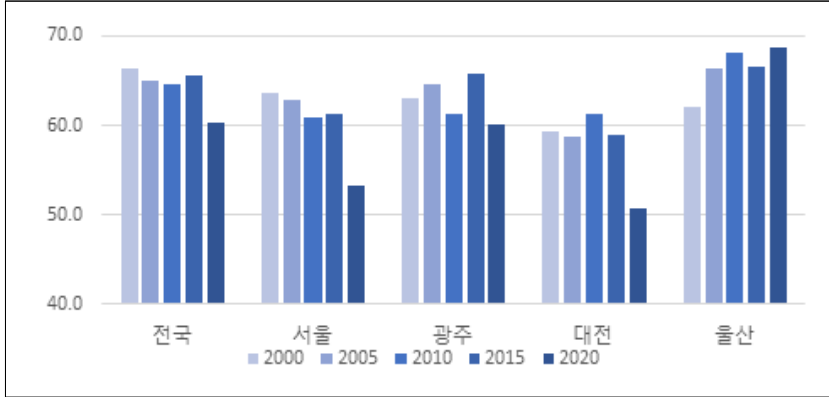
할 수 있었다. 대부분의 면접 참여자들은 부모·형제자매와의 사이가 원만한 편이었고, 그들과 동거하거나 근방에서 거주하고 있었기에 물질적, 정서적 지원을 주고받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실제로 울산은 다른 지역보다 부모와 동거하는 청년 비율이 높다. 다음 그림은 인구주택총조사 데이터에서 25~34세 미혼청년의 부모 동거 비율을 전국과 서울, 본 연구의 3개 광역시별로 시각화한 것이다. 울산은 2005년부터 2020년까지 꾸준히 여타 지역에 비해 청년의 부모 동거비율이 높다. 울산을 떠나 타지역으로 이주하는 청년들이 늘어나는 동안, 울산으로 복귀하거나 울산에 계속 머무는 청년들의 부모동거율이 높아진 것은 주목할 만하다. 특히 2015년과 2020년 사이 서울, 광주, 대전에서는 미혼청년의 부모동거비율이 크게 낮아진 것과 대조적으로, 울산에서는 부모동거가 더 늘어난 것이다. 이는 전국적으로 25~34세의 미혼율이 증가함에 따라 부부가구가 감소하는 대신 1인가구가 증가하는 추세였던 것과 달리, 울산에서는 부부가구 감소(결혼 감소)로 1인가구 증가보다 부모동거가 늘어났을 개연성을 보여준다(그림 2-5 참조).

54 가족형성의 지역적 조건과 초저출산에 대한 함의

[그림 2-4] 지역별 25~34세 미혼청년의 부모동거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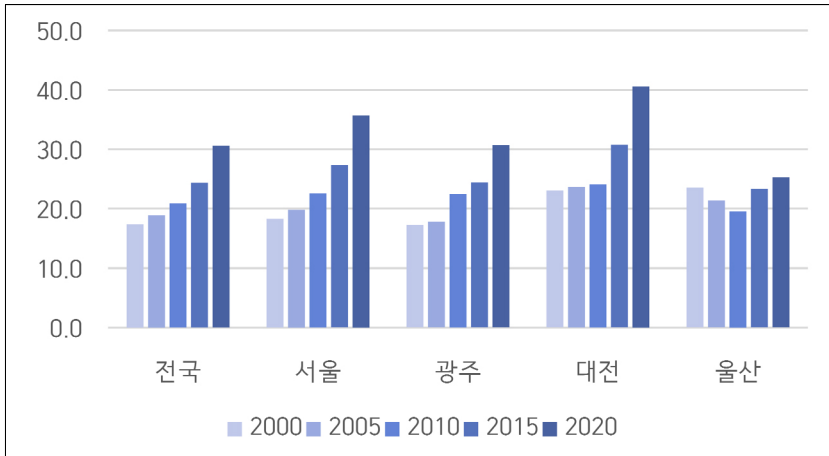
(단위: %)



출처: “인구주택총조사 2% 표본,” 통계청, 각 연도, 2% 표본 마이크로데이터를 바탕으로 연구진이 분석함.

[그림 2-5] 지역별 25~34세 미혼청년의 1인가구 비율

(단위: %)



출처: “인구주택총조사 2% 표본,” 통계청, 각 연도, 2% 표본 마이크로데이터를 바탕으로 연구진이 분석함.

원가족의 자원과 지원은 특별한 학벌이나 능력을 갖추지 않아도 일정 수준의 생활을 누리며 울산 정주를 결심·지속하는 데 영향을 미쳤다. 특히 일자리 불안정하고 임금수준이 낮은 청년 여성들에게 가족과의 지리적 근접성과 친밀한 연결성은 더욱 중요한 자원이었다. 청년 남성들이 울산의 일자리 기회를 공간 자본으로 삼는다면, 청년 여성들은 울산의 가족 네트워크와 부모 지원을 불리한 지역 노동시장 조건을 상쇄할 공간 자본으로 활용하고 있었다.

5. 안정과 풍요의 핵심자원으로서 아버지

울산 출신 면접자들은 아버지가 생산직 노동자거나 부모의 지인이나 자신의 친구들이 그런 경우가 많았다. 제조업이나 생산직에 근무하는 형제, 남편을 둔 경우도 있었다. 특히 출신지나 출신 학교가 동구나 북구인 경우 현대 계열 기업 종사자 자녀가 많은 공간에서 청소년기를 보내고 친구나 이웃 관계가 형성되어 있었다. 현대 공화국이자 노동자계급의 도시임을 목격하고 자랐다.

산업도시의 노동자 가족의 삶은 울산에만 있거나 어릴 때는 그다지 풍요롭다고 느끼지 못한다. 하지만 다른 곳으로 갔을 때 비로소 중산층적 면모를 실감한다. 부산에서 대학을 다닌 U1과 U5는 다른 학생들이 학비와 생활비를 버느라 허덕이는 모습을 보며, 그리고 도시 내 빈부 격차가 심한 모습을 보며 평준화된 울산 노동자 가족의 삶이 “풍요”로운 것이었음을 깨닫는다.

경제 수준이 조금 더 낫다는 건 확실히 느꼈어요. 부산을 가니 좀 낫고, 그러니까 이게 국립대, 부산 출신인데 부산이라는 국립대를 오는 친구들이, 뭐 모르겠어요. 이거 평균 내기는 어렵겠지만 마침 그때 제 학번의 여학우들은 공

부는 좀 하는데 타지는 못 가고 대학은 가야겠다고 하는 느낌? 그래서 말인데 좀 **울산이 오히려 잘 사네, 잘 사는 지역이네**, 라고 먼저 느꼈던 것 같아요. 부산이 소득 수준이 낮더라고요. 그래서 대학도 좀 다들 힘들게 다니고 어떻게든 장학금을 받아야 되는 친구도 있고.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기숙사를 이제 있어야 되니까, 기숙사, **부모님이 이제 지원을 해주셨고** 그래도 어쨌든 학비도 내주시고. 근데 많은 또 친구들은 학비도 이제 자기가 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알바를 많이 하고, 아니면 밥을 차려주러 가고**. 그런 삶이더라고요. 너무 놀랍지 않아요? 저는 진짜 그 얘기 듣고 깜짝 놀랐어요. (U1)

동구의 문화요? 근데 제가 부산 가면서 많이 느낀 건데 그래도 좀 평균 소득의 이상이었던 것 같긴 해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그런 모두가 다 현대 쪽에서 일한 건 아닌데 근데 지금은 진짜 많이 꼬꾸라졌는데, 많이 꼬꾸라진 편이거든요. 그거 회사 본사 옮기고 그거 하기 전까지. 그러니까 제가 대학생 때까지는 좀 호황기였던 것 같고 또 수주나 이런 게 많이 들어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랬던 것 같고, 전반적으로 뭐 축제하거나 이러면 그냥 그런 게 다 웬만하면 무료였어요. 그런 게 시스템이 되게 잘 돼 있어서 그래서 뭐 좀 뭔가 특별하게 다르다 이런 거는 못 느꼈는데 **부산이나 타지 가니까 좀 빈부 격차가 차이가 많이 나는 데는 동네 자체가 다르더라고요.** (U5)

특히 성인이 되어 취업 준비나 경제활동을 하며 생계와 가족 부양의 어려움을 체감한 이들은 부모, 특히 아버지의 경제활동으로 자신이 혜택을 받았음을 인지하고 감사함을 느낀다. 그래서 아버지의 가부장성을 크게 부정적으로 느끼지 않고, 가족 내 성별 분업을 자연스러운 것으로 인식한다. 주로 어머니가 가사노동과 양육을 담당해 왔다고 면접 참여자들은 이야기했다.

그들의 부모 세대는 2010년대까지 울산 경제의 지속적 호황과 대기업 대공장 일터 내 '임금인상의 정치(유형근, 2022)'에 힘입어 외벌이 남성

생계부양자 모델이 가능한 가족 형성을 이룬 편이었고, 딸들에게도 가족 자원의 투자를 크게 아끼지 않는다. 아버지의 안정적 경제력과 어머니의 모성 중심적 생애가 결합하는 산업도시의 가족 모델(허은, 2018)은 자녀 세대에게는 현재의 불평등한 노동시장 문제를 유예·상쇄시킬 자원으로 기능한다.

물론, 가족 내 성별 분업이나 가부장적 아버지를 답답하게 느끼는 경우도 있다. 귀가 시간 통제나 가사 노동을 딸들에게만 시키는 모습이 언급 되기도 했다. 대학생 딸이 “밥을 차려주러 가”야 하는 경상도 지역의 보수 성과 산업도시의 남성 생계부양자 모델이 결합하여 자녀에 대한 성별화된 기대가 강한 경향을 인지하고 있다. U1은 그러한 분위기가 답답해 울산 복귀 전 여러 지역을 옮겨 다니며 직장 생활을 했다.

그러나 다른 면접 참여자들에게 아버지는 경제적 안정성과 보호를 제공하는 “울타리”로 아버지다움과 남자다움을 구현하는 존재이기도 했다. 생산직 노동자로서의 경험이 무언가를 만들고 고치는 남성적 능력과 결부되어 이상적 배우자의 기준이 되기도 했다. 가부장적 남자는 아내를 위하고 자식을 챙긴다는 점에서 가정적 남자와 배치되지 않기도 했다. U4는 남편으로 ‘아빠 같은 사람’을 만나고 싶다고, 자신의 언니도 그런 사람과 결혼했다고 이야기한다.

제가 지금 할 수 있는 모든 운동을 아파한테 배웠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아빠는 그 당시에 교대 근무 생산직 일을 하셔서 교대 근무를 하시는 그 와중에도 저희 3명이랑 항상 시간을 많이 보내려고 아침에 퇴근하시고도 저희랑 같이 놀아주시고, 여행도 진짜 많이 해주셨고. 그리고 **아버지가 기계 관련해서 일을 하셔서 집에 뭐가 고장 나면 아빠가 다 고쳐주고 되게 가정적이신 분이었어요.** 그리고 저희한테도 항상 하시는 말씀이 니네 다 필요 없다. 난 니네 엄마만 있으면 된다. 너네한테 다 나를 떠날 거지만 가정이 생기면, 내 옆에 끝까지

남는 건 내 와이프다. 그러니까 니네가 내 와이프한테 안 좋게 대하거나 엄마를 화내게 한다. 그러면 아빠도 당연히 화가 난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셨거든요. (U4)

‘아빠 같은 사람’은 울산에서의 가족구성과 결혼 문화를 이해하는 핵심 키워드다. 가족 임금이 가능했던 아버지의 경제력, 그 풍요를 드러낼 수 있는 소비 능력과 수준을 감당할 수 있는 남성을 원한다고 면접 참여자들은 언급했다. 울산 정주 청년들의 정주환경 중 핵심은 가족이며, 특히 아버지이다. 울산형 산업가부장제는 무엇보다 자녀세대에게 호소력을 발휘하고 있다. 긴 교육기간과 불안정한 노동시장에서 독립이 쉽지 않은 자녀세대에게 풍요와 안정의 생산자로서 노동자-아버지는 쉽게 이상화되고 있었다.

6. 연고지에서 얻는 안정감

울산에서는 대학진학을 위해 타지역으로 이동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면접 참여자들의 구성에도 이러한 특성이 반영되어 있다. 울산 내 4년제 종합대학을 나온 U2, 2년제 전문대학을 나온 U9를 제외하고 부산(3인), 대구(3인), 안동, 순천에 위치한 대학에 진학하느라 출신지를 떠났다. 졸업 후 이들은 구직 준비나 취업을 어디에서 하느냐의 문제를 마주한다. 이때 울산 출신 참여자들은 “연고”가 주는 안정감을 복귀의 주요 이유로 꼽았다. 친구와 가족이 있는 익숙한 곳에서 살고 싶기에 울산 소재 취업처를 큰 고민 없이 알아본다.

그냥 저 **다 연고가 울산이니까** 울산에 갔는데 또 이렇게 기회가 좋게 신행에 지원했는데 거기가 집이랑 근처인 지점에 발령받아서 계속 울산에 있었던

것 같아요. (U6)

타지 생활을 “외로움”으로 경험한 참여자의 경우 가족과 친구가 남아 있는 울산에서 정서적 안정을 느낄 수 있었다. 대구 지역 대학을 졸업하고 대구 소재 연구소에서 계약직 일을 하던 U4는 대구에서는 제대로 잠을 자거나 쉴 수 없었고, 주말마다 울산 부모님 집에 가서 잠을 몰아 자는 것이 “루틴”이었다고 회고했다. 타지에서 불안과 외로움이 컸던 U4는 울산에 돌아가는 것을 가장 큰 목표로 공무원 준비를 했고, 합격에 실패하자 다른 일자리를 찾았다. 전공 적합성보다 울산 거주 가능성이 더 중요한 구직 배경이었다.

제일 큰 목적은 울산에 남고 싶어서. 부모님이랑 가족들이 다 여기에 있으니, 삶의 터전도 친구들도 다 여기에 있으니, 여기에서 살고자, 살고 싶어서 그 공무원 준비를 했는데 이게 어그러지면서 어쨌든 제일 큰 목표는 울산에 남는 거였으니까 그럼 전공을 살리지 않더라도 울산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자 해서 이번에 회사에 들어가게 된 거죠. (U4)

타지에서의 직장 생활이 확장보다는 고립의 경험으로 다가온 U10도 “고향에 있는 게, 그냥 평상시에 하던 것들 그대로 예전처럼 할 수 있기” 때문에 편안하고 좋은 것으로 인식한다. 그는 사회복지사로 시설에서 지원자들과 함께 거주하면서 단절과 고립감을 느꼈고, 월급이 조금 더 적더라도 울산에 있는 복지시설로 이직한다. 외로움과 불안, 고립을 느끼기 쉬운 환경에 놓인 이들에게 연고가 주는 안정감은 소득이나 적성보다 더 큰 일자리 선택 배경이자 정주 이유였다.

울산에 계속 정주해 온 이들에게도 연고가 주는 안정감은 핵심 정주 요인으로 꼽혔다. 쪽 울산에 거주한 U2는 만족스럽지 못한 일자리를 전전

했지만, 다른 지역으로의 이동에 대한 욕구가 없었다고 말한다. “그냥 부모님 곁에 있”는 것이 자신에게는 “물 흐르듯이” 자연스러운 일이었다고 표현했다. 그에게 울산은 이동을 하면 다시 형성해야 할 사회적 네트워크가 이미 확보되어 있는 공간으로, 부족함이나 간힘의 느낌보다는 만족과 안정감의 장소였다. 가족과 친구 같은 일차적 사회관계가 탄탄하고 만족스러운 이들에게 울산은 정서적 지지와 사회적 관계 자원을 제공하는 공간으로 기능하고 있었다.

제3절 성별화 기제로서 울산 노동시장 경험

1. 구직-채용과정에서의 성별화 기제

청년들의 직업경로가 성별(gender)이라는 칸막이로 명확하게 구획되기 시작하는 계기는 진학, 구직, 취업이 이루어지는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 시점부터이다. 같은 전공·학과에서도 성별에 따라 취업 성과와 직업선택이 갈라지기 시작한다. 특히 대기업 생산직 일자리가 많고 대부분이 남성직업으로 확립되어 있는 울산에서는, 이러한 노동시장 구조를 반영하여 진학여부, 전공선택 등이 이루어지게 된다.

울산 지역 상업계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2년제 전문대학(울산 폴리텍대)을 졸업한 남성 U9(33세, 남)는 고등학교 때 같은 전공(경영정보학과) 내에서 여학생과 남학생의 진로가 명확히 차이가 났다고 기억한다. 대학 진학을 주로 했지만, 바로 취업하는 학생들도 있었는데 이 경우 여학생은 주로 “경리”, 즉 사무보조직으로 취업하고 “은행” 행원으로 취업하는 것이 “제일 잘 된 케이스”였다. 그러나 “친구들 중에 남자가 은행 갔다고

는 못 들어봤”다. U9는 울산폴리텍 재학 중 일학습병행제로 OO금속에서 실습도 하고 졸업 후 현대계열 입사를 시도하다가 현재 직장(외국계 기업 생산직)으로 일하고 있다. 그의 기억으로 울산 폴리텍에 다니는 동안 여학생은 “한 학년에 2~3명”일 정도로 드물었다. 졸업 이후 취업한 직장에서도 여성 졸업자를 만난 적은 없다. U9의 경험에서 고교 졸업이후 남성과 여성의 직업경로는 확연하게 분리된 것이다.

일자리의 업종이나 직업의 차이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구직의 형태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청년 남성들은 대학의 지역 인재 추천이나 지인 소개, 온라인 채용사이트 활용 등 다양한 방식으로 구직을 하고 있었다. 이에 비해 여성들은 정규직 일자리를 얻기 위해 주로 공채나 시험 등 공식화된 경로에만 의존하는 경향이 있었다. 남성들은 공장 알바부터 정식 채용까지 남성 지인들의 추천과 소개를 다차원적으로 활용하며 경제적 기회를 얻고 있었지만, 여성에게는 지인 소개나 추천이 희귀했고, 시험이나 공식 면접이 주된 수단인데, 이 과정에서 기회를 잡지 못한 여성들은 계약직을 반복하다 노동시장에서 아예 퇴장하는 식의 불안정 이력을 갖게 된다.

울산 지역 종합대학 경영학과를 졸업한 여성 U2(40세, 여)의 이야기를 살펴보자. U2는 같은 대학 전공 내에서 여학생은 주로 공무원과 은행 취직 준비를 했다면, 남학생들은 민간기업 쪽으로 더 많이, 다양하게 진출했다고 회고한다. “같은 과에서도 오빠들은 취업이 다 잘 되는 것” 같은데 자신에게 울산에서의 취업문은 너무 “좁았다”고 했다. “성적이 너무 좋은데 왜 우리 회사에 오셨냐”는 면접관의 말은 성적이나 스펙이 채용기준이 아니라는 의미였고, 결국 “남자 직원을 좀 더 원하는” 분위기로 해석되었다.

제가 대학교 때 계속 장학생, 성적이 좋았는데 다들 보면 면접 때면 “어? 성적이 너무 좋은데 왜 우리 회사에 오셨을까요?” 막 그렇게 다 좋게 얘기했는데 결국에는 다른 사람이 자꾸 뽑히니까. (웃음) (U2)

U2는 결국 “눈을 낮춰” 대기업 사무보조직 계약직으로 취직한다. 계약이 종료되자 퇴사한 후 다른 중소기업 사무보조직으로 일하고 또 계약이 종료되자 시간제 방과후 교사를 기간제로 수행했다. 결국 결혼 후 일을 중단한다. U2는 4년제 대졸 학력과 높은 학점이라는 ‘스펙’을 가지고 있었지만, 울산의 노동시장에서는 채용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평가한다. 그로 인한 조급함이 첫 직장 선택에 영향을 미쳤다고 본다. 돌이켜보면 그것이 전문성 축적의 기회를 놓쳐 경력 단절이 길어지게 된 첫 단추였다고 “후회”한다. 울산 여성 청년의 전형적인 직업경로라고 할만큼 울산의 채용시장과 여성 일자리의 특성을 압축적으로 보여준다.

공채와 시험은 차별없는 채용을 보장하는 듯 보이고 많은 여성 구직자들을 끌어들이어 왔다. 그러나 채용 면접을 경험한 여성들은 한목소리로 “언제 결혼할 것이냐”, “애는 언제 낳을 것이냐” 등의 질문을 받았다고 했다. 대학학력이나 높은 학점, 스펙은 확고한 성별 기대 아래에서 쓸모 없어지고 있는 것이다.

남자애들이 더 잘 되고, 여자는 면접을 가면 언제 결혼할 거야? 애 언제 낳을 거야? 물어보거든요. 여기도 똑같이 근데 남자가 면접 볼 때는 그거 안 물어봐요. (U4, 31세, 여)

이와 달리, 지역에서 고등학교나 전문대학을 나온 남성들은 재학 기간 중에 이미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공장에서 돈을 벌거나 일하는 방식을 미리 체험할 기회가 많다고 한다. 대기업 공장 알바 기회는 산업도시 청년

남성들에게 흔한 경험이며, 울산뿐 아니라 창원 등 동남권 산업도시(출신)의 남성 대학생 중 많은 수가 한 학기 등록금과 생활비를 마련하는 방편으로 공장 알바를 선택한다. 산업도시에서는 부모 세대가 공장에서 일하는 경우가 많고 주변에서 자주 접할 수 있기에 공장 노동에 친숙한데, 서비스업 계통 아르바이트보다 임금이 높고, 집중적으로 할 수 있기에 방학 중 지인 소개나 구인 사이트를 통해 쉽게 공장 알바 기회를 갖는다(양승훈, 2021).

U9도 친구 아버지가 마침 OO자동차 공장에서 아르바이트 인력을 모집하고 있어서, 그 소개로 일을 해본 경험이 있었고, 이 공장에 취업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때 남학생들은 공장을 경험해 보며 노동시장에서 자신의 욕구나 성향을 더 구체적으로 파악한다. 물론 공장 경험의 의미나 영향은 상이했다. U9는 대학생 때 현대차 단기 아르바이트 경험을 통해 고임금과 고용안정성을 누릴 수 있는 현대 계열 회사 취직을 원하게 된다. 그에 반해 U10은 이 일이 노동의 숙련도가 반복노동이라는 것을 직접 체험하고 다른 진로를 모색하게 됐다.

7초에 한 번씩 피스를 13개를 막는다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처음 간 사람들한테 정말 어렵거든요. 근데 한 일주일 정도만 하면 굉장히 숙련자가 됩니다. 그만큼 노동의 숙련도가 굉장히 낮은 일이지요. (U10)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남성들은 대학생 때부터 울산의 주력산업과 기업체를 경험하고, 그를 근거로 자신의 생애를 설계하는 기회에 더 빨리 노출된다. 또한 울산 출신이든 이주자든 남성 면접 참여자들은 지인 소개나 대학에서의 지역 인재 추천으로 첫 일자리부터 정규직 일자리를 잡는 경향이 관찰되었다. 울산은 청년 남성에게 제조업 노동 세계를 파악하고

안정적 노동 경로로의 이행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의 땅, 다시 말해 공간 자본(spatial capital)(Forsberg, 2019)으로 기능하고 있었다. 그들은 정주와 이동을 전략적으로 선택하고 시기적으로 조율하며 지역 노동시장 조건을 유리하게 활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2. 남성과 여성의 너무 다른 기회구조

가. 남성 커리어와 여성적 '잡(job)

울산의 주력사업체에 근무하는 기술직, 생산직 남성들은 이직·이주를 거쳐 현 직장에 재직하게 되었으며, 앞으로의 상향이동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전망하고 있었다. 울산은 다른 지역보다 좋은 일자리가 많기 때문에 더 좋은 일자리로 이동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태도이다. 이러한 전망은 이들의 인터뷰 과정에서도 자신감과 긍정적인 태도로 드러났다.

전남 출신이자 전남 지역 4년제 대학에서 고분자공학을 전공한 U7(35세 남)은 첫 일 경험을 서울의 전기 관련 중소기업에서 시작했다. 기술을 익혀 추후 자신의 사업을 하려던 그는 생각보다 일이 고되고 서울 생활이 팍팍하다고 느낀다. 그래서 사업보다는 안정적 직장을 찾아 경기도 화성의 반도체 디스플레이 제조업체로 이직한다. 이후 그는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여 울산의 석유화학 대기업 안전 환경 진단 업무로 이직한다. 그는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중견기업에서 대기업으로 이동하며 경력을 발전시키고 임금 수준을 높였다. 울산으로의 이주는 이러한 상향이동을 가능하게 해주었다. 자격증 스펙을 활용할 수 있는 괜찮은 일자리가 울산에 있다는 사실이 중요했는데 이는 울산 출신으로 대구에서 복귀한 U8(36세, 남)도 마찬가지였다.

U8은 대구 지역 대학을 졸업한 뒤 지역 인재 추천을 받아 울산의 석유 화학 중소기업에 취직한다. 첫 직장의 “보수적” 조직문화에 적응하지 못했지만 자격증을 취득해 대기업 석유화학 공장으로 이직한다. 그는 현 직장도 “울산 특유의 상명하복식의 업무 프로세스가 있긴” 하지만 일에 대한 욕심이 있으면 합리적 보상 체계를 마련해주고, 의견을 수렴하는 개방적 소통구조를 어느 정도 갖췄다고 평가했다. 다른 면접 참여자들도 기업 규모의 차이를 조직문화의 격차로 이해하는 경향이 강했다. 대기업이 좀 더 유연하고 합리적인, 그리고 수평적 조직문화를 갖췄다고 평가한다.

그래서 남성 면접 참여자들에게 울산은 임금 수준뿐 아니라 조직문화도 괜찮은 일자리를 얻을 수 있는 공간으로 인식된다. 예를 들어 외국계 담배필터 제조업체에서 일하는 U9(33세, 남)는 일 자체는 단순 반복 업무지만, 위계질서나 성과 압박이 강하지 않은 합리적 직장 분위기에 만족하고 있다. 생산직이어도 대기업 정규직에 종사하는 남성들은 울산에서의 정주를 “장기적 전망”을 가지고 계획하고, 이것을 자신의 커리어 계발로 의미화한다.

울산에 오게 된 것도, 사실 이제 대기업들이 워낙 많으니까, 거기에 대한 뭐 좀 기술이나, 기술 수준이나 뭐 급여라든가 이런 것들을 **커리어가 어느 정도 좀 잘 형성이 돼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적어도 내가 여기서 좀 직장생활을 몇 년을 하면은, 힘들 때 근처에 다른 유사하고 **규모가 큰 회사로 이직을 할 수 있겠다 싶어서, 좀 장기적으로 바라보고 접근했었습니다.** (U8)

여성도 정규직이나 전문직에 진입할 수 있다면 남성과 유사한 전망을 가질 수 있다. 공공기관 연구직(정규직)에 종사하는 여성 U1은 직장을 다니며 박사과정을 병행해 전문성을 기를 수 있었고 안정성과 준수한 보수를 제공하는 현 직장에 만족한다. 것처럼 여성도 지역 내 혁신 신도시나

공공기관 밀집지역에 전문직으로 자리 잡으면 장기적 전망을 가지고 정주를 선택할 가능성이 컸다. 그러나 이는 매우 드문 사례이다.

본 연구에서 만난 청년 여성들은 이미 괜찮은 일자리 탐색 가능성에 대해 체념적 태도를 갖고 있었다. 일자리의 질보다는 일자리의 존재 자체에 좀 더 무게를 뒀다. 대부분 계약직, 단기 일자리, 단순 사무직이나 서비스직에 집중된 울산 여성 일자리의 한계를 잘 알고 있지만, 대구나 부산 등 인근 지역의 상황도 다르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다. 다시 말해 다른 경상권 도시에서 여성 일자리의 질이나 정규직 진입이 마찬가지로 열악하므로 주거 비용이나 정서적 안정 부분을 고려했을 때 울산에 있는 것이 괜찮다고 판단한다.

U5(32세, 여)는 울산출신이고 대학은 부산에서 나왔다. 졸업 후 부산과 울산에서 여러 계약직 일자리를 경험했다. 부산에서 정주하기를 원했지만 상황이 좋지 못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래서 저는 솔직히 좀 부산에서 좀 살고 싶었는데, 그래서 공공기관도 부산으로 가볼까 했는데 이제 좀 나이 들어서 보니 여러 가지 경험하다 보니 오히려 부산보다 울산이 인구가 더 작아서 그 문이 조금 부산보다는 넓고, 그리고 지금 부산도 약간 노인과 바다 됐잖아요. 많이 빠져나가고. 그런 부분이 전반적으로 지역적으로 좀 문제라고 생각은 들어요. (U5)

부산의 쇠퇴와 산업도시로서 울산의 기반을 상대적으로 고려하고 있다. 부산뿐 아니라 대구 역시 산업 기반이 약하고 임금 수준이나 일자리의 질이 낮다고 여러 면접참여자들은 언급했다. 결국 여성에게 일자리는 장기적 성장과 상승 전망을 가지는 커리어의 의미보다는 현상 유지의 측면에서 할당되는 잡(job)의 면모가 컸다. 잡(job)으로서 여성 일자리의 속성이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라는 판단 속에 울산 정주는 적절한 선택으로

이해되고 있었다.

나. ‘여성적 자리’의 암시와 계약직 ‘2+2 관행’

울산에서 자라고 교육받은 대졸 청년 여성이 갈 수 있는 가장 괜찮은 지역 일자리인 대기업 제조업체 내 사무(보조)직은 계약직이지만 급여나 복지 수준은 중소기업보다 괜찮은 편이다. 그렇기에 경쟁도 치열하다. 그런데 면접 참여자들과 울산 지역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울산 지역 대기업 여성 일자리는 암묵적인 ‘2+2 채용 관행’이 있다고 설명했다.

‘2+2 관행’은 울산지역 대기업 제조업체에서 암묵적으로 채택하고 있는 대졸 사무직 여성 고용관행으로, 2년 계약직으로 채용한 후 추가로 최대 2년까지 고용하는 관행을 말한다. 주로 대학졸업 후 노동시장에 신규로 진입한 여성이나 20대 미혼 여성이 그 대상이 되며, 이들의 근속년수는 최대 4년을 넘지 않게 된다. 타지역과 비교하면 울산에는 지역에 있는 대기업에 채용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점에서 유리하다고 할 수 있지만, 정규직으로는 뽑지 않고 오직 계약직으로만 일한다는 한계가 있다.

지역전문가들은 2+2 고용관행이 울산 중산층 출신 여성들이 결혼하고 전업주부로 정착하는 가족경로와 잘 부합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U2는 현대중공업 연구소에서 계약직 사무직으로 일했던 이력이 있고 현재는 전업주부로 만족하며 살고 있다. 하지만 정규직이었다면 결혼과 출산을 하고도 계속 일을 했을 것이다. U2는 그 일 자체가 장기근속과 숙련을 필요로 하지 않는 일이었기 때문에 정규직 채용을 하지 않은 것이라고 이해한다. 애초에 중요한 일을 맡기지 않는, 인력활용방식 전반의 문제라고 이해하고 있었다.

(문: 선생님, 만약에 이 처음에 했던 이 현대중공업이 이게 약간 정규직이었으면 계속 좀 아이 낳고, 결혼하고 아이 낳고도 계속 쪽 일을 했었을 것) **어, 나을 이유는 없었죠.** 나을 이유는 없죠. (중략)제 앞에 사수도 언니였는데 4년을 일을 했고, 다들 잘 한다고 그렇게 했는데도 어차피 그 계약이, 그 이후에 할 거면 정규직을 해 줘야 되니까 **그게 이어지지 못 하고 이제 또 저로 이제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그 스킬은 다 모았는데 또 사람 바뀌어야 되니까 **그 자리도 이제 뭐 다시 처음부터 리셋돼서.** 근데 누구나 와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자리인 거죠, 기업에서는. (U2, 40세 여)

또 다른 여성 참여자 U-6는 계약직 직원을 뽑으면서 나이(30세 이하)나 혼인상태(미혼)의 조건을 내거는 경우가 있다고 하면서, 이를 문화적 경직성과 보수성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이제 현대에 2년짜리 계약직? 이제 여자들 서무하는 계약직들 잘 뽑거든요. 그래서 이제 근데 거기에 들어가면 약간 공식[2+2 관행]처럼 방금 말씀하신 그 공식이 성립된다고 하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제가 많이 본 것 같고, 근데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약간 진짜 남자들 많은 곳에 그리고 좀 현대도 이렇게 뭐라고 그래야 되지? 고지식하다고 그래야 되나? 쏠대 그런 마인드가 있어서 **30살 이하의 여성만 지원이 되고 뭐 그런 식으로 나이 뭐 이렇게 미혼이어야 되고, 그런 계약직을 뽑는데도 그런 조건을 걸더라고요.** (U-6, 38세 여)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가 성별, 연령 요소와 명백하게 교차하는 지역에서 청년 여성들의 선택지는 한정적일 수밖에 없다. 주로 육아휴직 대체자나 2년 이내 계약직으로 취업하면, 1-2년마다 이직과 재취업을 고려해야 하는 순간이 온다. 이때 결혼하거나 임신 준비, 출산을 하게 되면 계약 종료 시기에 맞춰 구직 활동을 더 하지 않는다.

명시적으로 채용 시 나이나 혼인 여부를 제한할 수 없지만, 전문가와 여성들은 명백히 이것이 관행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알고 있다. 첫 일자리로 계약직에 진입한 대졸자 여성은 이후 1-2번의 계약직 일자리를 거쳐 결혼을 하면 경력 단절로 들어서고, 어느 정도 자녀 양육이 완료된 후에 재취업을 하려고 한다. 재취업은 자신의 전공이나 이전 경력을 살릴 수 없기에 여성들은 준전문직 핑크칼라(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보육교사, 사서 등) 관련 자격증 공부를 하거나 시간제 일자리, 단순 사무직을 구하는 편이다. 대기업 일자리에 2+2 채용 관행은 여성의 장기적 커리어 설계와 전문성 축적을 배제하고 성별 직업 분리를 지역 수준에서 공고화하는 기제다.

여기에서 대졸 학력의 가치는 여성에게 거의 없다. U1은 자신의 여동생이 4년제 대학을 졸업했지만 현재 전업주부로 지낸다면, 여동생 남편은 전문대학을 졸업했지만 외벌이로 경제활동을 담당하는 현실을 이야기했다. 울산의 노동시장에서 젠더가 학력 변수를 상쇄할 수 있음을 목격할 것이다. U3도 부산의 4년제 대학 졸업에 서울 홍보회사 정규직 경험이 있지만, 현재 임신을 준비하며 경력단절이 된 상태다. 그에 비해 그녀의 남편은 마이스터고 졸업 후 현대중공업에 바로 취직해 고연봉의 정규직을 유지하고 있었다. U3의 남편은 대졸자보다 경력이 길어 임금 수준도, 자산 규모도 오히려 컸다. 울산 출신 남성인 U9는 폴리텍대 졸업 후 바로 취업해 대졸자 사무직인 배우자보다 연봉이 높다. 남편보다 아내의 학력이 높은 양상은 부모 세대에서는 잘 관찰되지 않는 경향이다. 젠더가 인적 자본보다 규정력이 큰 공간에서 여성과 남성의 장소적 아비투스(ability)는 동일할 수 없다.

산업도시 울산은 학력이 높지 않아도 노동자에게 고임금의 정규직 일자리를 제공하는 거의 유일한 공간으로 여겨진다(유형근, 2022; 양승훈, 2024). 면접 결과, 여전히 지금도 그러한 면이 남아 있었다. 학력주의가

작동하지 않는 평범한 노동자 중산층의 꿈이라 말해지는 것. 하지만 그것은 여전히 남성에게만 허락된 현실로 보인다.

제4절 가족형성 전망과 실천

1. 성별화된 결혼압력과 결혼시장

가. 높은 결혼 기준과 남성의 경제력 압박

성별에 따라 경제적 기회 구조가 명백히 상이하게 작동하는 울산과 같은 지역에서 가족형성은 계층 재생산 전략과 긴밀히 연결되는 양상이었다. 우선 울산 사람들은 다른 지역과 달리 ‘다들 결혼하는’ 분위기이고, 비교적 빨리하는 분위기이다. 이는 인구통계와도 어느 정도 일치하는 부분이다. 2024년 혼인·이혼 통계에 따르면 울산 지역 초혼 연령은 남성 평균 33.4세, 여자 31.4세로 전국 평균(남 33.9세, 여 31.6세)보다 초혼연령이 낮다(부표 9 참조). 울산도 그동안 초혼연령이 상승해왔지만, 꾸준히 전국 평균보다 근소하게 낮은 초혼 연령을 보여주고 있다.³⁾ 그럼에도 불구하고 울산도 그동안 혼인율의 감소와 출산율의 감소를 가파르게 경험해왔다는 점에서 보면, ‘다들 결혼하는 분위기’에서 말하는 주된 참조

3) 면접 참여자들은 가족을 꾸리는 것이 주는 책임감과 자율성, 독립된 공간에서의 생활이 주는 해방감, 배우자와 자녀에 대한 관심과 돌봄 욕구, 정서적 교류와 심리적 안정에 대한 희구를 이성애 핵가족을 만들어 획득하고자 했다. 특히 직장 생활에서 소진되고, 일의 의미를 발견하기 어렵다고 느끼는 이들, 이주한 타 지역에서 의미있는 사회적 연결을 만들지 못한 이들은 배우자와 자녀 관계를 통해 삶의 의미와 지지를 얻고자 했다. 이러한 애정적 기대 측면에서 성별 차이는 두드러지게 드러나지 않았다. 다만 정서적 만족을 추구하면서 가족형성을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조건이 울산에서는 남성의 안정된 직장과 소득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었다.

대상은 대기업 정규직 남성들의 추세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아무래도 이런 좀, 큰 기업들이 많이 거주하는 공업도시다 보니까, 결혼한 친구들을 보면 대부분 이렇게 좀 소득이 안정적인 친구들이 결혼을 좀 빨리하더라고요.

울산에는 안정된 일자리와 준수한 소득을 갖춘 남성이 많고, 이러한 특성이 울산 지역에서 결혼과 출산이 많은 이유를 설명해준다. 그러나 실제로 배우자 매칭으로 이어지는 과정이 순탄하지만은 않다. 울산에서 첫 직장을 얻은 후 이직을 통해 최근 대기업에 들어간 U8의 이야기는 강한 산업가부장제라는 지역적 특성이 남성의 결혼에도 상당한 부담요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가족형성은 단신으로 울산에 이주해 온 남성 노동자에게, 직장 동료들과의 동질성을 확인하고 의미있는 사회적 연결을 구축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으로 인식된다. 막연하게 생각했던 미래의 가족형성이 당장 필요한 과제로 인식되기 시작하는 것이다.

회사에서도 스몰 토킹으로 얘기하다 보면은, 너희 애가 지금 몇 살이니, 지금 어떤 단계니, 뭐 유치원이 어떻다, 학군이 어떻다, 이런 걸 얘기를 할 때 저는 좀 공감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중략) **점점 소외된다는 느낌이 좀 들죠** (U8).

직장 동료들은 결혼하지 않은 동료 직원에게 ‘결혼하라’는 은근한 압력도 행사하고, 실제로 ‘소개팅’을 통해 조건에 맞는 상대를 소개해주는 역할도 한다. 결혼상대의 자격 중 하나로서 경제적 능력이 강조될수록, 좋은 직장은 이를 입증하는 객관적인 지표이고, 직장동료는 좋은 직장에 다

나는 괜찮은 결혼상대인지 아닌지를 미리 판단할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있기 때문이다.

이직을 해서 좋아진 게, 그래도 직장이 어떤 그룹사에 속한다, 이 정도 되니까 주변에서 소개를 많이 해 주죠. 그래서 저처럼 주에도 한 번 만났거든요. (U8).

U8은 울산에서 여성이 가질 수 있는 직업 중에 괜찮은 직업으로 평가 받는 직업의 여성들을 여러 차례 소개받았다고 했다. 결혼 이후 맞벌이가 필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계속 일하는 것이 가능한 여성을 선호하는 것이다.

U8이 결혼에 어려움을 느끼는 이유는 본인의 경제력이 울산 여성들이 기대하는 수준보다는 낮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직장은 괜찮지만 자산이 별로 없는 형편인데, 울산 여성들은 결혼 상대의 직업은 당연하게 생각하고 자산수준을 가지고 남성의 경제력을 차별화하는 것 같다고 했다. 울산에서는 자신보다 더 나은 조건의 남성들이 많을 뿐만 아니라, 여성들 뒤에 있는 그들의 부모가 갖고 있는 경제력도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적어도 한 1~2억 정도는 무조건 있어야 된다. 그리고 10대 대기업 안에는 있어야 된다. 좀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중략) 대구에 있었던 학교 후배들을 만나면은, 이 정도는 아닌데. 어, 여기 울산에는 제일 크게 느껴졌던 게 그런 거였어요. 어느 정도의 그런 수준이 있어야지 좀, 이 사람이란 좀 진지하게 생각할 수 있겠다. 좀 그들만의 커트라인이 있는 느낌? (U8)

(문: 여성이 귀한가요? 여기?) 네. 왜냐하면, 여기도 이제 그, 부모님들도 다

대기업을 다니는 분들도 많고, 소득이 높다 보니까. 그쪽 집안에서 원하는 그런 수준이 되게 높더라고요. (U8)

울산 출신 남성인 U9(33세, 중소기업 생산직)도 그러한 지역민들의 분위기를 어릴 때부터 경험했다고 말한다. 다른 면접 참여자들도 “현대 공화국”에서 비슷한 회사, 직종에 다니고 한 동네에 살며 형성된, 서로 평가하고 비교하는 시선에 대해 말했다. 부모와 친구끼리 서로 잘 알기에 늘 상 그들을 의식하며 자신의 배우자와 가족에 대한 상을 만들고, 상대에게 요구한다는 것이다.

부모님들도 그렇고, 이제 그 여자애들도 그렇고, 그런, 딱, 고정관념이라 해야 되나?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문: 뭐 사위는 이래야 된다. 이런 거?) 네 뭐 장난일 수도 있는데, 뭐 흔히 듣는 거, 뭐 **열쇠 3개 들고 와야 된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자동차, 집 키, 그 다음에 자기 사업하는 키 이렇게 3개**. 이런 식으로 많이 들었어요. (중략) 요새는 어디 다니냐, 이러면서, **복지는 어떻냐, 얼마 정도 받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도 하시고 (U9)

남성들은 울산의 결혼시장 문턱이 상향화된 원인을 그들의 윗세대들이 만든 기준과 그 영향력에 있다고 생각한다. 부모세대와 자녀세대의 세대 간 경제력 격차가 그들이 감당하기 벅찰 만큼 ‘결혼의 문턱’을 높인 이유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울산 노동시장의 상위층에 들어가지 못한 남성들은 더 막막함을 느끼고 있었다. 과거와 비교해 청년 남성들이 현대계열을 비롯한 대기업 정규직에 취직하기는 어려워졌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하청업체 간 ‘회사 차이도 심해’졌다. 노동시장의 구조적 분절과 불평등 심화 속에서 부모 세대의 ‘커트라인’과 울산식 결혼 관행을 맞출 수 있는 남성은 많

지 않다.

저희 나이대의 친구들은 이제 (현대에) 들어가기 힘들잖아요. 그런데 저희 아버지나 다 보면 현대 계열에서 급여나 복지를 빵빵하게 받고 다니셨잖아요. 그런데 제 친구들은 이게 못 미치구요. 여자애들 쪽이 원하는 조건에 안맞는 거죠(U9, 남, 중소기업 생산직).

U8의 이야기에 나타난 결혼은 그냥 하면 되는 숙제가 아니라 일정한 기준을 통과해야 하는 시험과 유사해 보였다. 만족스러운 직장에 다니고 있지만 그것으로는 부족하고 자산이라는 점수를 높여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냥 안정적이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안정을 얻기 위해 경쟁력과 자격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냥 좀 안정적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남들처럼 좀. (연구자: 남들처럼요?). 그런 게 좀 큰 것 같아요. 점점 갈수록 이제 그런 소외감을 느끼기 시작하니까, 아까 비유했던, 좀, 늦어진 숙제들을 하는 식으로 점점, 사는데 조금해 진다라고 해야 되나? 그리고 그런 조건을 맞추기 위한 노력들이 점점 더, 그런 자격이 높아진다고 해야 되나? 네 물론 제가 이제 뭐 OO라는 회사를 다니고 있지만은, 또 울산에 있는 그런 다른 저랑 비슷한 조건의 사람들이 더 좋은 사람들이 많거든요. 뭐 현대차도 있고, 뭐, 에스오일도 있고 저보다 더 소득이 높은 분들이 많다 보니까, 지금 내가 결혼을 하기 위해서라면 그런, 좀,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서 자꾸만 노력을 해야 된다는 좀, 스스로의 압박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점점 갈수록,

흔히 남성들은 결혼시장에서 조급함도 없고 연령의 압박도 받지 않을 것처럼 생각한다. 조급함과 압박은 상대적으로 노동시장 지위가 불안정하고 경력단절 위험이 높으며 출산의 당사자인 여성들의 문제라고 생각

했다. 그러나 울산 대기업 정규직 남성들도 비슷한 강도의 조급함과 압박감을 드러내고 있었다. 남성도 결혼시장에서 나이가 경쟁력이므로 점점 나이가 들면 결혼은 할 수 있어도 아이는 갖지 못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걱정스러운 거는 이제 점점 갈수록 내가 그런, 결혼 시장이라고 하면 결혼 시장에서, 내가 나이라는 경쟁력을 잃어버리면은 점점 이제, 결혼을 하기 위해서는 뭐 애를 가지는 걸 포기해야 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점차 아마 카드를 버려야 되지 않느냐 뭐 그런 변화는 있을 거라는 생각은 감안하고 있어요. (문: 이가 결혼 시장에서 남성에게도 중요하다고 느끼시는 거예요?) 그렇죠(U8, 36세, 대기업 정규직).

나. 불안정 노동자 위치에서 결혼을 가능하기

울산의 기울어진 노동시장에서 여성들의 생존방식은 결혼을 가능하는 방식에서 잘 나타난다. 대학과 취업준비, 계약직 노동기의 위험을 흡수하고 보호하는 역할을 1세대 산업노동자 부모가 해주었다면, 그 다음 단계의 생활에 대한 보호망은 결혼에서 찾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다.

울산 출신으로 부산에서 대학교를 마치고 부산과 울산에서 일해 온 U5(32세, 여, 기간제)는 '진로에 대한 고민이 많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녀는 좀처럼 안정된 직장을 갖지 못했다. 평범한 능력으로 들어갈 수 있는 민간기업의 처우는 낮았고, 괜찮은 공기업 정규직 시험의 문턱은 높았다. 그런 이유로 그녀의 노동이력은 '공백기'가 많을 수밖에 없었다. 그렇다고 자신의 노동이력 기록에 빈번하게 등장하는 공백기가 '쉬었음'으로 표현해도 될 일인지는 의문을 표했다. 어쨌든 졸업 후 공식적으로 취업하

지 않은 기간 동안 시험준비, 이력서 작성, 면접 등에 많은 시간을 보낸 것이 20대였다.

제가 다 그만둔 것처럼 기록이 되는데, 계약이 끝나서 이제 다시 정규를 찾다가 이렇게 된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뭐 요즘은 좀 잠깐 공백기 있는 걸 보고 뭐라 그러더라, 쉬었음 청년? 이렇게 표현하던데, 좀 그런 게 몇 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험 치고, 정규로 시험 치고 뭐 이렇게 하는 과정이 있어 가지고. 저는 좀 20대에 좀 그런 게 많았던 것 같아요.

자신의 20대를 되돌아보는 것은 30세가 지나면서 자신의 생애단계도 다음 단계로 가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울산의 결혼시장에서 통용되는 ‘결혼적령기’라는 것에 조급해지고, 굳이 일하지 않고 관례대로 결혼해서 살아가는 주변 친구들의 삶도 자신과 대비되어 조급함을 더한다. U5는 결혼할 생각이 있고 아이도 갖고 싶다고 했다. 그렇지만 아직 노동시장 자리가 확정되지 못한 채로 결혼하는 것이 결국 자신의 ‘일’을 포기하는 것이 되어 버릴 것을 우려한다. 일도 미완성인 상태에서, 결혼연령을 넘겨 결혼에서도 밀려날까 걱정되는 것이다.

저는 사실 좀 진로 쪽으로 되게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그렇다고 뭔가 딱 정해서 여기만 파야지 한 것도 없고. 그 좀 그런 부분이 스스로도 답답하면서 (중략) 또 한편으로는 다른 애들은 그냥 싫어도 참고 결혼하고 돈 모아서 뭐 하고 약간 이렇게 그냥 우리나라 그냥 관례처럼 이렇게 보통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요즘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U5).

나이에 맞는 결혼이란 게 사실 없는데 그런 사회적인 통상적인 그런 결혼할 시기 있잖아요. 그런 거에 맞춰서 결혼은 하는 것 같은데(U5).

인근의 대구에서 대학을 마친 U4(31세, 여)도 유사한 상황에 있다. 공무원시험을 준비하다가 최근에 포기하고 중소기업에서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다. 대학 진학을 위해 울산을 떠났다가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면서 다시 울산에 복귀했다. U5와 마찬가지로, 최근 들어 부모와 지인을 통해 맞선 또는 소개팅을 하고 있다. 그녀는 결혼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불안정했던 친구가 결혼 후 확연히 안정된 모습으로 변화한 것에서 결혼을 기대하게 되었다고 했다. 지금의 자신도 “감정적인 안정이나 경제적인 안정이나 다 필요”하다고 하면서, 배우자는 자신에게 없는 경제적 안정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확실하게 말했다.

U4와 U5 모두 4년제 대학 이상의 학력을 갖고 있지만, 노동시장에서 자립기반을 마련하지는 못했다. 공기업이나 공무원 시험을 준비했던 경험이 있고, 실패했던 경험이 있다. 울산의 부모집으로 되돌아온 배경도 부산, 대구 등 경상권 여성노동시장의 협소한 기회와 무관하지 않다.

두 여성 모두 선택적인 결혼의향을 가지고 있었는데, 조건에 맞는 사람이 있다면 결혼하길 원한다는 것이었다. 자신의 일자리(취업)가 안정되기 전까지는 결혼을 생각할 여유가 없다는 여성들과 달리, 이 여성들은 그러한 불안정성 때문에라도 안정된 결혼이 필요하다는 쪽에 가까웠다. 울산에서 여성에게 결혼은 이 지역노동시장이 제공하는 기회와 부에 접근할 수 있는 방식으로 여겨지고 있었다. 그리고 결혼시장에서 여성 자신의 노동시장 지위가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현실도 간파하고 있다.

울산의 연애·결혼 시장은 성별화된 노동시장과 지역 산업구조가 여성과 남성의 정체성에 미치는 영향력을 확인시킨다. 여성들은 대기업 정규직 진입이 봉쇄된 울산에서 대기업 정규직 아버지의 경제적 능력과 가족 자원에 의존하게 되고, 대기업 정규직 배우자와의 결혼을 통해 중산층 가족을 재/생산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2. 울산 부부가족에서 남성과 여성의 역할

울산의 '부유한' 부모세대의 그림자가 결혼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과 달리, 젊은 부부가족의 생활을 규정하는 것은 더 이상 부모세대의 성별분업이 아니다. 인터뷰에 참여한 여성들 모두가 현재의 취업상태나 결혼상태와 상관없이, 자신의 삶에 '일'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밝혔다. 자녀 양육이나 임신 준비 등으로 미취업 상태인 여성들도 끊어진 취업이력을 언제든 다시 이어갈 생각이라고 했다. 남성들도 자신의 배우자가 일을 하기를 원한다며 사회인으로 적절한 역할을 하며 가족 관계가 원만하기 위해서도 여성의 일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러한 태도는 산업가부장제 개념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현상이다. 울산 지역 노동시장의 구조에 상응하는 부부간 역할분담 방식은 확고한 분업형이기 때문이다. 여성에게 가정과 병행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가 제공되지 않는 대신, 남성의 일자리는 전국적으로 봤을 때에도 규모와 질 모두 상대적으로 우수하다. 실제로도 울산 여성의 고용률은 15~64세 기준 56.3%로 전국평균 65.3%보다 9%p가 낮다.

지역 노동시장의 조건과 달리, 울산 여성들이 '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그것이 그동안의 생애과정을 이끌어 온 논리에 부합하기 때문이다. 1980년대 이후 출생한 이 여성들은 부모세대와 달리 대학교육을 받은 세대들이다. 대학교육을 마친 이후에도 단지 생계를 위해서가 아니라 교육수준에 부합하는 적절한 사회적 지위를 얻기 위해 일을 해왔다. 교육투자라는 경제적 실리는 물론 한국사회의 입시, 대학교육, 취업준비와 고용이력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생애과정의 연장선상에서 보았을 때, 일을 하지 않고 주부로 산다는 것이 쉽게 상상되지 않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지난 생애과정의 경험을 통해 지역 노동시장에서 여

성에게 주어지는 기회가 얼마나 제한적인지도 알게 되었다. 그러한 여성들은 일을 해야 자녀도 더 잘 키울 수 있다는 논리를 동원하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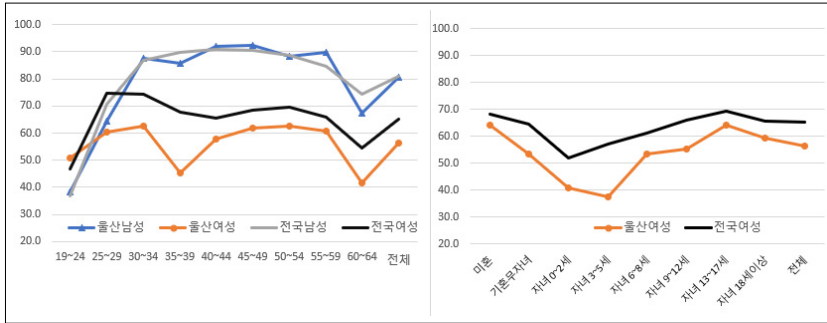
또한 주거, 교육 등 재생산 비용이 높은 가족생활의 조건에서, 상대적인 고소득자라고 해도 한 사람의 임금소득만으로 생활을 안정시키기는 쉽지 않다. 현재 맞벌이로 일하면서 자녀를 가질 계획인 U9(남, 중소기업 생산직)는 지방 공무원인 아내와 계속 맞벌이를 할 계획이라고 했다. 사실 맞벌이 부부 사이에서 남성들은 여성에게 일을 그만둬도 좋다는 ‘호의’를 베풀기도 한다. 그러나 단지 남편의 제안을 따라 일을 그만둔 사례는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일자리 자체에 문제가 있었거나 가족돌봄을 대신할 사람이나 기관이 없어서가 주된 이유였다.

사실 U9는 업무상 스트레스가 많아 어려움을 호소하던 아내에게 일을 그만두라고 말한 적이 있었다. 혼자 일해서도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다고 생각해서였다. 그러나 울산 중산층 부부 사이에서 아이의 존재는 시간보다 재정이 필요한 존재로 그려지고 있었다. 아이를 잘 키우기 위해 돈을 더 벌어서 울산의 대표적 학군지로 이사할 계획을 갖고 있다. 이러한 계획을 위해 맞벌이는 필수인 것이다.

울산 여성의 고용률은 높지 않고, 결혼이나 출산 전과 후에 일을 아예 그만두는 일이 흔하다. 실제로 2024년 상반기 기준 35~39세 여성의 고용률은 45.5%에 불과하여, 전국 평균보다 무려 22.4%p가 낮았다. 자녀 유무와 자녀연령에 따른 고용률을 보면, 막내자녀 연령이 0~2세일 때 울산 여성의 고용률은 40.9%, 3~5세일 때 고용률은 37.4%로 매우 낮았다. 이러한 여성고용률은 자녀가 초등학교에 들어가면서 상승하는 패턴을 그리고 있다.

[그림 2-6] 울산 여성의 연령별 자녀연령별 고용률(2024년 상반기)

(단위: %)



주: 자녀연령은 막내자녀 기준임.
출처: “지역별 고용조사,” 통계청, 2024년 상반기 [데이터 세트, C형, MDIS 원자료].

가사 분담이나 자녀 양육에 있어서도 변화한 태도가 엿보인다. 여성의 독박가사·육아보다는 서로의 노동시간과 필요에 맞춘 유연한 분업이 나타나고 있다. U2는 본인이 전업주부이고 남편은 소방직 공무원으로 교대 직 근무를 함에도 퇴근하면 가사와 육아를 많이 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남편에게 고정된 성별 분업 의식은 발견할 수 없다고 말한다.

애 낳으니까 더 많이 도와줘서 별로 불만이 없어요. 네. 애기를 더 잘 보는 거랑 더 곱하기로 더 잘해요. (웃음) 애를 너무 좋아해서. 아기도 아빠를 더 좋아해. (웃음) (문: 남편이 애기를 잘 봐주시는구나.)네, 정말 잘 봐요. 그래서 제가 오늘 나올 때도 엄마 갔다 온다. (웃음) (문: 남편분이 되게 그래도 그런 거에 대해서 막 그래도 여자가 더 해야지 뭐 이런, 딱히 그런 의식은 별로 없는.) 어, 없어요, 없어요. 그냥 제가 이제 그 근무 나갈 때는 밤새고 다음 날 오니까 전날 제가 많이 했을 거라 생각해서 다음 날 쉴 때는 본인이 다 하는. (U2)

면접 참여자들은 부모나 주변 부모 세대의 경우 거의 어머니가 가사·양

육을 전담해 왔다면, 자신의 세대에서는 남성들의 참여가 높아졌다고 공통적으로 말했다. 자녀 2명을 둔 기혼 남성 U10은 자신이 식사 준비, 분리수거와 청소도 주로 하며, “눈에 보이는 대로 바로 바로 하자.”는 마인드로 집안일을 자신의 일로 여기고 있음을 표현했다.

이처럼 울산의 청년들은 맞벌이를 필수로 생각하는 만큼 가사·양육도 함께 하는 것이라는 인식을 보였고, 육아휴직도 상황이 된다면 남성도 쓰려고 계획했다. U10은 첫째 출산 후 먼저 육아휴직을 썼고, 그 과정에서 독박육아의 힘들이나 아내의 처지를 더 잘 이해하게 됐다고 말한다.

첫째 때는 제가 먼저 육아휴직을 썼고, 둘째는 지금 아내가 이제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문: 그럼 선생님이 육아휴직 쓰셨을 때 선생님이 좀 보셨어요? 아이를 많이?) 예, 제가 많이 보고, 그리고 육아휴직이 조금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대신에 제가 뭐, 한 달에 몇 번씩 사무실 가서 업무를 좀 보고 이랬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상황을, 육아휴직을 쓸 수가 있었고, 그리고 제가 1년 정도 보면서 좀, 솔직히 힘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배우자가 얼마나 힘들까라는 걸 또 생각을 하게 돼서, 더 제가 조금 집안일이라도 좀 더 하려고 하는 편입니다. (U10)

3. 울산에서 자녀 키우기

가. 출산의향과 표준화된 출산조건

대부분 결혼을 지향하는 울산 청년들에게 울산에서 정주하기는 곧 울산에서 가족 만들기였다. 이때 주로 고려하는 요소들은 대부분의 대도시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것들로, 대전이나 광주 청년들의 이야기와도 별다른 차이가 없다. 육아 관행이나 규범은 전국화되고 표준화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한 표준을 충분히 실현할 수 있는 괜찮은 소득과 공간 인프라의 문제가 울산 청년들의 서사에서도 반복적으로 제기되었다.

결혼 의향이 있거나 결혼한 면접 참여자들은 대부분 자녀 출산 의사가 있었다. 자녀보다는 파트너 관계에 비중을 두는 사례(U4)를 제외하고, 아기가 가족의 유대와 부부관계를 더 단단하게 만드는 매개가 될 것이라 기대한다. 최대한 많이 낳고 싶다고 말하는 여성도 있고, 주변 또래들도 결혼하면 아이를 1-2명 낳는 환경에 놓여 있다 보니 적극적으로 임신을 준비하며 가족계획을 세운다.

그러나 실제 자녀를 출산하고 기르는 데에는 몇 가지 조건이 갖추어져야 유리했다. 우선, 경제적 안정이다. 막상 낳아보니 비용이 많이 들어 원래 계획했던 둘째 출산을 망설이는 경우가 있었다. 2~3명을 원하더라도 실제로는 경제적 부담으로 1명만 확실히 출산하고 2명까지는 아직 의향/계획이 불확실하다는 답이 많았다. 둘째, 주거 안정이다. 자녀가 다닐 수 있는 어린이집과 학교, 병원이 갖추어진 주거지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했다. 자가 소유만의 문제가 아니라 자녀 양육을 할 수 있는 커뮤니티, 시설이 갖추어진 주거지에 정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셋째, 돌봄 네트워크의 확보다. 주변에 시가, 친가 부모나 형제자매가 있어 자녀 돌봄을 분담할 수 있어야 둘째까지 계획하고 낳는다. “자녀 돌 키우려면 맞벌이 필수다. 그리고 할머니는 무조건 도와줘야 한다(U10)”는 언급 속에 녹아져 있는 조건이다. 지역을 가리지 않는 공통적 자녀 출산·양육의 조건일 것이다.

나. 울산 지역의 아동양육 환경 인식

울산은 산업도시이지만 인근 강·바다·산 경관이 뛰어나고 다수의 자

연·문화·역사 유산을 보유하고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최근 실시한 2025년 거주지 자연환경 만족도 조사에서 울산은 거주민 만족도 64.7%로 전국 1위를 차지했다(기후에너지환경부, 2025). 과거 수질오염이 심각했던 태화강이 친환경 생태하천으로 복원되고 2028년 국제정원박람회 대상지가 되는 등 자연환경이 적절히 갖춰지면서 이를 중시하는 청년들의 정주 의향을 추동하고 있다.

스웨덴 북부 지역에서 성장한 청년들의 경험을 공간 자본(spatial capital) 개념을 활용해 분석한 Forsberg(2019)은 정주-비이동이 항상 무력화의 반영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남는 이’들 가운데 지역에서 인정받는 사회자본과 사회자본을 갖추거나 만들어 가는 이들은 지역에 애착을 가지고, 자신들의 삶을 만들어 간다. 특정 장소의 고유함을 감각하며 소속감을 만들어 가는 데 자연환경도 중요하다. 울산에 정주하는 청년들의 서사와 가족 만들기에서도 사회적 환경과 자연 환경에 대한 만족도가 고루 나타나고 있었다. 이들은 울산 내 개인의 보유 자원에 따라 정주와 이동 사이를 저울질하고, 울산에서의 삶을 능동적으로 기획하고 있다.

미혼이지만 결혼한 친구들이 많은 U1도 울산이 자연환경이나 야외시설, 문화스포츠센터가 잘 갖추어져 있어 아이들과 함께 살기 괜찮다고 평가하고 있었다. 자녀가 있는 가족 단위의 여가 활동을 하기에 괜찮은 공간이라 인식하는 편이다.

40대 이후의 친구들을 보면 육아를 하고 양육을 하고 있으면 사실 이런 문화적인 측면보다는 문화도 아이가 누릴 수 있는 문화고. 대부분 여기는 그래도 자연 환경이 울산이 좋은 편이거든요. 뭐 산도 있고 바다도 있고 강도 있고 다 있다 보니까 그런 뭐 예를 들면 캠핑장 이런 것도 굉장히 많고. 문화체육센터도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울산 북구가 20만 도시인데 거기에 보면 체육 수영장이 4개가 있거든요. (중략) 그래서 수영장도 뭐 갈 수 있고.

그다음에 여기, 여기 다산인데 여기 다 캠핑장이 엄청 많거든요. 그러니까 시에서 하는. 그래서 여기 회사 다니는 친구들 양육을 하는 거 보면 주말에는 항상 거의 캠핑장에 가 있거나. 애들이랑. 아니면 요 근방에 뭐 무슨 조그마한 동물원이랄지 울산 대공원이랄지 태화강이랄지 그러니까 여기 갈 수 있는 **자연 환경이 되다 보니까 한창 뛰노는 애들을 데리고 있는 부모들은 괜찮더라고요. 갈 데가 많다. 갈 데가 의외로 많더라.** (U1)

5살 자녀 한 명을 기르고 있는 U2는 울산도 산후조리원부터 어린이집까지 대기 경쟁이 치열하지만, 자녀 양육에 있어 크게 불편한 공간은 아니라고 본다. 주로 양육 정보는 맘카페나 어린이집 학부모와의 교류에서 얻고 있었으며 구 단위로 설치된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아이 놀이 활동을 하며 대체적으로 만족하고 있다.⁴⁾

그냥 키우는 거는, 그렇게 막 키우는 데 있어서 불편한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근방에 **큰 병원 있어서** 바로 가서 진료 받을 수 있고, 근방에 뭐 **육종지나 뭐 이렇게 국가기관에서 하는 뭐 놀이시설**이나 뭐 그런 게 있어서, (문: 육종지가 뭐예요?) 육아종합지원센터라고 구마다, 다른 데도 있을 거예요. 있어서 또 그런 데도 찾아서 놀러도 다니고. 근방에 뭐 **어린이집도 다 있고 유치원도 있으니까. T/O의 문제지 뭐 들어가면.** (문: 그래도 좀 잘, 거기서 해 주는 것 같아요, 어린이집 보내면?) 어린이집, 네, 네. 만족. (U2)

특히 면접 참여자들은 결혼과 출산의 조건으로 주거 문제를 중요하게 꼽았다. 실제로 자녀를 기르거나 자녀가 학령기에 들어선 경우 주거 문제는

4) 현재 울산의 보육시설 현황을 살펴보면 2022년 기준 어린이집 공급률은 75.8%, 이용률 59.5%, 정원 충족률 78.4%다. 전국 평균 대비 공급률과 이용률은 낮은 실정인데 반해, 정원 충족률은 전국 평균을 상회하고 있다. 어린이집 만족도는 높은 편이다(울산광역시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 2024).

자녀 교육 문제와 분리되지 않고, 이직과 이동을 고려하는 동인이 된다.

전반적으로 면접 참여자들은 울산의 여유로운 분위기에 만족해하기에 자녀 교육에 있어서도 엄청난 교육열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 그럼에도 자녀가 자랄수록, 또 원하면 좋은 교육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서울 거주 경험이 있고 경기도에 자가를 매입한 U7은 수도권과의 교육 정보 격차를 언급하며, 자녀가 어릴 때는 울산에서 기르고 대입 준비 시기가 오면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가능성을 고려하고 있다.

일단 저는 만약에 여기서 애를 낳더라도 약간 그런 식보다는 그것도 좀 많이 경험할 수 있고 약간 그런 느낌으로 좀 육아를 하고 싶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지방에서 뭔가 또 좀 더 여유롭고 **뭔가 좀 자연이나, 아니면 어디 뭐 이렇게 돌아다니거나 약간 이렇게 뭔가, 경험적인 측면에서는 울산이 좀 좋은 것 같고**, 조금 이제 한, 뭐,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이후 이 정도부터는 저는 수도권에 더 좋은 것 같아요. (문: 교육 인프라 때문에?) 네, 교육 인프라 때문에 (중략)

자녀 교육 문제에 대응하는 또다른 전략은 울산 내 학군지로 이동하는 것이다. 앞서 지적했듯, 울산 내부에서도 학군지 여부에 따라 집값 차이가 크다. 울산 남구 옥동, 신정동, 달동 일대는 300여개가 넘는 학원가가 밀집해 있어 치열한 집값 상승과 경쟁이 일어나는 공간이다. 또한 신축 아파트가 들어서고 공공기관 입주나 재개발이 일어나는 북구 송정 신도시, 중구 우정혁신도시 일대도 대기업 근무자나 젊은 부부들이 모여들어 아파트 가격이 다른 곳보다 높다.

2세, 4세 자녀 2명을 기르고 있는 남성 U10은 울산 내 가장 유명한 학군지 근처로 이사를 계획 중이다. 이를 위해 해당 지역 오픈채팅방에 가입해 아파트 가격, 학원 정보를 얻고 있다. 그는 울산이 부산이나 대구처

럼 내부의 교육 격차가 심하지 않다고 진단하면서도 최근 떠오르는 학군지 동향에 밝았고, 자녀에게 “어느 정도 수준은 맞춰 주고” 싶어 한다. 학군지에는 영어 유치원 비율이 절반 이상이고, 거주민들은 근처 법원에서 근무하는 법조인들처럼 전문직이 대다수다. 대기업 생산직 고연봉자와도 구별되는, 지역 내 화이트칼라 상층 학부모들의 공간으로 U10은 진입하고 싶어한다.

학군지는 부동산 시장에서 우수한 입지와 가치를 지닌 곳이란 의미의 ‘상급지’이기도 하기에 U10은 학군지로의 이동을 일종의 부동산 투자로도 생각하고 있다. 그는 이전 아파트 매매시 시세차익을 경험하며 근로소득보다 부동산 수익이 더 유망할 수 있음을 체험하고 부동산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다. 이처럼 일부 지역 청년들은 서울/수도권으로의 이주나 울산 내 이동을 전략적으로 기획하면서 지역 경계에 갇히지 않는 삶의 전망을 그리고 있었다. 디지털 매체와 온라인 소통을 통해 전국 단위의 정보를 얻고, 삶의 기준을 그것과 가늠하는 양상 역시 변화한 지역적 삶의 양식을 보여주고 있다.

다. 직장의 가족친화 제도와 문화

울산 청년들의 가족/보육 정책 경험은 제조업 중심 산업도시의 ‘일-생활 균형’의 현실을 드러내고 있었다.

우선 면접 참여자들은 육아휴직 제도, 유산 휴가와 유산 위로금, 아이돌보미 서비스, 임신부 콜택시 지원 정책 경험이 있었다. 공공기관의 경우 육아휴직 제도를 별다른 부담 없이 활용할 수 있었고, 대기업의 경우 제도는 형식상 잘 갖추어져 있다고 해도 업종 특성이나 대체인력 확보 등 부서 상황에 따라 눈치를 보며 써야 했다. 현장 대응력과 업무 연속성이

중요한 공장 업무의 특성인 것으로도 설명되어 울산의 지역성을 드러내고 있다.

이때 공백이라는 게 이제 업무 연속성이 중요하고 바로바로 대처가 중요한 업무가 공장 업무는 많은데, 그게 조금 잘 안 되게 되니까 **육아휴직 쓰기가 좀, 오히려 본사보다도 공장, 울산 쪽은 좀 쉽지 않을 것 같다.** (U7)

그럼에도 대기업의 경우 사원 복지나 가족친화 제도가 체계적으로 갖추어져 있고 하청업체에도 적용되는 방식으로 관행화되어 있어 유산휴가나 위로금을 지급받은 경험이 있었다.

[남편이] 현대를 다니지 않고 현대 하청이긴 한데 그래도 ****이라고 **중공업** 거기 계열사이긴 한데 그래도 모든 걸 **현대를 모토로 따라가긴 하거든요.** 근데 제가 유산했을 때도 보니까 유산 위로금도 나오고, 유산 휴가해서 2주 휴가도 주고 약간 확실히 **그런 거에 있어서는 확실한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U6)

U6은 현대 계열사 기업·직장에서는 자녀 출산 장려금과 학비 지원이 이루어지고, 가족운동회 등 가족 참여형 행사를 여는 문화를 언급하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기업 복지의 중요성과 영향력을 지적하는 것이다. 울산 내 기초지자체별 지원 정책의 차이를 언급하기도 했다. 원전 시설에서 발생하는 세수가 많은 울주군의 경우 산후조리비 지원이 풍부하고, 북구에서는 공공산후조리원 할인이나 한약 지원을 해주는 등 구별로 세세한 프로그램이 있고, 도움이 되지만 그렇게 잘 알려져 있지는 않은 편이라 평가한다.

2자녀를 둔 U10은 돌봄 공백을 메우고 유자녀 여성의 이동성을 돕는

정책들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부모나 다른 가족원의 지원 없이 부부가 온전히 자녀를 양육할 때 운신의 폭이 매우 제약됨을 체험했기 때문이다.

최근에 그 임신부 콜택시 그 기능 그게 있는데, 기본요금이 1천 원부터더라고요. 시중 가격에 비해서, 택시비에 비해서 20% 가격 이용할 수 있는, 그게 되게 좋았어요. (문: 아, 이거 좀 아이 가지셨을 때 이용하셨었어요?) 지금도 이용 가능하거든요. 출산하고 1년 이내인가까지 이용 가능해서 되게 좋았어요. 이거는 그 복권기금에서 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 돌봄이랑 택시. 저거 두 개 말고는 딱히 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두 개는 정말 좋았어요. (U10)

1자녀를 키우고 있는 U2는 자녀 놀이와 돌봄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구립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존재와 유용성을 언급했다. 센터가 주거지와 가까우면 부모의 돌봄 부담이 덜어지고 다른 부모들과 만나 정보를 얻고 교류하는 등의 육아커뮤니티 기능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제5절 소결

울산은 우리나라 최대의 중화학공업단지가 위치한 대표적인 제조업 도시이다. 제조업 종사자의 45.2%가 대기업에 속해 있으며, 남성의 월평균 소득 또한 전국 최고 수준에 해당한다. 그러나 20~30대 청년의 순유출에서 드러나듯, 울산 제조업의 위상은 점차 약화되고 있다.

이 절에서는 산업 가부장제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지역 노동시장이 남성 중심적으로 구조화될 때 청년 남녀의 노동 경험과 가족형성의 전망 및 실천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분석하였다.

울산 청년의 가족형성 실천과 전망에는 산업 가부장제의 영향이 결혼

지향적이고 상승 지향적인 태도로 드러난다. 이는 성별 간 사회적 격차를 구조화하고 이를 장기적으로 재생산함으로써 결혼을 당연한 생애과업으로 정착시키는 한편, 부모세대(아버지)와 자녀세대(딸) 간의 세대적 격차를 통해 의존 관계를 강화하고, 이러한 관계가 자녀세대의 가족형성에도 영향을 미치도록 한다.

먼저 젠더 관계의 측면에서 보면, 울산 지역에서는 상승이동이 가능한 경력을 형성하는 남성 노동자와, 노동시장 경력을 통해 경제적 자립 기반을 마련하기 어려운 불안정한 여성 노동자의 쌍으로 젠더 관계가 구조화되어 있다. 그 결과 남성의 경제력에 대한 의존이 강화되고, 결혼의 경제적 기준이 높은 결혼시장이 형성되었다. 남성 노동자들은 또래 남성과의 경쟁 속에서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는 압력을 경험하며, 중소기업에 종사하거나 자산 수준이 낮은 남성 청년은 결혼 이행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다. 또한 동질성이 강한 기업도시라는 조건은 비교와 경쟁을 더욱 강화하는 경향을 보인다.

울산의 결혼시장을 설명하는 또 다른 핵심 요인은 부모세대와 자녀세대 간의 의존적 관계이다. 남성 중심적인 지역 노동시장은 청년 여성의 외부 유출을 초래하는 동시에, 이들의 재유입을 유도하는 이중적 성격을 지닌다. 부산, 대구, 경북, 경남 등 인근 지역 역시 공공부문을 제외하면 대졸 여성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충분히 제공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유사한 조건을 보이며, 이에 따라 청년 여성들은 부모세대의 지원과 보호를 기대하며 울산으로 복귀하는 경향을 보인다. 결혼적령기 담론이 여전히 유효하고 비교적 이른 결혼이 이루어지는 지역사회에서, 불안정한 위치에 있는 청년 여성들은 신중한 배우자 선택을 거쳐 결혼을 통해 안정과 계층 재생산을 도모한다. 이 과정에서 노동자 아버지를 중심으로 한 가족은 여성 청년의 위험을 흡수하고 가족형성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러한 울산의 결혼 관행은 이를 뒷받침하는 경제적 기반이 존재하기에 가능하다는 점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충분히 제공하지 못하는 타 지역 노동시장과는 괴리된 특수한 현상으로 보일 수 있다. 동시에 이는 안정적인 고용 기회의 제공이 가족형성과 나아가 저출산 문제 해결의 핵심 조건임을 보여주는 사례로 해석될 수 있다.

그러나 울산의 산업 가부장제와 결혼 관행은 이미 내·외부로부터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여성 청년을 중심으로 한 지속적인 인구 유출은 이러한 질서의 지속가능성에 외부적 의문을 제기하고 있으며, 전통적 성역할을 전제로 결혼한 부부들 또한 내부에서 이를 재검토하고 있다. 여성의 고등교육 확대, 맞벌이 지향의 청년 문화, 중산층 지위 유지를 위한 가구 소득의 필요성 등은 남성의 단일 소득에 의존하는 기존의 울산형 결혼 모델과 긴장 관계를 형성한다. 또한 대기업 정규직 신규채용의 축소, 비정규직 고용의 확대, 원·하청 구조의 고착화 등으로 울산 남성 노동시장 내부의 격차 역시 심화되고 있음을 간과할 수 없다. 이러한 맥락에서 울산에서도 남성 외벌이 가족은 점차 일부에게만 가능한 특권으로 전환되고 있다.

한편 “가정적이고 싶지만 어머니로만 살아가고 싶지 않다”는 청년 여성의 지향은 되돌릴 수 없는 변화로 나타난다. 울산은 어머니로 살아가기에는 비교적 적합할 수 있으나, ‘일하는 어머니’로 살아가기에는 여전히 제약이 큰 지역이다.



제3장

대전의 지역 기회구조와 가족형성 사례 연구

제1절 대전의 인구·고용 현황과 청년

제2절 지역 정주 환경 인식

제3절 지역 노동시장 인식과 대응

제4절 가족형성 전망과 실천

제5절 소결

제 3 장

대전의 지역 기회구조와 가족형성 사례 연구

제1절 대전의 인구·고용 현황과 청년

1. 지역의 인구

대전은 총인구 약 1백 47만 명(2024년 기준)의 광역도시이며, 국토 중앙에 위치한 충청권 대표도시이다. 대전도 비수도권 타지역과 마찬가지로 인구가 감소하는 추세에 있으며, 인구구성도 고령화되는 추세에 있다. 2015년 1백 54만이었던 인구는 그후 계속 감소하였으며, 중위연령도 계속 높아져 2015년 38.8세에서 2024년 44.4세로 상승했다. 그러나 대전 전체 인구 중 19~34세 청년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2024년 23.3%로 전국 평균 20.1%보다 높으며, 전국적으로 청년인구의 비율이 감소하는 추이와 비교하여 감소패턴이 완만하다(국가데이터처, 2024a; 그림 3-1 참조). 대전은 비교적 청년인구가 많은 도시이다.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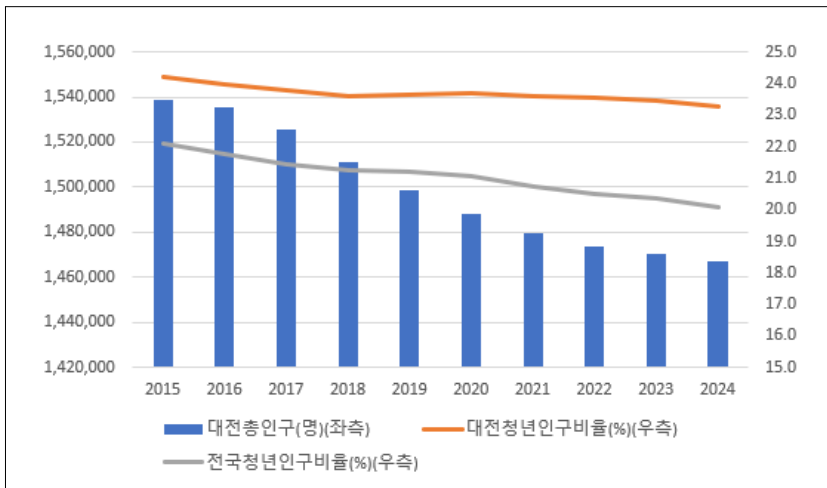
대전도 2010년대 이후의 수도권 집중현상으로부터 빗겨나 있지는 않다. 다만 유출규모가 크지는 않은 편이다. 2024년 기준 총인구수 대비 순이동률은 -0.1%로 부산(-0.4%)이나 대구(-0.2%), 광주(-0.6%), 울산(-0.4%)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또한 최근 10년 간 순유출률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인다(국가데이터처, 2025c).

5) 3장과 4장에서 다루는 울산과 광주의 2024년 기준 청년인구비율은 각각 18.0%, 21.3%이다(국가데이터처, 2024a).

94 가족형성의 지역적 조건과 초저출산에 대한 함의

19~34세 인구의 순이동 추이에서도 2000년대 이후 시기에 따라 순유출과 순유입이 번갈아 나타나고 있다. 특히 최근 5년 사이에는 미미한 규모지만 순유입이 나타나고 있어, 순유출이 심각한 비수도권 타지역에 비해 인구유출은 심각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청년층 내부에서도 세부연령에 따라 이동 추이가 상이하다. 20~24세 청년층은 2020년과 2024년 모두 순유입이었지만, 25세 이상 청년층은 같은 시점 순유출이고 비율도 크다. 대전도 25~34세 노동시장 경력초기 인구의 유출이 뚜렷하게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표 3-1 참조).

[그림 3-1] 대전 총인구수와 19~34세 인구 비율(2015~2024)



주: 총인구(외국인포함) 기준임.
출처: “인구총조사”, 국가데이터처, 2024a, 국가통계포털, 연령 및 성별 인구 - 읍면동, 2025. 10. 15. 검색,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sso=ok&returnurl=https%3A%2F%2Fkosis.kr%3A443%2FstatHtml%2FstatHtml.do%3Fconn_path%3D13%26tblId%3DDT_1IN1503%26orgId%3D101%26

〈표 3-1〉 세부 연령집단별 순이동률(2010, 2015, 2020, 2024년)

(단위: %)

	2010	2015	2020	2024
20-24세	-0.2	-1.1	0.3	2.0
25-29세	-0.8	-1.3	-0.9	-0.9
30-34세	0.5	-1.9	-1.3	-0.4
35-39세	0.2	-2.2	-1.1	-0.4

출처: “대전광역시 시군구 각세별 이동자수,” 통계청, 각 연도, 국가통계포털, 2025. 6. 10 검색,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26B07&conn_path=I3.

대전의 20대, 30대 성비는 전국 평균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다. 20대 초반은 108.2, 20대 후반은 124.1, 30대 초반은 114.4명이다. 그러나 대전지역 자치구별 청년인구의 성비를 보면, 과학기술연구단지가 입지한 유성구와 제조업 일자리가 밀집한 대덕구의 청년 인구 성비가 높다. 유성구의 경우 20대 후반의 성비가 131.6명, 대덕구의 경우 30대 초반의 성비가 131.4명까지 오르는 것으로 나타난다. 반면 중구는 20대 성비가 96.1로 여성이 근소하게 더 많다. 이는 대전의 자치구 사이에 일자리, 주거여건 등의 차이가 있음을 보여준다(표 3-2 참조).

〈표 3-2〉 청년 세부 연령 범주별 성비(2024년)

	대전 전체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대덕구	전국
20~24세	108.2	108.3	109.3	97.7	117.4	115.3	110.7
25~29세	115.4	124.1	96.2	103.6	131.5	127.9	113.6
30~34세	114.4	114.1	106.8	109.1	118.4	131.4	116.4
35~39세	111.2	117.0	106.7	105.5	112.4	124.6	111.5

출처: “인구총조사,”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2025. 6. 10. 검색,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IN1503&conn_path=I3.

다음으로 혼인과 출산 지표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국가데이터처, 2025b). 먼저 대전광역시의 평균 초혼 연령은 2024년 남편은 33.3세,

아내는 31.2세로 형성되어 있다. 2000년 남편 28.9세, 아내 26.3세에서 지속적으로 초혼 연령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서울의 경우 남편 34.3세, 아내 32.4세가 평균 초혼 연령으로 나타나고, 전국으로 보았을 때도 남편 33.9세, 아내 31.6세로 대전의 평균 초혼 연령은 낮은 편이다.

또한 가임 여성 1명 당 출생아 수를 나타내는 합계출산율은 2024년을 기준으로 0.79명으로 확인된다. 합계출산율 역시 2000년 1.5명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다만 서울 0.55명이나 전국 0.72명에 비해 대전의 합계출산율은 약간 높은 편이다. 5개 광역시 중에서는 울산 0.81명을 제외하면 대전의 합계출산율이 가장 높다(부표 11 참조).

대전 미혼 청년(25~34세)의 주거형태는 앞의 2장에서 살펴본 [그림 2-4]와 [그림 2-5]를 참조할 수 있다. 대전 미혼 청년(25~34세)의 부모 동거비율은 약 50%로 전국평균이나 광주나 울산에 비해 낮고, 1인가구 비율은 약 40%로, 전국 평균보다 약 10%p가 높다. 또한 2015년 이후 1인 가구 수는 전국과 대전 모두에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청년 1인 가구 증가는 청년 세대의 높은 미혼율과도 연관된다(부그림 4, 부그림 5 참조). 2024년 인구총조사에 따르면, 대전 청년의 연령별 미혼율은 20-24세 남성 미혼율은 99.6%, 여성 미혼율은 98.9%로 나타난다. 90% 내외의 높은 미혼율은 20대 구간에서 유지되다가, 30대 구간에서 크게 감소하지만 성별 차이가 나타난다. 30-34세 남성 미혼율은 72.9%, 여성 미혼율은 54.7%이며, 35-39세 남성 미혼율은 45.4%, 여성 미혼율은 28.3%이다. 평균 초혼연령이나 합계출산율과 마찬가지로, 전국 평균이나 수도권과 타 광역시(울산 제외)에 비해 미혼율이 낮은 편이다(국가데이터처, 2024d).

2. 지역의 노동시장 특성

2023년 집계 자료를 기준으로 보았을 때, 대전광역시의 경제활동인구는 82만명으로 경제활동참가율은 63.4%이고, 실업률은 2.8%, 고용률은 61.6%로 나타났다(국가데이터처, 2023a). 종사자 직업 구성은 관리·전문직이 30.0%로 비교적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이 특징적이다. 그 외 서비스·판매직은 22.8%, 사무직 18.4%이며, 기능·조립종사직은 16.6%이며 기타 12.2%이다(대전광역시, 2024b, pp. 114-115). 대학과 연구단지가 많고, 세종시 가까이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비해 관리·전문직의 비중이 높다.

대전은 울산이나 광주와 달리, 제조업보다는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의 비중이 높다. 지역총부가가치의 요소별 구성을 산업별 분포로 보면, 대전의 제조업 비중은 18.2%로 전국 평균 28.3%에 비해 낮은 수준이고, 그에 비해 서비스업은 75.1%로 전국 평균 62.9%에 비해 높다. 서비스업 중에서도 도소매(8.2%)나 음식·숙박업(3.1%)보다는 사업서비스업(15.0%),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9.5%)의 비중이 높고, 교육서비스업(7.1%)도 전국 평균 4.9%에 비해 높은 비중으로 나타난다(국가데이터처, 2023b). 이러한 산업 분포는 취업자의 업종 분포로 살펴보아도 유사하게 나타난다(부표 2 참고).

청년 노동시장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2024년 상반기 기준으로 사무직 비중이 23.5%로 가장 높고, 보건사회 분야 전문직 18.0%, 서비스직 13.4%, 과학정보 분야 전문직 12.4%의 순서로 나타난다(부표 4 참고). 또한 이러한 청년 직업분포는 성별에 따라 큰 차이가 있다. 남성 청년의 경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직종인 사무직 종사 비율은 17.2%에 그치고, 과학정보통신 분야 전문직 비율이 16.5%로 비교적 높은 편이고

. 그 외 다른 다양한 직종 비율의 대체로 10% 전후로 나타나는 고른 분포를 보여준다(부표 5 참고). 반면 여성 청년은 대부분이 사무직(31.3%)과 보건사회 분야 전문직(28.6%)에 편중되어 있다(부표 6 참고).

임금 수준은 <표 3-3>과 <표 3-4>에 나타나는 바와 같다. 먼저 <표 3-3>에서 확인되는 바는 서울 지역과의 전반적인 격차다. 평균과 중위값 모두 대부분의 경우 서울보다 대전의 평균 임금 수준이 낮게 형성되어 있다. 10명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서의 차이는 비교적 작은 데 비해, 기업 규모가 커질수록 서울-대전간 임금 격차가 크게 벌어진다.

기업규모가 커질수록 서울-대전간 임금격차가 크게 벌어지는 양상은 남성과 여성 모두에서 발견되지만, 기업규모별 차이가 있다. 10명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동일 성별 내에서 서울과 대전 간 격차는 상대적으로 크지 않지만 10-29명 규모의 사업장에서는 다르다. 남성 청년의 경우 서울과의 격차가 여전히 크지 않고(평균 임금 13만원), 30명 이상 사업장부터 격차가 커지는 양상을 보인다(45만원). 반면 여성 청년은 10-29명 규모 사업장에서 이미 평균 임금 38만원의 격차를 보인다. 오히려 30-99명 사업장 규모에서 서울과의 차이 금액이 15만원(평균임금 기준)으로 감소했다가 그 이상 사업장 규모에서 격차가 벌어지는데, 이는 대전 지역 산업별 사업체 규모와 관련되어 있을 가능성이 크다.

〈표 3-3〉 기업규모 및 성별 임금 격차: 서울-대전 비교(39세 이하 청년)

(단위: 만 원)

	서울(남)		서울(여)		대전(남)		대전(여)	
	평균	중위값	평균	중위값	평균	중위값	평균	중위값
1~4명	220	220	191	200	208	210	178	200
5~9명	270	270	219	210	263	270	208	214
10~29명	315	300	263	250	302	300	225	220
30~99명	371	330	291	270	326	300	276	250
100~299명	385	350	342	300	347	320	293	270
300명 이상	456	420	420	380	396	350	356	302
전체	347	300	281	250	309	300	246	230

출처: “지역별 고용조사,” 통계청, 2024년 상반기 [데이터 세트, C형, MDIS 원자료].

다음으로 교육수준별 임금 격차를 성별에 따라 나누어 살펴보면(표 3-4), 서울과 대전의 지역간 임금격차는 전문대졸 이하에서는 거의 나타나지 않고, 대졸이상에서는 뚜렷한 격차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대졸이상의 경우 대전 남성의 월평균임금은 356만원으로 서울의 404만원보다 약 48만원 낮으며, 여성도 대전 여성이 약 49만원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남성과 여성의 월평균소득 격차를 지역과 교육수준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대졸이상은 서울과 대전의 성별임금격차 수준이 유사한 것으로 나타난다. 대졸 여성은 같은 대졸 남성에 비해 월평균임금 기준으로 약 75~76만원 낮은 임금을 받는 것이다. 이는 지역간의 격차보다도 더 큰 수준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전문대졸 이하 여성은 같은 전문대졸 이하 남성에 비해 월평균임금 기준으로 51만원 낮은 임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서울의 전문대졸 남녀간의 월평균임금 격차(46만원)보다 미미하게 더 큰 수준이다.

〈표 3-4〉 교육수준 및 성별 임금 격차: 서울-대전 비교(39세 이하 청년)

(단위: 만 원)

		서울		대전	
		평균	중위값	평균	중위값
대졸 이상	남성	404	360	356	320
	여성	329	300	280	263
	전체	404	360	356	320
	남성-여성	75	60	76	57
전문대졸 이하	남성	255	250	254	260
	여성	209	220	203	220
	전체	255	250	254	260
	남성-여성	46	30	51	40

출처: “지역별 고용조사,” 통계청, 2024년 상반기 [데이터 세트, C형, MDIS 원자료].

지금까지 살펴 본 노동시장 현황은 대전 지역에서 청년 인구가 일자리를 구하고 정주하는 데 이중의 제약을 경험하고 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기업 규모가 커질수록 서울과의 임금 격차가 벌어지기 때문에, 대기업에 취업하고자 하는 대졸 이상 청년들은 수도권으로 유출될 가능성이 크다. 기업 규모가 작은 경우에는 임금 격차가 줄어들지만, 절대적인 임금 수준 자체가 낮게 형성되어 있어 지역에 정주하며 가족을 형성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 또한 성별 임금 격차를 살펴보았을 때 이러한 양상은 남성 청년보다 여성 청년에게 더 열악한 상황으로 경험되고 있을 것이다.

제2절 지역 정주 환경 인식

이 절에서는 대전 청년들이 대전광역시를 실제 삶의 과정에서 어떠한 사회적 조건으로서 경험하고 있는가를 살펴본다. 그리고 지역의 정주 환경 경험이 생애경로를 형성하는 데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구체적인 서술로 확인함으로써 대전 지역 청년의 가족 형성과 지역 정주 경험을 이해하고자 한다. 충청권역의 중심지이자 교통의 요지, 수도권과 가까운 입지 환경과 교육 및 연구 중심 지역이라는 대전광역시의 특징들이 지역 청년들에게 어떻게 경험되고, 삶의 경로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인터뷰 사례를 통해 탐색한다.

1. '적당한 도시'로 표현되는 생활환경

제1절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인구 지표 및 노동시장 지표로 살펴보았을 때 대전은 다른 지역에 비해 두드러지게 높거나 낮은 지표가 나타나지는 않는다. 수도권을 비교의 대상으로 놓으면, 지역 불균형 상황이 대전 지역에서도 전반적으로 드러난다.

하지만 전국 지표나 타 광역시를 비교의 대상으로 두면, 대전시는 대체로 중간 정도의 수준으로 나타난다. 인구 구조나 산업노동지표에서 서울과의 비교에서는 낮은 수준으로 평가되지만, 다른 지역과의 비교에서는 높은 수준으로 평가되는 것이다. 가령 2024년 연령구조 지표에서 대전의 15-64세 비중은 71.7%로 나타나는데, 이는 전국 평균 70.0%보다 높은 수준이지만 서울 72.2%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순이동률(2024년)로 보았을 때도, 수도권 지역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이 순유출 상태에 있으나 대전은 순이동률이 -0.1%로 부산·울산

(-0.4%)이나 광주(-0.6%)에 비해 양호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수도권에서 거리가 멀어질수록 인구 유출이 가파르게 나타나는 추세에 비추어보았을 때, 대전은 광역시 중에서는 인천을 제외하고는 서울권역에 가장 가까운 입지적 특성으로 인구 순유출 수준이 낮은 편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대전시의 특징은 주관적인 만족 수준이나 생활 수준 지표에서도 간접적으로 확인된다. 사회조사지표를 통해 본 대전 시민의 삶의 만족도는 10점을 만점으로 하였을 때 2023년 6.8점으로, 보통(5점)보다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며, 지역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6.6점, 행복감은 6.7점으로 확인된다(대전광역시, 2024a, p. 291). 이러한 만족감은 인터뷰에 참여한 청년들의 생활 만족감에서도 확인된다.

(다른 지역으로 가는 것도) 생각도 살짝 하긴 했었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대전을 너무 좋아하고 가족과 친구가 여기 다 있으니까** 떠나고 싶지 않고 웬만하면 대전권 안에서 취업을 하고 싶은 거예요. (D2)

그냥 다 대전이 괜찮다고 느끼는, 아마 제가 여기 학교를 다니고 있기도 하고, 그리고 놀러 가기도 서울이랑도 가깝고, 저희 본가랑도 **딱 위치가 그 중간쯤에 있는 느낌**이어서 그래서 좀 아이를 위해서라기보다 그냥 제가 여기 살고 싶은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D7)

주관적 만족도 외에 객관적인 생활 수준 지표로서 1인당 지역 총소득과 월평균 가구소득 지표를 확인해보면, 대전의 1인당 지역 총소득은 2023년 4,098만원, 개인소득은 2,649만원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난다. 특히 개인소득 수준은 서울 및 광역시 중에서는 서울(2,938만원)과 울산(2,810만원) 다음으로 높은 수준이다.

월평균 가구소득의 분포를 살펴보면, 500만원 이상이 32.3%,

200-300만원 미만 18.2%, 300-400만원 미만 17.2%, 400-500만원 미만 12.3%의 순서로 나타나며, 저소득 가구 비율과 고소득 가구 비율이 동시에 증가하는 추세도 확인된다(대전광역시, 2024b).

이러한 지표적 특성은 대전 지역 청년들의 인식 속에서 ‘적당히 살기 좋은 곳’이라는 표현으로 나타나고 있다. 인터뷰에 참여한 청년들은 대체로 대전의 거주 환경을 높게 평가했다. 이러한 평가는 대전에서 태어나서 성장기를 보낸 경우에 국한되지 않는다. 학교나 직장을 이유로 비교적 최근에 대전에 이주해 온 사람들의 표현에서도 자주 반복된다.

이 ‘적당함’은 대전시 자체의 특징에서 도출된 것이라기보다는 다른 지역과의 비교 속에서 드러나게 되는 특성이다. 비교 준거가 되는 의미 체계의 한 쪽 끝에는 ‘사람도 많고 복잡한’, ‘사건사고가 많은’, ‘그렇게까지 치열한’ 서울이 있고, 다른 한 끝에는 ‘마을버스가 1시간에 한 번 있으면 다행인, 너무나도 시골(D7)’이 있다. 대전은 그 사이 적당한 위치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다.

좀 여유롭고 그렇게 살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대전에 오니까 어쨌든 대도시이긴 하지만 그래도 인구 밀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고**. 그래서 편의성은 다 갖춰져 있지만 사람 너무 많아가지고 스트레스받고 그런 거는 좀 거의 경험을 못 했던 것 같아서 살기 좋더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D1)

지하철이 있지만, ‘서울만큼 복잡하지 않고 헛갈리지 않고’(D7), ‘최근에 집값이 많이 올랐지만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나쁘지 않은’(D1) 지역이라는 평가에서 대전의 살기 좋음은 ‘적당함’으로 표현된다.

또한 대전의 주거 비용 또한 수도권 지역에 비해서는 감당할만한 것으로 인식된다. <표 3-5>의 아파트 매매가격 지수는 2021년 6월을 기준(100.0)으로 두었을 때 각 시점별, 지역별 가격을 비교 가능한 지수로 환

산한 것이다. 표에는 포함하지 않았지만, 대전의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2011~2018년 동안 2021년 가격의 65~70% 이하 수준을 유지해왔다. 그 후 급등하기 시작하여 불과 2년 동안 30% 이상 상승하는 변동성이 있었지만, 2024년 현재에는 다시 89.7% 수준으로 하락하여 안정세를 나타내고 있다. 2010년대 이후 세종시 개발과 그에 영향을 받은 수도권역 확장세 속에서 가격이 상승한 것으로 파악된다.

뿐만 아니라 아파트 매매가격 및 임대료 수준이 서울 등 수도권에 비해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있다. 대전은 지리적으로 수도권과 매우 가깝고, 그로 인해 인구이동 또한 잦기 때문에 대전에 살고 있는 청년들이 대전의 거주 환경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수도권이 중요하게 자리잡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평가의 결과로 대전이 ‘살기에 적당한 곳’으로 인식되는 것이라고 해석된다.

〈표 3-5〉 전국 아파트 주택매매가격 지수(2019~2024년)

	2019.06	2020.06	2021.06	2022.06	2023.06	2024.06
전국	86.2	88.9	100.0	106.0	92.7	92.8
수도권	82.5	87.6	100.0	107.4	91.5	92.7
6대광역시	84.2	87.2	100.0	104.6	89.6	88.6
서울	91.1	94.3	100.0	104.1	92.7	94.8
광주	95.1	94.8	100.0	107.1	96.3	95.5
대전	72.6	85.1	100.0	103.9	89.4	89.7
울산	85.4	87.5	100.0	104.3	91.1	91.2

출처: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한국부동산원, 2025. 유형별 매매가격지수.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408&tblId=DT_40803_N0001&conn_path=I3

이러한 상황을 잘 보여주고 있는 사례가 참여자 D5나 D1의 아래와 같은 이야기이다. 특정 지역이 이상적인 주거환경을 갖추었는가를 평가할 때는 그 장소 자체의 고유한 특징이 초점이 될 수도 있으나, 인터뷰에 참

여한 청년들은 대전 지역을 인식하고 평가하는 데 수도권과의 비교, 그리고 대전보다 작은 소도시나 농촌지역 생활과의 비교의 틀을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대전의 장점은) 좋은 환경이요. 좋고 편해요. 그러니까 이제 어디를 가더라도 딱 중앙이다 보니까, 교통도 되게 편하고, **집값도 또 아무래도 좀 비싸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저는 수도권이나 이런 쪽보다는 그래도 좀 편찮은 편이고.** (D-5)

여유롭게 생활할 수 있다? **서울에 비해서겠지만** 어쨌든. (D1)

이러한 평가의 틀이 작동하는 데는 대전의 지리적 위치가 영향을 미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대전광역시에는 부산, 인천에 비해 인구 규모가 크지 않지만, 교통에 있어 특징적인 위상을 가진다고 평가할 수 있다. 대전은 수도권과 가깝고 전 국토로 연결되는 교통의 요지로서의 특성을 가진다. 또한 세종특별자치시의 개발 및 수도권 남부(수원, 평택, 판교 등)의 개발로 수도권역과 맞닿은 권역 발달 가능성이 다른 광역시와 두드러지게 다른 점이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대전이 ‘사통팔달의 요지’로서 서울 뿐만 아니라 여러 지역으로 연결되는 교통의 편리성이 뒷받침되기 때문에, 굳이 서울에서 살아야 하느냐는 공감대가 자주 확인된다. 이러한 수도권 지역과의 연계는 “서울은 잠깐 놀러 갔다 오는 게 좋지 살고싶은 도시는 아니(D2)”라는 대비로도 나타난다.

또한 대전에서 나고 자란 청년과 이주해 온 청년 모두, 대전을 안전한 지역으로 평가했다. 이러한 ‘안전함’은 ‘적당함’과 마찬가지로 여러 차원에서 구성되며, 다른 지역 -주로 서울-과의 비교 속에서 평가된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복잡하지 않고 안정적인 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인프라에서 느껴지는 안전함(D2)도 있고, 젊은 부부와 아이들이 생활하기

좋게 조성된 신도시 지역이 많은 데서 느껴지는 안전함(D1)도 있었다.

(유성구는) 아무래도 신도시가 많잖아요. 신도시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가 이제 좀 젊은 부부들도 많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 위주로 좀 잘 맞춰져 있는 것** 같아요.(D1)

심층인터뷰에서 이야기되는 대전의 안전함은 치열한 경쟁으로부터의 안전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 그리고 경쟁 강도에 대한 평가 역시 서울과의 비교 속에 형성되어 있다는 것을 반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즉 주택 가격이나 생활 인프라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생활 방식이나 경쟁에 있어서도 대전 청년들은 서울 지역과의 비교 속에 대전 지역을 안정적인, 안전한 공간으로 해석하고 있었다.

너 하고 싶은 공부 하면서, 대전에서 그냥 이렇게 마음 편하게. 좀 이렇게 너무 **학업에 치이지 않고**, 너 하고 싶은 일 하면서, 그런 마음인 것 같아요. 대전에 있는 그제. 아무래도 서울보다 인구도 적고 그러다 보니 학업도 서울에 비해서는 좀 덜 하니까 그래서 아이 키우기에 **괜찮은 것** 같아요. (D2)

대전의 안전함은 청년들이 이곳에 오래 정착하도록 하는 요인으로 작동하는 동시에, 뿌리를 내려 살 수 있는, ‘가족이랑 친구가 다 여기에 있는’ 장소로 정체화되도록 한다. 인터뷰에 참여한 9명 중 5명은 적어도 유년기부터는 대전에서 터를 잡은 지역 청년이었고, 4명은 다른 지역에서 이주해 온 사례였다. 그리고 이주 청년들 중 3명은 형제자매가 대전에 함께 이주하거나 어머니도 연달아 이주한 경우였다. 이러한 사례들이 발견되는 기저에는 대전이 ‘살기 적당한 도시’로서의 환경을 갖추고 있다는 공통된 인식이 깔려 있다.

제가 집은 청주고 대전이 이제 발령지니까 한 2년 정도는 (대전에서) 자취를 했고, 이제 어머니가 이제 혼자 적적해하셔서, 2년 정도 있다가 다시 **어머니가 대전으로 오시면서 같이 살게 된 케이스.**(D5)

심층인터뷰 사례들에서 이러한 연쇄 이주가 일어나는 주요한 계기가 인터뷰 참여자들이 대전에 있는 대학에 진학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대학 도시로서의 대전의 특징을 이어서 짧게 후술하였다.

2. 대학 도시

대전 지역의 중요한 특성 중 하나는, 광역시 단위 중에서 부산을 제외하면 가장 많은 대학이 입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전에는 국립대학 및 정부출연대학 5개 및 사립대학 16개, 총 21개 대학이 입지하고 있다.⁶⁾ 대전 소재 대학에 진학하는 청년들이 자연스럽게 유입되고, 이들이 대전의 거주 환경에 정착하는 흐름이 관찰된다. 참여자 D7과 D8은 형제자매가 이미 대전에 있는 대학에 진학한 상태에서, 대전에서의 대학 생활을 추천받아 동 대학으로 진학했고, 그 이후 현재까지 대전에서 살고 있다.

언니가 지금 충남대 같이 다니고 있거든요. 친언니요. 그래서 언니를 따라서 이제 충남대를 목표로 해서 언니가 먼저 와 있으니까 같이 살려고 저도 여기를 지원해서 대전까지 왔어요. (...) 사립대를 가려고 등록금도 찾아보고 했는데 너무 가격 비싸기도 하고, 부모님도 이제 좀 위쪽 서울 집 쪽으로 가기도 하는 그래도 좀 지방에 좀 가깝게 있는 게 좋지 않겠냐라고 하셔서 다 국립대로 지원(했어요). (D7)

6) 대전광역시 전자정부 누리집 (2025. 8. 24. 접속). <https://www.daejeon.go.kr/drh/DrhContentsHtmlView.do?menuSeq=1663>

이상의 인터뷰 사례에서 관찰되는 것처럼, 대학 도시로서의 대전은 지역 청년들이 성인기를 시작하는 공간이자 사회적 관계망을 확장하는 공간으로서 의미를 가진다. 하지만 동시에 오늘날 청년의 생애과정은 최종 교육기관 졸업 후 취업 단계로 이어지기 때문에, 지금까지 살펴 본 대전 지역이 노동시장이라는 차원에서는 어떻게 경험되는가 역시도 중요한 문제가 된다. 이에 다음 절에서는 인터뷰 참여자들이 경험하는 대전 지역의 노동시장과 일자리 상황을 통해, 대전 지역 청년들의 생애 이행 경로와 그 과정에서 작동하는 생애 전략을 살펴본다.

제3절 지역 노동시장 인식과 대응

1. 정부 및 연구 중심의 일자리: 한정된 접근

대전 지역 역시 수도권 지역에 비해 청년들의 일자리 환경이 좋지 않고, 그래서 제한된 환경 속에서 청년들은 ‘괜찮은 직장’을 찾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가령 대학 재학생인 D7 참여자는 본래의 전공 외에도 상경계열을 복수전공하거나 다양한 인턴 활동에 참여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었고, 대학 조교로 있는 D8 참여자는 학과 학생들이 공기업·공무원 취업을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대전의 산업 분포는 수도권뿐만 아니라 다른 광역시에 비해서도 제조업의 비중이 낮고, 서비스업의 비중은 높다는 특징을 가진다. 또한 대학, 대덕연구단지가 입지하고 있어 다른 지역에 비해 전문직 종사자의 비중이 높다. 그런데 이러한 산업 분포 현황은 대전 지역 청년들에게는 ‘특화된 산업이나 대기업이 많지 않고, 공무원이나 연구단

지 일자리는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들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취업 전망이 밝지 않은 상황'으로 인식되고 있다.

대전광역시의 300인 이상 대기업 비율은 17.9%로 전국 15.4%를 상회하지만, 서울 24.2%, 울산 21.8%에 비하면 낮은 수준이다(부표 3). 대전 지역의 정주 환경에 대한 인식에 서울이 영향을 미친 것처럼, 노동시장 상황에 대한 인식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을 가능성이 시사된다. 특히 대전은 서울과의 지리적 인접성과 접근 용이성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서울 및 수도권역의 노동시장으로의 이동도 활발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나절에서 논의한다. 대전 소재 대학의 인문사회계열 학과 전 일제 조교를 하고 있는 참여자 D8은 학과 학생들의 취업 준비 현황을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다.

대전 지역에서 준비를 한다고 하더라도 **대전 지역에 산업이 특화됐다든지 막 그런 부분이 마땅히는 없는 것 같아서** 취업률을 봤을 때도 졸업생들도 보편은 준비하는 걸 보면은 저희 과를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씀드리면 대부분 공무원이고. 대부분, 대부분 공단(공기업) 준비를 하고 있는데, 잘 안돼서 지금 청년 니트처럼 이렇게 행동을 한다든지. 그렇게 지내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D8)

이렇게 대전 지역에는 연구 단지와 대학들이 '괜찮은 일자리'를 가지고 있지만, 이들 조직에 채용될 수 있는 학력 조건은 한정적이기에 대전 청년들은 다른 지역 청년들과 마찬가지로 공무원·공기업 시험 준비에 착수한다. 그러나 이러한 종류의 취업 경로는 시험에 합격하기까지의 준비 기간을 필요로 하며, 그래서 그 기간을 '버티는 것'도 청년들의 과업이 된다. 그리고 그 기간을 버틸 수 없는 사람들은 '괜찮은 일자리'가 아니어도 '일단은 취업'하거나(D2), 대전에 남아있지 못하고 고향으로 돌아간다(D8).

그래도 뭔가,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이렇게 (생활)하려면. 그거(회계 사무직)밖에 없는 것 같아서. **따로 뭘 또 준비하기에는 올해 안에 취업을 하고싶기 때문에.** (D2)

난관이 예상되는 취업 전망과 계층화된 준비 전략 속에서, 대전 지역 청년들은 많은 경우 불안정한 지위로 노동시장에 진입하게 된다. 일자리를 구하는 경로 역시 안정적이거나 제도화되어 있지 않다. 친구나 동료의 우연한 소개, 정부나 지자체의 일자리 사업으로 열린 짧은 기회인 경우가 자주 발견된다. 그리고 이러한 일자리는 다음 D9와 D6의 인터뷰에서 확인되듯이, 정권이나 시기의 영향을 크게 받는 만큼 채용이 불안정하고, 실험적인 사업인 경우가 많아 안정적인 경력 확보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해야 하기도 한다.

(당시) **사회적 경제가 갑자기 이제 막 여기저기 부처에서 막 이제 화두가 되고 예산도 많이 배정받고 이래서 아마 뽑혔을 거예요.** 제가 그래서, 생활이, 그러니까 직장 생활다운 직장 생활을 처음 한 거죠. 제가 어떤 역할을 수행하고 어떤 것에서 제가 성과를 내야 되고 어떤 미션이 주어지고 그런 경험을 이제 30대 초반에 처음 하게 된 것 같아요. (...) 그때는 막 **저희끼리 자조하면서 이거 되게 물경력이 될 수도 있겠다.** (D9)

대통령, 옛날 대통령분이, 이런 IT 계열을 삭감을 했어요. 그러가지고 이 **국가에서 주는 과제가 없다** 보니까 기업들이 인원을 안 뽑는 거예요. (D6)

이같이 졸업 후 일자리가 한정되고 불안정한 상황에서, 대전 청년들은 다른 지역으로 구직 범위를 확장하게 된다. 그리고 일자리가 구해지는 지역으로 떠나는 경로를 밟게 된다.

2. 지역 정주와 이주의 갈림길: 서울의 일자리

지역에서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운 상황은 청년들의 이주를 촉발하는 주요한 요인이다. 서울이나 수도권은 취업의 기회가 많고, 임금 수준도 높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산업군이나 직종에 따라서는 대전에 마땅히 취업할만한 자리가 없어 서울이나 수도권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자주 확인된다.

참여자 D6은 대학에서 전문 제과제빵 교육을 이수한 후 일본 호텔에 취업했는데, 당시 대전에는 ‘제과제빵 주방을 가진 호텔’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회고했다. 자신의 전문적인 역량을 펼칠 수 있는 규모의 채용 시장이 없었기 때문에 꼭 서울이나 해외 취업을 원했던 것이 아님에도 지역을 이동하게 됐다는 것이다.

취업이 그쪽(서울)으로 많이 되기도 했고 보면 막 그런 친구들이 현대나 이런 데 다니는 친구도 있고, 그리고 또 다른 친구는 패션 일을 하고 디자이너 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도 어쨌든 서울 쪽에 보통 그런 계(문화산업) 많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일 때문에 서울에 많이 갔어요. (D3)

참여자 D2 역시 지역 청년에게는 ‘똑같이 회계를 해도’ 서울에서 받게 되는 임금이 더 크기 때문에, 임금 수준이 중요한 경우에는 서울로 이주하여 취업하게 된다는 점을 짚는다. 또한 ‘자기 전공을 살려서’ 취업하기 어렵기 때문에 서울로 간다는 이야기가 여기서도 재확인된다.

아무래도 일자리가 없어서 자기 전공을 살려서 취업을 하고 싶은데 대전에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서울로 가거나. 아니면은 똑같이 회계를 해도 대전에서 받는 월급보다 서울에서 받는 월급이 더 세니까 거기서 가거나 뭐 그런

식으로. (D2)

한 가지 더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할 점은, 이들의 이주가 적극적인 움직임인 경우(D6)도 있지만 ‘차선택’으로, 불가피하거나 비자발적인 선택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점이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지역 청년들은 인터뷰에서 대전 생활에 대한 높은 선호도를 표현했고, 자신의 주변 또래들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전한다. 하지만 일자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서울이나 수도권으로 가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D7, D9). 대전에 일자리를 구했다면 대전에 정주했겠지만, 대전에서 적절한 일자리를 찾을 수 없어 구직 범위를 넓히다보니 다른 지역에서 일자리를 구해 이주하게 된다.

대전에서 (취업) 하고 싶지만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대전에서 떨어졌으니** **까 서울에 여러 군데서 다 넣어 본다**고 하더라고요. (D7)

친구가 사무직으로 그냥 일을 했다가 그걸(도면 작성) 배워서 이제 도면을 그려요. 그런데 여기(대전)서도 **경력이 없고 나이가 많다고 안 돼서 부친. 부친으로 갔거든요. 다 그래요.** 제 동생도 사실은 여기서 퇴사를 하고 한 몇 개월 쉬고 싶었던 건데, 그 이후로 취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서울에 이력서를 내니까 바로 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사를 갔어요.** (D9)

생활 환경으로서의 대전은 살기 적당하고 안전한 도시이지만, 일자리 여건을 고려한다면 그러한 삶을 꾸리는 것이 원활하게 진행되는 것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제조업, 대기업의 비중이 낮고 전문·연구직, 정부 관련 종사직 비율이 높은 대전 지역 노동시장의 특징은 해당 요건에 맞지 않는 청년들에게는 다른 지역, 특히 수도권 노동시장으로의 탐색을 촉진하게 만드는 요인으로도 작동하고 있다.

3. 기본적으로 불안정한 노동시장

앞서 살펴 본 인터뷰에서 드러나는 것은, 대전 지역 청년들이 인식하는 노동시장의 주요 특징은 ‘접근이 어려운 연구직, 정부 관련 종사직’과 ‘대전 밖 일자리-수도권 일자리’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다음으로는 대전 지역에서 일자리를 구하는 청년들의 일자리 인식은 어떠한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인터뷰에 나타나는 청년들의 대전 지역 일자리는 어렵게 취업했음에도 불안정한 경우가 많았다. 불안정함은 고용 지위의 불안정함만이 아니라, 언제든 “쉽게 대체될 수 있는 그런 일(D9)”을 한다는 것, 그리고 오래 일한다고 하더라도 쉽게 대체되지 않을 수 있는 역량을 쌓아나갈 수 있는 환경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 그뿐만 아니라 근무 환경이 좋지 않아서 오래 일하기도 쉽지 않다는 것 등으로도 나타났다. 참여자 D3은 이전 직장 경험에 대한 회고에서, 근무 시간과 업무량이 불규칙했을 뿐 아니라 회사의 운영 전반에 대해 신뢰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불안했고, 그러던 와중에 이직 기회가 생겨 현재의 직장으로 옮겼다고 이야기한다.

이 회사가 이렇게 가도 괜찮을까? 약간 이 생각을 좀 많이 했었어요. 일이 없는 기간이 있었고, 또 일이 있을 때는, 가끔 무식하게 일이 많을 때가 있었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 한 달 정도를 그냥 쉬지도 못하고 일만 할 때도 있었어요. 일요일조차도. 그래가지고 그런 거 보고, **이거 이렇게 좀 불완전한 회사는 지금 얼마 못 가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D3)

들어갔을 때 바쁜 시기에 들어가서 소개도 뭐도 아무것도 없이 그냥 던져졌거든요. 그래서 그거 하면서 어떻게든 하긴 했는데, 바쁜 거 지나가도 사람들이 뭐가 챙겨주려고 하는 그런 것도 없고 뭐가 더 알려주, **아직 배우는 단계니까 알려주고 뭐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서 여기는 아닌 것 같다** 하고 나왔어요. (D2)

참여자 D2의 인터뷰에서도, 회사에서 자신을 장기적으로 일할 사람으로 본다면 업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역량을 키우기 위한 노력을 할텐데, 그러한 느낌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오래 일하지 못하고 그만 둔 경향이 드러나고 있다. 이렇게 청년들은 불안정한 노동시장에서 ‘조각난 경력’을 경험하는데, 더욱이 여성 청년은 결혼이나 출산으로 인한 경력 단절까지 예상되는 상황에서 경력을 이어나가기 위해 분투하게 된다.

솔직히 대전 일자리가 너무 없어요. 왜냐하면 공무원이랑 연구원들을 위한 일자리는 많은데 일반 기업체들은 있어도 질이 떨어지거나 급여가 적거나 이래가지고. 솔직히 결혼하고 나서, 결혼하고서 관두지 않고 계속 다니면 다닐 수 있겠지만, (아이가 있으면) 중간에 관둬서 경력 단절이 생기거나 아니면 육아 휴직을 하거나 이러면 돌아가기 쉬운 일자리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D2)

이처럼 대전 지역의 청년들이 인식하고 경험하는 일자리 여건은 일종의 분절된 노동시장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살기 좋고 번듯한’ 대전의 사회적 환경은 대학과 연구기관이 많고 정부 관련 종사자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맥락과도 닿아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적 환경은 대전 청년들이 체감하는 일자리 상황으로 연결되지는 않고 있다. 그러한 일자리에 접근할 수 있는 경로는 한정되어 있고, 일반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사기업 일자리는 대전보다는 수도권 지역에 더 많기 때문이다. 대전 지역에서 어렵게 일자리를 확보하더라도, ‘질이 떨어지거나, 급여가 적거나, 경력단절이 예상되는’ 불안정 일자리라는 점이 문제로 나타난다. 특히 이렇게 성별화된 노동시장 경험은 노동시장 진입의 단계부터 예상되고 있었다.

4. 성별화된 노동시장 진입

대전 지역의 노동시장이 성별화된 양상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앞서 살펴 본 것처럼 대전은 대표적인 남성 중심 업종인 제조업의 비중이 낮고, 여성화된 일자리 비중이 높은 서비스업의 비중이 높다. 그러나 남성 취업자의 비율이 여성에 비해 더 높게 나타나며, 업종에 따른 성별 분리도 마찬가지로 확인된다. 또한 전문직·관리직 비중이 높다는 이미지와 달리, 일반적인 전공을 마친 대전 지역의 대졸자 청년들이 접근할 수 있는 일자리는 많지 않은 것으로 체감되고 있다.

또한 여러 지표 중에서도 기업 규모에 따른 성별 취업자 비율을 비교하면, 대전 지역 여성 청년들은 다른 지역에 비해 보다 큰 격차를 체감할 수 있음이 확인된다. <표 3-6>에서 기업규모별 남성비율은 300인 이상 규모의 기업에서 64.8%로 나타나, 전국 평균 63.6%보다도 높고, 서울(57.9%)이나 부산(57.7%)보다 높다. 따라서 대전 지역 여성 청년들은 대기업 취업 가능성을 남성 청년들보다 훨씬 낮게 인식할 수밖에 없다.

<표 3-6> 지역별 취업자 기업규모별 남성비율

(단위: %)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전규모	57.0	54.3	54.0	53.5	55.6	54.5	55.5	65.7
1~4인	55.0	54.9	53.9	54.5	55.0	53.7	53.4	50.2
5~9인	52.5	49.3	51.1	51.7	51.0	51.0	50.2	48.1
10~29인	55.7	50.6	54.3	53.1	53.8	53.9	53.4	56.8
30~49인	56.0	52.5	52.5	51.4	53.6	53.0	53.7	62.4
50~99인	55.2	53.3	51.3	51.9	54.2	51.5	49.6	67.0
100~199인	60.5	56.9	57.4	55.0	62.7	52.8	57.1	73.3
200~299인	61.5	59.8	56.8	55.8	56.9	53.1	62.3	69.9
300~499인	62.8	58.9	61.1	59.6	61.1	53.2	63.8	80.4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500~999인	64.1	59.4	59.2	67.4	61.5	68.2	73.2	67.1
1000인이상	63.7	56.9	52.1	45.1	62.8	68.5	60.2	90.3
300인 미만	55.6	53.0	53.4	53.1	54.4	52.8	53.2	58.9
300인 이상	63.6	57.9	57.7	56.5	62.2	64.1	64.8	84.8

출처: 사업체노동실태현황, ”고용노동부, 각 연도, 국가통계포털. 2025. 10. 15. 검색,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8&tblId=DT_118N_SAUPN72&conn_path=I3.

이러한 상황은 대전 소재 대학의 청년들의 취업 준비에서부터 이미 체감되어 성별화된 경로가 시작되는 것이 확인된다. 사회복지학을 전공하고 있는 참여자 D7은 남자 선배와 여자 선배의 취업 준비 내용이 다르다고 이야기한다.

남자 선배들은 보통 다른 공무원을 준비했으면 했지, 사회복지 공무원은 잘 준비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여자는 사회복지 공무원을 많이 하고. **여자들이 (사회복지 공무원) 많이 하고 남자분들은 다른 사기업 쪽으로 빠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D7)

지역 대기업 일자리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업종이 제조업이기 때문에, 생산직·기능직으로의 진입이 어려운 여성 청년들은 더욱이 서울·수도권 취업을 고려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성별 임금 격차 역시 서울 지역에 비해 높아 ‘같은 자리에 취직한다면’ 서울로 갈 가능성도 확인된다. 특히 대전은 서울과 지리적으로 근접해 있기 때문에 대전의 여성 청년들은 서울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쉽다. 이러한 상황이 D9의 이야기에 잘 드러나 있다.

친구들이 했던 말 중에 하나가, 저는 그런 건 정말 생각을 못했는데, 여기 충남 지역에 제 친구가 이제 대전에서 (취업이) 안 되니까 계속 반경을 넓힌 거

예요. “천안까지 넓혔는데 다 제조업 중심인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거기 경리 자리 아니면 갈 데가 사실 크게 없다” 이렇게 하면서, **“그냥 사람 많은 서울 가고, 그럼 나랑 비슷한 애들도 많으니까 그냥 거길 가는 게 나을 것 같아”**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D9)

기업 규모는 임금이나 근무 조건 뿐만 아니라 고용 안정성과도 밀접한 연관성을 가진다. 높은 임금이나 성취가 있는 직장이 아니더라도, 안정적으로 꾸준히 일할 수 있는 일자리라면 장기적인 생애 전망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생애과정에서 결혼과 출산이 집중되는 30대의 도래와 함께 결혼·출산 여부와 상관없이 일자리를 잃게 되는 고용 불안정성을 여성 청년들은 일상화된 경험으로 목격하고 있었다.

그때 이제 좀 이렇게 계속 지내면 안 되겠다라고 느꼈던 게, **29살이었던 언니가 그때 갑자기 상자를 들고 가시는 거예요. ‘집에 가라’고 했다고 회사에서.** 다 계약직이었거든요. 근데 되게 사실 월급은 적지만 정말 앉아 있다가 퇴근해도 되는 되게 안온한 자리였지만 **내가 3년 뒤엔 저렇게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럼 공부를 계속 그냥 하자 여기서 시간을 버리지 말자 이런 생각을 했고. (D9)

이렇게 대전 지역 노동시장에서 쉽게 관찰되는 여성의 경력단절이 지역 청년들에게 어떻게 의미화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5. ‘상수’로서의 경력단절

인터뷰에 참여한 대전 지역 여성 청년들의 일자리 경험에서 경력단절

에 대한 예상과 그로 인한 어려움은, 중학교 교사로 재직하고 있는 사례를 제외하고는 공통적으로 확인된다. 중학교 교사인 D-5 참여자의 경우도, 육아휴직 후 복귀는 가능하지만, 그 과정이 쉽지만은 않다고 설명한다. 제도적으로는 복귀가 보장되어있지만, 오랜 업무 공백을 다시 따라잡기 위해 필요한 실질적인 지원, 업무 배려와 같은 부분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대전 지역 청년들의 일자리에서 경력단절은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주어지는, '상수(常數)'와 같은 제약으로 파악된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취업으로 사회 생활을 시작한 참여자(D2)에게도, 서울에서 석사 학위를 취득하고 돌아온 참여자(D9)에게도 “결혼할 거냐 뭐 이런 질문을 많이 하는” 면접은 동일하게 경험됐다.

이제 결혼 적령기라고 다들 생각을 하니깐 **면접을 가도 결혼할 거냐 뭐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안 한다고 하더라도 솔직히 그동안 봐온 사례들이 있는지 뭐 잘 믿지도 않는 것 같고.** “결혼하고, 결혼 안 한다고 해서 뽑았는데 관두는 여성들이 좀 있다, 그래가지고 내가 너희를 뽑았는데 네가 결혼을 해서 나가거나 뭐 임신을 하거나 하면은 우리 회사에 좀 곤란하지 않겠냐.” (D2)

앞서 살펴 본 ‘대체가 쉬운 인력’이라는 특성이 작용하기도 하고, 일자리의 열악함 때문에 가사와 돌봄을 외주화하면서 일을 지속할 유인이 크지 않은 것도 영향을 미친다. D4는 현재 일을 구하고 있는데, 이전 직장을 그만 둔 이유로 급여수준이 낮을 뿐만 아니라 출산 휴가 3개월만 허용되고 육아휴직은 사용할 수 없는 조건을 들었다. 직장에서의 근속이 승진이나 보상과 연결되지 않는 상황의 여성들은 개인적 사유나 가족적 사유로 일을 그만둘 유인이 크다.

그, 출산 휴가 같은 거만 법적으로 3개월만 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때 이미 이제 너무 일에 대해서는 많이 지쳐 있는 상태라서, 좀 출산 육아, 육아휴직 같은 거는 아예 못 쓰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출산 휴가라도 좀 6개월 정도 쉬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도 다 안 된다고 그러고, 그리고 그때 또 이런저런 좀 불만 같은 게 많아가지고, 그래서 여기 다닐 바에는 이렇게 스트레스 받으면서 할 바에는 애도 안 생기고 그러니까, 여기 그때가 좀 시급이 1만 원대 이렇게 한다고 했을 때였어요. 그래서 여기 아니어도 판 데 가도 이 정도는 받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D4)

보편화된 경력 단절은 다음 사례에서와 같은 방식으로도 여성 청년들의 노동시장 진입과 경력 개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사회복지학을 전공하는 D7 참여자는 학과 실습과 취업 준비를 위한 경력으로 아동센터에서 인턴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경험에서 나오는 고민을 아래와 같이 이야기한다.

(아동센터에서 일하시는 선생님들이) 다 나이가 되게 있으신 분들이셔서. 그리고 제가 센터에 취업을 하는 것도 좀 맞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것도 이런 이유인데, 사실 그분들은 다른 곳에서 일을 하시다가 이제 자격증을 따셔서 이제 이 일을 하게 되신 거잖아요. 근데 저는 처음부터 이 센터 일을 하기에는 뭔가 조금 아깝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어차피 내가 다른 일을 하다가 와도 자격증을 따면 여기서 일을 할 수 있는데 좀 그런 생각도 들긴 들더라고요** (D7)

이처럼 직·간접적인 직장 경험 속에서 대전 청년들은 자신들의 노동 생애를 ‘경력단절의 위험’ 속에 전망하게 된다. 결혼이나 출산으로 경력단절을 경험하는 선배 여성들을 목격하는 것 외에도, 여성화된 일자리 자체의 효과로서 노동시장 참여와 경력 개발 의욕이 저하되는 경험을 하기도

한다. 참여자 D7은 자신의 전공 진로가 여성화된 일자리, 즉 낮은 임금과 고용불안정이 상시화된 직종이기 때문에, 경력을 발전시켜나가고자 하는 동기가 부여되지 않는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사회서비스나 보건복지 분야에 국한되지 않는다. 대학원 과정과 연구소 근무를 병행하며 전문직 커리어를 쌓고 있는 참여자 D9도 자신의 미래를 투사할 만한 여성 생애 모델을 지역사회에서 쉽게 발견하기 어렵다고 했다. 대전 지역 내에서 ‘커리어’로서 여성의 일은 여전히 드물고, 실제 그러한 가능성을 실례로 보여주는 사례가 많지 않다는 것이다.

내가 되고 싶다라는 어른이 여성인 경우가 사실 없었거든요. 근데 서울 갔을 때는 꽤 많이 목격하고 스키키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게 되게 저한테 좀 강렬했고 그러면은 계속 좀 나도 열심히 해보자 이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 그리고 제가 이제 참고하고 따르는 분들은 거의 다 이제 너무나 자기 사람이 많은, 그러니까 든든한 자기 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고, 다 남자분들이고, 그리고 기질적으로도 굉장히 또 강성이시고 하니까, 나랑 저랑 좀 다른 분들이고 난 다른 방법을 찾아야지. 그래서 모델을 할 수 없겠다. 저랑 이분은 다르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D9)

청년들의 노동경험은 취업을 통해 생활을 안정화하고 가족형성으로 나아가는 경로가 쉽게 확보되지 않는 현실을 보여준다. 더욱이 가족형성 이후 여성 일자리 연속성이 보장되지 않는 현실은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에게도 가족형성에 부담을 주는 것이다.

제4절 가족형성 전망과 실천

청년들은 인터뷰 속에서 자신들의 선택과 생애 경로를 설명할 때, 일자리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구성하고 있었다. 일자리의 안정화는 청년기의 일차적인 과업이고 생애 전반에 걸쳐 장기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주거독립이나 결혼/출산 등 대표적인 성인역할 수행의 기반을 제공한다. 그런 점에서 지역 노동시장이 제공하는 기회구조는 결혼과 출산의 가능성을 직접적으로 제약할 수 있다.

이처럼 노동시장 지위와 경제적 자원 등은 결혼이 가능한 조건을 결정하지만, 왜 결혼이 필요하고 결혼을 통해 무엇을 얻고자 하는지에 대한 정당성을 직접 제공하는 것은 아니다. 가족형성에 대한 개인의 태도와 의향은 그것이 가능한 조건이 마련되었는가가 더불어 그것이 자신에게 필요하고 의미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판단을 필요로 한다. 이하에서는 대전 청년들이 주어진 경제적 조건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인적 관계망 속에서 결혼의 가치를 어떻게 배치하고 의미화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여기에는 원가족, 또래집단, 지역 문화, 친밀성의 경험과 같은 요인들이 함께 결합되어 나타난다.

1. 가족 및 동료집단의 영향

인터뷰에 참여한 청년들은 가족형성을 모색하는 데 있어 원가족과 또래집단을 적극적으로 참조하는 경향을 보였다. 먼저 원가족과의 관계는 청년이 부모로부터 독립하고 새로운 가족을 형성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방식으로 영향을 주고 있다. 청년들은 주변에서 ‘결혼’이나 ‘자녀갓기’에 대해 물어보고 권유하는 등 압박을 받은 경험을 보고했다. 언제 어떻게

가족을 만들 것인가는 전적으로 본인의 의사에 달린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주변으로부터 결혼과 출산에 대한 은근한 암시와 압박에 노출되는 것은 흔한 일이다.

대전 청년들은 자신의 결혼 및 출산에 대한 가치관을 표현함에 있어, 부모와의 관계나 부모의 경험을 직접 동원하여 자신의 생각을 설명하는 경향이 있었다. ‘집안의 분위기’, 부모의 부부관계에 대한 관찰과 평가, 어머니 또는 아버지의 삶에 대한 회상과 평가 등이 빈번하게 등장하였다.⁷⁾ 다만 원가족에 대한 긍정적 혹은 부정적 평가가 청년 자신이 앞으로 계획하는 가족 전망에 미치는 효과의 방향이 일관되게 나타나지는 않는다. 가령, 가족에 ‘결핍’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완전한 가족을 꾸려야겠다고 생각하기도 하지만(D3), 원가정의 불화 속에서 ‘나는 다르게 살아야겠다’는 생각으로 이어지기도 한다(D2). 참여자 D3은 초등학교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가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가정을 ‘완성’하고 싶다는 생각을 해 온 것 같다고 이야기한다.

그 생각도 들기도 하는 게, 결핍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해요. 어렸든 동생 같은 경우는 제가 초등학교 들어갈 때 아빠가 돌아가셨으니까, 동생 6살 때고 누나는 저보다 3살 많으니까 11살 때 다들 엄청 어릴 때잖아요. 그럴 때 이제 어렸든 결핍이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조금 나는 다른 데서 이렇게 나는 가정을 꾸려서 안정적인 걸 하고 싶다, 약간 이 생각도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요. 물론 다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D3)

반면 참여자 D2는 결혼에 대한 신중함, 더 나아가서는 부정적인 태도

7) 장경섭(2023)은 이른바 한국의 개인화는 심층적 수준에서는 압축적 근대화 과정에 수반된 가족주의가 자유주의적으로 발현된 역설적 양상일 수 있음을 논의하고 있다. 이러한 논의는 심층인터뷰를 분석한 경험 연구에서도 확인되고 있다(최정원 외 2024).

를 가지게 된 데 부모님의 영향이 컸다고 회고한다. 부모님의 불화뿐만 아니라, 어머니가 그러한 불화를 참으면서 살았던 모습을 보면서 '나를 죽이면서까지 살지 말'자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러한 삶의 방식은 신중하게 배우자를 선택하는 것, 그리고 그러한 배우자가 아니라면 결혼을 하지 않는다는 나름의 기준을 형성하게 만들었다.

우선 엄마 아빠처럼 살지 말아야지 그게 좀 컸어요. 우선 자녀들 앞에서 싸우는 모습을 너무 많이 보여줬고, 그리고 그때도 엄마 아빠가 어리긴 했지만 그래도 아무리 어려도 내가 그 나이를 딱 지나고 나서부터 아무리 엄마 아빠를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중략) 약간 이런 그런 거 보면서 나는 **저렇게 살지 말아야지 나를 죽이면서까지 살지 말아야지.** (D2)

결혼뿐만 아니라 자녀갓기(부모되기)에 대한 태도에서도 부모자녀관계에서 경험한 것은 일정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어떤 부모가 되어야 하는가에 대해 명확한 상을 갖는 데 있어서도 부모와의 관계에서 얻은 경험과 인식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그냥 저희 부모님 같은 부모가 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를 키우면서 드는 생각이 특히 제 아버지가 엄청 중요한 역할을 하셨구나**라고 하는 게 이제서야 좀 보이는 것 같아서 정말 좋은 부모님이셨구나라는 것도 이제 좀 보이는 것 같아서 **아버지 같은 아빠가 될 수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 정도 한 것 같아요. (D1)

다른 한편 또래집단의 결혼, 출산 경험도 가족 실천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친다. 참여자 D4나 D9는 친구들의 결혼생활을 보면서 결혼에 대한 태도를 형성한 부분이 있음을 회고한다. 참여자 D4는 결혼 이후 여성

친구들에게서 관찰되는 의존성과 주체성의 상실에 주목했고, 참여자 D9는 결혼하지 않은 친구들이 참조할 만한 ‘좋은 모습’들이 주변에 많지 않다는 점을 비혼의 원인으로 짚는다.

가정 환경, 이렇게 막 결혼을 하고도 이렇게 좀 좋은 모습들이 보여야 좀 이렇게 그 친구도 결혼을 해야겠다는 그런 마음가짐도 있고 하는데,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 그런 거나 또 이제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그런 거나, 그리고 또 요새 또 결혼하고도 이혼을 많이 하는 추세여가지고, 그런 부분을 많이 보게 되니까 그 친구들은 막 결혼에 대해서 겁먹이고 이렇게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D4)

결혼에 대한 확정적인 태도가 아니더라도, 참여자 5의 인터뷰에서 나타나듯이 같은 업종이나 직장에 있는 동료들의 행동을 관찰하면서 참조점으로 삼기도 한다. 교사인 5는 동료들의 결혼에 대한 생각이 서로 비슷하다고 했다. 결혼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과 급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다른 문제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녀는 현재 만나는 사람이 있지만 결혼이 중요한 만큼 더 오래 상대방을 ‘살펴보고’ 싶다고 한다. 아무래도 교사라는 안정된 직업, 30대 초반이라는 연령, 그리고 직장동료의 분위기 등이 애초 예상보다 결혼시기를 늦추게 된 배경이 된 것으로 보인다.

비슷한 것 같아요. 비슷한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저도 사실 이제 결혼에 대한 생각이, 그러니까 주변 이제 아무래도 교사, 지금 체육 선생님들이 많으니까 같이 이제 모임도 또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런저런 얘기하다 보면, 다들 그냥 저랑 비슷하게 생각하고 결혼에 대한 게 당장 급하지는 않은 사람들이여가지고, 저도 점점 이제 결혼에 대한 시기가 조금씩 늦춰지는 것도 있고.(D5)

비수도권 도시라는 환경, 부모와 친구 등 인적 네트워크 속에서 생활하고 있다는 점 등은 결혼과 출산에 대한 태도와 가치가 이러한 인적 관계망의 상호작용으로부터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시사한다. 부모나 형제자매를 비롯한 지인들의 결혼생활, 자녀양육경험 등은 아직 경험하지 못한 가족형성 이후의 삶을 미리 그려볼 수 있도록 하며, 자신이 따라야 할 것과 따르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한 실례로 작용하여 구체적인 전망을 세우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대전은 대도시이지만, 대전 지역에서 오랫동안 살아온 연구참여자들에게는 가족과 지인 등 잘 아는 사람들로 연결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대전 지역 청년이 서로를 만나는 방식은 지인의 소개, 동호회 등에 집중되어 있다. 학교나 직장의 범위 내에서 이성을 만나는 경우보다는, 주변 사람들의 소개를 통해 만나거나 (주로 직장인들은) 직장 밖의 동호회에서 이성을 만난다.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은 일단 **동호회에서 운동을 하다가 만난 분**이고, 그전에는 사실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친구로 지내다가 만나게 되는 친구**도 있었고, 대학교 때 더 어릴 때는 같은 과 선배랑도 만났었고, **그런 식으로 주변 사람들과 만났던 것 같아요**. 소개팅으로는, 소개팅도 하고 이렇게 해봤는데, 소개팅을 해서 성공해서 만난 분도 물론 있지만, 잘 안 맞아서 금방 이제 헤어졌던 것 같고, 조금 알고 지내던 사람이랑 이렇게 발전하게 됐던 것 같아요. (D5)

그런데 동호회나 소개팅을 통한 만남이 가능하려면 일단 뚜렷한 결혼의향이 있어야 한다. 결혼의향이 뚜렷하지 않다면 굳이 소개팅을 하지 않을 것이고, 동호회 참여도 하지 않을 것이다. 누군가를 ‘굳이’ 만나기 위한 활동을 하지 않는다면 누군가를 만나기 어려울 것이다.

연락을 먼저 이렇게 한다든지 아니면 뭐 동아리를 나가든지 어디를 활동적으로 뭘 해서 **사람들과의 접점을 만들어 만들던가 그런 게 중요한 것 같기는 한데** (D7)

가끔 친구들이랑 술자리 가질 때 친구들의 지인이 올 때가 있어요. 그런 거 외에는 **따로 뭘 하고 있는 건 없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거기서 뭘 발전이 되지 않고 그냥 친구로 끝이어서 뭐가 없어요. 그리고 그런 술자리 **일회성 술자리에서 파악을 하기 상대방을 파악하기에는 너무 짧고**. (D2)

참여자 D2가 이야기하듯이, 이따금 친구들과의 술자리에서 친밀한 관계로 발전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나기도 하지만, ‘누군가를 굳이 만날 의지’가 많지 않은 상태에서는 상대방을 파악할 수 있을 정도의 관계로 좀처럼 진전되지 않는다. 인터뷰에 참여한 청년들은 ‘이상적인 배우자’ 혹은 관계를 이어나가며 미래를 생각해볼 수 있는 상대방의 조건으로 소통을 통한 신뢰 가능성과 자기돌봄 능력을 바탕으로 한 생활력을 언급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미래의 결혼 계획이나 전망에 대해 이야기할 때, ‘상대방을 아는 것’, ‘신뢰를 바탕으로 한 친밀성’을 특히 중요하게 상정하고 있었다. 신뢰, 돌봄 능력과 같은 ‘관계 내적’ 기준은 직업이나 나이, 취향과 같은 ‘관계 외적’ 기준들 보다 훨씬 많은 탐색의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나 인터뷰에 참여한 대전 지역의 청년들에게 그러한 시간과 여유는 쉽게 확보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관찰된다.

이상으로 살펴본 바와 같이, 청년들은 원가족이나 또래집단, 주변 사람들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가족 규범의 압박을 느끼기도 하고, 가족 형성에 대한 일종의 참조점을 도출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지역 청년들은 자신들의 새로운 가족에 대한 전망을 형성하고, 이를 충족시킬 수 있는 조건으로서 탐색의 시간과 신뢰를 기대하지만 쉽게 기대가 충족되

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는 지역 청년들의 생애를 지역 노동 시장을 한 축으로, 그리고 사회적 관계망을 한 축으로 파악했을 때, 대전 청년들은 일자리와 사회적 연결망의 결합 양상에 따라 가족 형성을 어떠한 방식으로 의미화하고 실천하는가를 살펴본다.

2. 불안정 노동의 대응으로서 준비와 신중함 요구

협소한 취업 문과 불안정한 노동, 상수화된 경력단절의 상황과 불투명한 생애 전망은 대전 지역 청년이라면 잘 알고 있을 현실의 단면들이다. 청년들은 이러한 일자리 여건에 의해 규정되는 생애 전망 속에서 결혼과 출산을 인식하고 있으며, 그러한 전체적 생애 전망 속에서 결혼과 출산을 구상한다. 고용이 안정될 때까지 결혼을 미루는 것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그러나 고용이 쉽게 안정되지 않는다면, 나아가 현재의 불안정한 상황이 앞으로 크게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한다면, 안정을 결혼의 조건으로 상정하고 있던 과거의 전략을 수정해야 할 필요가 생길 수 있다. 이러한 수정 국면에서, 그동안 결혼의 조건이나 자격으로 주목되지 않았던 결혼의 내적 가치가 부상할 수 있다. 친밀성과 안정감의 제공으로서 가족 형성이 그것이다.

먼저 대전 지역의 청년들의 이야기 속에서는 결혼과 출산에 대해 일종의 양가적 태도가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결혼 혹은 출산에 대해 부정적인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꼭 해야 할 만큼 필요하거나 긍정적인 것으로 보는 것은 아닌, ‘할 수도 있지만, 안 해도 좋다’는 표현이 자주 나타난다.

친구들이랑 이제 그런 말을 많이, 진짜 만나면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하다 보면 결혼을 나는 안 하겠다. 애초에 처음부터 이렇게 못 박는 친구들보다는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나랑 엄청 잘 맞지 않는 사람이 아니면은 결혼을 그냥 안 하겠다 이쪽이 더 큰 것 같아요. 나는 어떤 이유가 있어서 결혼을 안 하겠다 이것보다는 그냥 옆에 괜찮은 사람 있으면 하고 아니면 말고 약간 이런 느낌이 큰 것 같아요. 저희 과 아니더라도 이제 다른 동아리에서 한 번씩 나가면 거기서 만난 여자애들이랑도 이야기를 해보면 보통 다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D7)

또한 결혼이나 출산을 생애 어느 시점에 염두에 두더라도, '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당장의 계획'으로는 고려하지 않는, 거리를 두는 태도도 함께 나타난다. 이전 세대에서 혼인에 강한 연령 규범이 작동하고 있었다면, 인터뷰에 참여한 청년들은 그러한 연령 규범보다는 결혼이나 출산이 적절해지는 상대방과 생활 여건이 마련되는 상태, 즉 준비가 된 상태가 더 중요한 조건으로 작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니까 결혼에 대한 생각은 있어서 결혼을 안 하지는 않을 건데, 그래도 막 나이에 쫓겨서 급하게 막 가고 싶지는 않아서, 만약에 좀, 이렇게 또 다른 사람과 만나게 된다면 그래도 좀 더 시간을 지켜보고 결혼을 할 것 같아요. (D5)

일단 20대 때는 열심히 이제 직장을 가지게 되면 또 이직 생각이 많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좀 안정적인 나이대가 그래도 좀 30대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 돈도 좀 모으고 하려면 그때가(결혼이) 괜찮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D7)

결혼이나 출산에 대한 기대 수준이 높고, 그만큼 부담감을 크게 책정하는 계획적 관점은 '상대방을 충분히 파악할만한 탐색의 시간'이 확보되지

않거나(D2), ‘우선 두 명에서 먹고 사는 데 문제없을 정도의 소득과 일정한 직업’이 확실하지 않거나(D5), ‘시간적으로 정말 이거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경우(D8)에는 결혼이나 출산으로 이행하지 않는 소극적 전략을 활용하도록 만든다.

그 키운다는 책임감도 그렇고, 키우면서 드는 돈 이런 것도 많기 때문에, 조카 한 명만 있어도 괜찮지 않을까. 조카가 나중에 저를 어딘가로 보내든가 부양해주지 않을까? 그런 바람이에요. (D6)

시간적인 부분도 그렇고 제가 양육을 함으로 인해서 생기는 그 비용이나 금전적인 부분도 제가 감당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D8)

이처럼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 있거나, 자녀가 없는 대전 청년들은 자신들의 준비 상태를 점검하고, 그에 따라 가족 실천 전략을 구상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향은 대전 지역이 상대적으로 가족에 대해 보수적인 규범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혼에 대한 태도에서만큼은 결혼은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다는 일반적인 사회분위기를 공유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이러한 의미화가 불안정한 노동시장 여건과 성별 격차의 상황과 맞물렸을 때, 가장 대표적인 전략으로서 ‘결혼/출산을 미루고 경제활동에 전념’하는 방식이 나타난다.

저는 우선 취업이 제일 먼저라고 생각을 해요. 그다음에 뭐 남자친구를 사귀든 뭘 하든 취미생활을 하든 **그건 나중 문제고 우선은 취업.** (D2)

이런 상황에서 청년들은 결혼 의사가 있어도 삶의 무수한 선택에서 결혼을 후순위로 밀어내고 출산은 선택하지 않는 방식을 취하는 경우가 쉽

게 발견된다. 오늘날 사람들의 삶이 다양한 차원에서 구성되지 못하고 경제-노동의 축을 중심으로 집약되고 있는 현실은 청년들의 삶에도 그대로 반영된다. 청년들의 삶이 입체적으로 전개될 여지가 별로 없는 상황에서, 중심이 되는 경제-노동의 축은 성별화되어 있고 불안정하다. 그렇기 때문에 생애를 장기적으로 조망할수록 새로운 가족을 형성하는 실천은 ‘합리적이지 못한 선택’이 된다.

(결혼 생각이) 사실 있는데 근데 시기를 못 정했어요. 네 그런 마음이 있고 결혼을 하고싶다는. 근데 사실 결혼이 우선순위도 아닌, 아니에요. (...) 사실 제가 전문가로 뭐 한다고 해도 진짜 피크 타임이 있다고 생각해요. 경제적으로 제가 돈을 정말 잘 벌 수 있는 골든 타임에 최대한 지금 있는 사람들을 챙기고 나를 지키는 방식으로 미래를 설계를 해야지, 또 다른 어떤 존재(자녀)를 만들어내서 거기에 그 많은 자원을 투자해야 한다는 게 좀, 좀, 좀. 이렇게, 그게 이렇게, 저는 합리적인 생각이라는 생각이 안 들어요. (D9)

결혼을 미루는 대응 전략은 노동시장의 상황을 고려한 것일 뿐만 아니라, 앞서 살펴 본 사회적 연결망에서 인지되는 젠더 불평등의 상황과 생애 정체성이 결합된 것이기도 하다. 참여자 D2는 현재의 젠더 규범 속에서는 결혼은 ‘남자에게 이득’이라는 점을 설명한다.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가 규범화되어 있지만, 여전히 가사노동이나 출산-육아 과정에 수반되는 돌봄은 여성의 몫이기 때문에 여성에게는 이중의 부담이 부과되는 셈이다.

결혼하면 남자는 이득인 게 너무 많거든요. 왜냐면 자기가 가정, 가정일을 좀 한다고 하더라도 여자, 아무래도 사회적 관념상 여자가 더 많이 할 걸 알거든요. 가사 노동에 대해서도, 그래서 그런 거랑 또 무엇보다 출산 생각이 있으면 여자가 자기가 출산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자가 출산하잖아요. 자기는 배

안 아픈 채로 아기가 생기는 거니까 그게 정말 좋은 것 같고, 무엇보다 또 들어서 버니까 경제적인 안정도 올 거고 또 요새는 신혼부부 혜택이랑 뭐 이런 게 또 많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결혼을 하면은 경제적으로 이득을 보는 부분이 많으니까 그래서 더 많이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남자들은. (...) 보통은 명이나 뭐 이런 거 했을 때 남자 쪽으로 해서 하고 재산을 다 남자 쪽으로 하니까. 육아휴직 같은 경우도 여자가 더 많이 쓰지 남자는 별로 안 쓰잖아요. (D2)

대전 지역에 많은 청년 대학생들이 유입되어 '살기 적당한' 생활 환경을 경험하면서도,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결혼 지연과 저출산의 추세를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은 이와 같은 생애 경로 모델의 부재와 관련되어 있을 가능성이 크다.

전통적인 가족 규범이 원가족과의 관계와 사회 연결망 속에 작동하고 있지만, 그러한 기준 모델을 실현하기에는 지역 노동시장의 한계가 크다. 성별과 상관없이 경제활동을 해야 한다는 새로운 노동 규범이 보편화됐지만, 그러한 규범을 장기적 생애 모델로 연결할 수 있는 여건은 제한되어 있어, 보편적인 여성생애의 모델로 확장되지는 못하고 있는 것이다.

3. 불안정과 더불어 가족 만들기

대전은 청년인구의 비율이 전국 평균보다 높고, 정주청년의 지역 만족도도 높다. 대도시로서 적절하게 개발되어 편의성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된다. 더욱이 지역 내 교통과 지역간 교통이 편리하고 수도권 근접성의 이점도 있다. 과학기술연구 기능과 행정기능 보유라는 이점을 갖고 있으면서도, 서울이나 수도권의 치열한 경쟁과 높은 생활비용의 단점과는 떨어져 있다. 청년들의 지역사회 인식은 이러한 대전의 장점을 반영하고 있었다. 안전하고 갖출 것은 갖춘 도시라는 청년들의 인식은 지역 정주를

정당화하는 것이면서 정주에서 오는 안정감을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청년들의 가족형성에서 미래에 대한 전망은 중요한 요소이다. 그러나 이러한 전망이 전적으로 개인의 상황이나 예측에만 의존하는 것은 아니다. 유사한 연령대이거나 비슷한 상황에 놓인 타인의 경험과 인식 역시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지역사회는 이러한 타인의 경험과 개인의 경험이 상호작용하며 미래에 대한 인식을 형성하는 장이 된다. 따라서 객관적인 조건이 동일하더라도 미래의 가족생활을 더 낙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면, 그 배경에는 개인의 성향뿐 아니라 주변과 공유하는 경험과 인식이 함께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

결혼과 출산을 결정할 때 직장, 주거, 소득, 일·생활 균형 등의 조건이 충분히 갖추어져 있는지를 고려하고, 배우자 선택과 결혼 시기를 신중하게 판단하려는 실천은 가족이라는 제도와 관계가 생활의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충분히 합리적인 행위이다. 그러나 이러한 판단에 절대적인 기준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미래의 결과는 언제나 일정 부분 열려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비판과 낙관은 필연적으로 상상적 차원을 포함한다.

예컨대 청년들이 현실의 불안정성을 인식하고 준비와 신중함을 강조하는 행위는 생활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합리적인 대응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동시에 이러한 태도는 개별 청년들이 처한 조건을 반영하는 것일 뿐 아니라, 누구나 불안정한 상황에 놓일 수 있다는 불안이 사회적으로 널리 확산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실제로 앞서 살펴본 사례에서도 안정된 일자리에 있다고 해서 결혼과 출산이 곧바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었다.

지역사회의 문화와 거주지역에 대한 만족도는 이러한 맥락에서 미래를 보다 긍정적으로 전망하도록 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청년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인적 관계망을 통해 미래에 대한 긍정적 전망이 공유된다면, 준비와 신중함에 대한 요구보다 가족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관계적 가치나 경제적 안정감이 더 중요한 고려 요인이 될 수도 있다.

대전 청년들의 사례에서도 안정감이 부족하기 때문에 결혼을 할 수 없다고 인식하는 경우가 있는 한편, 결혼을 통해 안정을 얻고자 하는 경우도 확인되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는 관계 맺기와 협력을 통해 상호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한 조건으로 작용하였다. 이러한 신뢰 형성은 반드시 구체적인 준비 수준을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사회적 고립이나 질환 경험 등과 같이 생애의 불안정성을 경험하는 과정에서 관계적 자원의 가치를 인식하게 되고, 그 속에서 신뢰 관계가 형성되는 기반이 마련되기도 하였다.

결혼은 어렸을 때는 사실 안 하고 싶었었던 게 더 컸던 것 같아요. 그런데 유학 생활을 하면서 마지막에 박사 과정하는데 코로나 그때 딱 기간이었거든요. 근데 그전까지는 미국에 살고 싶었는데, 코로나를 겪으면서 거의 집에서 갇혀서 1년 넘게 있으니까, 혼자서는 못 살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그때 생각을 좀 많이 바꿨죠. 한국에 돌아가는 게 좋겠다. 그리고 그래서 돌아와서부터 좀 결혼하려고 좀 적극적으로 했었던 것 같아요. (D1)

마음을 나누고 결혼을 하지 않아도 사람의 관계가 굉장히 충족되고 그러니까 이게 좀 분산이 됐었거든요. 근데 이제 결국 마음에 남는 친구가 점점 줄고 그 관계를 손절한 것은 아니지만 점점 소원해지다 보니까 결국에 남자친구밖에 제 옆에 없는 것 같은 거예요. 너무 이제 정말 제 측근이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같이 있으려면 선택해야 되는 게 그래도 결혼이지 않을까 이 생각도 들고요. (D9)

참여자 D1 과 D9의 서술에서 드러나듯이, 사회적 고립의 경험은 가장 친밀한 관계(‘나의 측근’)에 대한 욕구 혹은 필요성을 환기시킨다. 참여자 D9는 결혼이 자신의 커리어와 삶의 정체성에 가져올 수 있는 부정적 영향력에 대해서도 신중하게 고려하고 있었지만, 나이 들수록 소원해지는 친구 관계로 인해 확실한 친밀성의 기반으로서 결혼에 대해 고려하게 되었다고 진술한다.

특히 청년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르지만, 친밀성 경험은 안정감을 제공하는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친밀성을 통해 불안정했던 심리상태가 안정화되고 실제 일상과 관계가 새로운 안정성을 얻은 경험이 가족을 만들고자 하는 단계로 이행하게 하는 동력이 된 것이다. 가령 참여자 D4는 엄격한 부모님과 ‘강압적인 가정 환경’에 감정적 어려움을 겪었는데, 결혼과 배우자와의 관계를 통해 자기 자신에 대해 보다 잘 알게 되었다고 회고한다.

결혼은 좀 숨 쉬게 해주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부모님하고 살았을 때는 되게 막 숨이 막히고 그랬었는데, 이제 신랑하고 살다 보니까, 약간 저도 많이 찾게 되는 것 같고, 저의 존재 같은 것도 이렇게, 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이런 것도 알게 되고 그랬던 것 같아요. (D4)

참여자 D1은 아내의 건강에 이상이 생겼을 때 함께 그 상황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서로에 대한 신뢰가 형성되어 부부가 모두 아이를 가지기로 결정하는 과정이 있었다고 이야기한다.

저는 사실 아이를 계속 갖고 싶은 생각은 있었고요. 근데 아내가 처음에는 생각이 없었다가 나중에 약간 나이가 찬다고 느꼈는지 좀 더 젊을 때 갖고 싶다고 마음을 바꿔서. (...) 제가 막 뭐 이러자 저러자라는 얘기를 많이 하지는

않았고요. 아내가 좀 아팠었어요. 결혼하자마자 한 2년간 좀 힘들어하다가 회복되는 와중에 그때 좀 생각이 바뀐 것 같더라고요. (D1)

비슷하게 참여자 D8은 여자친구가 공황 증상으로 힘들었던 시기를 거치며 서로가 결혼에 대해 확신할 수 있게 되었다고 이야기한다. 만약 두 사람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을 때 결혼이나 출산이 실천된다면, 질병은 생애 안정성을 흔들 수 있는 사건으로서 결혼이나 출산 결정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이다. 그러나 인터뷰 사례에서는 오히려 이러한 위기 경험의 과정이 상호 신뢰를 구축하는 동력으로 작용했음을 보여준다.

여자친구가 힘들었던 적이 있었는데 직장에서 이렇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감정 표현을 잘 못하다 보니까 그로 인해서 조금 **공황이 와서 그렇게 힘들었을 때 같이 있어서 좀 더 신뢰가 가고 믿음이 간다고** 그런 얘기를 했었고 여자친구도 신앙적인 면을 제일 많이 말을 하긴 했지만 그런 부분은 있는 것 같아요. **힘들 때 같이 옆에 있어 주고 그래서 좀 더 미래를 생각을 해봤던 것 같다,**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표현을 했던 것 같습니다(D8).

참여자 D3(34세, 남, 생산직)은 오랜 연애 끝에 “그래도 가정은 한 번 꾸려보아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결혼을 결정했다. 그에게 결혼은 따뜻하고 화목한 가정에 대한 ‘로망’이나 강한 기대에서 비롯된 선택은 아니었다. 결혼한 이후 주변에서는 “아이를 원한다고 아무 때나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하며 출산을 권하기도 했지만, 당시 그는 자녀의 필요성에 대해 크게 공감하지 못하고 있었다. 결혼으로 가정을 만들고 둘만의 관계를 만들어가는 과정에 만족하고 있었기 때문에, 굳이 아이를 낳아 이 상황을 바꿀 필요가 있는지 확신을 갖기 어려웠다고 했다.

아이의 가치는 이들에게 피상적이었고 아이가 생긴 후의 변화는 부정적 일 것이라고 짐작하고 있었다.

이후 D3이 자녀를 갖기로 결심하게 된 계기는 객관적인 상황의 변화와는 관련이 없었다. 그와 반대로 놀이 공원에 나온 부모와 아이들의 밝고 따뜻한 ‘이미지’ 체험이 생각을 바꾸도록 만들었다고 한다. 그동안은 주로 자녀 양육의 어려움이나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접해 왔지만, 실제로 아이가 있는 가정의 따뜻하고 화목한 분위기를 보면서 생각이 달라졌다고 한다. 그 모습을 보며 자신들에게도 아이가 있다면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생겼다는 것이다. “좋은 데 오니까 좋은 모습을 보이기 마련”이라고 말하기도 했지만, 그러한 경험은 아이와 함께하는 가정이 더 따뜻해질 수 있다는 상상과 기대를 형성하기에는 충분한 계기가 되었다.

둘이 같이 생각이 통했던 게 있는데, 한 번은 그때 에버랜드를 간 적이 있었거든요. 에버랜드는 또 가족 단위로 많이 오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 판다월드, 옛날에 푸바오 있을 때. 거기 기다리고 있는데 부부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아이 데리고 온 부부들이. 근데 그걸 보는데 그 모습이 뭔가 되게 좋아 보이는 거예요. 되게 안정적이어 보이고. 그래서 그때 좀 서로 그 생각이 그때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화목해 보이는.** 어쨌든 놀이동산인데 막 안 좋은 모습만 보다 보면 좋은 모습이 많을 거 아니예요. 주변에 딱 둘러봤을 때, 다 좋은 데 온 거니까 거기서 온 그 따뜻해 보이고 화목해 보이는 그게 좀 컸던 것 같아요. **우리 둘로 말고 아이까지가 있으면 더 그렇게 될 수도 있겠구나, 약간 그 생각이 좀 컸던 것 같아요.** (D3)

참여자 D3의 에버랜드 경험은, 앞서 관찰되는 대전 청년들의 ‘대응 전략으로서의 결혼/출산’의 실천 순서가 역순이 될 수 있음을 드러내어 보

여준다. 많은 청년들이 가족 실천에는 일정한 안정성이 필요하고, 그것이 확보되었을 때 결혼 혹은 출산으로 이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지만, 결혼이나 출산을 통해 친밀성과 안정성이라는 새로운 가치를 얻을 수 있다는 전망도 가능한 것이다. 물론 이러한 전망이 현실성이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한국사회 전반이 그러하듯이 대전 지역 역시 다층적이고 복합적인 젠더·계층·노동·지역 불평등 구조에 대한 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대전 청년들의 인터뷰 속에서 발견되는 시사점은, 복합적 불평등의 구조 개선과 함께, 가족실천이 ‘대응 전략’으로 서술되는 방식이 아닌 다양한 서사로서 구축되고 설득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제5절 소결

이상으로 대전 지역 청년들이 경험하는 대전의 정주 환경을 살펴보고, 청년들이 교육 단계를 종료한 이후 노동시장에 어떻게 진입하는가를 살펴보았다.

대전은 수도권과 근접하여 경제적, 인적, 문화적 이점을 누리며, 충청 권역 거점도시로서 지역내에 입지한 대학으로 주변 지역의 청년들이 유입되는 양상을 보인다. 비교적 청년인구의 비율이 높고 청년들은 지역의 생활환경이 적당히 만족스럽다고 평가한다. 수도권과 상당히 가깝고, 다른 지역으로도 쉽게 이동할 수 있는 ‘교통의 요지’인 동시에, 도시의 편의성을 갖추었으면서도 서울살이처럼 빡빡하지는 않은 ‘적당함’이라는 위치로 대전 지역을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나 대전은 울산과 같이 대기업 정규직 일자리가 풍부하지 않고, 대

전의 강점으로 꼽히는 ‘공공행정 및 과학기술연구’ 관련 직종은 선별적이고 전문적이어서 일반적인 지방대학 출신자들을 흡수하고 포괄하는 데 한계가 있다. 최근 여성이 고용률이 점진적으로 상승하고 있지만, 고용형태나 영세중소기업의 한계로 인해 안정된 노동생애를 전망하기 어려운 환경에 있다.

또한 지역의 오랜 역사와 사회적 연결망이 존재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지역에 정주하고자 하는 경향성도 확인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이나 수도권,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경우는 거의 대부분 앞서 살펴 본 일자리 여건 때문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특히 대전 여성 청년 역시 다른 여성 청년들과 마찬가지로 취업 준비에서부터 경력단절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직·간접적인 경험과 관찰을 통해 성별화된 노동시장을 체감하고 있었다.

다른 지역에 비해 전통적인 가족 규범 수준이 높은 대전 지역의 분위기와 성별화된 노동시장 속에서 청년들은 결혼이나 출산을 실행하지 않거나 지연시키는 ‘전략’을 취하고 있었다. 이전 세대와 달리, 대전 여성 청년들에서도 노동시장 참여가 보편적 규범으로 작동하고 있는 가운데, 전통적인 가족 모델에 대한 기대와 부담감이 결합하면서 이러한 선택이 전략적으로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동시에 대전 청년들은 개인적인 삶의 위기나 불안에 직면하여 친밀한 관계에서의 진전을 경험하기도 하였다. 상호 신뢰의 기반이 형성되자, 미래의 불확실성이 대응가능한 것으로 재평가되었으며, 결혼 또는 출산 등 새로운 관계맺음으로 이행을 시도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전환은 대전 지역이 비수도권으로서 갖는 장점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주택가격을 비롯하여, 여유로운 생활환경, 적절한 편의성과 쾌적성을 갖춘 도시 인프라 등에 대한 만족이 그것이다.

그동안 한국사회에서 저출산의 사회심리에 대한 담론은 불안과 불안정으로 인한 가족형성 회피에 초점을 맞추어 왔다. 그러나 가족이 본래 갖고 있는 기능이 '연대'라는 점을 상기한다면, 개인적 취약성과 불안은 연대를 회피하도록 만드는 것이 아니라 연대의 필요성과 가치를 높이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다. 고용, 주거, 소득, 돌봄인프라 등 객관적인 가족생활의 조건이 지역 사회 수준에서 청년세대에게 제대로 제공할 수 있다면,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인한 가족회피의 정서는 불안정성을 해소하기 위한 개인간 연대로서의 가족 지향으로 전환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제4장

광주의 지역 기회구조와 가족형성 사례연구

- 제1절 광주의 인구·고용 현황과 청년
- 제2절 지역 기회구조 인식과 대응 형태
- 제3절 지역 노동시장에 대한 대처 방법들
- 제4절 가족형성 전망과 실천
- 제5절 소결

제 4 장

광주의 지역 기회구조와 가족형성 사례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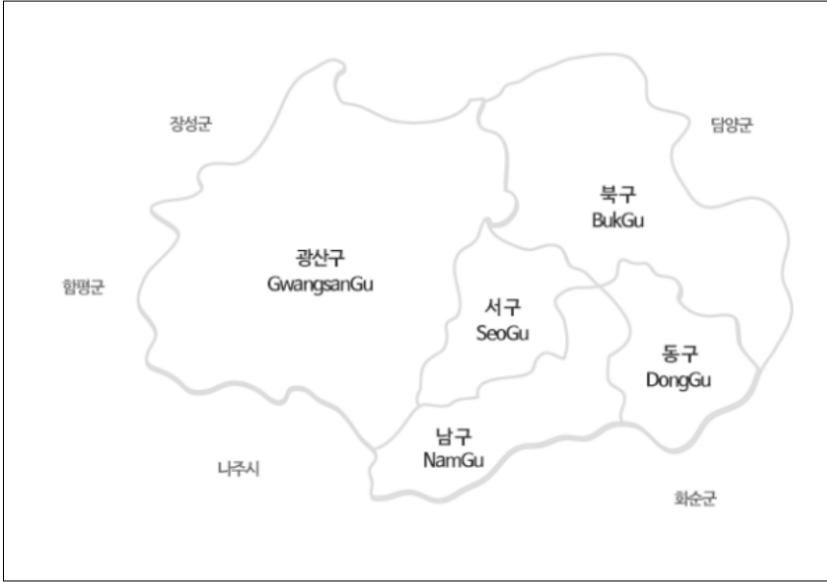
제1절 광주의 인구·고용 현황과 청년

이 절에서는 광주 청년의 정주 경험을 이해하기 위한 지역적 배경으로서 광주의 사회경제적 구조를 살펴본다. 이를 통해, 뒤에서 다룰 청년들의 지역 정주 경험이 어떠한 구조적 조건 위에서 형성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자 한다.

1. 광주의 도시적 위상과 기능

광주광역시에는 호남권 중심부에 위치한 인구 약 140만 명 규모의 대표적인 거점도시이다. 광주는 동구·서구·남구·북구·광산구의 5개 자치구로 구성되어 있다. 동구, 서구, 남구는 전통적인 구도심을 이루고 있으며, 북구와 광산구는 도시 외곽의 넓은 면적을 차지하면서 1990년대 이후 조성된 신도시와 산업단지를 기반으로 성장해 왔다. 현재 광주 인구의 약 60%가 북구와 광산구에 거주하고 있다는 점은 광주의 도시 팽창이 외곽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음을 보여준다(광주광역시, 2025).

[그림 4-1] 광주광역시 5개 구와 주변지역



출처: “광주광역시 홈페이지-행정구역 구분,” 광주광역시, 2025, 2025. 10. 10. 검색, <https://www.gwangju.go.kr/contentsView.do?pageId=www140>.

광주는 호남권의 경제·행정·교육·문화 중심지로 발전해 왔다. 목포, 순천, 여수, 전주 등 주요 도시가 대체로 100km 내외의 범위 안에 위치한 호남권의 지리적 중심성을 바탕으로, 인구와 자원의 집적지로 기능해왔다(광주광역시, 2025).

광주는 호남권 내부에서의 중심성을 갖고 있지만, 수도권 및 영남권 대도시와의 접근성 측면에서는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다. 서울과는 약 270km 떨어져 있어 도로로는 3~4시간, 고속철도로도 약 2시간이 소요되며, 부산과는 211km, 대구와는 189km 떨어져 있다. 이러한 물리적 거리는 광주가 수도권과 긴밀하게 연결된 대도시와는 다른 조건 위에 놓여 있음을 보여준다.

광주의 기능적 중심성은 최근 들어 다소 약화되고 있다. 2005년 전라남도청이 무안으로 이전하면서 광주는 전라남도과 행정적으로 완전히 분리되었고, 2014년부터 나주 혁신도시에 공공기관 이전이 본격화되면서 행정적 중심성 역시 일정하게 분산되었다(광주광역시, 2025). 다시 말해 광주는 여전히 호남권의 대표 도시이지만, 과거와 같은 독점적 중심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광주는 또한 호남권 교육 중심지로서의 위상도 가지고 있다. 전남대학교, 광주교육대학교, 광주과학기술원 등 3개 국립대학과 광주대학교, 조선대학교, 호남대학교 등 8개 사립대학, 그리고 다수의 전문대학이 입지해 있다(대학알리미, 2025). 이러한 교육 중심성은 오랫동안 전남지역 청년들의 광주 유입을 이끄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교육 중심 기능에도 불구하고, 최근 광주는 청년을 지역에 붙잡아 두는 데에는 점차 어려움을 겪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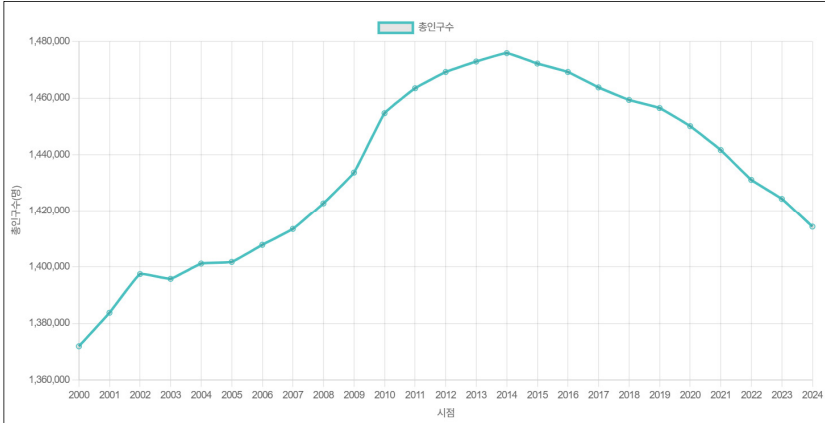
2. 인구감소와 청년 순유출

광주의 총인구는 2000년대 이후 2014년까지 증가하였으나, 이후 감소 국면으로 전환되었다. 즉 광주는 2014년을 정점으로 인구 감소 단계에 들어섰으며, 이러한 감소에는 자연감소뿐 아니라 사회적 감소, 즉 인구 순유출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그림 4-2, 그림 4-3 참조).

특히 주목할 점은 청년층의 유출이 장기간 지속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청년인구의 순유출은 2000년대 초반 이후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으며, 최근 들어 그 규모가 더 커지는 양상을 보인다(그림 4-4 참조). 이는 광주가 청년을 교육 단계에서는 흡수할 수 있지만, 노동시장 진입과 성인기 이행의 국면에서는 충분히 정착시키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146 가족형성의 지역적 조건과 초저출산에 대한 함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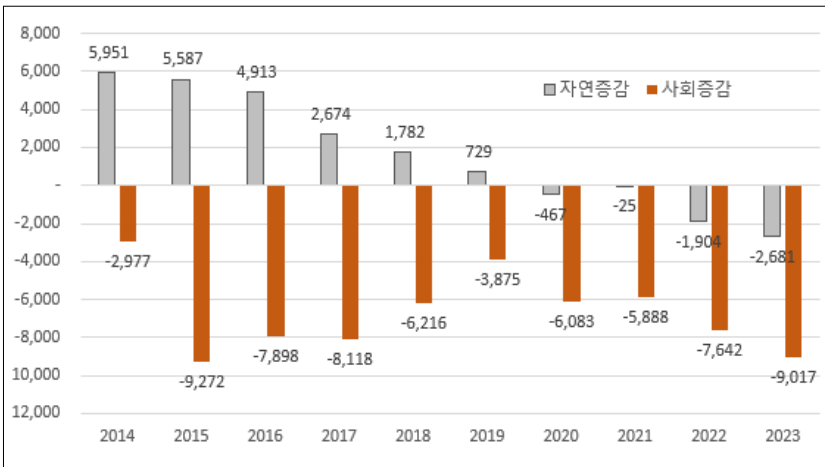
[그림 4-2] 광주 인구수 추이(2000-2024)



출처: “광주연구원 홈페이지-총 인구수,” 광주연구원, (2025), 2024. 6. 10. 검색, <https://gji.re.kr/?contentId=b1a31ad04ae30c5adbbe1569fd985354>.

[그림 4-3] 광주 지역 인구변동에서 자연증감과 사회증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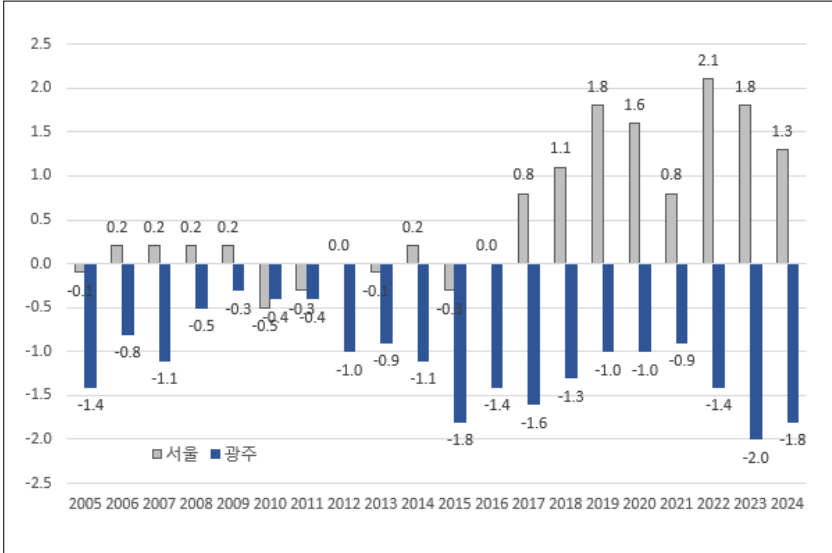
(단위: 명)



출처: “광주지역 인구감소 특징과 지역 대응 방안,” 광주여성가족재단, 2024, 성별인구고용동향 제 12호, p. 1.

[그림 4-4] 청년(19~34세)의 순이동 추이: 서울, 광주(2005~2024)

(단위: %)



출처: “인구동향조사”, 국가데이터처, 2025, 청년순이동률(시도/시/군/구),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YL20642&conn_path=I3

광주의 인구 감소는 청년 유출과 맞물려 지역의 미래 전망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광주는 2024년 합계출산율이 0.7명으로 서울, 부산에 이어 합계출산율이 세 번째로 낮은 광역지자체이며, 최근에는 결혼 수준도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녀 평균 초혼연령은 남성 33.8세, 여성 31.5세로 서울을 제외한 광역도시 가운데 가장 높으며, 20~39세 미혼인구 비율도 늘어나고 있다(국가데이터처, 2024d; 2024e). 이러한 수치는 청년층의 유출과 지역 내 성인기 이행의 지연이 서로 분리된 현상이 아니라 상호 연관된 구조적 변화와 관련되어 있음을 시사한다.

3. 산업구조와 청년 일자리의 제약

광주의 산업구조는 제조업 기반을 일정하게 유지하고 있지만, 동시에 청년층에게 매력적인 고부가가치 서비스업과 전문직 일자리의 기반은 상대적으로 취약한 구조를 보인다. 이는 광주 청년들이 경험하는 노동시장 기회의 범위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배경이 된다.

광주의 제조업은 지역 총부가가치의 27.9%를 차지하여 전국 평균(28.3%)과 유사한 수준이다. 제조업의 세부 구성에서는 기계·운송장비 및 기타 제품(12.1%), 전기·전자 및 정밀기기(9.2%)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다. 이에 비해 서비스업은 총부가가치의 65.9%를 차지하지만, 서울과 비교하면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전문·사업서비스업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 부문의 비중은 낮다. 반면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공공행정 등은 상대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한다(표 4-1) 참고).

고용 구조를 보더라도 유사한 특징이 나타난다. 광주의 취업자 중 제조업 비중은 12.1%로 서울(4.2%)보다 높지만, 정보통신업(1.6%),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4.3%), 사업지원서비스업(4.9%)의 비중은 서울보다 크게 낮다. 반면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13.8%), 교육서비스업(7.7%), 건설업(10.7%), 도소매업(13.5%) 등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높다. 광주의 고용구조는 청년층에게 선호될 가능성이 높은 첨단·전문 서비스업보다는 전통적 서비스업과 공공·돌봄·교육 부문 비중이 높은 구조라고 할 수 있다.

〈표 4-1〉 광주 지역의 산업구조: 지역총부가가치의 요소별 구성(2022)

(단위: %)

	전국	서울	광주
합계	100.0	100.0	100.0
농업, 임업 및 어업	1.7	0.1	0.3
광업	0.1	0.0	0.0
제조업	28.3	4.4	27.9
음식료품 및 담배제조업	1.6	0.2	1.5
섬유, 의복, 가죽제품 제조업	0.8	1.5	0.3
목재종이인쇄 및 복제업	0.7	0.4	0.3
석탄 및 석유 화학제품	5.0	0.3	2.8
비금속광물 및 금속제품	3.0	0.1	2.0
전기 전자 및 정밀기기	10.6	1.3	9.2
기계 운송장비 및 기타 제품	6.8	0.5	12.1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	1.7	0.5	1.4
건설업	5.4	2.8	4.7
서비스업	62.9	92.2	65.9
도매 및 소매업	9.0	17.3	7.8
운수 및 창고업	3.9	3.2	3.2
숙박 및 음식점업	2.5	2.6	2.6
정보통신업	5.0	12.1	3.4
금융 및 보험업	5.9	12.8	5.6
부동산업	7.9	10.4	9.2
사업서비스업	8.1	16.1	6.7
공공 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6.8	4.0	6.6
교육 서비스업	4.9	4.5	6.8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5.8	5.8	10.3
문화 및 기타서비스업	3.1	3.1	3.8

출처: “지역소득”, 통계청, 2022, 국가통계포털. 2025. 6. 10. 검색,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C92&conn_path=I3.

광주의 서비스 산업은 전통적 개인서비스업의 비중이 높은 구조이다. 서울과 비교하면,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사업서비스업 등의 비중이 낮은 편이다.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등이 부가가

치와 고용 양 측면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며, 고용 측면에서는 건설업(10.7%), 도소매업(13.5%), 음식숙박업(8.7%)의 비중이 크다.

〈표 4-2〉 지역별 취업자의 업종 분포(2023)

(단위:%)

	전국	서울	광주
전체 산업	100.0	100.0	100.0
제조업	16.3	4.2	12.1
전기, 가스, 공기조절	1.2	0.3	0.9
건설업	7.6	7.0	10.7
서비스업	74.6	88.5	76.2
도매 및 소매업	14.0	16.4	13.5
운수 및 창고업	5.6	4.9	5.7
숙박 및 음식점업	9.0	8.0	8.7
정보통신업	3.4	8.7	1.6
금융 및 보험업	2.9	5.1	3.2
부동산업	2.7	3.3	3.2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5.9	10.8	4.3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5.3	9.0	4.9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3.5	2.7	3.4
교육 서비스업	6.8	6.3	7.7
보건업 및 사회복지	10.1	8.4	13.8
문화 및 기타	5.4	4.8	6.1

주: 농림어업, 광업은 표에서 생략함.

출처: “전국사업체조사.” 통계청, 2023, 국가통계포털. 2025. 8. 12. 검색,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K52D06&conn_path=I3.

광주의 제조업은 대체로 중소기업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조업체의 76.4%가 300인 미만 사업체이며, 300인 이상 사업체 비중은 23.6%이다. 이는 울산보다는 낮지만 부산이나 대전보다는 높은 수준이다. 광주의 대표적인 대기업 제조업체로는 기아자동차, 금호타이어, 광주글로벌모터스 등이 있으며, 다수의 중소 제조업체는 평동산단, 하남산단, 첨단

산단 등에 집적되어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볼 때 대도시형 첨단 서비스업과 대기업 본사 기능이 취약하다는 점은 청년층에게 제공되는 일자리 질과 다양성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표 4-3〉 전국 및 특별·광역시 사업체의 규모별 종사자 분포, 전체 산업과 제조업(2023년)
(단위: %)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전체 산업	300인 미만	84.6	75.8	88.6	90.1	85.8	86.4	82.1	78.2
	300인 이상	15.4	24.2	11.4	9.9	14.2	13.6	17.9	21.8
제조업	300인 미만	81.9	97.4	91.7	92.2	83.9	76.4	83.7	54.8
	300인 이상	18.1	0.9	8.3	6.4	16.1	23.6	11.5	45.2

출처: “시도·산업·종사자규모별 사업체수, 종사자수(20~),” 통계청, 2023, 국가통계포털, 2025.
8. 12. 검색,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K52D03&conn_path=12.

4. 광주 청년 노동시장의 특성과 임금격차

광주 청년 노동시장은 고용률이 낮을 뿐 아니라, 노동시장에 진입한 이후에도 전문직과 고임금 일자리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된 구조를 보인다. 특히 이러한 특징은 서울과의 비교에서 더욱 뚜렷하게 드러난다.

먼저 광주는 남녀 모두 전체 고용률이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청년층의 고용률이 낮다. 2024년 상반기 기준 25~29세 고용률은 남성 61.2%, 여성 66.8%로 전국 평균(남성 70.9%, 여성 74.6%)과 상당한 격차를 보인다. 이는 졸업 이후 노동시장 진입이 지연되거나, 진입 이후에도 불안정한 고용 경험이 반복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반면 50대 중 후반 남녀의 고용률은 전국 평균보다 높은 수준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점

은 광주 노동시장이 청년층의 진입 기회는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반면, 중장년층 고용은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구조적 특성을 보인다는 점을 의미한다.

〈표 4-4〉 성별 연령별 고용률: 광주와 전국, 서울 비교

(단위: %)

	전국		서울		광주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20~24	40.1	50.2	41.8	50.9	25.0	42.4
25~29	70.9	74.6	71.0	78.3	61.2	66.8
30~34	86.8	74.3	85.5	83.4	83.9	65.3
35~39	89.8	67.8	90.8	77.2	90.0	68.6
40~44	90.8	65.7	89.5	67.6	89.4	64.1
45~49	90.4	68.5	89.7	68.4	85.9	59.8
50~54	88.9	69.5	86.0	69.1	91.8	71.8
55~59	84.6	65.8	80.8	59.6	91.3	77.4
60~64	74.3	54.7	74.7	54.2	71.6	49.2
65세 이상	47.7	32.6	37.2	22.6	44.7	35.9
전체	74.7	57.5	71.9	57.7	72.9	57.0

출처: “지역별 고용조사,” 통계청, 2024년 상반기 [데이터 세트, C형, MDIS 원자료].

직종 분포를 보더라도 광주 청년 노동시장의 한계는 뚜렷하다. 광주 청년 취업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 관련 전문직과 법률·금융 전문직 비율이 서울보다 낮고, 서비스직·영업판매직·단순노무직 비율은 상대적으로 높다. 특히 남성 청년의 경우 과학기술 관련 전문직 비율이 서울보다 크게 낮고 기능직, 기계조작, 단순노무 비율이 높게 나타난다. 여성 청년은 보건·사회복지·교육 전문직 비율이 높지만, 동시에 서비스직 비율도 높고 일부 육체노동 직종 비율 역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다. 이는 광주 청년 노동시장이 고숙련·고임금 전문직 중심으로 조직되어 있기보다, 성별에 따라 분화된 서비스·돌봄·중간기술직 중심 구조를 보이고 있음을 의미한다.

〈표 4-5〉 20~39세 취업자 직종 분포(2024년 상반기)

(단위: %)

	과학 정보 통신 전문직	보건 복지 교육 전문직	법률 금융 전문직	사무직	서비스 직	영업 판매	농림 어업	기능직	기계 조작	단순 노무	합계
전국	10.2	19.4	2.4	24.2	13.0	8.5	0.7	6.4	8.1	7.1	100.0
서울	14.4	23.1	5.1	27.3	13.1	8.2	0.0	3.2	2.3	3.4	100.0
광주	5.3	21.2	1.3	24.3	15.7	9.0	0.4	7.1	7.8	8.0	100.0

출처: “지역별 고용조사,” 통계청, 2024년 상반기 [데이터 세트, C형, MDIS 원자료].

〈표 4-6〉 남성의 시도별 20~39세 취업자 직종 분포(2024년 상반기)

(단위: %)

	과학 정보 통신 전문직	보건 복지 교육 전문직	법률 금융 전문직	사무직	서비스 직	영업 판매	농림 어업	기능직	기계 조작	단순 노무	합계
전국	13.9	10.8	2.8	18.4	11.8	7.9	1.0	10.9	13.4	9.2	100.0
서울	20.5	15.4	6.2	20.9	13.2	8.4	0.1	5.7	4.3	5.5	100.0
광주	7.9	11.2	1.9	19.2	15.3	9.8	0.7	11.9	12.0	10.3	100.0

출처: “지역별 고용조사,” 통계청, 2024년 상반기 [데이터 세트, C형, MDIS 원자료].

〈표 4-7〉 여성의 시도별 20~39세 취업자 직종 분포(2024년 상반기)

(단위: %)

	과학 정보 통신 전문직	보건 복지 교육 전문직	법률 금융 전문직	사무직	서비스 직	영업 판매	농림 어업	기능직	기계 조작	단순 노무	합계
전국	5.8	29.4	1.9	31.0	14.5	9.3	0.3	1.2	2.0	4.6	100.0
서울	8.7	30.1	4.1	33.2	13.1	8.1	0.0	0.9	0.4	1.4	100.0
광주	2.3	32.4	0.8	30.1	16.1	8.1	0.1	1.7	3.0	5.4	100.0

출처: “지역별 고용조사,” 통계청, 2024년 상반기 [데이터 세트, C형, MDIS 원자료].

임금 수준 역시 광주 청년 노동시장의 제약을 잘 보여준다. 39세 이하 남성 노동자의 평균임금은 서울이 347만 원인 반면, 광주는 289만 원으로 서울의 83.3% 수준이다. 대졸 이상 남성에서는 격차가 더 커져, 서울

404만 원에 비해 광주는 326만 원으로 약 80만 원 낮다. 이 차이는 기업 규모가 커질수록 더 크게 벌어진다. 반면 전문대졸 이하에서는 지역 간 차이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 이는 고학력 청년일수록 광주에서 얻을 수 있는 임금 보상이 서울에 비해 불리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표 4-8〉 남성(39세 이하)의 교육수준에 따른 지역별 기업규모별 임금 격차

(단위: 만 원)

		서울		광주		대전		울산	
		평균	중위값	평균	중위값	평균	중위값	평균	중위값
전체	1~4명	220	220	226	240	208	210	237	250
	5~9명	270	270	257	250	263	270	286	300
	10~29명	315	300	292	280	302	300	326	300
	30~99명	371	330	297	300	326	300	338	320
	100~299	385	350	322	300	347	320	377	350
	300명 이상	456	420	372	350	396	350	430	400
	전체	347	300	289	290	309	300	357	350
대졸 이상	1~4명	262	270	263	280	252	250	272	280
	5~9명	314	300	322	300	315	300	343	330
	10~29명	352	320	310	300	346	304	377	350
	30~99명	412	350	318	300	346	320	367	350
	100~299	416	400	345	320	364	323	363	350
	300명 이상	477	450	403	350	416	390	439	400
	전체	404	360	326	300	356	320	384	350
전문대졸 이하	1~4명	199	200	210	220	187	200	221	250
	5~9명	241	250	219	210	232	250	245	250
	10~29명	269	270	269	270	261	270	295	300
	30~99명	282	280	265	260	294	300	323	300
	100~299	300	300	285	300	317	320	385	350
	300명 이상	312	300	332	300	326	300	423	400
	전체	255	250	252	250	254	260	339	320

출처: “지역별 고용조사,” 통계청, 2024년 상반기 [데이터 세트, C형, MDIS 원자료].

여성 청년에서도 비슷한 양상이 나타난다. 서울 여성 청년의 평균임금은 281만 원인 반면, 광주는 225만 원으로 서울의 80.1% 수준이다. 대출 이상에서는 서울 329만 원, 광주 262만 원으로 격차가 더 커진다. 남성과 마찬가지로 전문대졸 이하에서는 지역 간 임금 차이가 상대적으로 작다. 즉 광주 청년 노동시장의 불리함은 단순히 고용률의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노동시장에 진입한 뒤에도 고학력 청년층에게 충분한 임금 보상을 제공하지 못하는 구조와 연결되어 있다.

〈표 4-9〉 여성(39세 이하)의 교육수준에 따른 지역별 기업규모별 임금 격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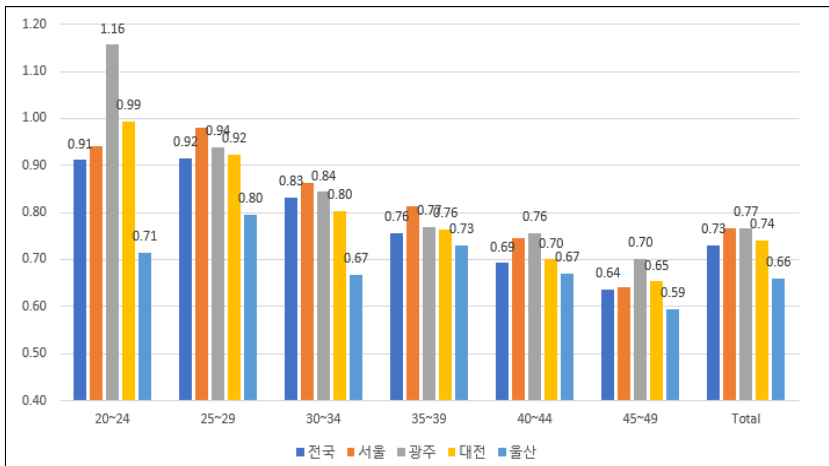
(단위: 만 원)

		서울		광주		대전		울산	
		평균	중위값	평균	중위값	평균	중위값	평균	중위값
전체	1~4명	191	200	157	150	178	200	157	150
	5~9명	219	210	191	200	208	214	194	200
	10~29명	263	250	225	220	225	220	230	220
	30~99명	291	270	271	250	276	250	264	250
	100~299	342	300	280	250	293	270	277	250
	300명 이상	420	380	346	320	356	302	341	330
	전체	281	250	225	220	246	230	227	220
대출 이상	1~4명	226	230	198	200	188	200	187	180
	5~9명	258	250	234	240	222	230	245	250
	10~29명	307	300	269	250	274	260	261	250
	30~99명	318	300	274	265	299	300	278	270
	100~299	340	310	278	272	325	300	340	300
	300명 이상	406	380	338	330	313	300	314	300
	Total	329	300	262	250	280	263	269	250
전문대졸 이하	1~4명	154	145	147	150	165	190	162	180
	5~9명	181	200	182	200	196	210	196	210
	10~29명	230	245	213	210	211	220	209	200
	30~99명	244	250	223	230	231	240	214	220
	100~299	260	250	225	230	253	250	273	255
	300명 이상	289	280	287	250	257	250	293	300
	Total	209	220	195	210	203	220	199	210

출처: “지역별 고용조사,” 통계청, 2024년 상반기 [데이터 세트, C형, MDIS 원자료].

한편 광주의 성별 임금격차는 서울 다음으로 낮은 수준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이를 여성의 노동시장 지위가 상대적으로 더 평등하기 때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광주의 경우 남녀 모두 평균 임금 수준 자체가 비교 지역보다 낮게 형성되어 있다는 점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즉 상대적으로 작은 성별 임금격차는 고임금 직종에 대한 여성의 접근성이 높아서라기보다, 남녀 모두 저임금 구조 속에 놓여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일 가능성이 있다.

[그림 4-5] 지역별 연령별 성별 임금격차



출처: “지역별 고용조사,” 통계청, 2024년 상반기 [데이터 세트, C형, MDIS 원자료].

종합하면, 광주는 호남권의 중심도시이지만 최근 들어 기능적 중심성이 약화되고 있으며, 청년층에게 충분한 일자리와 임금 수준을 제공하지 못하는 노동시장 구조 속에서 청년 유출이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구조적 조건은 뒤에서 살펴볼 청년들의 지역 정주 경험과 노동시장 인식, 그리고 가족형성 전향을 이해하는 중요한 배경이 된다.

제2절 지역 기회구조 인식과 대응 형태

앞 절에서는 광주의 인구 변화와 산업 및 노동시장 구조를 살펴보았다. 이러한 구조적 조건은 청년들이 지역에서 경험하는 기회와 제약의 배경이 된다. 그러나 청년들이 실제로 지역에 머무르게 되는 과정은 이러한 구조적 조건만으로 설명되지는 않는다. 이 절에서는 일대일 심층 면접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청년들이 광주라는 지역을 어떻게 경험하고 인식하며, 어떠한 조건 속에서 지역 정주가 이루어지는지를 살펴본다.

광주 청년 면접조사의 대상은 광주에서 대학을 졸업한 후 광주에 거주하고 있는 20~30대 청년들이다. 광주 소재 대학졸업자들이 광주에 정착하고 가족형성으로 이어지는 과정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 타 지역에서 대학을 나왔거나 취업을 위해 이주한 청년들은 대상에서 제외하였다.⁸⁾

1. 선택과 과정으로서 지역 정주

청년기는 이동이 활발한 시기이다. 청년들이 더 나은 교육기회나 고용 기회를 찾아 이동하는 경향은 근대 사회에서 늘 존재했던 일이지만, 최근 들어 지역 간의 교육, 경제, 문화 등의 격차가 확대되면서 이동이 더 늘어나는 경향이다.

이러한 흐름에서 광주는 청년인구가 유입되기보다는 유출하는 도시로 전환되었다. 그동안 호남권의 경제, 행정, 교육 중심도시로서의 위상을

8) 심층면접 참여자는 총 12명으로, 연령은 26세에서 39세 사이이며 남성 5명, 여성 7명이다. 교육수준은 전문대졸 3명, 대졸(중퇴포함) 8명, 대학원졸 1명이다. 이 가운데 3명은 결혼하였고 2명은 자녀가 있다. 고용 상태는 정규직 7명, 비정규직 2명, 실업 2명, 비경제활동(주부) 1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9명은 광주에서 태어나 대학까지 광주에서 교육을 받은 뒤 현재도 광주에 거주하고 있으며, 3명은 대학 진학을 계기로 광주에 이주하여 현재까지 광주에 살고 있다.

유지하면서 인근지역의 청년인구를 흡수해 왔으나, 최근 들어 그 위상이 약화되고 있는 현실이다. 또한 경상권이나 호남권의 대도시들은 모두 유사한 상황에 놓여 있어 광주만의 문제도 아니다(정민수 외, 2023).

비수도권 청년의 지역이탈이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다수의 청년들은 지역에 정주한다. 청년들은 대학 진학이나 취업을 위해 전국적 범위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기존 연구들은 지역에 남는 청년들이 떠나는 청년들보다 부모의 소득이나 개인 인적자본이 낮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했다. 이주는 비용과 정보, 인적 네트워크 등 자원을 필요로 하므로, 이러한 이동 자본을 갖춘 청년들이 이동할 가능성이 높고, 그렇지 않은 청년들은 지역에 남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김현우, 양준석, 2024; 상명성, 문영만, 2024). 애초에 이동을 지향하는가 그렇지 않은가도 보유자원의 크기와 관련되어 있다. 외부세계로부터의 자극이 적거나 현재 상태에 만족하는 것도 이동과 관련된 의향이나 포부에 영향을 미친다(Forgberg, 2019).

광주 정주 청년들의 이야기에서도 이러한 특징들이 발견된다. 이들에게 정주는 그저 불박혀 있는 상태가 아니라 일련의 도전과 실패 끝에 얻은 선택이며 다시 이동할 가능성에도 열려 있는 역동적인 경험이었다. 또한 합리적으로 기대수준을 조정하고 자신에게 더 나은 조건을 만들고자 하는 의식적인 선택이기도 했다. 그런 점에서 이동뿐만 아니라 정주(immobility)도 하나의 선택과 과정으로 보아야 한다.

광주 청년들의 정주 이유와 관련하여 눈에 띄는 것은 서울 지향성이 그렇게 강하지 않다는 점이었다. 청년들은 먼저 서울(외부)과 광주를 경쟁적이고 물질 지향적인 문화와 여유 있고 균형 잡힌 평범한 일상을 강조하는 문화로 구분하고, 자신이 지향하는 가치관이 광주와 더 잘 맞기 때문에 광주에 남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경쟁을 좋아하지 않는대거나 과도한

압박을 견디지 못한다고 하는 등 자신의 고유한 성향과 지역의 정체성을 연결하여 정주를 설명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러한 지향 또는 태도는 타고난 성향이라기보다는 경쟁에 뛰어들었던 경험을 통해 발견되거나 만들어진 태도로 해석된다.

G6(30세, 여성)도 그러한 청년 중의 한 사람이다. 그녀도 처음에는 막연하게 서울에서 일자리를 구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취업에 도전했던 경험이 있다. 그러나 이 경험은 '타인에게 자신의 경쟁력을 증명할 방법이 없어 막막했던' 실패 경험이었고, 결코 가벼운 경험은 아니었다. 광주에서 현재의 직장을 얻고 이곳에서 다음 경로를 계획하고 있는 현재, 자신이 바라는 것은 경쟁에서 이겨서 성공하는 삶이라기보다는, 자신을 배려하면서 살 수 있는 삶이라고 생각한다.

처음 취준이니까 서울 쪽을 알아봐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서울에 있는 거를 좀 많이 처음에는 찾아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너무 안 되고, (중략) 그거(경쟁적인 문화)에 대해서 안 맞는 사람이라고 저는 스스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중략) 저는 그런 문화를 좀 안 좋아하기도 하고 좀 더 **그냥 제 개인?** 그러니까 내가 얼마큼 생각을 할 수 있는 시간이 확보되었는지 그러니까 나를 좀 더 꾸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근데 사실 그런 걸 생각하면은 **경쟁적인 사회에서 좀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G6, 30세, 여, 공공기관 기간제).

이처럼 모든 청년들이 높은 상승이동의 포부와 열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부산에서 대학 진학을 위해 광주로 이주해 온 G1(26세, 여)은 현재 구직 중인데 부모로부터 부산으로 돌아오거나 차라리 서울에서 직장을 알아보라는 권유를 받고 있다. 그러나 경쟁이 치열한 서울로의 이동은 애초부터 고려한 적이 없었다고 했다. 초중고교 시절부터 경험해 온

경쟁적 환경을 떠올리면서, 자신은 그런 환경에서는 역량을 발휘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기준선 이상의 압박감과 스트레스를 수용하는 대신, 기준을 낮추어서라도 안정감을 갖고 살기를 원한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서울에 그 사람 많은 그게 너무 싫어 가지고 대학도 아예 서울은 쳐다도 안 봤거든요. 지금도 그런 것 같아요. (중략) (G1, 26세, 여)

‘서울은 사람이 많아서 싫다’는 이야기는 청년들의 이야기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서울에 대한 태도였다. 서울에 사람이 많다는 것은 결국 경쟁이 치열하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서울에는 자원과 기회가 많기 때문에 사람들이 몰리지만, 경쟁에 뛰어들어 치열하게 시간과 노력을 바친 이후 어떤 결과가 나올지 보장되는 것은 없으며, 실패로부터 보호해줄 연결망도 존재하지 않는다. 지역 정주 청년들이 사람 많은 서울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은 단지 개인적인 성향 때문이 아니라, 서울이 상징하는 생존 경쟁에 대한 거리두기이면서 지방 출신이 가질 수밖에 없는 불리함에 대한 자각을 표현한 것이라 해석할 수 있다.

지역 정주 청년들은 서울이 아니라면 광주가 최선이라는 태도를 갖고 있었다. 광주는 익숙할 뿐만 아니라 도움을 얻을 수 있는 사회적 자원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대학 졸업 이후 노동시장에 안착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최근에는 버팀목이 될 수 있는 부모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최선영 외, 2024). 부모와 주거를 공유할 수 있고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도 있으며, 출산 이후에는 자녀 돌봄 부담을 함께 나눌 수도 있다. 또한 고립을 막고 사회적 연결을 보장해주는 친구, 지인, 동료도 존재한다. 안정감을 중요시하는 청년들은 부모나 친구가 있는 광주에 삶의 뿌리를 내리고 싶어 했다.

광주는 그래도 제가 막, 얘기할 친구도 있고 하나까 좀 더 내가 힘들어도 좀 해소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돼 있는데, 서울이나 완전 타지에 가면은 그렇게, 그런 탈출구가 있을까 하면은 너무 집 안에만 갇혀서 되게 폐쇄적일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거든요(G6, 30세, 여).

특히 평범한 지역 청년들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 인적 연결망은 의미있는 가치를 지닌다. 비수도권 지역 청년들은 특히 부모나 지인 등 인적 연결망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실제로 미혼청년들의 부모 동거형태에서도 이러한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인구주택총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광주 거주 미혼청년(25~34세)의 60.0%가 부모와 함께 살고, 혼자 사는 비율은 30.7%이다. 형제자매나 비친족과 동거하는 비율은 10% 미만으로 드문 편이다. 전국 평균 수준과 유사한 수준이긴 하지만, 부모동거율이 50.8%인 대전보다는 높고, 68.7%인 울산보다는 낮은 수치이다(그림 2-5, 그림 2-6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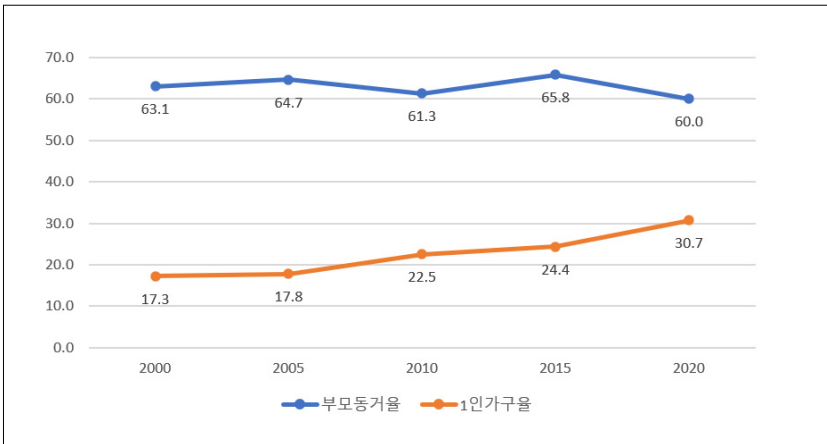
광주소재 사립대학에서 컴퓨터과학을 전공한 G10(27세, 남)은 서울에 본사가 있는 IT 개발업체 광주지사에서 첫 일자리를 시작했다. 유망한 전공 덕분에 졸업 후 취업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지는 않았다. 그는 서울/경기 지역에서 일을 시작할 수도 있었는데 고심 끝에 광주에 남아 있기로 했다.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면서 생활비를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은 그의 계산대로라면 연봉 1천만원 이상의 가치가 있다.

제가 광주로 취업을 했던 이유 중에 하나도 우선은 당장 부모님 집에서 회사를 다니게 되면 그래도 소비가 많이 줄어들잖아요. 혼자 거주하는 것보다는. 그런 이유에서도 있는 것 같아요. (질문자: 직장을 선택할 때 그 점을 고려하셨어요?) 네. 엄청 많이 했어요. (중략) 일단은 아무래도 IT는 서울권 아니면 그냥 지방권 이렇게만 나뉘어져 있고 갭이 엄청 큰데, 근데 이제 서울권으로 가려

면 최소한 연봉이 1천에서 1,200~300 정도까지는 더 있어야지 그래도 월세에 식비를 충당할 수 있다. 이런 계산까지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정도 연봉이 아니면 이 광주에서 3천 이상 정도이면 그래도 첫 회사로 괜찮지 않을까 해서 취업을 하게 됐습니다(G10, 27세 남성, IT개발업체 근무).

[그림 4-6] 광주 미혼청년(25~34세)의 부모동거율과 1인가구율 추세

(단위: %)



출처: “인구주택총조사,” 통계청, 각 연도, 2% 표본 마이크로데이터를 바탕으로 연구진이 분석함.

이처럼 부모와 주거를 함께 하지 않더라도, 가족과 친구가 있고 대학을 나온 지역에 자리를 잡는 것은 이점이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청년들이 그리고 최근 세대로 올수록 주변 친구들이 광주를 떠나는 추세라는 점을 의식하고 있었다. 광주 청년들의 지역 이탈은 광주 정주를 뒷받침하는 인적 연결망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청년들이 광주에 남은 이유는 서울 등 수도권의 높은 주거비용 때문이다. 청년들은 돈을 많이 버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축이나 투자를 통해 자산을 형성하는 일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그런데 지방 출신 청년들은 서울에서는 높은 주거비용 때문에 돈을 모을 수 없다

고 생각하여 이주를 포기하거나 광주에서 일자리를 얻지 못했을 때 고려할 수 있는 차선책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저는 사실 서울을 가고 싶긴 한데, 뭔가 망설여지는 이유는 집세나 이런 게 너무 비싸잖아요. 그래서 뭔가 내가 이제 직장생활을 하면은 당연히 지금 열심히 돈을 쓰는 것도 맞지만, 사실은 **미래를 준비해야 되는데, 뭔가 집이나 이런 기본적인 생활비에서 돈이 너무 많이 나가면은**, 뭔가 그것 또한 좀 부담스럽다라는 생각을 해서, 뭔가 이 광주에서 가능하다면 일단은 광주에서 해보고, 여기서 안 되면 그때 또 도전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G7, 27세, 여).

G3(37세, 여)은 광주에서 대학을 졸업한 뒤 현재 광주에서 초등학교 교사로 일하고 있다. ‘교사 월급’으로 여유롭게 살기 위해서는 광주에 있는 것이 더 낫다고 말했다. G11은 적은 시간을 일하면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이유는 광주의 저렴한 임대료라고 했다. 예컨대 광주에서는 1인가구의 월세 임대료가 대체로 30~40만 원 수준인 반면 서울에서는 그 두 배 이상의 비용이 필요하다. 광주에서 부모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경우라면 이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은 더욱 크게 느껴질 것이다. 이러한 비용을 감수하면서까지 이주하려면 비용을 능가하는 가치가 보장되어야 한다. 그것은 임금과 같은 직접적인 경제적 보상일 수도 있고, 지역이 제공하지 못하는 새로운 기회나 경험일 수도 있다. 결국 이주지에서 충분한 소득을 얻을 수 있는지, 그리고 만족할 만한 직장을 얻을 수 있는지가 이주의 중요한 문턱으로 작용함을 보여준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경쟁적인 환경에 가치를 두지 않거나, 지역의 사회적 자원을 통해 보호와 여유 속에서 살길 원하거나, 주거비용을 절약하여 돈을 모으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이라고 생각하더라도, 결국 지역에서 일자리를 찾지 못하면 떠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비자발적인 이주와 비교하여, 정주는 자발성이 더 크다고 할 수 있을까? 사람 많은 서울에 대한 거부감, 부모와 친구들로 이루어진 사회적 지지망에 대한 의존, 높은 주거비용 감당의 어려움 등은 지방 거주 청년들이 정주를 ‘선택’했다는 논리였다. 정주를 선택하는 계기가 존재했고, 나름의 합리적 판단에 근거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떠날 수 밖에 없는 이유와 마찬가지로, 이들을 머물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사회적 원인도 존재하는 것이다.

2. 지역 기회구조 인식

가. 일자리 기회구조 인식

1) 일자리 수의 부족

그러나 가장 중요한 정주여건은 일할 기회와 양질의 일자리이다. 청년 연구참여자들은 광주 노동시장의 가장 중요한 문제로 일자리 수의 부족을 공통적으로 지적했다. 일자리의 종류나 질도 문제로 인식하고 있지만, 일단 ‘들어갈 수 있는 일자리’ 자체가 부족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대졸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자리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일자리에 수많은 경쟁자들이 몰리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고 한다. IT회사의 광주지사에서 일하는 G10(27세, 대졸 남성)은 연봉이나 근로조건 이전에 일자리의 수가 부족한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말한다.

그냥 연봉의 차이가 아니라, 광주에서 취업하려면 정말 하늘의 별 따기라고 할 정도로 저희 회사만 봐도 면접이 열렸다 하면 광주에서는 60명이 줄 서서 면접을 보는데 서울에서는 30분에 1명 이런 식으로 예약제로 해도 널널하게

면접을 볼 수 있거든요.

공무원, 공기업,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은 취업을 원하는 청년에 비해 턱 없이 작은 채용규모에 대한 불만을 토로한다. 공공기관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G7(27세, 대졸 여성)도 채용규모 자체가 너무 작다고 지적한다.

제가 느끼기에는 일자리 문제가 정말 크다 생각을 하거든요. 최근에 광주시 산하 공공기관 통합채용이 열렸는데요. 여러 산하기관의 채용을 한꺼번에 하는 거예요. 근데 여성가족재단도 3명만 뽑고, 그리고 다른 지역들도, 다른 기관들도 진짜 많아봤자 9명, 10명 이 정도밖에 뽑지 않는데, 전체 지원자가 1천 명 이상이 된다 이런 기사를 봤거든요. 진짜 자리는 작은데 그 수많은 청년들이 이 한 곳에 모이는 걸 보면서, 뭔가 일자리 문제가 진짜 시급하다(심각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G7).

G9(33세, 남, 중소기업 사무직)도 “일자리 부족 자체가 너무 적은” 것이 가장 결정적인 문제라고 했고, 광주 소재 자동차조립공장에서 일하고 있는 G12(26세, 전문대졸 남성)도 일자리가 없다고 호소했다.

결국에는 광주에서는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가지고 다 떠나가게 되는 그런 구조더라고요. 물론 잘 돼서 올라가는 친구들도 있지만 이제 진짜로 광주에 일자리가 없거나 그리고 특히 이제 공기업 같은 경우에는 지역은 진짜 한두 명밖에 안 뽑잖아요(G12, 26세, 생산직 노동자).

자영업, 개인서비스업 비중이 높은 광주의 내수 경기도 좋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G1은 대학생이나 취업준비 중 생활비를 벌기위해 임시로 하는 아르바이트 일자리조차 구하기 어렵다고 했다.

제 주변 친구들 중에서 알바를 구하는 친구들 얘기를 들어봤을 때는 진짜 많이 지원을 하고 겨우 한 군데 붙고 이 정도더라고요. 옛날에 저 대학 다닐 때 20대 초반 그때 당시에는 그래도 몇 번만 지원을 해도 거의 붙는 격이었는데 요즘은 좀 취업 자체가 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중략) (그러다보니) 경력직 뽑듯이 카페도 막 그 경력들이 워낙에 많이 몰리다 보니까 그중에서 가장 경력이 좋거나 뭐 이런 사람을 뽑는 건지 통화 다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G1, 26세, 대졸, 구직 중).

2) 직업 분야의 협소함

참여자들은 광주 취업시장의 또 다른 특징으로 일의 종류가 매우 제한되어 있는 점을 꼽았다. 이러한 특징은 앞서 대전이나 울산에서도 살펴봤듯이, 여타 비수도권 광역도시에서도 반복적으로 언급되는 문제이기도 하다. 지방 종합대학의 다양한 전공에도 불구하고, 대학졸업자들이 지역 안에서 전공에 맞는 일자리를 얻기가 어렵다는 것이었다. 이는 지역을 떠나는 직접적인 이유가 되기도 했다. 그러나 단지 인구유출 문제만이 아니라, 이러한 노동시장에서 자신의 일을 찾고 생계를 유지해야 하는 지역 정주 청년들에게 더 중요한 문제인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은 그냥 일반 사무직? 그냥 일반 행정? 이런 업무인 것 같아요. 아니면 좀 나아가서 그냥, 마케팅? 사실 똑같은 사무직이죠. 약간 그런 것밖에는 못 찾는 것 같아요. 다양한 게 많이 없으니까 안 그러면 공공재단, 공공기관이나(G6, 30세, 여성).

그냥 다양한 과 아이들을 좀 많이 아는데, 딱히 전공을 살린 친구는 거의 없었고, 그냥 보험 뭐죠? 설명해 주는? 그런 거 하는 친구도 있고, 그 학원 같은 데 들어가서 직원으로서 이제 뭐 가르치고 뭐 하는 그런 것도 있고 그냥 그런 것 같아요. **뭔가 할 수 있는 거를 한다?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질문자: 할 수

있는 걸 한다는 게 무슨 의미예요?) 뭔가 전공을 살리기보다는 뭔가 시간이 되고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고 그러면 지원. 이런 느낌을 좀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업종에 상관없이(G1, 26세, 여성).

가령 4년제 대학에서는 공무원 시험준비를 흔하게 목격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은 꽤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는데, G7(27세, 대졸 구직 중)의 이야기는 30대 후반인 G2(38세), G3(37세), G4(39세)의 10여년 전 경험과 크게 다르지 않아 보였다.

대부분의 친구들이 공무원 시험을 가장 많이 준비를 해요. 광주, 뭔가 다른 지역은 제가 안 다녀서 모르겠는데 광주 지역에서는 진짜 정말 대부분의 사람들이 행정직이든 아니면 교육 행정이든 이런 식으로 공무원 형태를 가장 많이 준비했었던 것 같고, 그렇다 보니 뭔가 주변에서 현재 이제 시험 결과가 나왔을 때, 공무원 쪽으로 나간 친구들도 여럿 있고, 아니면은 고등학교 친구는 다른 전공인데 그냥 학교를 그냥 중간에 멈추고, 경찰 시험 준비해서 경찰을 또 한다거나 그런 형태가 가장 많은 것 같아요(G7, 27세, 구직 중).

나. 정주환경 인식

청년들은 광주가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진 호남권 거점도시라는 위상이 무색하게, 전반적으로 도시 개발이 잘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광주는 지하철 1개 호선이 운영 중이고 2호선은 공사 중인데 공사가 지연되어 시민들의 불만이 높다고 한다. 공항 인프라도 취약하여 해외 여행을 위해 하루를 다 소모하여 인천공항까지 가야 하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광주를 상징하는 랜드마크 같은 것, 전국 광역도시면 다 있는 복합 쇼핑몰 등이 광주에는 없다고 했다. 결국 청년들은 “광주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불만을 노골적으로 표했다. 이러한 인프라 개선의 지연과 개발로부터의 소외는 생활의 불편함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지역에 대한 자부심에도 손상을 주는 것으로 보였다.

최근 10년 사이 수도권과 여타 대도시에서 널리 확산된 대규모 쇼핑시설이나 현대적인 여가/문화 시설이 광주에서는 찾아보기 어렵다는 불만도 토로하였다. 다소 거친 표현이지만 그대로 인용하자면 다음과 같다.

이 지역은 무슨 스타필드도 없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무슨 지하철이 어떻게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놔줄까? 1호선을. 1호선이 진짜 개판이거든요. 그때 당시에도 욕먹고 지금까지 욕을 먹는, 안 쓰니까 2호선을 지금 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이해할 수가 없죠. (...) 광주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불편하기만 하고, 어떤, 뭐가 이거를, 이것을 정당화할 만한, 이 불편함이 이해될 만한 뭔가가 있는 게 아니라는 생각을 해요(G9, 33세, 남, 대기업 사무직).

SNS, 유튜브 등의 콘텐츠 홍수 속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청년들 사이에 선호나 취향 차이, 시차 등은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청년들이 선망하거나 추구하는 것의 원천은 빠르고 쉽게 퍼져서 욕구의 동질성이 커지는 반면, 그것을 실현할 수 있는 기반은 거주 지역에 따라 큰 차이가 있다. 이로 인한 불만은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비수도권 거주자들이 일반적으로 갖는 불만이다. 앞의 대전 참여자는 수도권과의 지리적 가까움을 통해 이러한 문화적 소비수준의 차이를 극복할 수 있다고 했었지만, 광주는 수도권과의 물리적 거리가 있다.

지역은 달라도 그래도 **미디어로 접하는 건 똑같잖아요**. 예를 들면 뭐 어떻게 유행을 한다, 어떤 음식이 유행을 한다, 하면 제가 음식을 좋아하는 편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긴 한데 어떤 음식이 유행을 해서 나도 저걸 먹어보고

싶다 하면 그런 기회가 아무래도 지방은 좀 늦거나 아니면 아예 안 생기거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콘텐츠적인 차이나 소외감이 있죠.

지역이 고유한 경쟁력을 갖고 있지 못하다는 인식도 지역에 대한 불만을 고조시키는 것으로 보인다. 일부 참여자들은 광주가 특색이 없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수도권과 멀리 떨어져 있는 데다, 유명한 산이나 바다를 접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내세울 게 없다는 아쉬움을 토로하기도 했다.

이러한 아쉬움은 단지 지역의 정주여건 차원에서만 제기되는 것은 아니었다. 지역 일자리가 늘어나기 위해서는 광주에 투자와 개발이 필요한데, 그럴 만한 유인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었고, 나아가 지역의 자산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와도 연결되었다.

광주의 정주여건이 ‘괜찮다’고 생각하는 청년들도 있다. 예를 들어 GG11(33세, 여)은 광주가 “할 거는 많이 없는데 살기에는 괜찮다”고 광주의 거주환경이 나쁘지 않다고 평가했다. 녹지가 많고 여유로운 도시 환경도 장점이었고, 저렴한 물가, 맛있는 식당들, 그리고 부담스럽지 않은 주택 가격 등 때문에 살기 나쁘지 않다는 것이다. 인접한 전라남도의 여러 도시를 쉽게 오갈 수 있는 것도 장점이다. 특히 G11은 광주에는 아직도 월세 30만 원 대의 집을 구할 수 있다는 게 엄청난 장점이라고 했다. 지역 성장과 개발에 대한 태도에 따라 지역 정주환경에 대한 인식도 달라질 수 있다.

제3절 지역 노동시장에 대한 대처 방법들

지역 노동시장의 조건은 남녀 모두에게 공통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지역노동통계에서 드러나듯이 직업, 업종, 임금 등에서 남녀의 차이는 뚜렷하다. 이러한 노동시장 기회구조의 차이는 대처하는 방식에서도 차이를 만들어낸다. 직업과 소득은 미래 가족형성 이후의 역할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고, 더욱 근본적으로는 좋은 남성, 좋은 여성의 조건과도 관련되어 있다. 면접과정에서 청년들이 명시적으로 젠더를 부각시키지는 않았지만, 남성과 여성의 상이한 기회구조와 그에 대처하는 방식에서 차이가 드러났다.

1. 낮은 처우의 일자리와 취업 중단

여성 청년들은 명시적으로 남성과 여성의 역할을 구분하거나 성별 고정관념을 당연한 듯 여기는 문화로부터 점점 벗어나고 있다. 다양한 사회조사에서 20대, 30대 특히 미혼여성들은 성평등주의를 명시적으로 수용하고 지지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노동시장 진입시점과 결혼/출산 시점에서 여성들은 자신들에게 충분한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된다. 처우가 낮고 불안정한 임시적 일자리와 결혼/출산 시 퇴직이라는 여성적인 경로가 자신의 삶에서도 반복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이에 대응하는 여러 가지 방식이 나타나게 된다.

G2(38세, 여, 대학원졸)는 지역 취업시장에서 여성의 경로라고는 공무원 준비를 하거나 결혼 전까지 잠깐 머무는 보수가 낮은 일자리를 받아들이는 것, 두 가지 밖에 없었다고 했다. “오래 다니는” 사람은 별로 보지 못했고, “특히 여성들 같은 경우는 결혼을 하면 그만두는” 친구들이 대부분

이었다고 노동시장 상황을 전했다.

공무원 준비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던 것 같고요. 그때만 해도. 저희 언니 같은 경우도 공시생을 1년 반 거의 꽤 오래 했었거든요. 그렇지 않고는 중소기업이라도 들어가서 다니는 친구들이 있었고, 전공이랑 상관없이 그냥 취업해서 다녔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급여 수준이 그렇게 높거나 그러진 않았고 취업을 해야 한다는 그것 때문에 일단 다니기 시작하거나 아니면 공무원 준비하거나. (중략) 그렇게 오래 다니거나 하는 사람들은 별로 못 봤고 특히 여성들 같은 경우는 결혼을 하면은 그만두는 친구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G2).

G4(39세, 여, 대졸)는 2010년 2월 졸업한 후 2018년까지 8년간 공공기관, 학교, 은행 등에서 1년 단위 계약직으로 일했다. 급여수준은 200만원도 안되는 낮은 수준이었고 계약직으로만 일해 왔기 때문에 늘 불안정했다.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듯이, G4는 2017년 결혼을 했고 다음해 계약이 종료되자 더 이상 일을 하지 않았다.

공공기관 행정 인턴 전산 관련 분야로 들어갔었어요. 한 6개월 정도 하고 계약 기간 종료하고 나왔죠. 그 이후에는 잠깐잠깐씩 텀을 주면서 다른 계약직을 좀 하고, 그러다가 2011년도쯤에 학교에 행정 쪽 관련돼서 교무 그쪽으로 일을 하게 했거든요. 그것도 계약직 그냥 계약직 1년 계약이었어요. 1년 계약하고 또 옮겨서 또 다른 직장으로 옮겨 가지고 중간에도. 그 1년 하고 그 다음에 또 은행에 들어가서 1년 또 하고 다시 학교로 가서 1년하고(G2).

G4 사례는 결혼하면서 일을 그만둔 전형적인 여성적 경로의 사례로 보이지만, 결혼하면서 오히려 정규직 일자리에 도전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전형적이지 않다. 결국 정규직 도전에는 실패했지만, 결혼과 출산이 안정적인 직장을 더 필요로 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이 흥미롭다.

이제 제가 관둘 시기(계약 종료)쯤 되니까 저랑 나이가 비슷한데 선생님이 고 저는 계약직이니까 약간 조금 뭐라 해야 되지 좀 부당하진 않은데 이게 같은 나이 또래인데 이 친구는 선생님이고 정규 관련된 일을 하고 있는데 나는 계약직이니까 약간 그런 것 때문에. **계약직으로 계속 일을 하는 게 결혼하기 전만 해도 그게 그렇게까지 큰 그런 건 아니었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조금 더 안정적인 일을 하고 싶은 생각이 있었어요.** 계속 계약직을 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계약직은 그 제약이 좀 있게 되잖아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이 그 계약직 차이가 있잖아요. **아무래도 혜택도 그렇고** 살짝 그런 게 있어서 그거를 조금 더 안정적으로 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G4가 대학을 졸업하면서 자신의 생애를 기획하던 시점에는 결혼과 모성을 중심에 두고, 결혼 전의 일은 경과적이고 임시적인 것으로 간주했던 당시 지역사회의 영향을 받았었다. 그러나 G4가 결혼한 2017년 즈음은 남성 혼자 일해서 가구를 운영하기 어렵다는 사실이 상식으로 받아들여지고, 실제로 중년 여성의 대부분이 일하는 상황으로 변화한 것이다. 이러한 지역사회의 변화에 따라, 자신과 같은 나이대의 여성들이 같은 직장에서 안정적으로 일하면서 아이도 기르는 모습을 보면서, 결혼을 한 이후 공기업 정규직 채용시험에 도전한 것이다.

2. 여성집중 직종을 선택하기

지역 노동시장에서 여성들은 안정된 일을 하기 위해 교사, 간호사 등 여성지배적 전문직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 보건의료직종은 대표적인 여성직종이다. 광주에서 보건 및 사회복지업은 전체 고용의 13.8%를 차지하며, 전국 평균 10.1%보다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표 4-2 참조). 20~39세 취업한 여성의 32.4%가 전문직 중 보건, 복지, 교육 전문직에

종사하는 데, 이 역시 전국 평균 29.4%보다 높다(표 4-7 참조).

G11(33세, 여)은 “취업이 잘 된다”는 말에 휩쓸리듯이 간호전문대학에 지원했다. 당시 자신이 속한 학급의 절반이나 되는 학생들이 간호분야로 대학을 갔다고 상황을 전했다.

고3 때 거의 절반 친구들이 다 간호학과를 선호했었을 때였어요. 그때는 완전 간호학과 인기가 폭발이여가지고 그 분위기 때문에 좀 휩쓸려 간 것도 없지 않아 있었어요. (중략) 취업이 진짜 잘 된다는 이게 가장 컸어요. **간호학과 나오면 무조건 취업은 100%다. 그리고 제가 여고여서 더 그럴 수도 있는데 아무래도 간호사가 (...)** 그때 아무튼 취업이 잘 된다는 그런 선배들도 와가지고 교육도 많이 해 주시고 그랬었어요. 그래 가지고 다 의료계열로 갔어요. 간호학과가 안 되면 물리치료, 치위생, 임상병리 이런 식으로 많이 갔거든요(G11).

현재는 더 이상 간호사로 일하지 않지만, 대학병원, 개인 피부과의원, 한방병원 등에서 일한 경력을 갖고 있는 G11은 자신을 포함하여 동기들까지 봤을 때 취업에서 어려움을 겪은 적은 없다고 했다. 급여수준은 평균적인 여성임금보다 약간 높은 수준이고, 전문직으로서 경력을 쌓아갈 수 있고 적당한 수준의 사회적 위신도 갖출 수 있는 직업이며, 무엇보다 여성이 들어가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는 것(취업 보장)이 큰 장점이다.

그러나 많은 여성들이 간호 및 의료 분야에서 일하고 있지만, 일의 강도가 높고 책임수준도 높다고 한다. 교대제 근무로 인한 체력적인 어려움은 매우 크다. G11은 일이 너무 힘들고 적성도 맞지 않아서 더 이상 간호사로 일하지 않는다. 자신뿐만 아니라 대학 동기들 다수도 병원 근무보다는 의료관련 일자리로 자리를 많이 옮겼다고 했다. 일부 대학병원을 제외하면 보건분야 급여수준이 그리 높지 않은 점도 언급해야 한다. G11은

한방병원 간호사로 3년을 일했는데 월급은 220만원으로 최저임금수준이었다.

교사도 선호일자리 중 하나이다. 광주에서 교대를 나와 초등학교 교사로 일하고 있는 G3도 교사를 선택한 이유로 “빨리 돈을 버는 직업”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간호사나 교사 등 여성 선호직종의 장점이 ‘취업이 보장’ 되기 때문이라는 점이 지역 노동시장의 상황을 설명해준다.

3. 공공부문 시험준비

광주의 경제적 기회구조에 대응하는 전략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공공부문(정부, 공공기관) 취업을 위해 시험을 준비하는 것이다. 대학에 들어가자마자 공무원 등 공공부문 채용시험을 준비하는 청년들이 매우 많다고 한다. 공공부문 일자리에 대한 청년들의 높은 선호는 광주만의 현상은 아니지만, 광주에서는 청년들이 지역 내 민간기업 취업을 염두에 두고 이를 준비하는 일이 드물기 때문에, 공공부문 채용시험 준비 경향이 훨씬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것으로 보인다.

G1은 환경오염 문제에 관심이 있어서 전공을 식물생명공학으로 정하고 대학에 진학했다. 전공을 살릴 수 있고 안정성도 있으면서 적당한 노력으로 들어갈 수 있는 곳이 ‘농업직 공무원’이라고 생각하고 1학년 때부터 준비를 시작했다고 했다.

제가 이제 대학 다니면서 이제 저희, 학년이 올라가면 이제 주변 선배나 이제 동기들도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러면 저는 항상 이렇게 들었던 생각이, 대부분의 친구들이 공무원 시험을 가장 많이 준비를 해요. 광주, 뭔가 다른 지역은 제가 안 다녀서 모르겠는데 **광주 지역에서는 진짜 정말 대부분의 사람들이 행정직이든 아니면 교육 행정이든 이런 식으로 공무원**

형태를 가장 많이 준비했었던 것 같고, 그렇다 보니 뭔가 주변에서 현재 이제 시험 결과가 나왔을 때, 공무원 쪽으로 나간 친구들도 여럿 있고, 아니면은 고등학교 친구는 다른 전공인데 그냥 학교를 그냥 중간에 멈추고, 경찰 시험 준비해서 경찰을 또 한다거나 그런 형태가 가장 많은 것 같아요(G7).

문제는 청년들이 선호하는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채용규모가 한정되어 있는 반면, 준비하는 청년은 많은 상황에서 높은 경쟁률을 뚫고 취업에 성공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점이다. 공공부문 취업에 성공하더라도 이미 긴 시간 취업 공백기를 가져야 한다. G8(30세, 남)은 2023년 정부 산하 공공기관에 취업하여 체육지도 일을 하고 있는데 이 일이 2017년 2월에 졸업한 이후 얻은 첫 직장이다. 긴 시간이 소요되었던 것에 대해 그는 주변 청년이 ‘거의 다 취준생’이라서 크게 걱정하지는 않았다고 가볍게 말했다. 그의 말대로 광주에서 대학을 마친 후 서른 즈음까지 단기 알바를 하면서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이 적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자격증 시험 볼 때 떨어져서 힘든 점도 있지만, 말했듯이 요즘 청년들이 다 취업난을 겪고 있고, 보통 대학교 졸업하면 바로 취업하지 않는 이상은 거의 다 취준생이라서 저 또한 그냥 하나의 청년이라 생각하고 그냥 열심히 하다 보면 언젠가는 취업을 할 수 있겠지라는 생각을 해서 계속 공부에 좀 몰두할 수 있는 경향이 좀 있었어요. 저는 그렇게 늦다고는 생각은 안 하고요(G8).

이른바 시험준비는 광주 청년들이 직접 경험했거나 간접적으로라도 흔하게 관찰되는 현상이었다. 그러나 높은 경쟁률과 간헐적인 채용기회 등으로 인해 긴 시간이 소요되는 일로 경험되고 있으며, 그 시간을 감당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략 1~2년 이후 포기의 길로 가게 된다.

대부분의 경우 ‘시험준비’ 경험이 다른 일자리를 찾는 데 직접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다른 진로로 방향을 전환하더라도

또 준비해야 하는 시간이 필요해진다. 당장 생계가 급하지 않은 청년들은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새로운 분야에 대한 교육을 받는데, 보통 6개월 정도 학원에서 관련 기능을 습득한 후 취업한다(G1, G11).

그마저도 여의치 않은 경우도 있다. 현재 산업공단 내 증견기업에서 생산직 정규직으로 일하고 있는 G5는 1년간 군무원 시험을 준비했으나 실패하였고 그동안 소득활동을 못해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상황을 보충하기 위해 무작정 생산직 비정규직 일자리에 들어가게 됐다고 했다.

(군무원 시험 준비를) 한 1년 정도는 준비를 한 것 같습니다. 열심히요. (중략) 1년의 공백이 생겨버렸기 때문에 그것을 메꾸기 위해서 이제 제조업에 바로(G6).

G11도 관세사 시험에 도전했던 경험이 있다. 서울에 있는 친척집에 거주하면서 학원에 다니면서 시험을 준비했는데 집중력 있게 준비하지도 못했고 오랫동안 도전할 상황도 되지 못하다는 판단에 포기했다. 그는 시험을 포기한 이후가 더 막막했다고 말했다.

이처럼 지역 노동시장의 제약상황에 대응하는 혼란 전략이 시험을 통해 채용하는 정부/공공 일자리를 노리는 것이다. 그러나 높은 경쟁률이 말해주듯이, 이러한 전략을 통해 성공하는 청년보다 실패하는 청년이 더 많다. 차선책으로 민간기업 취업을 선택하더라도 또다시 준비해야 하는 시간을 거쳐야 하거나, 생계가 급한 경우에는 준비 없이 할 수 있는 일자리로 들어가야 한다.

4. 이탈하기 또는 밀려나기

지역의 한정된 기회구조에 대응하는 또 다른 방법은 이주를 통해 기회

구조를 확대하는 것이다. “잘 돼서 올라가는” 상향 이주도 있지만, 광주에서 자리를 잡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떠나는 ‘밀려남’도 있다.

최근 10년 사이 광주 여성청년들의 순유출이 늘어나고 있다. G7(27세, 여)은 광주 지자체 산하 연구기관 취업을 준비하고 있다. 다른 지역에도 유사한 기관이 있기 때문에 기회가 된다면 다른 지역으로 이주할 생각이 있다고 했다. 그녀의 여동생은 좀 더 분명한 이주의향이 있어 보인다. 보건의료계에서 일하는 여동생은 조만간 서울로 이주할 것이라고 했다. 지금은 경력을 쌓기 위해 광주에 있지만 다른 지역으로 가면 더 높은 급여를 받을 수 있고, T/O도 더 많기 때문에 이주하게 될 것 같다고 했다. 경남과 대전에서 이주해 온 G1(26세, 여)과 G6(30세, 여)도 광주에 만족하고 있지만 일자리를 위해서라면 이주할 의사가 있다고 했다. “어짜피 직장을 선택하는 것이지 지역을 고르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G9).

G9는 광주 안에서 수용가능한 수준의 일자리를 찾지 못했다면 다른 지역으로 이주해야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G9는 실제로 자신의 친구들 다수가 광주에서 얻을 수 있는 소수의 괜찮은 일자리를 얻는 데 실패하고 다른 지역으로 떠났다고 했다(“제 친구들이 다 그래요”). 지역의 협소한 인간관계는 비교에 취약하다. 좋은 직장에 들어간 대학동기들이 이미 지역에 자리를 잡아가는 상황에서, 그것보다 너무 격차가 벌어지는 직장에 들어가는 힘들다는 것이다. 그런 직장밖에 갈 수 없다면 차라리 다른 지역으로 떠나는 선택을 한다고 했다.

광주, 호남 지역에 어쨌든 사람들이 살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을 향한 어떤 이런, 그, 대기업들의 어떤 사업소나 영업소들이 존재를 하고, 거기 사람들도 돈을 많이 받으니까. 어, 내 친구는 저기 은행 다녀서 한 1억 버네? 그러면, 근데 아니 근데 나는 중소기업 가서 3천만 원 받고 만족하고 살 거야? 라고 누가 그걸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왜냐하면 같은 인풋을 집어넣은 거잖아요. 지금

전남대라는 같은 인풋을 집어넣었는데 아웃풋으로 누구는 은행 갔고, 누구는 뒤 2천만 원짜리, 3천만 원짜리 중소기업 간다면 견딜 수 있겠어요? 차라리 여기 있느니 올라가겠죠(G9).

G12(26세, 남)는 광주형일자리로 주목받았던 자동차회사에서 4년째 일하고 있다. 그는 연봉 3,500만원에 주 44시간 일하고 있는데 자동차업계 평균 수준에 한참 못미칠 뿐만 아니라, 토요일 8시간까지 52시간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수령액이 300만원이 되지 않는다는 데 큰 불만을 갖고 있다. 이미 많은 동료들이 직장을 떠났고 본인을 포함하여 남아 있는 동료들도 적극적으로 이직 기회를 엿보고 있다고 했다.⁹⁾ 현재 직장보다 더 나은 조건의 일자리로 옮기는 일이 쉽지는 않지만 계속 지원할 생각이라고 했다.

저는 언제든지 이직하고 싶은 생각이 있고 굳이 광주가 아니더라도 좀 더 위로 올라가더라도 이직할 생각이 있습니다. 더 좋은 조건이 있다면 아마 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자: 직접 지원을 해보신 경험도 있으신가요? 지금 재직 중에) 다른 데 지원도 많이 해봤지만 보통 이제 다니는 회사보다 더 좋은 회사를 가려고 그러지 더 밑으로 내려가려고 안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 아직 성공하지는 못해서 여기 다니고 있긴 한데 앞으로도 계속 지원할 생각이긴 합니다(G12).

사실 G12에게 광주에 남아 있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 이미 친구들

9) 광주글로벌모터스는 자동차생산공장으로 노·사·민·정 협력으로 추진된 '광주형 일자리' 사업이자 상생형 지역일자리 1호 사업장이다. 2021년 4월 29일 가동을 시작했으며, 정규직 일자리 908개가 새로 생기는 것을 비롯해 1만1000여개 간접 일자리 창출이 기대되었다. 생산직 채용은 초봉 3500만원에 일 8시간, 주 44시간(주 2회 2시간 추가근무)이다. 국내 자동차 생산공장이 새로 생긴 건 1998년 부산 르노삼성 자동차 공장 이후 23년 만이다(민동훈, 2021).

도 모두 떠났고 자신만이 남은 상황이다. 어쨌든 어디에 있던 혼자 일하는데 친구나 가족이 무슨 의미가 있냐고 했다.

제 친구들은 지금 거의 다 '위'에 있어요. 서울이나 이제 경기 평택 익산 이런 쪽에 다 올라간 것 같아요. 결국 광주에서는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가지고 다 떠나가게 되는 그런 구조더라고요(G12).

5. 자산형성을 위한 금융투자

경제적 기회를 확대하는 또 다른 수단 중의 하나로 부상한 것이 '투자'이다. 주식투자는 거주지역의 제약이 없다는 점에서 지역 청년들이 큰 관심을 둘 수 있는 영역이다. 소득이 있는 남녀 청년들 모두 주식투자에 높은 관심을 보였으며, 이를 지역 노동시장의 제약을 벗어나서 자산을 축적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요즘 세상에는 적금만 넣으면 안 된다고 많이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조금씩 돈을 벌 때 (투자를) 조금씩 해보자라고 했는데, 뭔가 제가 봤을 때는 제가 그걸로 엄청 큰 금액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으니깐, 그냥 뭔가 (다른 일을) 병행을 해야겠다는 정도의 생각만 하고(G7),

심지어 현재 직장에서 얻는 임금소득을 미래의 투자를 위한 '시드 머니' 확보를 위한 것으로 보고 있을 뿐, 직장 자체에 애착을 갖지는 않았다. 그 외 청년들은 비트코인이나 미국주식 열풍 등 분위기를 따라 투자에 나섰다 큰 손실을 보고 있는 경우였다.

또한 일부 청년들은 이미 자가를 마련했다. 광주의 구축 아파트는 2억 내외의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대규모 대출이 가능했기 때

문에 구매할 수 있었다고 했다. 자가가 있는 청년들은 자산 가치 상승에 민감한 편이었고, 대체로 광주 아파트 가격이 오르지 않는 것에 불만을 표현했다.

저에게 자가가 있는데 근데 자가가 광주에 있다는 건데요. 광주의 자가는 몹시 좋다라고 할 수 없지만 이후에 이제 문제가 이제 자가로 좀 더 이렇게 자가의 경쟁력을 높여야 되잖아요. 그 자산 증식을 통해서 그런데 이제 광주에서는 그게 더디다는 느낌이 확실히 좀 드는 편입니다. 서울은 빠를 것 같습니다 (G5, 32세 남).

6. 수용하고 적응하기

그러나 지역의 경제적 기회구조를 굳이 벗어나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 청년들도 있다. G1(26세, 여)은 대학 졸업 5년차이다. 입학하자마자 공무원 시험 준비를 했으나, 채용기회가 너무 적고 오랜 시험준비가 자신 없어서 포기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웹디자인 교육을 받고 중소기업 마케팅회사에서 홍보 업무를 한 경력이 있다. 너무 높은 기대를 설정하여 실망하고 좌절하기보다는 기대수준을 낮추고 평범한 삶에 만족하고 싶다고 했다. 이전 직장에서 200만 원 초반대의 월급을 받았는데, 자신은 그 정도 급여수준이면 괜찮을 것 같다고 했다.

G11(33세, 여)도 유사한 태도를 보여주었다. 현재 여러 가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지내고 있다. 원래 간호사였는데 급여가 높고 강도가 높은 일자리보다는 여유가 있고 책임이 덜한 직장을 선호해왔다.

이제 간호사를 그만두고 나서는 학교 외부 강사로 조금 일을 하면서 하니까 또 되게 적성에 맞고 아이들이랑도 잘 맞는 것 같고 그래서 그런 일도 하고, 또

제가 사실은 자유로운 영혼이에요. 엄청 자유로운 영혼이어가지고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했는데 또 장애인분들 운동 가르치는 일 이것도 하고요. 지금은 또 리서치 일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다양한 일을 그냥 시도해 보고 있어요. 근데 이제 물론 안정적이라고 볼 수는 없는데 저는 만족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4절 가족형성 전망과 실천

이 절에서는 청년들의 결혼과 출산에 대한 전망과 실천을 다룬다. 경제적 기회구조에 대한 인식과 대처방식은 가족형성 실천과 전망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지만, 결혼과 출산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 이는 지역의 가족형성이 단지 개별 구성원의 고용상황, 소득, 자산 등 ‘개인 변수’로만 설명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의미한다.

1. 지역 기회구조와 ‘형편에 맞춰’ 결혼하기

광주는 2000년대 초반 하더라도 합계출산율이 전국 평균보다 높았다. 그러나 2024년 현재 합계출산율은 서울, 부산에 이어 가장 낮다(부표 11 참조). 광주에서 결혼과 출산은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

청년들이 결혼에 대해 갖는 우선적 관심은 의무인가 선택인가와 같은 규범의 문제라기보다는, 결혼을 할 수 있는가라는 가능성에 맞추어져 있었다. 물론 인터뷰에 참여한 광주 청년들 대부분이 결혼에 대해 현대적인 태도를 갖고 있었다. 결혼은 의무나 규범이 아니라 개인의 선택이어야 한다는 결혼태도는 모든 지역을 가로질러 확산되어 있었다. 그러나 아직 구직 중인 20대 청년이나, 주변에서 결혼하는 친구들이 늘어나는 30대 청

년이나, 청년들은 현재의 생애주기와 상관없이 결혼을 자격과 성취의 문제로 이해하는 데 매우 익숙해져 있는 것으로 보였다.

사회학자들은 결혼을 선택의 대상으로 간주하게 되면, 사람들이 더 이상 결혼을 원하지 않는 등 결혼 자체의 가치가 소멸할 것이라 기대하지만, 탈제도화의 결과는 결혼의 쇠퇴나 소멸이 아니라 결혼의 개인화(‘개인화된 결혼’(individualized marriage))(Cherlin, 2004)이다. 결혼의 향이 아니라 가능성이 문제가 되는 것이다.

가. 연애·결혼에 대한 반성적 태도와 탈낭만화

결혼의향과 결혼가능성 인식을 살펴보기에 앞서, 이러한 변화 기저의 태도 변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청년기의 주요 과업들이 가족형성보다 중요하고 우선순위가 높은 것으로 간주되고 있는 것도 분명하지만, 여기에는 관계나 결혼 등에 부여하는 의미와 가치의 변화도 수반되어 있다. 미혼 청년들은 결혼의 가치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여기에서는 개인들이 스스로 그 가치를 평가하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긴다는 점이 중요하다. 과거 근대화과정에서 결혼의 가치가 낭만적 사랑과 감정적 만족을 중심으로 재구성되었던 것과 비교하여, 청년들은 여전히 낭만적 관계로서 연애나 결혼에 높은 가치를 부여하고 있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¹⁰⁾

면접참여자들은 연애 자체도 쉽지 않다고 이야기한다. 대부분의 참여자들이 여러 차례의 연애경험을 갖고 있어, 청년들에게 연애 기회 자체가

10) 근대화 과정에서 결혼은 경제적 가치 이외에 감정적 가치를 갖게 되었다. 낭만적 사랑은 기존의 타산적이고 도구적인 전통적 결혼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으며, 사랑에 기반을 둔 결혼이라는 근대적 이상을 만들어냈다. 가족이나 집단이 아니라 개인이 결혼을 주도하도록 만들 수 있었고, 남녀관계에 호혜성과 수평성이라는 현대적 가치가 도입되었다. 그런 점에서 결혼의 전 단계로서 연애는 결혼의 핵심요소로 작용했다(Coontz, 2005).

제공되지 않는다고 판단되지는 않는다. 단지 사람을 만날 기회가 없고, 시간과 여유가 없는 문제는 아니다. 남성과 여성 모두 사랑과 결혼에 대해 공유하는 반성적 태도가 현실의 연애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고 짐작된다. 이를 여성은 연애에 대한 회의감으로 표현하고 남성은 결혼 중심의 도구적 태도로 표현하는 경향이 관찰될 뿐이다.

두 여성의 이야기는 연애에 대한 반성적 태도의 대중적 확산을 보여준다.¹¹⁾ 연애를 거부하거나 이성애에 대한 욕구가 없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목적으로서 다루어지지 않고, 외부의 가치에 견주어 해석되고 평가되고 의미가 재구성된다. G6은 몇 번의 연애경험을 통해 자신에게도 낭만적 감정에 대한 욕구가 크다는 것을 확인했지만, 실제 연애관계에서는 잘 충족되지 않았다고 했다. 서로 장난만 치는 식의 관계에서 감정적 충족이 일어나지는 않았다. 소모적이고 무의미하고 불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게 된 이상, 연애를 하기 위해 소개를 받는 등 애써 노력하고 싶지는 않다. 또 다른 여성은 ‘남성 분들이 좀 어리신 것 같다’고 하면서 연애에 대해 기대하는 것과 실제의 차이를 표현했다.

제가 생각하는 건 좀 깊다 보니까 그런 게 좀, 연애하는 게 있어서 그렇게까지 막 행복하다? 오히려 좀 감정을 소비하는 것 같고, 약간 불필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더 클 때가 있어서(G6, 30세, 여).

이러한 반성적 태도의 시작은 연애나 결혼이 ‘꼭 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 즉 규범이나 의무, 또는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라는 인식에 기반을 둔다. G7(26세, 여)은 스스로가 “교제에 대한 욕망이 크지 않다”고 했

11) 여기에서 ‘반성적(reflexive)’이라는 표현은 후기근대적 주체의 특징으로서 자신의 경험을 대상으로 삼아 해석하고 그 의미를 재구성하며, 이후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사고방식을 의미한다.

는데, 대학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게 되면서 사회나 제도가 개인에게 결혼 등 삶의 형태를 강요할 수 없다는 시각을 갖게 되었고, 역사적으로도 사람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했다.

그렇다고 해서 사생활에 대한 목표나 꿈이 없는 것은 아니다. 지방의 20대 여성이라는 그녀의 위치에서 ‘꿈’은 자립하고 혼자 살아보는 것이다. “그냥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라는 욕망이 현재의 자신을 설명해준다. 부모님도 “잘 나고 그러면은 뭐하러 결혼을 하나”고 하신다고 했다. 이처럼 자립과 혼자 살기라는 것이 ‘사랑과 결혼’의 자리를 대체하는 경향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대학을 다니면서는 집이 가까우니까 굳이 독립을 하지 않고 집에서 계속해서 통학하면서 살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계속 가족들이랑 함께 산 시간이 정말 저는 오래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혼자 산다는 그 공간에 대한 욕구가 계속해서 생기더라구요. (중략) 빠른 시일 내에 취업을 해서 이제 일정 금액을 목돈을 마련해서 그걸 가지고 한 1~2년 후에는 독립을 하자(G7, 26세, 여).

연애와 결혼에 대한 반성적 태도는 연애와 결혼이 제공할 수 있는 가치를 중심으로 행동을 결정한다. 낭만적 사랑이 아니라 동반자와의 안정적인 삶, 결혼의 가치에 대한 여성들의 언급에서 ‘안정’은 반복적으로 등장한다.

비혼주의자까지는 아니에요. 만약에 좋은 사람이 있고 저랑 약간 앞으로의 미래를 꾸릴 때 그런 가치관이 맞는 사람이면, 계속 같이 가는 그런 동반자가 옆에 있다는 것 자체도 되게 안정감을 주는 것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저는 결혼을 너무 하고 싶긴 하지만, 그런 사람 찾기 힘들다는 게(G6, 30세, 여).

나. '성취 없이' 결혼하기에 대한 기대

몇몇 여성청년들이 보여준 결혼에 대한 태도의 특징은 결혼에 대한 긍정 또는 부정적 태도가 아니라 소극적인 태도였다. “되는 대로”, “하게 된다면” 등과 같이 결혼을 할지 하지 않을지 스스로 결정할 수 없다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낮은 소득이나 불안한 일자리, 구직/취업준비 등으로 인한 불안정성 경과적 상태 등이 이러한 태도의 배경이 된 것으로 보인다. 지역 노동시장 상황이 남녀 모두 열악하기 때문에 자신보다 나은 상황의 배우자를 만나는 것도 쉽지 않다는 현실 인식도 결부되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소극적 태도의 또다른 배경은 결혼하기 위한 준비와 자격에 대한 인식이다. 경제적 준비정도에 대한 기대가 남성에 비해 여성이 높지 않다고 하더라도, 최근 청년 남성과 여성 모두 결혼의 기준에 대해 민감하게 인식하고 있고 이를 부담스럽게 생각하고 있다. ‘요즘 결혼’은 배우자를 만나는 것부터 시작해서 노동시장에 자리도 잡고 일정한 돈도 모아야 하는 준비된 결혼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었다. 노동시장 지위가 안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결혼에 준비와 노력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기준을 접한 결과, 결혼에 대한 소극적 태도가 만들어진 것으로 보인다.¹²⁾

구직 중인 여성 청년 G1은 취업경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 후 결혼과 출산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자, 진지하게 생각해본 적이 없다고 했다. 지금 돈을 모으고 있는데 그 돈으로 결혼을 할 수 있다면 모르겠지만, 아직 막연하다고 했다. 바꾸어 말하면, 자신의 현실적인 상황과 조건에서

12) 결혼은 이러한 취업/직업안정 이후 애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일이 되길 바라고, 그럴 경우라면 결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이러한 이야기는 구직 중인 여성들의 진술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이야기였다. 결혼까지 애쓰고 싶지 않다(노력할 수 없다는 것이 지역 노동시장을 경험한 여성들의 이야기였다.

결혼이 가능하다면 모르겠지만, 그 이상의 노력과 성취가 필요하다면 굳이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것이다.

결혼, 결혼은 뭔가 하고 싶다. 하고 싶지 않다. 이런 것보다는 그냥 되는 대로? 그런 느낌이어서,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G1).

물론 지금도 돈을 조금 조금씩 모으고 있긴 한데 그게 결혼을 위한 돈은 아니고 언젠가 큰 돈이 필요할 때가 있겠거니 하면서 모으고 있는데, 그냥 그 모아진 돈으로 그냥 만족하면서 살면 되지 않을까(G1).

이러한 청년들의 진술에 대해 특히 주목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전국적 규모에서 이루어진 청년의 결혼에 대한 태도 조사에서는 결혼 규범에 대한 태도(반드시 해야 하는가,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은가 등)나 결혼하고자 하는지 의향(결혼할 생각이 있다 또는 없다)에 관심을 기울여 왔다. 그러나 결혼가능성에 대한 인식에 대해서는 충분히 관심을 두지 못했다. 지역 노동시장의 침체된 분위기와 제한된 기회구조 속에서 노동시장에서 성공적인 이력을 만들어가지 못하는 청년들은 단지 결혼을 미루는 것이 아니라 체념한 듯한 소극적 태도를 견지했다.

다. 형편에 맞는 결혼

G1은 주변 동료로부터 ‘형편에 맞춰 결혼하는 사람’에 대한 얘기를 듣고 충격을 받았다. “결혼을 하면은 이제 결혼식 딱 하고, 이제 아파트나 이런 데 들어가 가지고 아이 키우고 약간 이런 상상을 했었는데, 결혼식 안 하는 분도 있고 그냥 월세 원룸으로 들어가서 그냥 생활하는 사람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전혀 생각해보지 못했기에 놀랐고, 그것이 가

능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매우 인상적이었다고 했다.

처음에는 이제 제가 생각했던 그 결혼 생활이랑 다르다 보니까 되게 충격이 있었어요. 그냥 제가 생각했던 그 결혼 생활(결혼조건)이 아니더라도, 나도 언젠가 결혼을 하게 된다면 (G1, 27세 여).

G11은 20대까지 결혼할 생각이 없었는데 최근 들어 결혼하고 싶은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자신뿐만 아니라 친구들 대부분이 비혼을 선호했던 20대로부터 돌아섰다고 하면서, 그녀는 이러한 변화를 몇 가지 차원으로 구분하여 설명했다. 우선 20대까지는 강하지 않았던 ‘결혼분위기’ 같은 것이 30대 초반이 되면 형성된다는 것이다.

확실히 수도권이나 서울은 막 그렇게까지 결혼을 막 빨리 하는 추세가 아닌데 확실히 **지방은 한 서른 초중반만 돼도 여자분들이 결혼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서울은 내 나이 때 돼도 결혼 안 하는 사람들 되게 많다. 이런 말을 많이 해요. 그래서 확실히 좀 다른 것 같아요. 지방이랑 그런 분위기가(G11).

그때 당시에는 제 친구들도 비혼, 나는 결혼 안 하고 싶다. 하는 친구들도 많았어요. 그래서 근데 그런 애들도 막상 말은 그렇지 지금은 안 그렇거든요. 근데 그때는 그래도 뭐 30살은 안 됐으니까(G11).

비수도권 지역 노동시장에서 여성들의 고용기회는 경력 사다리가 모호하고 고용계약기간이 짧은 단기적인 일자리에 집중되어 있었다. 이러한 사정은 대전, 울산, 광주 사이에 큰 차이가 없다. 공무원,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 일자리에 수백 명이 몰리고 높은 경쟁률이 형성되는 것은 여성만의 일은 아니지만, 민간 기업 또는 제조업에서 기회를 찾기 어려운 비수

도권 대졸 여성들은 한정된 기회구조에 갇혀 긴 시간을 소모하기 쉽다. 수도권 뿐만 아니라 비수도권에서도 여성의 초혼연령이 상승하고 비혼이 늘어나는 이유는 이러한 비수도권 대졸 여성의 불안정 노동이력에서 찾을 수 있다.

다만 대전, 울산과 차이가 있다면, 광주의 노동시장에서 남성과 여성의 격차가 크지 않은 현실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형편에 맞는 결혼’이란 광주의 지역 노동시장 상황에 맞는 결혼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앞서 울산 사례(2장)에서는 대기업 정규직 남성 중심 노동시장 구조와 부모세대의 영향이 결혼의 경제적 기준을 높이는 사례를 확인하였다. 또한 대전에서는 청년기의 불안정 경험에 직면하여 대전 정주와 가족형성을 통해 안정과 친밀성을 얻고자 하는 사례를 확인하였다. 이장에서 광주 사례는 결혼의향보다 결혼가능성이 더 불확실한 상황에서, (타인 또는 타 지역의) 높은 결혼기준 대신에, 자신들의 현실에 맞는 결혼을 타진함으로써 결혼가능성을 높이하고자 하는 사례가 나타났다. 하는 사례가 나타난 것이다.

광주에서도 혼자 살 만큼 경제적으로 능력이 있지 않다는 현실 인식이 계기가 되었다(G1, G11). 이는 자칫 울산의 사례와 유사해 보이지만, 결혼을 전제에 대한 보상으로 여기는 시각은 거의 드러나지 않았다. 노동시장의 제한적 기회구조 안에서 치열한 경쟁을 수용하는 대신 최소한의 안정적 일자리를 수용하기로 하였듯이, 가족형성에 대해서도 형편에 맞는 수준의 주거와 생활수준을 수용하고 부부가 함께 경제적 부담을 공유하는 가족을 수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G11은 솔직하고 명확하게 이러한 결혼의향을 갖게 된 이유를 설명했다.

혼자 살려면, 제가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아예 홀로서기가 가능하다면 사실**

상관이 없는데, 사실 그 정도로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아니고 엄청 많이 모아놓은 것도 아니고 앞으로도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일을 할 수 있는 거는 줄어들잖아요. 지금은 젊고 이러니까 상관이 없는데 나이가 들었을 때 혼자 산다고 했을 때를 좀 상상을 많이 해봤었거든요(G11).

사실 결혼은 전통과 규범이기 때문에만 작동했던 것은 아니었다. 혼자 살기 위해서는 능력이 필요하다는 언급, 즉 뛰어난 능력이 없다면 결혼이 대안이라는 인식은 이미 이전 세대부터 여성의 결혼계기로 거론되어 온 레퍼토리이다(최선영 외, 2022, pp. 168-169). 근대적 교육과 노동을 통해 여성들에게 ‘비혼’이라는 선택지가 적어도 이념적으로 존재했었기 때문에, 형식적이거나 결혼은 늘 선택이었다. 그러나 실질적 선택이 되기 위한 조건은 고학력 고소득 전문직과 같이 예외적인 능력이 있을 때에나 가능했다.

그러나 이미 2000년대 내내 결혼은 감소하는 추세이고 비혼은 젊은 여성들이 쉽게 타진해 볼 수 있는 선택지가 되었다. 실제로 G11은 20대 시기 동안 비혼을 지향했었다고 했다. 수도권 배경의 연구에서, ‘상승이력’을 가진 20대 후반 또는 30대 초중반 여성들은 더 이상 경제적 이유 때문에 결혼해야 한다는 데 동의하지 않았다. 현재 자신들의 일과 소득으로 혼자 사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이었다. 적어도 고소득층의 생활수준을 따라 가려고 하지만 않는다면, 혼자 사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결혼의 동기는 비경제적인 것이야 하며, 더 이상 경제적 생존을 결혼의 동기와 연관지을 수 없다는 것이었다(최선영 외, 2022).¹³⁾

바로 그런 점에서 결혼의향을 갖게 된 이유가 “경제적으로 홀로서기가

13) 최선영 외(2022)의 4장 3절에서 다룬 사례를 언급한 것이다. “혼자 살기 어려운 상태가 아니라서”, “혼자라도 충분히 살아갈 기반이 있다면” 등 비혼에 대한 긍정적 태도에는 비혼으로 있기 위해 그렇게 많은 능력이 요구된다는 인식은 없었다(p. 169).

가능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G11의 진술은 지금의 광주 지역 노동시장의 제약구조에서 나온 인식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광주 지역에서 일부 공공부문 일자리 이외에 상승이력을 가진 여성들을 접하기가 쉽지 않았다. 한정된 여성우세 직종의 채우는 높지 않았으며, 공공/민간 부문 모두에서 단기 계약직 등 비정규직에 노출된 경우가 많다. 이러한 조건은 타인을 부양할 능력을 넘어, 자기부양의 능력을 갖췄다고 자신하기 어렵도록 만든다.

G11은 지역사회의 맥락을 반영하듯, G11은 함께 일하는 가족으로 미래의 결혼을 소극적이거나 상상하고 있었다.

(질문자: 그럼 결혼 이후에도 계속 돈을 벌기 위해 일을 하실 생각인가요?)
네. 일단 저는 결혼을 해도 **경제적으로는 합치지 않을 거고요**. 각자 관리를 할 것이고 저는 **일은 계속하고 싶습니다**.

2. 지역 기회구조와 자산형성의 부담

경제적 형편에 맞게 결혼할 수도 있다는 태도의 반대편에, 경제적으로 안정되어야 결혼할 수 있다는 태도가 있었다. 전자의 태도는 경제적 상황을 수용하면서라도 결혼 자체에 가치가 있다는 것이었다면, 후자의 태도는 안정된 경제적 기반 없는 결혼의 가치를 수용하지 않는 태도라 할 수 있다.

광주 사례에서 나타난 이 두 시각은 결혼, 나아가 가족부양의 성역할에 대한 깊은 기대와 정체성을 반영하고 있다. 울산의 중산층 결혼관행에서 처럼 남성의 경제적 능력이 문화적 기대와 계층재생산과 연결된 것은 아니었다. 광주 사례의 성역할 정체성은 수도권이나 울산과 같이 지역 노동시장을 통해 소득상승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조건에 대한 여성과 남성

의 상이한 반응이라 이해할 수 있다. 광주의 불안정 노동층에 속한 여성들은 광주의 경제적 기회구조 내에서 경제적 자립도 어렵고 경제적 자산을 갖춘 남성을 만나는 일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결혼 자체의 가치를 강조하면서 경제적 기회구조 바깥에 결혼을 위치시킨다. 이러한 대응방식은 경제적 부양책임이 성역할로 규범화되어 있지 않은 여성적 위치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결혼가능성 자체가 중요하다 생각하는 점도 여성적 위치와 무관하지 않다.

광주에서 남성들은 여성에 비해 경제적 자립 가능성이 높다. 남성 참여자들은 공교롭게도 비슷한 학력의 여성참여자들보다 직장도 안정적이고 소득도 남성 평균 수준은 된다고 했다. 그러나 노동시장의 기회를 통해 단독 부양자라는 역할을 수행하기는 쉽지 않다. 고임금을 제공하는 대기업 비중은 낮고, 중소기업 일자리는 경영상의 위기가 잦고 불안정하다. 가족의 일상적 부양은 맞벌이를 통해 이루어져야 하는 조건이지만, 가족의 생계에 대한 책임이 남성에게 있다는 문화적 기대와 남성의 젠더 정체성, 그리고 실질적인 압박이 완화되고 있는 것은 아니었다.

이러한 사정은 혼자 살 때와 달리 가족을 이루어 살 때에는 일정 수준의 재정적 능력과 소비역량이 있어야 한다는 점을 통해 더욱 강화된다. 결혼 전과 후는 안정성과 경제적 여유에서 확연한 차이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것은 재정적 능력이나 미래 기대에 따라 거주 주택의 평수, 임대형태, 주거환경 등 측면에서 다양하게 표현되지만, 궁극적으로는 마련해야 할 자산의 규모로 드러난다.

(문: 상대가 없는 것보다 집 마련이 가장 와닿는 장벽인가요?) 저는 사람을 만나는 것보다 지금 솔직히 집 값이 쉬운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제 나이 때 사회 초년생 같은 분들은 이제 그런 걸 많이 생각하지 않을까요? 광주라고 해서 집값이 싼 편은 아닌데. (중략) 못해도 제가 결혼을 해서 전세로 들어간다

해도 못해도 1, 2억은 제가 들고 있어야지 되지 않나 그 정도는 생각하고 있습니다(G12, 26세, 남, 생산직).

자산 규모가 결혼 가능성을 결정한다는 인식은 자산 형성의 순조로움과 성공 여부에 따라 결혼시기가 결정될 것이라는 생각으로 이어진다.

제가 희망하는 거는 솔직히 이제 그냥 서른하나 서른둘에 하는 게 희망하긴 하지만, 마음처럼 되는 건 아니니까 그쯤만 했어도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G12, 26세, 남, 생산직).

G10은 원래 취업한 후 5년 동안 일과 투자를 통해 돈을 모은 다음에 결혼을 하는 계획을 갖고 있었다. “원래 취업을 처음 할 때의 계획은 5년 동안 내가 일을 해서 얼마를 딱 모아서 내가 할 수 있다는 거를 깨닫고 그때부터 결혼을 슬슬 한번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사실 지금 와서는 연애를 하는 것도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물론 이제 결혼은 계속 꾸준히 하고 싶지만 좀 어려우니까 좀 약간 계획이 흐려지는” 것 같다고 했다.

그는 안정된 직장에 입사했고 커리어 전망도 좋은 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규모의 자산을 모은 후에 결혼을 준비하고 싶다고 했다. 그에게 목표자산 규모에 도달하는 것은 인생목표이자, 가족에게 여유있는 삶을 줄 수 있는 능력이며 책임감 있는 가장의 자리에 대한 약속이다.

뭐 있어야지 결혼을 할 수 있다기보다는 제가 형을 봤을 때는 별로 없어도 일단 결혼을 하면 돈이 모이긴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다기보다는 제 가족이고 자식일 텐데 그래도 뭐 **맛있는 거 사주고 싶고 더 좋은 거 좋은 데서 자게 하고 싶고 이런 생각이 있다 보니까** (투자를) 공격적으로 하게 되는 것 같아요(G10).

G9는 정규직 노동시장 경력이 몇 년 되었기 때문에 결혼을 통해 안정적인 생활로 이행하기 마련인데, 사귀는 사람도 없고 이성을 만나려는 노력도 별로 하지 않는다. 그는 자신에게 부채가 많다고 털어놓았다. 대출을 받아 주식에 투자한 것이 손실로 이어져 빚만 늘어나게 된 것이다. 그러다 정부가 대출을 쉽게 해주는 기회도 놓칠 수 없어서 집을 샀다. 그는 대출을 받아 놓은 게 많아 생활이 여유롭지 못하다고 했다. 그는 이러한 상황에서 결혼을 하겠다고 나서는 것이 염치없지 않냐고 반문했다.

내가 그냥 저축한 것만 날렸으면 괜찮은데 빚을 내서 투자하는 게 날아가니까 감당이 안 돼요. 빚, 이자부터 시작해서.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는 데, 이게 일단 내 앞가림이 안 되는 거예요. 일단 나 혼자 먹고사는 건 되는데, 내가 저지른 실수까지, 너 나랑 같이 이렇게 한번 헤쳐나가 볼래? 이건 사실 염치 없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소개팅 나가는 것도 사실은 좀 염치없는 일이라 생각을 했어요. (중략) 결혼 준비에 관련해서 저는 스스로가 좀 굉장히 미흡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집을 샀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왜 집을 샀냐면, 돈이 없는 거예요. 이제 완전 망했으니까. 근데 23년도에 이제, 부동산 계속 좀, 떨어졌죠. 문재인 때 엄청 올라갔다가 막 떨어지니까 정부에서 대출을 풀었어요. 대출을, 부동산 나락가지 마라. 하고 대출을 좀 풀어줬고, 그때 당시에 대출을 풀어주니까 내가 없는 돈 다 끌어서 살 수 있겠다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영끌이었어요(G9).

G2(38세, 여)는 남성의 부양자의식이 강한 것이 남성들의 자존심인 것 같다고 하면서 지방의 특성인 것 같다고 했다. 남성은 자기가 혼자 건사를 해야(부양할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야 결혼을 하는 것 같다고 했다. 여성들도 그런 남성의 태도를 굳이 문제삼지 않는다.

특히 지방 사람들이 그런 것 같아요. 결혼을 해서 자기가 가장이고 이러니

까 내가 이 식구들을 건사를 해야 된다는 생각은 지금 우리 또래 친구들도 다 있어요. 만약에, 저희 신랑도 그러거든요. 제가 한 번씩 회사 일로 스트레스 받거나 이렇게 집에 오면 그만두라고 말을 해요. 근데 제가 안 그만둘 걸 알기 때문에 하는 소리인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자기가 혼자 벌어서 생활해서 할 수 있더라고요 이렇게 말을 막 그렇게 하거든요. (...) 그게 이제 약간 남자들의 어떤 자존심 문제인 것 같기도 하고. 남자는 와이프가 벌여주면 감사한 일이지만 만약에 못 벌더라도 내가 혼자 건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가야 결혼을 하는 것 같아요(G2).

남성 청년들은 결혼을 가족의 생계부양자라는 책임을 수용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이에 따라 경제적 자산을 갖춘 후에 결혼하는 방식으로 행동하고 있다는 점은 이미 서울, 수도권 청년 연구에서도 확인된 사항이다(최선영 외, 2022). 노동소득만으로 경제적 기반을 마련하는 일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현실이지만, 비수도권 지역의 평균 주택가격이 수도권과는 비교할 수 없이 저렴하고 자산상승기대가 상대적으로 높지 않은 현실을 고려하면, 결혼의 경제적 기반으로 ‘자산’을 위치시킬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 지역 노동시장에서 남녀의 격차와 수도권과의 격차에 대한 의식이 제한된 노동시장 기회구조에 대한 보충이자 기회확대수단으로 자산형성에 대한 관심을 고조시키는 것으로 보인다.

3. 자녀출산 의향과 현실

현재 미혼인 청년들은 여성들의 경우 결혼에 대해 소극적이거나 ‘결혼할 의향’을 드러내면서도 출산에 대해서는 더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결혼과 비교하여 출산은 ‘더 난이도가 높은’ 시험이다. 또한 청년들이 안정을 위해 결혼을 지향한다고 할 때, 반드시 출산을 염두에 두고 결혼의

향을 갖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보여준다. 자녀가 있다면 부양책임이 더 늘어나기도 하고, 자녀양육을 위해 한 사람(여성)의 소득활동 중단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 조심스럽다고 했다.

결혼은 뭔가 하고 싶다. 하고 싶지 않다. 이런 것보다는 그냥 되는 대로? 그런 느낌이어서 가지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출산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출산은 이제 비용적인 문제도 있고 (중략) 만약 출산을 하게 된다면 저도 막 직장을 다니지는 못할 것 같고, 아이가 어느 정도 크면은 온라인으로 일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G1).

기혼참여자들은 이미 최근 출산한 한 명의 자녀가 있거나 현재 (아내)가 임신 중이었다. 추가 출산 의향에 대해 질문을 하자, 세 명의 참여자 모두 부정적인 입장이라고 했다. 한 남성 참여자는 경제적인 것을 비롯하여 전반적인 부양책임에 대한 부담을 이유로 들어 '절대' 둘은 안된다고 했다.

한 명 이후로는 절대로. 무조건 하면 하나만. 그 이후로는 절대로 왜냐하면 그 두 명이 있으면 큰일 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중략) 예를 들어서 한 명은 계산이 되고 이렇게 예측이 되고 그냥 하나한테 몰아주면 되잖아요(G5).

이처럼 강한 입장은 아니어도, 자녀가 있는 세 명의 참여자들은 공통적으로 한 명의 자녀에게 자원을 집중시키는 것이 나은 선택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특히 자녀의 양육과 교육에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이러한 한자녀 선호를 강화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여성 참여자들은 첫출산 과정에서 겪은 인공수정 등 임신의 어려움, 출산과정에서의 신체적, 정신적 어려움도 둘째 출산을 꺼리는 이유로

작용한다고 했다. 전국적으로 여성의 초혼연령이 증가하면서 임신과 출산의 과정에 신체적, 정신적 어려움이 수반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첫 임신, 출산의 어려움은 둘째 자녀 출산을 꺼리는 이유가 되고 있다.

초반에는 둘째 생각도 있긴 있었어요. 아이가 주는 기쁨도 그랬고, 아이가 저희가 없을 때 혼자 남았을 때의 그 걱정도 있었고, 그래서 조금 고려를 안 해 본 건 아닌데 첫 아이 가질 때까지만 해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출산하고 그렇게 겪어버리니까는 생각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나이가 이제 더 먹어가니까 나이 먹으면 체력적으로 힘들잖아요. 아이 키우는 데도 그러다 보니까는 갖는 게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서. 지금은 그냥 후시라도 생기면 모를까. 그렇게 인공 수정을 해가지고 하고 싶은 생각은 별로 없어요(G4).

저는 둘째까지 낳고 싶다 생각했었는데, 갑작스럽게 응급으로 제왕절개를 하게 돼 가지고 되게 좀 많이 몸도 힘들고 마음도 많이 힘들고 사실은 불과 몇 개월 전까지만 해도 산후 우울증 때문에 또 엄청 힘들고 막 이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완전 괜찮아졌는데 여러 가지 고민이 되는 중이에요(G2).

제5절 소결

광주 청년들은 광주지역이 수도권에 비해 경제적으로 낙후되었고 현대적인 인프라와 다양한 일자리가 부족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대졸 청년들은 노동시장의 불확실성을 타개하기 위한 전략으로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취업을 목표로 하는 ‘시험준비’에 쏠리거나, 전공을 살리지 못하고 일반 사무직이나 계약직 등 한정된 일자리를 선택하는 상황에 놓인다. 이러한 경제적 제약 속에서도 청년들은 부모와의 동거를 통한 생활비 절감(미혼 청년의 60.0%가 부모와 동거) 및 가족과 친구 등 인적 연결망을 통해

사회적 고립을 방지하는 형태로 광주에 정주한다.

젠더별 대응 전략에서는, 여성 청년들이 낮은 처우의 저임금, 임시적 일자리 경험 이후 결혼과 출산 시점에 일을 그만두거나 결혼 후에도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공공부문 일자리를 추구하는 두 가지 방식이 대부분이다. 일부 여성들은 노동시장 성취와 거리를 두고 ‘돈 욕심이 없는’ 삶을 지향하는 태도를 보인다. 반면 남성 청년들은 광주 정주를 전략적 차선책으로 선택하며, 지역 노동시장의 한계를 극복하고 생계부양자로서의 지위를 획득하기 위한 수단으로 투자(주식, 부동산)에 높은 관심을 기울인다. 차선책으로서 지역 이탈을 고려하고 있다는 점도 눈에 띈다.

광주 청년들의 인구 지표를 살펴보면, 지난 20~30년간 전국적 추세와 마찬가지로 결혼이 늦춰지고 비혼 인구가 증가하는 양상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결혼에 대한 태도는 의무가 아닌 선택이라는 현대적 인식이 지배적이며, 결혼은 노동시장에서의 성취에 따라 달성해야 하는 ‘개인화된 결혼’이 되었다는 상황인식을 공유하고 있다. 그러나 불안정한 일자리와 반복된 취업 준비 과정은 청년들의 에너지를 소모시키고 무기력하게 만들어, 결혼을 구체적으로 계획할 여력을 상실하게 한다. 이러한 배경 하에 많은 청년들은 결혼에 대해 “되는 대로”, “하게 된다면”과 같은 소극적이고 체념적인 태도를 보인다.

광주 청년들은 지역 노동시장의 제약 속에서 젠더별로 상이하면서도 현실적인 가족형성 전략을 수립한다. 여성 청년의 경우, 광주의 제한된 여성 직종(낮은 처우의 한정된 직종) 구조 내에서 경제적 홀로서기가 어렵다는 현실 인식이 비혼 지향을 포기하고 결혼을 대안으로 재인식하는 계기가 된다. 이들은 남성 외벌이 모델 대신 부부가 함께 일하며 경제적 부담을 공유하는 가족 형태를 예측하며, 타인의 시선이나 중산층 기준을 신경 쓰지 않고 주택 마련이나 결혼식 수준을 ‘형편에 맞춰야 한다’는 태

도를 보인다. 반면, 광주 노동시장이 남성에게 충분히 높은 임금과 안정성을 제공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남성 참여자들은 결혼을 가족의 경제적 부양 책임을 수용하는 것으로 이해하며, 일정 규모 이상의 자산을 모은 후에 결혼을 준비하려 한다. 이처럼 지역 노동시장의 제약을 극복하고 가족을 부양할 경제적 기회를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청년 남녀 모두 주식 투자를 포함한 '투자'에 높은 관심을 보인다.

광주는 최근 출생아수와 합계출산율이 급감했으며, 2024년 출산율 상승 분위이에서도 유일한 예외지역이었다. 미혼청년들은 결혼보다 더한 노력과 준비가 필요하다는 부담감, 여성의 고용중단 문제 등을 걱정하고 있었다. 이미 한 명의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둘째 자녀 갖기를 적극적 또는 소극적으로 거부하고 있었는데, 일정한 수준의 자녀지원을 해야 한다는 규범과 자신의 한정된 경제적 능력을 조율하는 수단이 한자녀 갖기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청년들은 경쟁압력이 낮은 생활환경을 선호하면서, 정규직 고용이나 주택 소유와 같은 결혼 조건을 충족하기 위한 추가적 노력을 기울이기보다는 지역에서 자신의 경제적 조건에 맞춰 결혼하는 것을 합리적인 선택으로 인식하였다. 특히 노동시장에서 경제적 자립 수단을 얻기 어려운 여성들에게 이러한 태도가 두드러졌다. 이와 달리 중산층지위 획득을 기대하고 정주를 선택한 청년들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고용과 낮은 생활비에도 불구하고 금융투자를 필수적인 역량으로 간주하면서 '준비된 결혼'을 위해 시간을 유예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지역의 제한된 기회구조는 청년들로 하여금 가족형성을 경제적 투쟁의 장으로 만들거나, 반대로 경쟁문화로부터 쉽게 이탈하도록 하는 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들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제5장

결론

제1절 연구의 요약

제2절 연구의 함의와 한계

제 5 장 결론

제1절 연구의 요약

이 연구는 비수도권 지역에 정주하는 청년들이 제한된 기회구조 내에서 경제적 자립과 가족형성에 대한 전망을 어떻게 구성하는지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비수도권 대도시라는 공통점을 지니면서도 산업구조 및 노동시장 구조, 수도권과의 관계 등에서는 차이를 보이는 울산, 대전, 광주를 사례 지역으로 선정하였다. 각 지역의 인구 및 산업, 고용 통계자료를 통해 각 도시의 사회경제적 구조와 청년의 고용구조를 파악하고, 20~30대 청년 남녀에 대한 심층면접 자료를 바탕으로 이들의 경험과 인식, 전망을 분석하였다.

저출산과 비수도권 청년의 지역이탈 확대 경향에서 추론할 수 있듯이, 비수도권 지역 노동시장의 규모, 일자리 유형, 보상수준 등에서의 제약은 청년의 안정적인 성인이행과 경제적 자립을 제한하고, 가족형성에 대한 전망을 어렵게 만드는 주요한 원인이다. 그러나 분석에 따르면 이러한 지역노동시장의 제약이 청년들의 결혼과 출산에 대한 전망에 직접적으로 작용하기보다는, 지역사회가 지닌 결혼과 가족에 대한 문화적 가치, 유사한 연령·경험 집단의 행위로부터의 영향, 그리고 무엇보다 지역노동시장이 남성과 여성에게 상이한 기회를 제공하는 방식에 따라 결혼과 출산에 대한 전망이 구성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사례연구를 통해 경험적으로 일반화된 주장을 도출하기보다는 각 지역의 사례에서 관찰되는 가족형성의 유형(방식)이 해당 지역의

맥락 속에서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분석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2장의 울산 사례에서는 대기업 정규직 남성 중심의 노동시장구조에서 주변화된 여성들의 가족형성 전망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노동시장구조는 여성의 지역 이탈을 촉진하거나, 지역에 잔류 또는 복귀한 여성들이 부모의 계층지위를 재생산하는 수단으로 결혼을 선택하게 만드는 조건이 되었다. 한국에서 평균임금이 가장 높은 지역 가운데 하나라는 조건에서, 경제적 동기가 주도하는 가족형성은 울산형 산업 가부장제가 성별 격차 뿐만 아니라, 세대 관계를 통해서도 재생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경향은 비단 울산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경제적 자립 능력이 구조적으로 제한되어 있는 조건에서 부모세대의 보호와 지원에 의존하는 여성들의 가족형성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

3장의 대전 사례에서는, 가족주의적 의식이 강하고 지역거주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한편, 결혼을 통한 계층 상승이나 중산층 지위 재생산 압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조건에서의 가족형성을 살펴보았다. 대전은 수도권과 가깝고 고소득 전문직이 상대적으로 많은 도시이다. 그러나 지역소재 대학을 졸업하고 지역에 정주하는 청년들은 고소득 전문관리직이 아닌, 자영업, 임금노동자, 공무원 등 중간층이거나 그 이하 계층의 부모의 자녀일 개연성이 높다. 이 지역 청년들은 사회경제적 불안정과 건강 위기를 경험하는 과정에서 관계의 신뢰를 축적하고 가족형성으로 나아가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청년기의 불안정성이 가족형성과 충돌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안정에 대한 요구'를 강화함으로써 가족형성에 대한 낙관적 전망을 형성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가족이 연대의 한 방식임을 상기시키는 이러한 경험은 경쟁압력이 낮은 사회적 환경과 가족 내 유연한 협력관계를 만들 수 있는 역량에 달린 것이었다.

4장의 광주 사례에서는, 수도권과의 경제적 격차에 대응하는 청년들의

상이한 전략을 분석하였다. 일부 청년들은 경쟁압력이 낮은 생활환경을 선호하면서, 정규직 고용이나 주택 소유와 같은 결혼 조건을 충족하기 위한 추가적 노력을 기울이기보다는 지역에서 자신의 경제적 조건에 맞춰 결혼하는 것을 합리적인 선택으로 인식하였다. 특히 노동시장에서 경제적 자립 수단을 얻기 어려운 여성들에게 이러한 태도가 두드러졌다. 이와 달리 중산층지위 획득을 기대하고 정주를 선택한 청년들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고용과 낮은 생활비에도 불구하고 금융투자를 필수적인 역량으로 간주하면서 ‘준비된 결혼’을 위해 시간을 유예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지역 불균형 개발과 비수도권 청년들의 소외감이 가족형성을 경제적 투쟁의 장으로 만들거나, 반대로 경쟁문화로부터 쉽게 이탈하도록 하는 데 영향을 미친다고 해석했다.

세 지역을 관통하는 공통점은 각 지역 청년 노동시장의 뚜렷한 성별 격차와 지역 여성 고용조건위의 유사성이었다. 고학력이더라도 적절한 고용 기회를 얻지 못한 채 불안정 이력을 장기간 경험하는 여성 청년들이 상당한 규모로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 불안정한 고용 환경 속에서 결혼이 ‘안정 확보의 수단’으로 재의미화되는 경향도 확인된다.

제2절 연구의 함의와 한계

1. 연구의 함의

그동안 청년기의 이행과정이나 가족형성에 대한 연구들에서 경제적 배경과 노동시장지위가 결혼이나 출산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은 여러 차례 강조되었으나, 그러한 배경을 구체적으로 이해하려는 시도는 많지 않

았다. 특히 지역 노동시장의 제약과 기회에 대한 경험과 인식이 구체적으로 다루어진 적은 거의 없었다. 이미 현대적인 사회제도가 안착되어 있고 교통, 인터넷, SNS 등 지리적 경계에 따른 문화적 차이는 거의 사라졌다는 인식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가족형성이 점점 더 개인의 노동시장 성취와 자산 등 경제적 자원에 의존할수록, 지역 노동시장과 주택 및 자산의 영향은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결혼과 출산에 대한 가치관은 전국적으로 일원화되고 구체적인 결혼과 출산에 필요한 생활기반에 대한 기준도 다양한 매체를 통해 수렴하는 가운데, 지역에 따라 그러한 자원을 얻을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차별화되고 있다는 점은 중요한 제약으로 작용한다.

이 연구는 이러한 맥락에서 지역 노동시장의 지역간 차이와 지역내 차이에 주목하여, 서로 상이한 조건에서 결혼과 출산에 대한 전망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를 청년들의 경험과 목소리를 통해 듣고자 했다. 특히 인구 이동, 가족형성 등이 모두 남녀의 상이한 기대와 조건의 차이와 긴밀한 관련이 있다는 데 주목하여, ‘산업가부장제’ 개념을 확장하여 지역의 노동시장 상황을 파악하고, 이에 따른 가족형성 전망의 차이를 확인하였다.

중요하게 발견된 것은 서울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 노동시장에서 여성의 경제적 기회가 크게 제약되고 있는 현실이었다. 지역별 고용조사에서 확인된 통계적 결과는 세 지역 여성들의 다양한 취업분투기를 통해 그대로 드러났다. 지역 내 여성 일자리의 협소함 때문에 학위나 자격, 능력을 발휘할 기회가 차단되는 경우가 많았으며, 하위사무직이나 보건의료직 등 획일적인 여성직업이 지역 여성청년들이 기대할 수 있는 일자리들이었다. 지역이라는 공간적 제약은 여성들에게 낮은 급여와 단기적 일자리를 강요하는 수단이었던 것이다. 최근 들어 여러 지역에서 20대 여성청년들이 이탈을 선택하는 맥락은 바로 여기에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여성 일자리의 개선이 부재한 지역 노동시장이 가족형성에 미치는 영향은 지역의 조건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한편으로 약한 산업가부장제가 작동하여, 남성의 부양자 책임이 가족형성의 주요한 동력으로 여전히 기능을 할 수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결혼의 가능성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과 소극적인 결혼태도가 성별을 넘어 남녀 모두에게 확산될 수도 있다. 울산의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라고 하더라도, 맞벌이 없이는 자녀를 잘 양육할 수 없을 것이라 예상하는 것에서 잘 드러나듯이, 남성 단독 부양의 가능성은 이미 크게 약화되었다. 지역 여성노동시장의 제약은 결혼을 떠받치는 두 개의 기둥(소득) 중 하나를 제대로 서지 못하게 함으로써 비수도권 지역의 가족형성을 제한한다.

이 연구는 이러한 지역 노동시장의 한계를 발견함과 동시에, 지역 수준에서만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다양한 사례를 보여줄 수 있었다. 지배적인 결혼담론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결혼하는 것이 사실이다. 직장이나 자산 등에서 제대로 준비가 되지 않은 채로 결혼하는 사람들도 당연히 많을 것이다. 특히 최근 세대가 청년기에 겪는 엄청난 부담과 압력, 불안정성을 고려하면, 가족을 통해 친밀성과 안정성을 구하고자 하는 욕구도 커질 수밖에 없다. 대전 사례에서 강조했던 것처럼, 가족의 본래 가치로서 친밀성의 추구가 결혼을 하는 동기로 작용할 때, 경제적 준비는 결혼한 다음으로 재조정될 수도 있었다.

또한 광주 사례에서 드러났듯이, 지역 일자리의 한계는 남녀 노동자들에게 성취에 기반을 둔 결혼을 실현할 수 없도록 만든다. 이러한 경우 청년들은 결혼도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일로 '되는 대로' 맡겨두는 소극적인 태도에 이끌리게 된다. 그런데 문제는 취업의 어려움이나 부족한 돈 등 결혼당사자의 경제적 능력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 가족의 도움없이 마련할 수 없는 경제적 자산 기준을 강요하는 문화에도 문제는 있다.

형편에 맞게 결혼하는 것이 비난받거나 무시당할 일이 아니라는 것에 대해 광주의 불안정 노동자들은 가능한 선택지를 갖게 되었다는 안도감을 표현한 것이다.

물론 ‘준비된 결혼’을 추구하게 된 것은 원인이 아니라 결과이다. 즉 가족에 의존하여 생존을 도모해온 한국사회에서, 경제적으로 준비되지 않은 결혼은 더 큰 위험과 경제적 하락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강하다. 그런 점에서 결혼의 수준이 재조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자칫 청년들에게 아무런 준비없이 결혼해도 괜찮다는 무책임한 메시지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다만, 현재와 같이 주로 남성이 부담하는 ‘경제적으로 준비된’ 결혼지향의 정도를 누그러뜨릴 필요가 있다. 대신에 남성과 여성이 모두 적정한 소득을 노동시장에서 얻을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할 것이며, 이러한 두 소득의 기반 위에 적절한 일-생활 균형지원이 결합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고 이상적인 대안이라 할 수 있다. 지역 노동시장의 낡은 산업 가부장제를 현대적인 가족모델로 전환할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하다.

2. 정책적 시사점

이 연구는 저출산과 청년 지역유출과 같은 시급한 사안과 거리를 두고 지역에서 청년들이 자립하고 가족을 전망하거나 만드는 실천에 주목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가족형성 조건에 대한 검토과정에서 다음과 같이 정책적 지원이 시급한 지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 비수도권 지역 청년을 위한 주거지원 정책이 필요하다. 비수도권 지역은 주택임대료 및 주택매매가격이 수도권에 비해 높지 않지만, 상대적으로 노동 소득수준이 낮을 뿐만 아니라, 부모의 경제적 지원도 뒷받침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이러한 청년 부담의 심

각성을 고려하여, 불안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먼저 지역의 주택시장 동향에 대한 모니터링에 기초하여 청년들이 부담할 수 있는 주택의 종류와 규모를 파악하고, 격차를 메우기 위한 지원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다음으로 청년들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고 관대한 기준을 적용하여 수혜대상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 청년기의 생활을 예측가능하고 안정적으로 만들고자 하는 공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둘째, 지역 실정에 부합하는 다양한 가족 유형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 전통적인 남성 생계부양자 모델만을 전제로 한 정책은 현실과 괴리되어 있으며, 청년들의 다양한 가족형성 욕구를 반영하지 못한다. 부부의 부양 책임 분담, 자녀양육 책임 분담 등 다양한 가족 실천 영역에서 청년들의 필요와 지향이 정책에 반영되어야 한다. 이는 사회적으로 보편적인 가치의 틀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이러한 문화적 다양성을 지원할 주체는 지역의 시민사회, 대학, 기업 등 다층적이어야 한다. 특히 결혼과 자녀 양육의 과도하게 높은 사회적 기준선을 하향 조정하기 위해서는, 청년들이 각자의 경제적 여건에 맞춰 가족을 형성할 수 있도록 제도적·문화적 지원이 필요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일부 지자체가 인위적으로 청년들의 만남이나 결혼을 주선하는 등의 정책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것은 실효성도 없고 바람직하지도 않다.

셋째, 지방정부의 성별 영향평가를 강화하고 실질화해야 한다. 지방정부가 지역 산업과 일자리 정책을 추진할 때, 남성과 여성 각각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예측하고 평가해야 한다. 정책이 노동시장의 성별 분리를 강화하거나 남녀 임금격차를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도록 체계적으로 점검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현재로서는 성별 영향평가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실질적 대안이 될 수 있다. 또한 성평등 정책을 전담할 부서와 전문 인력을 배치하고, 지역 출신 고클력 인재들을 대학에서 육성하여 지

역 정치와 행정에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특히 지역 개발 사업과 산업 육성 정책이 젠더 관점에서 설계되고 평가되어야 한다.

넷째, 비수도권 공공부문 일자리의 질을 제고해야 한다. 비수도권 지역 노동시장에서 공공부문은 청년의 가족형성에 엄청난 중요성을 갖고 있다. 지역 청년들의 청년기가 이러한 공공부문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에 투여되고 있는 것에 비해, 고용기회는 적고 예측 가능하지 않으며, 기간제 등 비정규직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지역 청년노동시장의 질을 떨어뜨리는 데 기여하고 있다.

다섯째, 비수도권 거점도시의 대학이 지역 사회에 대한 사회적 역할을 해야 한다. 그 지역의 직업적, 문화적 다양성이 부족한 것은 대학의 문제이기도 하다. 지역의 활성화와 다양성 제고를 목표로 한 교육과 인재양성 프로그램이 필요하며, 공공부문과의 협력으로 다양한 전공 출신들이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청년 정책에서 여성 일자리 문제를 주류 의제로 다루어야 한다. 이 연구를 통해 남성 청년과 여성 청년의 노동시장 경험과 인식에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특히 남성들의 과도한 부양자 의식이 가족형성을 지체시키는 요인 중 하나로 나타났다. 결혼이나 출산을 지원하는 정책은 궁극적으로 남성과 여성의 사회적 역할을 재구축하는 작업이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청년 정책에서 여성 일자리를 중심 의제로 설정하고, 현재와 같이 분절되어 있는 여성의 노동생애 경로에 대한 단계별 지원과 점검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특히 여성 청년들이 취업 준비, 경력 개발, 결혼·출산·육아 과정에서 경력 단절 없이 지속적으로 노동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

3. 연구의 한계

이 연구는 울산, 대전, 광주 세 지역에 한정하여 수행되었다는 점에서 한계를 갖는다. 세 지역의 사례가 다른 비수도권 지역 청년들의 상황을 온전히 대표하기는 어렵다. 각 지역은 고유한 산업구조와 노동시장 특성, 문화적 맥락을 가지고 있으며, 이 연구에서 다루지 못한 다른 유형의 비수도권 지역들 역시 차별화된 조건과 맥락을 갖고 있을 것이다.

또한 이 연구는 지역 노동시장 조건에 초점을 맞추어 가족형성 의향과 전망의 맥락을 파악하는 데 주력하였다. 이러한 접근은 노동시장이라는 구조적 조건과 청년들의 경험을 연결하여 이해하는 데 유용했으나, 지역의 정치적 역학관계, 지역 거버넌스 체계, 시민사회의 역량, 문화적 다양성 등을 포괄적으로 검토하지는 못하였다. 가족형성과 관련된 의사결정은 노동시장 조건뿐 아니라 이러한 다층적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결과이므로, 향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측면들을 보다 체계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질적 연구 방법을 활용하여 지역 내 인터뷰 사례의 내적 논리를 심층적으로 파악하고, 지역 노동시장이라는 공통된 기반을 해석 준거로 사용하였다는 점은 이 연구의 강점이다. 그러나 각 지역별 인터뷰 사례 수가 충분하지 못하여 지역 내 다양성을 충분히 포착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산업도시, 지방 중소도시, 농촌 지역 등 여러 형태의 지역으로 연구 범위를 확장하고, 각 지역별 사례 수를 늘려 지역 내 이질성과 지역 간 차이를 보다 정교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 또한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를 결합한 혼합연구 방법을 활용하여 연구 결과의 일반화 가능성을 높이는 것도 중요한 과제이다.



- 강이수. (2011). 취업 여성의 '남편'과 일-가족 문제. **젠더와 문화**, 4(1), 43-87.
- 고용노동부. (2024). **사업체노동력조사** [데이터 세트]. 국가통계포털. 2025.8.1
2. 검색,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8&tblId=DT_118N_MON060&conn_path=I3
- 고용노동부. (각 연도). **사업체노동실태현황** [데이터 세트]. 국가통계포털. 2025.
6. 10. 검색,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8&tblId=DT_118N_SAUPN72&conn_path=I3
- 고우림·조영태·차영재·장대익. (2020). 한국 합계출산율의 결정 요인으로서의 인구밀도, **사회과학 담론과 정책**, 13(2), 129-153.
- 광주광역시. (2025). 광주광역시 홈페이지-행정구역 구분 [웹페이지]. 2025. 6.
10. 검색, <https://www.gwangju.go.kr/contentsView.do?pageId=ww140>
- 광주여성가족재단. (2024). 광주지역 인구감소 특징과 지역 대응 방안. **성별인구 고용동향**, 12호.
- 광주연구원. (2025). 광주연구원 홈페이지-총 인구수 [웹페이지]. 2025. 6. 10.
검색, <https://gji.re.kr/?contentId=b1a31ad04ae30c5adbbe1569fd985354>
- 국가데이터처. (2023a). **e-지방지표**. 2025. 10. 10. 검색,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YL0000&conn_path=I2&obj_var_id=A&itm_id=25
- 국가데이터처. (2023b). 지역소득 [데이터세트, 시도별 경제활동별 지역내총부가가치 및 요소소득]. 국가통계포털. 2025.10.22. 검색,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C92&conn_path=I2
- 국가데이터처. (2024a). 인구총조사 [데이터세트, 연령 및 성별 인구-읍면동]. 국가통계포털. 2025.10.22. 검색, <https://kosis.kr/statHtml/statHtm>

- l.do?orgId=101&tblId=DT_1IN1503&conn_path=I2
국가데이터처. (2024b). 지역소득 [데이터세트, 시도별 1인당 지역내총생산, 지역총소득, 가계총처분가능소득]. 국가통계포털. 2025. 12.22. 검색,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C96&conn_path=I2
- 국가데이터처. (2024c). 지역소득 [데이터세트, 시도별 경제활동별 지역내총생산]. 국가통계포털. 2025. 12.22. 검색,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C91&conn_path=I2
- 국가데이터처. (2024d). 인구총조사 [데이터세트, 성, 연령 및 혼인상태별 인구-시군구]. 국가통계포털 2025.10.15. 검색,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sso=ok&returnurl=https%3A%2F%2Fkosis.kr%3A443%2FstatHtml%2FstatHtml.do%3Fconn_path%3DI3%26tblId%3DDT_1IN1503%26orgId%3D101%26
- 국가데이터처. (2024e). 인구동향조사 [데이터세트, 시도/합계출산율, 모의 연령별 출산율]. 국가통계포털 2025.10.15. 검색,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81A21&conn_path=I2
- 국가데이터처. (2025a). 국내인구이동통계 [데이터세트, 전출지/전입지(시군구)/성별 이동자수]. 국가통계포털, 2025. 11.30 검색.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26003_A02&conn_path=I2
- 국가데이터처. (2025b). 인구동향조사 [데이터세트, 시도별 평균초혼연령]. 국가통계포털, 2025. 10. 15. 검색,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83A05&conn_path=I3.
- 국가데이터처. (2025c). 국내인구이동통계 [데이터세트, 인구이동률(월, 분기, 년)]. 국가통계포털, 2025. 11.30 검색.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26006_A01&conn_path=I2
- 기후에너지환경부. (2025.10.14.). **2025년 거주지 자연환경 만족도 조사… 울산, 경남, 세종, 제주 순으로 높아.** [보도자료] <https://eiec.kdi.re.kr/po>

- licy/materialView.do?num=272213
- 김동현·전희정. (2021).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지역환경요인이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55(2), 303-336.
- 김민석, 강민규. (2023). 개인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한 비수도권 청년유출 영향 요인 분석. **도시행정학보**, 36(2), 47-66.
- 김영미, 권현지. (2024). 젠더불평등의 복합적 변화와 여성의 선택, 그 인구학적 함의. **경제와 사회**, 141, 42-80.
- 김영란, 최인희, 주재선, 정가원, 김소영, 배호중, 박미진, 권도연, 최진희, 이지성. (2023). **2023년 가족실태조사 분석 연구**. 여성가족부-한국여성정책연구원.
- 김영수. (2024). 산업 대전환기 지역의 일자리 구조 변화와 과제. **대전세종포럼**, 88, 79-88.
- 김영수. (2025). 수도권 집중요인과 지역발전을 위한 과제. **제3차 인구2.1 세미나 발표문**. 한반도 미래연구원.
- 김영아, 박은혜, 김근태. (2022). **노동과 출산 의향의 동태적 분석**. 한국노동연구원.
- 김유빈, 강민정, 고영우, 김영아. (2019). **청년 삶의 질 연구(II): 빈곤, 여성, 지역 이동, 가족형성을 중심으로**. 한국노동연구원.
- 김은지, 송효진, 배호중, 선보영, 최진희, 황정미. (2019). **저출산 대응정책 패러다임 전환 연구(I): 청년층의 젠더화된 생애전망과 정책정합도 분석**.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김이선. (2024). 청년의 생애 전략으로서의 지역 간 모빌리티: 청년들의 이주 의향 분석. **지역사회학**, 25(3), 5-32.
- 김이선. (2025). 여성 청년의 지역 이주 의향: 생애 전략으로서의 모빌리티와 젠더 효과. **여성연구**, 181-207.
- 김하영. (2022). 지역 거주 20대-30대 여성들의 페미니스트 인식과 실천: 울산 광역시를 중심으로. **젠더와 문화**, 15(2), 133-168.

- 김하영. (2025). 청년 일자리 정책은 청년 여성의 “지방 탈출”을 막을 수 있는가?: 울산광역시를 중심으로. **여성연구**, 125(2), 5-37.
- 김현우, 양준석. (2024). 대졸 청년 취업 이동에서의 인적자본 특징의 변화. **국토연구**, 43-58.
- 대전광역시 전자정부 누리집. (2025). **대전의 대학교** [웹페이지]. <https://www.daejeon.go.kr/drh/DrhContentsHtmlView.do?menuSeq=1663>
- 대전광역시. (2024a). **2024 대전의 사회지표** (발간등록번호 56-6300000-000214-10).
- 대전광역시. (2024b). **제63회 대전통계연보** (행정간행물 등록번호 56-6300000-100024-10).
- 대전광역시. (2025). **2024년 대전광역시 주민등록인구통계** (행정간행물 등록번호 56-6300000-100013-10).
- 대학알리미. (2025). **공식대상대학** [웹페이지]. <https://www.academyinfo.go.kr/intro/intro0350/intro.do>
- 도난영, 최막중. (2018). 지역주택가격이 결혼연령 및 첫째, 둘째 자녀 출산시점에 미치는 영향. **주택연구**, 26(2), 163-189.
- 류영아. (2022). **지방소멸대응기금의 도입 및 향후 과제: 중장기적 정책과 거점전략화**. 국회입법조사처.
- 마경희, 김원정, 문희영, 고현승, 김문길, 여유진, 박종서, 김선, 추지현, 김선기. (2020). **청년 관점의 ‘젠더 갈등’ 진단과 포용국가를 위한 정책적 대응 방안 연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마경희, 문희영, 조서연, 김리나. (2017). **지배적 남성성의 균열과 변화하는 남성의 삶: 남성들 내부의 차이를 중심으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마경희, 조영주, 문희영, 이은아, 이순미. (2018). **성불평등과 남성의 삶의 질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마경희, 추지현, 김애라, 김원정, 이은아, 조영주, 전원근, 문희영, 김지효. (2020). **청년의 생애과정에 대한 성인지적 분석과 미래 전망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문은미. (2024). **울산 주력 제조업 분야의 여성고용 확대 방안**. 울산광역시 복지 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
- 민동훈. (2021. 4. 29.). **“연봉 3500만원에 주44시간 근무” 광주형 일자리 본격 가동**. 머니투데이. <https://www.mt.co.kr/economy/2021/04/29/2021042909542759530>
- 박관태, 전희정. (2020). 인구규모에 따른 지역 간 출산율 차이 및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대도시, 중소도시, 농촌 비교 분석. **한국지역개발학회지**, 32(4), 67-99.
- 박배균, 장진범, 이영민, 이향아, 이동현, 김동완, 지주형, 김백영, 박해천, 서대승, 장세훈, 황진태, 박지혁. (2017). **강남 만들기, 강남 따라 하기**. 동녘.
- 박영훈. (2024. 01. 21.). **과밀학급 폭증한 울산 고교들...해법 난망**. YTN. http://www.ytn.co.kr/_ln/0115_202401210346338495
- 박종서, 최선영, 김유경, 변수정, 조성호, 김주현, 노현주, 염아림. (2020). **한국 가족의 변동 특성과 정책적 함의: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변화를 중심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배은경. (2009). ‘경제 위기’와 한국 여성: 여성의 생애전망과 젠더/계급의 교차. **페미니즘 연구**, 9(2), 39-82.
- 백미륵. (2023), 20~30대 비혼 여성들의 주거 경험과 주거 취약청년 담론의 재구성: 청년주거정책 제도화 과정 분석을 중심으로, **젠더와 문화**, 16(1), 43-77.
- 상명성, 문영만. (2024). 비수도권 대졸 청년의 취업 및 수도권 유출 결정요인-부모 소득과 노동시장 성과를 중심으로. **아시아연구**, 349-366.
- 서정훈, 마강래. (2024). 지역 특성이 결혼 및 자녀 출산에 미치는 영향. **지역연구**, 40(3), 43-61.
- 신나라. (2021). 고학력 30대 여성의 경력이동 일과 정체성에 관한 내러티브 탐구. **아시아여성연구**, 60(1), 83~120.
- 신경아. (2014). 신자유주의시대 남성 생계부양자의식의 균열과 젠더관계의 변화. **한국여성학**, 30(4), 153-187.

- 양승훈. (2021). 제가 그래도 대학을 나왔는데: 동남권 지방대생의 일 경험과 구
직. **경제와사회**, 131, 10-54.
- 양승훈. (2024). 두 번의 메가시티 프로젝트: 한 번은 비극(悲劇)으로, 다음번은
소극(笑劇)으로?. **황해문화**, 43-59.
- 양승훈. (2024). **울산 디스토피아-제조업 강국의 불안한 미래**. 부키.
- 여성가족부. (2023). **가족실태조사** [데이터 세트, mdis 원자료]. 여성가족부.
- 여수연. (2022). “꼭 떠나야 하나요?": 지방 여성청년의 생애기획과 정체성 [석사
학위논문,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 오혜진. (2019). **20대 페미니스트 여성들의 ‘페미니즘’과 그 의미**. [석사학위논
문, 서울대학교 여성학협동과정].
- 울산광역시. (2023). **2023 울산광역시 청년통계 보고서**. 울산광역시 법무통계
담당관.
- 울산광역시. (2025a). 울산광역시 홈페이지-구군별 행정구역 현황 [웹페이지].
2025. 6. 10. 검색, <https://www.ulsan.go.kr/u/rep/contents.ulsan?mId=001005002002001000>
- 울산광역시. (2025b). **울산광역시 시정기본 통계현황(2025.6.30. 기준)**.
- 울산광역시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 (2024). **울산시 보육 현황 및 중장기 보
육정책의 방향**. 울산광역시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 BRIEF 45호.
- 원숙연, 최윤희. (2018). 우리나라 광역자치단체 출산율의 영향요인: 자녀에 대
한 비용관련 요인을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보**, 27(3), 231-268.
- 유현미. (2025). 경남 지역 문화콘텐츠산업의 특징과 정책 대응 방안: 청년층 중
사자 경험을 중심으로. **지역사회연구**, 33(1), 1-36.
- 유형근. (2022). **분절된 노동, 변형된 계급: 울산 대공장 노동자의 생애와 노동운
동**. 산지니.
- 이다은, 서원석. (2021). 지역별 가계지출 부담이 기혼여성의 출산 의사에 미치
는 영향: 수도권과 비수도권 비교를 중심으로. **지적과 국토정보**, 51(2),
151-168.
- 이상림, 최인선. (2023). **국내 인구가동의 변동 양상과 정책적 함의**. 한국보건사

- 회연구원.
- 이영란. (2024). **지방소멸의 진단과 과제: 성인지 관점으로**. 울산광역시 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
- 이은빈, 강인성, 이병호. (2024). 광역자치단체 저출산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공공관리학회보**, 38(3), 199-222.
- 이정은. (2022). 산업도시의 젠더 인식과 청년들의 이동경남 창원의 사례를 중심으로. **경제와사회**, 134, 282-316.
- 이철희, 황영지. (2022). 한국의 지역 간 인구 불균형 확대의 인구학적 요인 분석. **한국인구학**, 45(2), 105-135.
- 이철희. (2023). 일자리 질이 결혼과 출산에 미치는 영향: 지역 제조업 고용 비율의 효과. **한국경제연구**, 41(2), 5-33.
- 이철희, 이소영. (2024). 지역 고용이 결혼과 출산에 미치는 영향의 성별 차이-결혼·출산의 패널티에 대한 함의. **페미니즘 연구**, 24(2), 3-50.
- 이희정, 추주희. (2025). 지역대학 졸업 청년의 취업을 위한 지역이동 결정요인 연구: 성별 차이를 중심으로. **GRI 연구논총**, 27(1), 239-269.
- 장경섭. (2023). **내일의 종언? 가족자유주의와 사회재생산 위기**. 집문당.
- 장인수, 김현중, 오신휘. (2023). **지역 불평등과 인구 변동 간 연관성에 대한 심층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정민수, 김의정, 이현서, 홍성주, 이동렬. (2023). 지역간 인구이동과 지역경제. **Bok 이슈노트**, 29, 1-36.
- 정세정, 고혜진, 김기태, 김동진, 김성아, 오욱찬, 이아영, 이혜정, 임덕영, 신영규, 하은솔, 한겨레, 김근혜. (2025). **2024년 청년 삶 실태조사**.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조성철, 홍사흠, 신서경, 김석운, 양승훈. (2024). **저출산 현상의 지역별 격차와 요인: 국토 불균형에 따른 주거·고용 불안정성을 중심으로**. 국토연구원.
- 조주은. (2004). **현대가족 이야기**. 이가서.
- 조형제, 이성균, 리차드 차일드 힐. (2001). 지역혁신체제의 형성과 발전: 울산 산업지구의 사례. **지역사회학**, 3, 11-35.

- 최선영, 곽윤경, 노현주, 양은정. (2024). **초기 성인기의 부모-자녀 관계와 사회 계층적 차이**.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최선영, 이지혜, 윤태영. (2022). **가족형성과 사회불평등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최선영, 장경섭. (2012). 압축산업화 시대 노동계급가족 가부장제의 물질적 모순: '남성생계부양자' 노동생애 불안정성의 가족 전이. **한국사회학**, 46(2), 203-230.
- 최정원, 김중순, 김인춘. (2024). 현지 심층 인터뷰 조사로 살펴 본 한국의 저출산(생) 현상: 비수도권 11개 지역을 중심으로. **동서연구**, 36(4), 5-41.
- 최종렬. (2017). '북학왕'의 사회학: 지방대생의 이야기에 대한 서사분석. **한국사회학**, 51(1), 243-293.
- 통계청. (2015, 2024). **국내인구이동통계** [데이터 세트, 시군구 각세별 이동자수]. 국가통계포털. 2025. 6. 13. 검색,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sso=ok&returnurl=https%3A%2F%2Fkosis.kr%3A443%2FstatHtml%2FstatHtml.do%3Fconn_path%3DI3%26tblId%3DDT_1B26B07%26orgId%3D101%26
- 통계청. (2022). **지역소득** [데이터 세트]. 국가통계포털. 2025. 6. 10. 검색,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C92&conn_path=I3
- 통계청. (2023). **전국사업체조사** [데이터 세트, 시도·산업·종사자규모별 사업체수, 종사자수(20~)]. 국가통계포털. 2025. 8. 12. 검색,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K52D03&conn_path=I2
- 통계청. (2024년 상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데이터 세트, C형, MDIS 원자료]. <https://doi.org/10.23333/PN.50149387.V3.2>
- 통계청. (각 연도). **교육기본통계** [데이터 세트, 대학교 학생수]. 국가통계포털. 2024. 6. 10. 검색,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YL8801&conn_path=I2

- 통계청. (각 연도). **국내인구이동통계** [데이터 세트, 대전광역시 시군구 각세별 이동자수]. 국가통계포털. 2024. 6. 10. 검색,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26B07&conn_path=I3
- 통계청. (각 연도). **인구주택총조사 2% 표본** [데이터 세트, MDIS 마이크로데이터].
- 통계청. (각 연도). **인구총조사** [데이터 세트, 연령 및 성별 인구 (시군구)]. 국가통계포털. 2024. 6. 10. 검색,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I1503&conn_path=I3
- 한국부동산원. (2025).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데이터 세트, 유형별 주택매매가격지수].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408&tblId=DT_40803_N0001&conn_path=I3
- 허문구, 이상호, 김윤수, 유이선, 조성민, 김진영, 조승국, 장인수, 박승규, 이용균, 한은주, 장재홍, 정성훈, 박경, 윤영모, 최예술, 이명중. (2022). **지방 소멸 시대의 인구감소 위기 극복방안 : 지역경제 선순환 메커니즘을 중심으로**. 경제, 인문사회연구회.
- 허원창, 송현서, 전보강. (2024). 지역이탈의 악순환: 출생지의 경제 환경과 청년 취업자의 지역이탈. **지역연구**, 40(1), 53-67.
- 허은. (2018). 창원 지역 노동계급 여성의 성별 노동 불평등 적응 기제에 관한 연구. **경제와사회**, 120, 158-197.
- 허은. (2020). '부유한 노동자 도시'의 여성-울산과 창원 여성 일자리의 실태와 특성. **지역사회연구**, 28(3), 87-113.
- Allen, K., & Hollingworth, S. (2013). 'Sticky subjects' or 'cosmopolitan creatives'? Social class, place and urban young people's aspirations for work in the knowledge economy. *Urban studies*, 50(3), 499-517.
- Bernard, J., Steinführer, A., Klärner, A., & Keim-Klärner, S. (2023). Regional opportunity structures: A research agenda to link spatial and social inequalities in rural areas. *Progress in human geography*, 47(1), 103-123.

- Cherlin, A. (2004). Deinstitutionalization of American marriage.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6, 848-861.
- Coontz, S. (2005). *Marriage, a history: From obedience to intimacy or how love conquered marriage*. Viking.
- Forsberg, G. (1998). Regional variations in the gender contract: gendered relations in labour markets, local politics and everyday life in Swedish regions. *Innovation*, 11(2), 191-209.
- Forsberg, S. (2019). 'The right to immobility' and the uneven distribution of spatial capital: negotiating youth transitions in northern Sweden. *Social & Cultural Geography*, 20(3), 323-343.
- Fouquet, F., & Sari, F. (2023). Spatial mobility and overeducation of young workers: New evidence from France. *Papers in Regional Science*, 102(5), 945-984.
- Massey, D. (1984). *Spatial divisions of labour*. Red Globe Press.
- Schmutz, B., Sidibé, M., & Vidal-Naquet, E. (2021). Why are low-skilled workers less mobile? The role of mobility costs and spatial frictions. *Annals of Economics and Statistics*, 142, 283-304.
- Weber, R. P. (1990). *Basic Content Analysis(2nd Edition)*. Newbury Park, London.
- Yang, S., & Kim, S. Y. (2025). Gender, engineering, and innovation in South Korea: an empirical investigation of the industrial patriarchy of the Southeastern region. *Asian Journal of Technology Innovation*, 1-24. <https://doi.org/10.1080/19761597.2025.2565792>



<부표 1> 지역별 성별 연령별 고용률 (2024 상반기)

	전국		서울		광주		대전		울산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20~24	40.1	50.2	41.8	50.9	25.0	42.4	34.6	39.7	41.3	56.1
25~29	70.9	74.6	71.0	78.3	61.2	66.8	67.4	68.8	64.5	60.2
30~34	86.8	74.3	85.5	83.4	83.9	65.3	83.7	69.2	87.5	62.7
35~39	89.8	67.8	90.8	77.2	90.0	68.6	91.7	69.5	85.8	45.5
40~44	90.8	65.7	89.5	67.6	89.4	64.1	90.8	65.9	91.9	57.9
45~49	90.4	68.5	89.7	68.4	85.9	59.8	92.5	70.6	92.3	61.7
50~54	88.9	69.5	86.0	69.1	91.8	71.8	93.2	66.8	88.3	62.7
55~59	84.6	65.8	80.8	59.6	91.3	77.4	83.9	58.4	89.7	60.6
60~64	74.3	54.7	74.7	54.2	71.6	49.2	71.9	54.1	67.4	41.7
65세 이상	47.7	32.6	37.2	22.6	44.7	35.9	43.2	27.0	41.3	31.1
전체	74.7	57.5	71.9	57.7	72.9	57.0	73.4	54.8	73.9	51.0

출처: “지역별 고용조사,” 통계청, 2024년 상반기 [데이터 세트, C형, MDIS 원자료].

<부표 2> 지역별 취업자의 업종 분포(2023)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제조업	16.3	4.2	13.2	16.0	19.5	12.1	9.4	31.0
전기, 가스, 공기조절	1.2	0.3	0.8	0.8	1.0	0.9	0.9	1.0
건설업	7.6	7.0	7.4	7.1	6.7	10.7	9.3	8.2
서비스업	74.6	88.5	78.4	75.9	72.7	76.2	80.4	59.6
도매 및 소매업	14.0	16.4	15.5	15.1	13.8	13.5	13.8	9.9
운수 및 창고업	5.6	4.9	8.5	5.8	8.0	5.7	4.9	5.6
숙박 및 음식점업	9.0	8.0	10.2	9.5	9.1	8.7	9.2	8.6
정보통신업	3.4	8.7	1.5	1.6	1.3	1.6	3.1	0.9
금융 및 보험업	2.9	5.1	3.2	3.1	1.9	3.2	2.8	2.2
부동산업	2.7	3.3	3.0	2.8	2.6	3.2	2.4	2.0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5.9	10.8	3.8	3.5	3.5	4.3	8.7	3.8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5.3	9.0	5.0	4.5	5.3	4.9	6.6	3.9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3.5	2.7	3.3	3.5	3.6	3.4	4.0	3.0
교육 서비스업	6.8	6.3	6.7	8.0	6.5	7.7	8.3	6.5
보건업 및 사회복지	10.1	8.4	12.3	12.8	12.0	13.8	11.1	8.5
문화 및 기타	5.4	4.8	5.4	5.6	5.3	6.1	5.6	4.8
전체 산업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농림어업, 광업은 표에서 생략함.

출처: “전국사업체조사”, 고용노동부, 2023, 국가통계포털, 2025.08.12., 검색. 시도·산업·종사자 규모별 사업체수, 종사자수(20~)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K52D03&conn_path=l2

222 가족형성의 지역적 조건과 초저출산에 대한 함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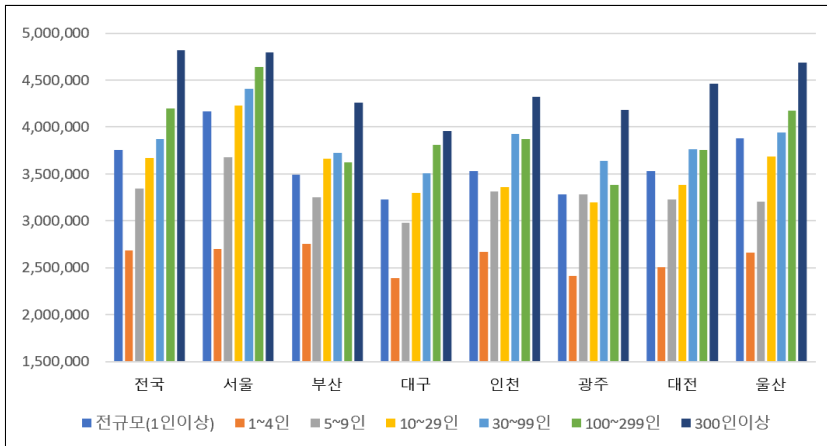
〈부표 3〉 지역별 사업체의 규모별 종사자 분포, 전체 산업과 제조업(2023년)

(단위: %)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전체 산업	300인 미만	84.6	75.8	88.6	90.1	85.8	86.4	82.1	78.2
	300인 이상	15.4	24.2	11.4	9.9	14.2	13.6	17.9	21.8
제조업	300인 미만	81.9	97.4	91.7	92.2	83.9	76.4	83.7	54.8
	300인 이상	18.1	0.9	8.3	6.4	16.1	23.6	11.5	45.2

출처: “전국사업체조사”, 고용노동부, 2023, 국가통계포털, 2025.08.12., 검색. 시도·산업·종사자 규모별 사업체수, 종사자수(‘20~)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K52D03&conn_path=I2

〔부그림 1〕 기업규모별 월급여액의 지역간 차이(2024)



주: 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 대상이며, 월급여액은 정액급여와 초과급여의 합계임.
출처: “사업체노동력조사”, 고용노동부, 2024, 국가통계포털, 2025.08.12., 검색, 행정구역(시도)/ 산업/규모별 임금 및 근로시간(상용근로자, 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 2023년~현재)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8&tblId=DT_118N_MON060&conn_path=I3

〈부표 4〉 지역별 20~39세 취업자 직종 분포(2024년 상반기)

(단위: %)

	과학 정보	보건 사회	법률 금융	사무직	서비스 직	영업 판매	농림 어업	기능직	기계 조작	단순 노무	합계
전국	10.2	19.4	2.4	24.2	13.0	8.5	0.7	6.4	8.1	7.1	100.0
서울	14.4	23.1	5.1	27.3	13.1	8.2	0.0	3.2	2.3	3.4	100.0
부산	6.0	17.2	1.7	24.7	16.4	11.2	0.3	7.8	6.4	8.3	100.0
대구	6.9	24.8	1.2	21.2	13.9	9.1	0.2	6.7	10.1	5.8	100.0
인천	9.6	17.9	2.1	24.0	12.3	9.8	0.0	7.6	8.0	8.7	100.0
광주	5.3	21.2	1.3	24.3	15.7	9.0	0.4	7.1	7.8	8.0	100.0
대전	12.4	18.0	1.5	23.5	13.4	10.4	0.0	8.0	6.2	6.6	100.0
울산	7.4	15.0	0.7	18.1	11.0	7.3	0.1	12.1	21.7	6.8	100.0
세종	12.5	20.5	2.6	34.1	10.2	4.6	0.5	3.4	7.1	4.5	100.0
경기	12.2	18.4	2.3	23.5	11.6	8.4	0.3	7.2	7.8	8.3	100.0
강원	4.9	20.5	0.7	21.4	19.0	7.0	1.4	10.1	5.6	9.5	100.0
충북	8.0	13.8	0.5	25.3	12.4	6.4	1.2	5.5	18.4	8.5	100.0
충남	6.3	15.6	0.5	23.1	11.7	6.1	1.8	7.8	18.6	8.4	100.0
전북	3.3	21.7	0.6	22.0	15.9	8.0	3.1	7.5	10.0	7.9	100.0
전남	5.9	19.1	0.5	20.0	13.6	8.9	4.3	9.1	9.3	9.3	100.0
경북	5.2	15.8	0.7	23.5	13.9	7.8	2.7	5.2	17.1	8.0	100.0
경남	6.5	17.1	0.7	23.1	11.5	8.7	1.4	8.0	13.5	9.5	100.0
제주	3.9	19.1	0.6	21.9	19.6	14.5	3.1	6.1	3.7	7.6	100.0
남성	13.9	10.8	2.8	18.4	11.8	7.9	1.0	10.9	13.4	9.2	100.0
여성	5.8	29.4	1.9	31.0	14.5	9.3	0.3	1.2	2.0	4.6	100.0

출처: “지역별 고용조사,” 통계청, 2024년 상반기 [데이터 세트, C형, MDIS 원자료].

224 가족형성의 지역적 조건과 초저출산에 대한 함의

<부표 5> 남성의 시도별 20~39세 취업자 직종 분포(2024년 상반기)

(단위: %)

	과학 정보	보건 사회	법률 금융	사무직	서비스 직	영업 판매	농림 어업	기능직	기계 조작	단순 노무	합계
전국	13.9	10.8	2.8	18.4	11.8	7.9	1.0	10.9	13.4	9.2	100.0
서울	20.5	15.4	6.2	20.9	13.2	8.4	0.1	5.7	4.3	5.5	100.0
부산	8.7	9.8	2.3	18.2	14.8	10.4	0.3	13.4	11.0	11.2	100.0
대구	9.7	13.7	1.7	17.4	12.9	9.5	0.4	10.5	16.5	7.7	100.0
인천	12.8	9.4	2.6	18.2	11.3	9.4	0.0	13.2	12.7	10.4	100.0
광주	7.9	11.2	1.9	19.2	15.3	9.8	0.7	11.9	12.0	10.3	100.0
대전	16.5	9.6	2.0	17.2	12.2	11.1	0.0	12.6	10.3	8.4	100.0
울산	9.4	5.7	0.6	12.7	7.3	5.0	0.1	18.4	33.5	7.3	100.0
세종	18.5	11.0	2.6	29.1	9.2	3.4	1.0	6.0	12.1	7.2	100.0
경기	16.9	9.5	2.9	17.4	10.2	7.5	0.4	12.3	12.6	10.3	100.0
강원	6.4	11.9	0.9	17.0	17.1	6.4	2.2	16.7	9.0	12.4	100.0
충북	10.5	6.9	0.3	20.6	10.7	5.8	1.6	8.8	25.7	9.1	100.0
충남	8.8	7.6	0.4	18.6	10.4	4.2	2.2	12.3	25.5	10.1	100.0
전북	3.5	11.6	1.0	17.8	14.0	8.2	4.6	11.9	16.8	10.7	100.0
전남	8.3	10.1	0.8	14.8	11.5	7.3	6.2	14.6	15.7	10.7	100.0
경북	7.6	7.8	0.7	18.2	11.0	6.2	3.5	8.5	26.9	9.7	100.0
경남	8.5	8.7	0.8	18.2	9.8	7.3	1.7	12.2	21.1	11.8	100.0
제주	6.5	14.7	0.6	16.0	18.5	11.3	4.7	10.7	6.8	10.3	100.0

출처: “지역별 고용조사” 통계청, 2024년 상반기 [데이터 세트, C형, MDIS 원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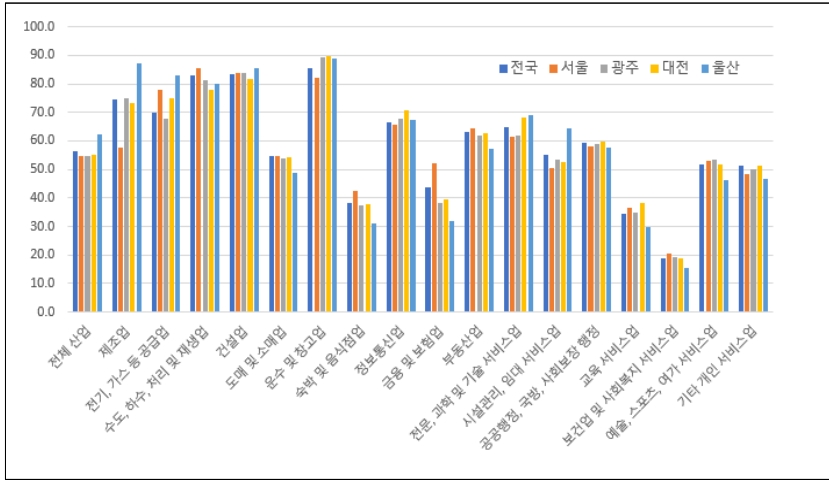
〈부표 6〉 여성의 시도별 20~39세 취업자 직종 분포(2024년 상반기)

	과학 정보	보건 사회	법률 금융	사무직	서비스 직	영업 판매	농림 어업	기능직	기계 조작	단순 노무	합계
전국	5.8	29.4	1.9	31.0	14.5	9.3	0.3	1.2	2.0	4.6	100.0
서울	8.7	30.1	4.1	33.2	13.1	8.1	0.0	0.9	0.4	1.4	100.0
부산	2.9	25.9	1.1	32.6	18.3	12.3	0.2	1.0	0.9	4.8	100.0
대구	3.2	39.2	0.7	26.2	15.2	8.5	0.1	1.8	1.7	3.5	100.0
인천	5.9	27.8	1.4	30.8	13.5	10.3	0.0	1.2	2.4	6.7	100.0
광주	2.3	32.4	0.8	30.1	16.1	8.1	0.1	1.7	3.0	5.4	100.0
대전	7.1	28.6	0.9	31.3	14.9	9.5	0.0	2.2	1.1	4.4	100.0
울산	4.2	30.5	0.8	27.0	16.9	11.0	0.0	1.5	2.0	6.0	100.0
세종	5.3	32.0	2.7	40.2	11.4	6.0	0.0	0.3	1.0	1.1	100.0
경기	6.7	28.9	1.6	30.7	13.3	9.4	0.1	1.2	2.2	6.0	100.0
강원	3.0	31.6	0.3	27.0	21.5	7.8	0.3	1.6	1.3	5.7	100.0
충북	4.8	23.2	0.6	31.5	14.7	7.3	0.6	1.1	8.7	7.7	100.0
충남	2.3	28.1	0.7	30.0	13.9	9.2	1.3	0.8	8.0	5.9	100.0
전북	3.1	33.7	0.1	27.0	18.2	7.9	1.3	2.2	1.8	4.6	100.0
전남	2.8	31.0	0.2	26.8	16.4	11.0	1.9	1.9	1.0	7.3	100.0
경북	2.2	26.2	0.7	30.3	17.7	9.8	1.7	1.1	4.6	5.8	100.0
경남	3.5	29.5	0.6	30.4	14.0	10.8	1.0	1.8	2.4	6.3	100.0
제주	0.9	24.2	0.7	28.8	20.9	18.2	1.2	0.6	0.0	4.5	100.0

출처: “지역별 고용조사” 통계청, 2024년 상반기 [데이터 세트, C형, MDIS 원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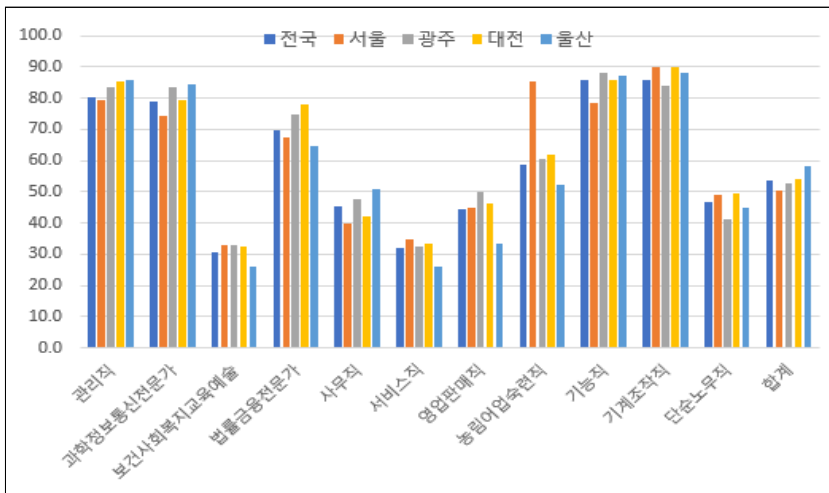
[부그림 2] 지역별 취업자 업종별 남성비율(2024년 상반기)

(단위: %)



주: 농림어업과 광업은 제외함.
 자료: “전국사업체조사”, 고용노동부, 2023, 국가통계포털, 2025.08.12., 검색. 시도·산업·종사자 성별 종사자수(20~)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K52D06&conn_path=I3

[부그림 3] 지역별 취업자 직업별 남성비율(2024년 상반기)



출처: “지역별 고용조사,” 통계청, 2024년 상반기 [데이터 세트, C형, MDIS 원자료].

〈부표 7〉 지역별 취업자 기업규모별 남성비율(2023년)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전규모	57.0	54.3	54.0	53.5	55.6	54.5	55.5	65.7
1~4인	55.0	54.9	53.9	54.5	55.0	53.7	53.4	50.2
5~9인	52.5	49.3	51.1	51.7	51.0	51.0	50.2	48.1
10~29인	55.7	50.6	54.3	53.1	53.8	53.9	53.4	56.8
30~49인	56.0	52.5	52.5	51.4	53.6	53.0	53.7	62.4
50~99인	55.2	53.3	51.3	51.9	54.2	51.5	49.6	67.0
100~199인	60.5	56.9	57.4	55.0	62.7	52.8	57.1	73.3
200~299인	61.5	59.8	56.8	55.8	56.9	53.1	62.3	69.9
300~499인	62.8	58.9	61.1	59.6	61.1	53.2	63.8	80.4
500~999인	64.1	59.4	59.2	67.4	61.5	68.2	73.2	67.1
1000인 이상	63.7	56.9	52.1	45.1	62.8	68.5	60.2	90.3
300인 미만	55.6	53.0	53.4	53.1	54.4	52.8	53.2	58.9
300인 이상	63.6	57.9	57.7	56.5	62.2	64.1	64.8	84.8

주: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에서 자영업자 또는 자영업자+무급가족종사자로만 구성된 사업체 및 공무원 재직기관을 제외하고 재구성한 가공통계자료임.

출처: “사업체노동실태현황,” 고용노동부, 2023, 국가통계포털, 시도별, 산업별, 규모별, 사업체수 및 종사자수, 2025. 6. 10. 검색,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8&tblId=DT_118N_SAUPN72&conn_path=I3

〈부표 8〉 지역별 25~34세 청년층의 교육수준 분포(2020년)

(단위:%)

	고졸이하	대학 재학/수료/휴학	전문대 졸업	대학교 졸업	석박사 재학이상
전국	17.0	12.1	19.5	44.9	6.6
서울	12.4	11.4	16.0	50.3	9.8
광주	17.2	12.5	16.1	48.4	5.8
대전	15.6	11.8	16.5	44.5	11.5
울산	17.0	12.0	24.0	43.2	3.9

출처: “인구총조사”, 통계청, 2020, 국가통계포털, 성, 연령 및 교육정도, 교육상태별 인구(6세이상, 내국인)-시군구, 2025. 6.12. 검색,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PM2001&conn_path=I3

〈부표 9〉 평균 초혼연령(2000-2024년)

(단위: 세)

	전국		서울		광주		대전		울산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2000	29.3	26.5	29.7	27.3	29.0	26.2	28.9	26.3	29.1	26.2
2005	30.9	27.7	31.2	28.6	30.5	27.6	30.5	27.7	30.4	27.5
2010	31.8	28.9	32.2	29.8	31.7	29.0	31.6	29.0	31.4	28.9
2015	32.6	30.0	33.0	30.8	32.8	30.1	32.3	29.8	32.0	29.7
2020	33.2	30.8	33.6	31.6	33.4	30.7	33.0	30.6	32.7	30.3
2021	33.4	31.1	33.9	31.9	33.7	31.0	32.9	30.6	32.8	30.6
2022	33.7	31.3	34.2	32.2	33.7	31.1	33.3	30.9	33.3	30.8
2023	34.0	31.5	34.4	32.4	33.8	31.3	33.7	31.2	33.4	31.1
2024	33.9	31.6	34.3	32.4	33.8	31.5	33.3	31.2	33.4	31.4

출처: “인구동향조사,” 국가데이터처, 2024, 국가통계포털, 시도별 평균초혼연령, 2025. 10. 15. 검색,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83A05&conn_path=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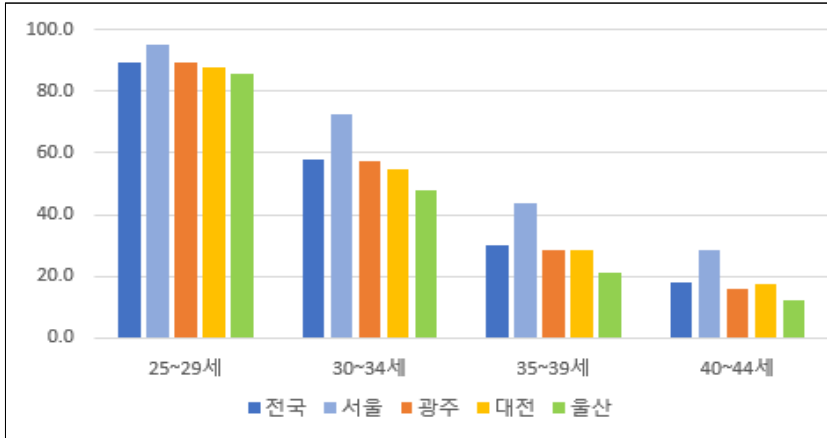
〈부표 10〉 지역별 합계출산율(2000-2024년)

(단위: 명)

시점	전국	서울	부산	인천	대구	광주	대전	울산
2000	1.48	1.28	1.24	1.47	1.38	1.64	1.50	1.63
2001	1.31	1.11	1.10	1.32	1.22	1.42	1.33	1.42
2002	1.18	1.01	0.98	1.19	1.08	1.26	1.21	1.24
2003	1.19	1.01	0.99	1.21	1.12	1.28	1.22	1.28
2004	1.16	1.02	0.95	1.16	1.09	1.20	1.18	1.24
2005	1.09	0.93	0.89	1.08	1.00	1.11	1.11	1.19
2006	1.13	0.98	0.92	1.12	1.01	1.15	1.16	1.24
2007	1.26	1.07	1.02	1.26	1.14	1.26	1.27	1.40
2008	1.19	1.01	0.98	1.19	1.07	1.20	1.22	1.34
2009	1.15	0.96	0.94	1.14	1.03	1.14	1.16	1.31
2010	1.23	1.02	1.05	1.21	1.11	1.22	1.21	1.37
2011	1.24	1.01	1.08	1.23	1.15	1.23	1.26	1.39
2012	1.30	1.06	1.14	1.30	1.22	1.30	1.32	1.48
2013	1.19	0.97	1.05	1.20	1.13	1.17	1.23	1.39
2014	1.21	0.98	1.09	1.21	1.17	1.20	1.25	1.44
2015	1.24	1.00	1.14	1.22	1.22	1.21	1.28	1.49
2016	1.17	0.94	1.10	1.14	1.19	1.17	1.19	1.42
2017	1.05	0.84	0.98	1.01	1.07	1.05	1.08	1.26
2018	0.98	0.76	0.90	1.01	0.99	0.97	0.95	1.13
2019	0.92	0.72	0.83	0.94	0.93	0.91	0.88	1.08
2020	0.84	0.64	0.75	0.83	0.81	0.81	0.81	0.98
2021	0.81	0.63	0.73	0.78	0.79	0.90	0.81	0.94
2022	0.78	0.59	0.72	0.75	0.76	0.84	0.84	0.85
2023	0.72	0.55	0.66	0.69	0.70	0.71	0.79	0.81
2024	0.75	0.58	0.68	0.76	0.75	0.70	0.79	0.8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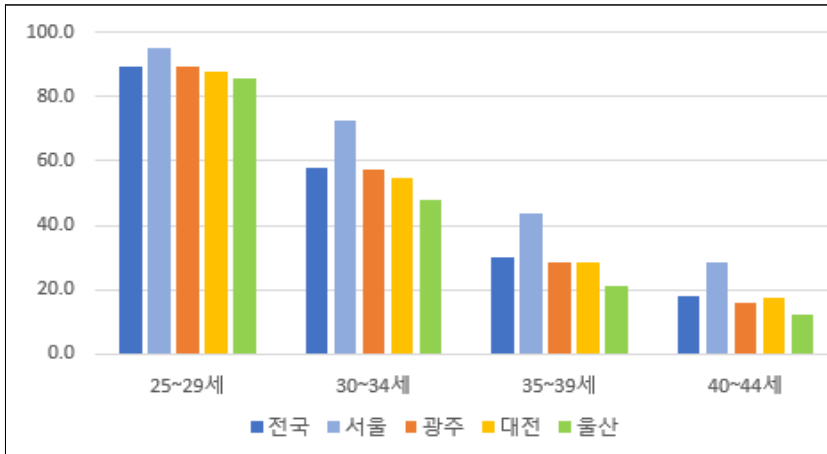
출처: “인구동향조사,” 국가데이터처, 2024e, 국가통계포털, 시도/합계출산율, 모의 연령별 출산율, 2025. 10. 15. 검색,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81A21&conn_path=I2

[부그림 4] 지역별 남성 미혼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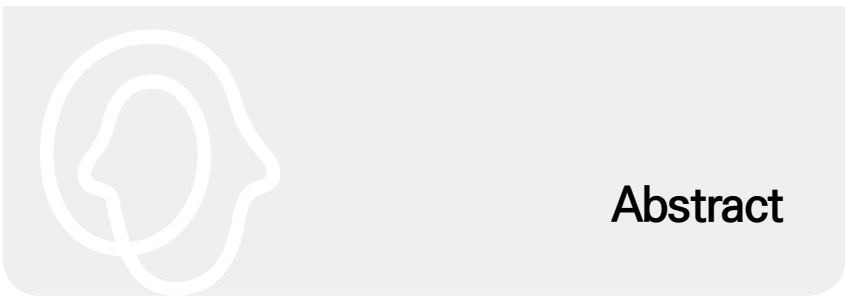


출처: “인구총조사,” 국가데이터처, 2024d, 국가통계포털, 성, 연령 및 혼인상태별 인구 - 시군구, 2025. 10. 15. 검색,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sso=ok&returnurl=https%3A%2F%2Fkosis.kr%3A443%2FstatHtml%2FstatHtml.do%3Fconn_path%3DI3%26tblId%3DDT_11N1503%26orgId%3D101%26

[부그림 5] 지역별 여성 미혼비율



출처: “인구총조사,” 국가데이터처, 2024d, 국가통계포털, 성, 연령 및 혼인상태별 인구 - 시군구, 2025. 10. 15. 검색,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sso=ok&returnurl=https%3A%2F%2Fkosis.kr%3A443%2FstatHtml%2FstatHtml.do%3Fconn_path%3DI3%26tblId%3DDT_11N1503%26orgId%3D101%26



Abstract

Regional Contexts of Family Formation and Implications for Ultra-Low Fertility

Project Head: Choi, Sunyoung

This study examines family formation among young adults in major cities outside the Seoul metropolitan area. It focuses on how young people envision and pursue family formation under constrained opportunity structures amid ultra-low fertility and youth outmigration.

The study selects three metropolitan cities—Ulsan, Daejeon, and Gwangju—with differing industrial structures and labor market conditions as case studies, and analyzes how local contexts shape family formation among young people using regional demographic and employment data alongside in-depth interviews with men and women in their twenties and thirties.

The findings show that economic conditions, such as employment and housing, interact with local cultural contexts, peer influences, and gender disparities in economic opportunities to shape young people’s family formation prospects and practices. It also finds that in all three regions a substantial number of young people face structural constraints in achieving a stable transition to adulthood. Under such

Co-Researchers: Yoo, Hyunmi · Kim, Ee-Sun · Ju, Hana

conditions, some delay or avoid family formation, while others express supportive attitudes toward marriage as a source of stability and intimacy.

Key words: Youth transitions; Family formation; Gendered local labor market; Low-fertility